



# 심청가 바디별전집3

정응민 바디 (성우향 창, 성창순 창)

Jeong Eung-min Version

Simcheongga

(Sung by Seong U-hyang, Seong Chang-sun)



## 심청가 바디별전집 3

2008년 12월 10일 인쇄

2008년 12월 15일 펴냄

지은이 || 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Thomas Christopher Cummings,  
Sumi Hong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Tel. 02-3704-9119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Tel. 063-280-2114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511-5 04810  
978-89-5925-508-5 (전4권)

한영  
대역

# 심청가

## 바다별전집3

##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작년에는 첫 번째로 〈춘향가〉 다섯 바탕을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심청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심청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작년에 〈춘향가〉 자막 프로그램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 칭찬과 격려가 올해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심청가〉, 2권은 〈박동실 바디 정순임 창 심청가〉와 〈김소희 바디 김소희 창 심청가〉, 3권은 〈정웅민 바디 성우향 창 심청가〉와 〈정웅민 바디 성장순 창 심청가〉, 4권은 〈정웅민 바디 윤진철 창 심청가〉로 되어 있다. 이 정도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심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의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에 인용되고 있는 시, 소설, 역사, 고사 등은 엄청난 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말 주석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은 또한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예술성까지를 살리는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번역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우리가 나섰다. 우선은 예술성을 살리는 것보다도 의미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번역을 보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다만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는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판소리가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만 했지,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성과물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예쁜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

2008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 차 례

### ■ 책머리에 • 4

#### \* 성우향 창

1. 심봉사 내력 .....	14
2. 곽씨부인 품팔이 .....	14
3. 기자 치성 .....	18
4. 심청 출생 .....	22
5. 남녀 확인 .....	24
6. 삼신 축원 .....	26
7. 곽씨부인 유언 .....	28
8. 곽씨부인 죽음 .....	34
9. 상여소리 .....	40
10. 평토제 .....	44
11. 심봉사 통곡 .....	46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	48
13. 젖동냥 .....	52
14. 심봉사 동냥 .....	56
15. 심청 부친 봉양 .....	58
16. 심청 걸식 .....	60
17. 시비 따라 .....	64

18. 심청 수양딸 거절 .....	66
19. 심봉사 물에 빠짐 .....	70
20. 심봉사 구출 .....	72
21. 공양미 시주 약속 .....	76
22. 심청 위로 .....	80
23. 심청 치성 .....	84
24. 남경선인 .....	86
25. 행선 전야 .....	90
26. 심봉사 만류 .....	94
27. 장승상부인 작별 .....	100
28. 선인 따라 .....	104
29. 범피중류 .....	108
30. 원혼 만남 .....	112
31. 인당수 투신 .....	118
32. 선인 탄식 .....	126
33. 심청 용궁행 .....	126
34. 모친 상봉 .....	132
35. 심청 환생 .....	134
36. 화초타령 .....	140
37. 천자 심청 발견 .....	142
38. 추월만정 .....	144
39. 맹인 잔치 마련 .....	148
40. 심봉사 딸 생각 .....	150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	152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	154

43. 뽕덕이네 도망 .....	160
44. 심봉사 탄식 .....	164
45. 심봉사 목욕 .....	166
46.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	172
47. 방아타령 .....	176
48. 안 씨 맹인 .....	180
49. 심황후 탄식 .....	184
50. 부녀 상봉 .....	186
51. 심봉사 개안 .....	190
52. 모든 맹인이 같이 눈뜬 .....	192
53. 심봉사 환호 .....	194
54. 단가 .....	198
55. 황봉사 .....	200
56. 후일담 .....	202

#### ＊ 성창순 창

1. 심봉사 내력 .....	258
2. 곽씨부인 품팔이 .....	258
3. 기자 치성 .....	262
4. 심청 출생 .....	264
5. 남녀 확인 .....	266
6. 삼신 축원 .....	268
7. 곽씨부인 유언 .....	270
8. 곽씨부인 죽음 .....	276
9. 상여소리 .....	280



10. 평토제 .....	286
11. 심봉사 통곡 .....	286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	288
13. 젖동냥 .....	292
14. 심봉사 동냥 .....	298
15. 심청 부친 봉양 .....	300
16. 심청 걸식 .....	302
17. 시비 따라 .....	306
18. 심청 수양딸 거절 .....	308
19. 심봉사 물에 빠짐 .....	312
20. 심봉사 구출 .....	316
21. 공양미 시주 약속 .....	320
22. 심청 위로 .....	324
23. 심청 치성 .....	326
24. 남경선인 .....	328
25. 행선 전야 .....	332
26. 심봉사 만류 .....	334
27. 선인 따라 .....	342
28. 범피중류 .....	346
29. 원혼 만남 .....	350
30. 인당수 투신 .....	352
31. 선인 탄식 .....	362
32. 심청 용궁행 .....	364
33. 모친 상봉 .....	368
34. 심청 환생 .....	372

35. 화초타령 .....	376
36. 천자 심청 발견 .....	380
37. 추월만정 .....	382
38. 맹인 잔치 마련 .....	384
39. 심봉사 딸 생각 .....	386
40.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	388
41. 뽕덕이네 가산 탕진 .....	392
42. 뽕덕이네 도망 .....	394
43. 심봉사 탄식 .....	398
44. 심봉사 목욕 .....	400
45.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	404
46. 방아타령 .....	408
47. 안 씨 맹인 .....	412
48. 심황후 탄식 .....	416
49. 부녀 상봉 .....	418
50. 심봉사 개안 .....	422
51. 모든 맹인 동시 개안 .....	424
52. 심봉사 환호 .....	426
53. 황봉사 .....	430
54. 후일담 .....	432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성우향 창

Sung by Seong U-hyang

##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스무 살 이후에 봉사가 되었다.

[아니리] 송나라<sup>1)</sup> 원풍<sup>2)</sup> 말년에 황주 도화동<sup>3)</sup>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명문거족<sup>4)</sup>으로 명성<sup>5)</sup>이 자자터니,  
가운<sup>6)</sup>이 불행하여 이십 후<sup>7)</sup> 안맹하니,<sup>8)</sup>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sup>9)</sup>  
강근현<sup>10)</sup> 친척 없어  
뉘라서<sup>11)</sup> 받드리오?  
그러나 그 아내 곽씨부인이 있는데,  
현철<sup>12)</sup>하고 암전하사<sup>13)</sup>  
주남,<sup>14)</sup> 소남,<sup>15)</sup> 관저시<sup>16)</sup>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가감<sup>17)</sup>이라.  
그 봉사 가장<sup>18)</sup>을 꼭 품<sup>19)</sup>을 팔아 받들 적에,

## 2. (곽씨부인 품팔이) 곽씨부인이 품을 팔아 가장을 보살핀다.

[자진모리] 샅바느질, 관대,<sup>20)</sup> 도복,<sup>21)</sup> 행의,<sup>22)</sup> 창의,<sup>23)</sup> 직령<sup>24)</sup>이며,  
섬수,<sup>25)</sup> 쾌자,<sup>26)</sup> 중치막<sup>27)</sup>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sup>28)</sup>  
상침질,<sup>29)</sup> 껴음질<sup>30)</sup>과  
외울뜨기,<sup>31)</sup> 패담<sup>32)</sup>이며,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fter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was Sim, and his first name wa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e can't serve in the government.

He did not have a close relative.

Who would respect him?

But he had a wife, Mrs. Gwak.

She was wise and intelligent.

She had a good understanding of classic books.

She could handle any work without a problem.

She supports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takes care of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ajin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official's, Toist's,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a headband and a bag.

고두누비,<sup>33)</sup>  
 솔오리기,<sup>34)</sup> 망건<sup>35)</sup> 꾸며  
 갓끈 집기, 배자,<sup>36)</sup>  
 토수,<sup>37)</sup> 보선,<sup>38)</sup> 행전,<sup>39)</sup> 포대,<sup>40)</sup> 허리띠, 대님,<sup>41)</sup>  
 줍치,<sup>42)</sup> 쌈지,<sup>43)</sup> 약낭<sup>44)</sup>에 필낭,<sup>45)</sup>  
 휘항,<sup>46)</sup> 볼치,<sup>47)</sup> 복건,<sup>48)</sup> 풍차<sup>49)</sup>이며,  
 천의,<sup>50)</sup> 주의,<sup>51)</sup> 갓인<sup>52)</sup> 금침,<sup>53)</sup>  
 베갯모<sup>54)</sup> 쌍원앙<sup>55)</sup> 수도 놓고,  
 오색 모사,<sup>56)</sup> 각대,<sup>57)</sup>  
 흉배<sup>58)</sup> 학 그리기,<sup>59)</sup>  
 궁초,<sup>60)</sup> 공단,<sup>61)</sup> 서주,<sup>62)</sup>  
 선주,<sup>63)</sup> 낙룡,<sup>64)</sup> 갑사,<sup>65)</sup>  
 운문,<sup>66)</sup> 토주,<sup>67)</sup>  
 갑주,<sup>68)</sup> 분주,<sup>69)</sup>  
 표주,<sup>70)</sup> 명주,<sup>71)</sup>  
 생초,<sup>72)</sup> 통견,<sup>73)</sup> 조포,<sup>74)</sup> 북포,<sup>75)</sup>  
 황저포,<sup>76)</sup> 춘포,<sup>77)</sup> 문포,<sup>78)</sup> 제추리<sup>79)</sup>며,  
 삼배, 백저,<sup>80)</sup> 극상세목<sup>81)</sup> 샅을 받고 말어 짜기,  
 청 · 황 · 적 · 백<sup>82)</sup> · 침향,<sup>83)</sup> 회색 각색으로다<sup>84)</sup> 염색허기,  
 초상난 집의 원삼,<sup>85)</sup> 제복,<sup>86)</sup>  
 혼장대사<sup>87)</sup> 음식 숙정,<sup>88)</sup>  
 갓은<sup>89)</sup> 증편,<sup>90)</sup> 중계,<sup>91)</sup> 약과,<sup>92)</sup>  
 박산,<sup>93)</sup> 과자에 다식,<sup>94)</sup> 정과,<sup>95)</sup> 냉면,  
 화채<sup>96)</sup>에 신선로,<sup>97)</sup> 각각 찬수,<sup>98)</sup> 약주 빚기,  
 수과련,<sup>99)</sup> 봉오림<sup>100)</sup>과  
 배상하기,<sup>101)</sup> 고임질<sup>102)</sup>을



She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patches and embroiders a headband.  
 She works on a string of a cylindrical hat, a female vest,  
 wristlets, socks, leggings, a ramie band, a belt, ankle bands,  
 a bag, a tobacco pouch, a money pouch, a brush pouch,  
 a long headgear, a muff, a cloth headgear, a fur headgear,  
 a small quilt, a topcoat, a quilt, a pillow,  
 a pillow end, a pair of mandarin ducks,  
 colorful woolen yarns, and a belt.  
 She embroiders nobilities' clothing with a figure of a crane.  
 She weaves a thin silk, a thick silk, a silk of high quality,  
 cloths, a silk for summer clothes,  
 a silk having a cloud figure, a silk cloth,  
 a fancy silk, a silk from a region,  
 a colorful silk, a silk without a figure,  
 a raw silk, a coarse silk, a narrow ramie cloth, a fine ramie cloth,  
 ramie cloths from different regions,  
 a white ramie cloth, and a fine cotton cloth to make money.  
 She dyes them with blue, yellow, red, white, yellowish brown,  
 and gray colors.  
 She makes clothes for a funeral and a uniform.  
 For a big event, such as marriage, she makes food:  
 a rice cake, an oily cake, a honey cake,  
 a thin candy, a kind of candy, fruit, a noodle,  
 a flower drink in a bowl, side dishes, and wine.  
 She prepares lotus flowers and flowery decorations.  
 She places food on a food table.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sup>103)</sup>이 다 진토록<sup>104)</sup> 품 팔아 모일 제,  
 푼<sup>105)</sup> 모아 돈<sup>106)</sup> 짓고, 돈 모아 양<sup>107)</sup> 만들어, 양을 지어서 관돈<sup>108)</sup>  
 되니,  
 일수,<sup>109)</sup> 체계,<sup>110)</sup> 장리변<sup>111)</sup>을 이웃집 사람들에게 착실한 곳 빛을 주  
 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향<sup>112)</sup>의 봉제사,<sup>113)</sup>  
 앞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 여일허니,<sup>114)</sup>  
 상하인리<sup>115)</sup>의 사람들,

### 3. (기자 치성) 곽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공을 드리 다가, 어느날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꾀다.

[아니리] 곽씨부인 어진 마음 뉘 아니 칭찬허리.  
 하루난 심봉사 먼 눈을 번쩍이며,  
 “여보, 마누라.  
 전생에 무삼<sup>116)</sup> 인연으로 이생<sup>117)</sup>에 나를 만나,  
 어린아이 받들 듯이 나를 이렇듯 공대<sup>118)</sup>허니,  
 나는 편타<sup>119)</sup>하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sup>120)</sup> 도리어 불안허오.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되,  
 마누라에게 극히 지원<sup>121)</sup>할 말이 있소.  
 우리 연당사십이나<sup>122)</sup>  
 슬하<sup>123)</sup> 일점혈육<sup>124)</sup>이 없어  
 선영<sup>125)</sup> 향화<sup>126)</sup> 꿇게 되고,  
 우리 사후<sup>127)</sup> 신세라도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뉘라서 받드리오?

Without taking a rest, she works hard as a day laborer.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goes up.  
She lends the money to good neighbors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People in neighboring villages praise her.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in her dream.**

[Aniri] Who wouldn't praise Mr. Gwak for being kindhearted?  
One day Mr. Sim blinks his blind eyes rapidly as he speaks.  
"Hello, honey.  
Your fate is bad to have met me in this life.  
You take good care of me like you would do a child.  
My life is easy.  
But I am worried that your life is hard.  
From now on, don't work too hard.  
I have something that I badly want to say to you.  
We are in our 40s now.  
Yet we don't have a child.  
Nobody will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Nobody will serve food and water for us after we die.

허니, 명산대찰<sup>128)</sup> 신공<sup>129)</sup>이라도 드러 남녀간에<sup>130)</sup> 하나만 보았으면,  
평생 한을 풀겠구만.”

곽씨부인 이 말 듣고 공손히 여짜오되,  
“불효삼천에 무후위대<sup>131)</sup>라 허였으니,  
뼈가 못도록<sup>132)</sup> 품을 판들 무슨 일을 못 하리까?  
거 지성껏<sup>133)</sup> 공을 한번 드려보지요.”

**[중모래]** 곽씨부인 그날부터 품 팔아 모은 재물, 원갓<sup>134)</sup> 공을 다 드  
릴 제,

명산대찰, 영신당<sup>135)</sup>과

고묘,<sup>136)</sup> 충사,<sup>137)</sup> 석왕사<sup>138)</sup>며,

석불,<sup>139)</sup> 미륵<sup>140)</sup> 서 계신 데 허유허유<sup>141)</sup> 다니시며,

가사시주,<sup>142)</sup> 인등시주,<sup>143)</sup> 창호시주,<sup>144)</sup>

시왕불공,<sup>145)</sup> 칠성불공,<sup>146)</sup> 나한불공,<sup>147)</sup> 가지가지 다 드리니,

공 든 답이 무너지며, 심든<sup>148)</sup> 남기<sup>149)</sup> 꺾어지랴.

갑자 사월 초과일야<sup>150)</sup>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sup>151)</sup>허고,

오채<sup>152)</sup>가 영롱허니,

하날의<sup>153)</sup> 선녀 하나 옥경<sup>154)</sup>으로 내려올 제,

머리 위에 화관<sup>155)</sup>이요, 몸에는 원삼<sup>156)</sup>이라.

계화가지<sup>157)</sup> 손에 들고

부인 전 배례<sup>158)</sup>하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 정신<sup>159)</sup>이 산상에<sup>160)</sup> 솟아난 듯,

남해 관음<sup>161)</sup>이 해중에<sup>162)</sup>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허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sup>163)</sup>를 반개허여<sup>164)</sup>

쇄옥성<sup>165)</sup>으로 말을 한다.

So please pray to gods in good places that we have a child,  
a boy or a girl.

Then, my lifelong wish will be fulfilled.”

Mrs. Gwak responds politely,

“The worst thing a child does to its parents is not to have a  
child.

I will make an effort to the degree that my bones wear down.  
I will do my best and pray hard to the gods.”

**[Jungmori]** Mrs. Gwak spends the money she earned as a day  
laborer to pray to the gods.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She travels to many places to pray to the statues of Buddha.  
She donates clothes, lamp oil, and papers to buddhist monks.  
She prays to the Ten Judges, the Ursa Major, and a Buddha's  
disciple.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from the capital city of heaven comes down.

She wears a flowery hat and silky clothe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o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next to her.

It looks as if a moon soared above a mountain,  
and as i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rose up from the sea.

Mrs. Gwak is in awe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elegant goddess exposes the half of her white teeth.

She speaks with a beautiful voice.

“소녀는 서왕모<sup>166</sup>) 딸일러니,  
 반도<sup>167</sup>) 진상<sup>168</sup>) 가는 길에,  
 옥진비자<sup>169</sup>) 잠깐 만나 수어<sup>170</sup>) 수작<sup>171</sup>)을 허옇다가,  
 시각이 조끔<sup>172</sup>) 늦은 고로<sup>173</sup>) 상제<sup>174</sup>)께 득죄하여,<sup>175</sup>)  
 인간<sup>176</sup>)에 내치시매<sup>177</sup>)  
 갈 바를 몰랐더니,  
 태상노군,<sup>178</sup>) 후토부인,<sup>179</sup>) 제불보살,<sup>180</sup>)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왔사오니,  
 어여뻐 여기소서.”  
 품 안으로 달려들어,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일몽<sup>181</sup>)이라.

#### 4. (심청 출생) 곽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 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레] 양주<sup>182</sup>) 몽사<sup>183</sup>) 의논허니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날부터 태기<sup>184</sup>)가 있으니,  
 [중중모리] 석부정부좌,<sup>185</sup>) 할부정불식,<sup>186</sup>) 이불청음성<sup>187</sup>) 목불시악  
 색<sup>188</sup>) 좌불중석,<sup>189</sup>)  
 십삭일<sup>190</sup>)이 찬 연후,<sup>191</sup>) 하루는 해복<sup>192</sup>) 기미가 있으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심봉사 거동을 보소.  
 일편은<sup>193</sup>) 반갑고, 일편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짚 한 주먹을 쭉쭉 추려<sup>194</sup>)

“I am an adopted daughter of a goddess.  
I was on my way to offer a divine peach.  
I talked briefly with another goddess on my way back.  
I was a little late, which amounted to a crime to the King of Heaven.  
He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s.  
I was at a loss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uddha, and saints recommended that I go to you.  
So I am here.  
Please accept me.”  
The goddess runs into Mrs. Gwak’s bosom.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from the dream.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gets pregnant.  
She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daughter.**

[Aniri] The husband and wife realize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From the day on, Mrs. Gwak shows the sign of pregnancy.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bad colors, and the middle seat.

After ten months passed, one day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Behold Mr. Sim.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runs out of the house.

He picks a handful of straws.

정화수<sup>195)</sup> 새 소반<sup>196)</sup>에 받쳐놓고,  
좌불안석<sup>197)</sup> 급한 마음 순산<sup>198)</sup>하기를 기다릴 제,  
향취<sup>199)</sup>가 진동허고, 채운<sup>200)</sup>이 두르더니,  
혼미 중<sup>201)</sup> 탄생허니, 선인옥녀<sup>202)</sup> 딸이라.

## 5. (남녀 확인) 심봉사가 아이를 더듬어 보고 딸인 것을 확인하자, 꼭씨부인이 섭섭해 한다.

[아니레] 눈 있는 사람 같으면 애기 날 때 남녀 분간을 하련만은,<sup>203)</sup>  
눈 없는 맹인이라 보아 알 수 있나?  
남녀 분간하려고 위에서부터 더듬어 내려가는데,  
꼭 유장꾼<sup>204)</sup> 좀장<sup>205)</sup> 줄라 내려가듯 허것다.  
'가만 있거라.  
아이고, 이놈이 머리가 이렇게 크니,  
두대왈장군<sup>206)</sup>이지.  
어허, 이놈이 앞가슴이 떡 벌어졌으니,  
이 놈이 바로 기운 조각<sup>207)</sup>이나 쓰졌고,  
아이고, 이놈이 배가 이렇게 부르니,  
부자될 놈이 틀림없지.  
가만 있거라.  
내가 여기서 거침이 있어야 망정이지,  
만일 거침이 없이 내려가면 내 신세는 탈이다.'  
나룻배 지나가듯 그냥 미끈덕<sup>208)</sup> 내려가니,  
기가 막혀,  
“아마, 마누라같은 사람 낳았나 보오”



They put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Mr. Sim is not at ease, and hopes that she has an easy birth.  
Fragrance lingers, and clouds of diverse colors drift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5. (Identification of the Girl) Mr. Sim touches the baby  
and learns that she is a girl. Mrs. Gwak is  
disappointed.**

[Aniri] If Mr. Sim were sighted, he would know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Since he is blind, he can't tell.

To check the gender, his hand goes down from the top.

His hand stops in some places as it goes down.

'Let me see.

Gee, this baby has a large head.

It will become a military general later.

Gee, this rascal has a broad chest.

This rascal will be strong later.

Gee, this rascal has a large belly.

It must become rich later.

Let me see.

There should be a hinderance here.

If my hand goes down without any resistance, my fate will have  
a hitch.'

His hand passes down the slippery place like a ferry.

Mr. Sim is stunned.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곱씨부인 서운하여,  
 “만득<sup>209)</sup>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허오.”  
 심봉사 곱씨부인을 위로하느니,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sup>210)</sup>할 것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 못난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의범절<sup>211)</sup> 잘 가르쳐, 군자호구<sup>212)</sup> 좋은 배필,  
 수부귀다남<sup>213)</sup>허게 되면, 외손봉사<sup>214)</sup>는 할 수 없간디?<sup>215)</sup>  
 삼신<sup>216)</sup> 제왕님<sup>217)</sup>이 듣고 화<sup>218)</sup> 내실라고?  
 당최<sup>219)</sup> 그런 말 마오.”  
 첫국밥<sup>220)</sup> 얼른 지어 삼신상<sup>221)</sup>에 받쳐놓고 비는데,  
 이런 사람<sup>222)</sup> 같으면은 오직 조용히 빌련마는,  
 심봉사가 맹인이라 팩성<sup>223)</sup>이 있어,  
 삼신<sup>224)</sup> 제왕님네<sup>225)</sup>가 삼천구만리<sup>226)</sup>나 도망허게 빌것다.

## 6.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자진모리] “삼십삼천<sup>227)</sup> 도술천<sup>228)</sup> 삼신 제왕님네,  
 화위동심<sup>229)</sup>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 후에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sup>230)</sup>  
 석 달에 피 어리고,<sup>231)</sup>  
 녀 달에 인형<sup>232)</sup> 삼겨,<sup>233)</sup>  
 다섯 달 오포<sup>234)</sup> 낳고,<sup>235)</sup>

Mrs. Gwak is disappointed.  
 "To my chagrin, the child is a girl."  
 Mr. Sim consoles Mrs. Gwak.  
 "Honey, don't say that.  
 A bad son can be a disgrace even to ancestors.  
 A good daughter is better than a bad son.  
 Let's raise this girl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 and find a good man for her.  
 If she lives happily, her sons may hold a ritual for us.  
 You might anger the gods who sent this girl to us.  
 So don't say that again."  
 He cooks rice and soup for the gods and prays to them.  
 A normal person would pray softly.  
 But Mr. Sim, being blind, is petulant.  
 He prays so loudly that the gods might run away from him.

## **6. (Pray to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gods for the well-being of his daughter.**

[Jajinmori] "All gods in all heavens!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I had a child after forty.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여섯 달에 육경<sup>236)</sup> 삼겨,  
 일곱 달에 칠규<sup>237)</sup>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규<sup>238)</sup> 열려,  
 열 달만에 찬 짐 받아,<sup>239)</sup>  
 금강문,<sup>240)</sup> 하달문<sup>241)</sup> 고이 열어서  
 순산하니,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난망<sup>242)</sup> 잊으리까?  
 다만 독녀<sup>243)</sup> 딸이오나,  
 동방삭<sup>244)</sup>의 명을 주고  
 태임<sup>245)</sup>의 덕행이며,  
 대순,<sup>246)</sup> 증자,<sup>247)</sup> 효행이며,  
 길량의 처<sup>248)</sup> 절행이며,  
 반희<sup>249)</sup>의 재질<sup>250)</sup>이며,  
 석승<sup>251)</sup>의 복을 주어  
 외 분뚝<sup>252)</sup> 달 분뚝<sup>253)</sup> 잔병<sup>254)</sup> 없이 잘 자라나  
 일취월장<sup>255)</sup>허게 허옵소서.”

## **7.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될 줄을 안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한다.**

[아니리] 첫국밥<sup>256)</sup>을 먹였구나.  
 이때 곽씨부인, 산후<sup>257)</sup> 수발<sup>258)</sup>해 줄 사람 없어,  
 찬물로 빨래허기, 과로<sup>259)</sup>를 너무 하였더니,  
 뜻밖에 산후별증<sup>260)</sup>이 나,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her head.  
In the eighth month,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received a cold energy.  
The firm door was open beautifully.  
It was an easy birth.  
I am eternally grateful to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child.  
Please help her to live long.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virtuous!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fortunate!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7. (Mrs. Gwak's Last Words) Mrs. Gwak says her last words, knowing that she will die of a childbirth complication.**

[Aniri] Mr. Sim gives the rice and the soup to Mrs. Gwak.  
There is nobody to serve Mrs. Gwak after childbirth.  
She works too hard, washing clothes in cold water.  
Unexpectedly, she has a childbirth complication.

사대삭신<sup>261</sup>) 육천 마디 아니 아픈 데가 전혀 없구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꼭씨부인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진양조] 가군<sup>262</sup>)의 손길 잡고 유언하고 죽드니라.

“아이고, 여보 가군님,<sup>263</sup>)

내 평생 먹은 마음, 앞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백년<sup>264</sup>) 봉양타가,  
불행 망세<sup>265</sup>) 당히오면 초종장사<sup>266</sup>)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잖더니,<sup>267</sup>)

천명<sup>268</sup>)이 이뿐인가,

인연이 끊쳤는지<sup>269</sup>)

하릴없이<sup>270</sup>) 죽게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앞 어두신<sup>271</sup>) 우리 가장 험 옷 뉘랴<sup>272</sup>) 지어주며,

조석공대<sup>273</sup>) 뉘랴 허리?

사고무친<sup>274</sup>) 혈혈단신<sup>275</sup>) 의탁<sup>276</sup>)할 곳 바이 없어,<sup>277</sup>)

지팽막대<sup>278</sup>)를 홀어 짚고<sup>279</sup>) 더듬더듬 다니시다,

굴형<sup>280</sup>)에도 떨어지고,

돌에 채여 넘어져서

신세자탄<sup>281</sup>) 우는 모양 내 눈으로 본 듯하고,

기한<sup>282</sup>)을 못 이기어 가가문전<sup>283</sup>) 다니시며,

‘밥 좀 주오.’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난 듯,

나 죽은 혼백<sup>284</sup>)인들 차마 어이 듣고 보리?

명산대찰<sup>285</sup>) 신공<sup>286</sup>) 들여

사십 이후 낳은 자식,

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모르고, 죽단 말이 웬 일이오?

All of her muscles and joints ache.  
 "My legs hurt! My arms hurt!"  
 Mrs. Gwak realizes that she won't live much longer.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and says her last words.  
 "Oh, my darling!  
 I was determined to take good care of my blind husband until he dies.  
 If you die, I wanted to follow you after I finish the funeral service.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How can I close my eyes on you?  
 Who would make old clothes for my blind husband?  
 Who would serve you with meals?  
 You have no relative and nobody to turn to.  
 You will travel aroun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cane.  
 You will fall into a pit.  
 You will fall over because of a stone.  
 I can see you cry and lament over your fate.  
 You will beg around to overcome hunger and the cold.  
 'Please give me some food.'  
 I feel like I hear your plaintive voice.  
 It will be hard for my soul to watch you.  
 I prayed in buddhist temples on famous mountains.  
 I had a child after forty.  
 I didn't even give her the milk.  
 I can't believe I am dying without even seeing her face.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멀고먼 황천길을 눈물 겨워 어이 가며, 앞이 막혀 어이 가리?  
 여보시오, 가군님.  
 뒷마을 귀덕어미 절친하게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젓 좀 먹여 달라하면, 팔시<sup>287)</sup> 아니 허오리다.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제 발로 걷거들랑,<sup>288)</sup> 앞을 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묘 앞을 찾아와서,  
 ‘악아,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분묘<sup>289)</sup>로다.’  
 가르쳐 모녀상면<sup>290)</sup>을 하게 허오.  
 혈 말은 장차 무궁<sup>291)</sup>허나,  
 숨이 가빠서<sup>292)</sup> 못 하겠소.”  
**[중모레]** “아차 아차, 내 잊었소,  
 저 아이 이름일랑 청이라고 불러주오.  
 저 주라고<sup>293)</sup> 지은 굴레,<sup>294)</sup> 오색 비단  
 금자<sup>295)</sup> 박어,  
 진옥관<sup>296)</sup> 홍사<sup>297)</sup> 수실<sup>298)</sup>  
 진주 느림<sup>299)</sup> 부전<sup>300)</sup> 달아  
 신행함<sup>301)</sup>에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라에서 하사허신<sup>302)</sup> 크나큰 은돈 한 푼,  
 수복강녕<sup>303)</sup> 태평안락<sup>304)</sup> 양편에<sup>305)</sup> 새겼기로,  
 고운 홍전<sup>306)</sup> 괴불쭈치<sup>307)</sup> 끈을 달아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 찌던<sup>308)</sup> 옥지환<sup>309)</sup>이 손에 적어 못 찌기로  
 농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끼워주오.”



Many things occur in my mind.  
Tears prevent me from going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My dear husband!  
I got along with Mrs. Gwideok in the neighboring village.  
She would not decline if you ask her to give some milk to this  
baby.  
If this child survives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Dear, this is the tomb of your mom.'  
Le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see each other.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feel short of breath."

**[Jungmori]** "Oh, there is one thing I forgot.  
Please call this child Cheong.  
I made a hat for her with the colorful silk.  
A golden letter is embroidered on it.  
A jade plate with a red silky thread is on it.  
A pearl ornament hangs on it.  
It is in a marriage box.  
Please put the hat on her.  
I was once awarded a silver coin from the government.  
On both sides are figures representing longevity, health, peace,  
and happiness.  
I made a bag with red woolen cloth to carry the coin in.  
Please put the bag on her.  
The jade ring I used to wear became small for me.  
I kept it in the wardrobe.  
Please put the ring on her too."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낮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새끼야.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내가 진즉<sup>310</sup> 삼기거나,<sup>311</sup>  
 내가 조끔<sup>312</sup>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가이없<sup>313</sup> 궁천지통<sup>314</sup>을 일로<sup>315</sup> 허여 품게 되니,  
 죽난<sup>316</sup>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sup>317</sup> 무삼<sup>318</sup> 죄냐?  
 내 젓 망종<sup>319</sup>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 겨워<sup>320</sup> 부는 바람 삼삼비풍<sup>321</sup> 되어 불고,  
 눈물 맺혀 오는 비는 소소세우<sup>322</sup>가 되었어라.  
 폭각질<sup>323</sup> 두세 번에 숨이 덜컥<sup>324</sup> 지는구나.

## 8. (곽씨부인 죽음)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한다.

[아니리] 그 때에 심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인명은 재천인디,<sup>325</sup>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까?  
 내 의가<sup>326</sup>에 가 약을 지어 올 것이니  
 부대<sup>327</sup> 안심허오.”  
 심봉사 급한 마음 약방을 찾아가 약을 지어가지고 돌아와,

Mrs. Gwak sighs and turns over.  
She hugs her baby and rubs her face.  
“Oh my baby.  
Heaven is cruel to us.  
Gods are heartless to u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longer.  
I die right after you are born.  
So our limitless sorrow rises up to heaven.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are pitiful.  
Eat my last milk as much as you can.”  
She slowly releases her baby.  
A wind mourning her death becomes a plaintive wind.  
A tearful rain becomes a drizzling rain.  
After a few hiccups, she does not breathe anymore.

## **8. (The Death of Mrs. Gwak) Mr. Sim bewails, after realizing that his wife has died.**

[Aniri] Meanwhile,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My sweetheart,  
A human life depends on heaven.  
Not all sick people die.  
I will go and get medicine from a doctor.  
You will be all right.”  
Mr. Sim hurriedly goes to a pharmacy and comes back with medicine.

수일선전단복<sup>328)</sup>에 얼른 달여 짜 들고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자시오.<sup>329)</sup>  
 이 약 잡수시면, 즉효<sup>330)</sup>한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이 있으리오?  
 ‘어허, 식음<sup>331)</sup>을 전폐터니<sup>332)</sup>  
 기허<sup>333)</sup>하여 이러나?’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궁기<sup>334)</sup> 찬 짐<sup>335)</sup>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심봉사가 미치는디,  
 설움이란 게 어지간하여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설움이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sup>336)</sup> 울도<sup>337)</sup> 못하고, 뛰고 미치는 것이  
 었다.  
**[중중모리]** 심봉사 기가막혀, 쏘다 절컹<sup>338)</sup>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방바닥에다 내던지며,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이거 웬 일이냐?  
 약 지러<sup>339)</sup> 갔다오니, 그 새에<sup>340)</sup> 죽었네.  
 병불능살인<sup>341)</sup>이요,  
 약능활인<sup>342)</sup>이라더니,  
 약이 되려<sup>343)</sup>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러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있어, 서천서역<sup>344)</sup> 연화세계<sup>345)</sup> 환생차로<sup>346)</sup> 진언<sup>347)</sup>  
 외고, 염불이나 허여 줄 곁.

He boils the medicine quickly and comes into the room.  
“Honey, sit up and take this medicine.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Dear, you did not eat or drink at all.  
Are you silent because you are weak?’  
He touches her to sit her up.  
Her waist is stiff.  
Her limbs are loose.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she is dead.  
He goes crazy.  
A moderate sorrow would produce cries and tears.  
Too much sorrow would make a person not cry but go wild  
and crazy.

**[Jungjungmori]** Mr. Sim, dumfounded, stands up, and slumps  
down.  
He throws the medicine dish on the floor.  
“Alas! Darling!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ou died while I was away for medicine.  
They say that illness can’t kill a person,  
and medicine can save a person.  
But medicine is my enemy.  
If I had known you were dying, I should not have gone for  
the medicine.  
I should have stayed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are reborn  
in heaven.

절통하고 분허여라.”

가삼<sup>348</sup>) 광광 뛰다려,<sup>349)</sup>

목제비질<sup>350)</sup>을 덜컹,

내리궁굴<sup>351)</sup> 치궁굴<sup>352)</sup>며,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지 선달 설한풍<sup>353)</sup>에 무얼 입혀 길러내며,

뉘 젓 먹여 길러낼까?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돌건마는,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오려나?

삼천벽도<sup>354)</sup> 요지연<sup>355)</sup>의 서왕모<sup>356)</sup>를 따라가?

황릉묘<sup>357)</sup> 이비<sup>358)</sup>한테 회포말<sup>359)</sup>을 하러 가?

천상의<sup>360)</sup> 죄를 짓고, 공을 닦으려<sup>361)</sup> 올라가?

나는 뉘를 따라 갈거나!”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져,<sup>362)</sup>

“아이구, 동네 사람들.

차소위<sup>363)</sup> 계집 추는<sup>364)</sup> 놈은 미친 놈이라 허였으나,

현철<sup>365)</sup>허고 암전한 우리 곱씨가 죽었소!”

방으로 우루루 들어가,

마누라 목을 덥석<sup>366)</sup> 안고, 코를 빨고 흔들며,

“아이고, 마누라! 참으로 죽었는가?

채담<sup>367)</sup>으로 이러나? 농담으로 이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나!

내 신세를 어찌라고,

이 죽음이 웬 일인가?”

I feel sad and angry”  
He hits his chest hard with his fists.  
His head falls down fast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tumbles over up and down.  
“My dear!  
How can you die on the baby?  
What should I put on her in cold winter?  
Whose milk should I give to her?  
A flower falls down and comes back.  
The sun sets and rises back.  
But if my wife goes now, when can she come back?  
Did she go to the goddess having a peach party near a pond?  
Did she go to the two ancient queens to tell her deep story?  
Did she go to heaven to repay her wrongdoing?  
Whom should I follow?”  
He goes out and falls over on the yard.  
“Hey, villagers!  
A man praising his wife is said to be crazy.  
But my wise and courteous wife has died!”  
He runs into the room.  
He hugs her neck swiftly and rubs her nose.  
“Oh my dear! Are you really dead?  
Is this a witty remark or a joke?  
Alas! What should I do now?  
What will become of my life?  
I can’t believe you died.”

## 9.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곽씨부인의 상여소리를 하며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sup>368</sup>)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찌시랴오?”  
곽씨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제례<sup>369</sup>)를 맞추는데,  
곽씨 시체 소방상<sup>370</sup>) 대뜰<sup>371</sup>) 위에 덩그렇게<sup>372</sup>) 올려놓고  
발인제<sup>373</sup>)를 지내는데,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중천.”<sup>374</sup>)  
명정,<sup>375</sup>) 공포<sup>376</sup>) 삽선<sup>377</sup>) 등물<sup>378</sup>) 좌우로 갈라 세우고  
운상<sup>379</sup>)을 하여 가는데,  
운상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  
그러나 망노이가<sup>380</sup>)라 하였으니, 상부소리<sup>381</sup>)를 하고 나가는데,  
[중모리] 요령<sup>382</sup>)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념차 너화념.”<sup>383</sup>)  
“북망산천<sup>384</sup>)이 어디메냐?  
저 건너 안산<sup>385</sup>)이 북망이로다.”  
“어념차 너화념.”  
“현철허신 곽씨부인 행실도 얹전허고,  
재질<sup>386</sup>)이 특수터니마는<sup>387</sup>) 허망하게도 죽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춘초<sup>388</sup>)는 연년록<sup>389</sup>)이나  
왕손<sup>390</sup>)도 귀불귀<sup>391</sup>)로구나.”



## 9.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as they carry Mrs. Gwak's bier forward.

[Aniri] The villagers get together.

"Hello, Mr. Sim.

A dead person cannot come back to life.

If you follow the dead person, what would become of the baby?"

Mrs. Gwak was virtuous.

So villagers come and prepare for a funeral.

Mrs. Gwak's body is in a small coffin in front of the room.

They hold a ritual.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A banner with her name, a hemp towel, and planks are on the left and right.

They carry the bier forward.

Would they sing a song while carrying the bier?

To forget the hard labor, they sing the bier song, moving forward.

[Jungmori] A bell rings: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Where is the mountain of the dead?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Mrs. Gwak was wise and courteous.

She was well-talented, but she died to our dismay."

"Yo-ho! Yo-ho!"

"Grass becomes green every spring.

But even royal descendants can't revive from death."

“어념차 너화념.”

“새벽 종달이<sup>392)</sup> 쇠길<sup>393)</sup> 떠,  
서천<sup>394)</sup> 명월<sup>395)</sup>이 밝아온다.”

“어념차 너화념.”

“물가 가재는 뒷걸음질 치고,  
다람쥐 앉아서 밤을 줍는다,  
원산<sup>396)</sup> 호랑이 술주정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인경<sup>397)</sup> 치고 파루<sup>398)</sup>를 치니,  
각 댕 하님<sup>399)</sup>이 개문<sup>400)</sup>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그때여 심봉사는 어린 아이를 강보<sup>401)</sup>에 싸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꼭 죽어도 굴관<sup>402)</sup> 제복<sup>403)</sup> 얻어 입고,  
상부<sup>404)</sup> 뒤채<sup>405)</sup> 검쳐잡고,<sup>406)</sup>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산첩첩노망망<sup>407)</sup>에

다리 아퍼서 어이 가며,

일침침노명명<sup>408)</sup>에

주점<sup>409)</sup>이 없어서 어이 가리?

부창부수<sup>410)</sup> 우리 정분<sup>411)</sup>

날과<sup>412)</sup> 함께 가사이다.”<sup>413)</sup>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어념차 너화념.”

“Yo-ho! Yo-ho!”

“A skylark flies high in the morning sky.

A bright moon rises in the west sky.”

“Yo-ho! Yo-ho!”

“A crayfish walks back into the water.

A squirrel picks up chestnuts.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Yo-ho! Yo-ho!”

“A large bell rings, announcing a curfew.

A maid opens a gate in each house.”

“Yo-ho! Yo-ho!”

Meanwhile, Mr. Sim wraps the baby with a small blanket.

He leaves her in the care of Mrs. Gwideok.

He wears a funeral uniform he borrowed.

He grabs the end of the bier.

“Oh my dear!

Where are you going, leaving me behind?

Let me go with you.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will we go when our legs hurt?

The sun sets, and it is dark on the road.

How can we go when there is no inn?

A wife is to follow her husband.

Let's go together.”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중중모리] “어니, 어허너,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여보소, 상부꾼들,<sup>414)</sup>

이 내 한 말을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길ियो,

내가 죽어도 이 길이로다.”

“어넘차 너화님.”

“현철 허신 곱씨 부인, 불쌍히도 떠나셨네.”

“어넘차 너화님. 어니 어니 어니 어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 10.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는다.

[아니리] 산천에 올라가

고이 안장<sup>415)</sup>헌 연후

평토제<sup>416)</sup>를 지내 제,

심봉사가 삼십 전<sup>417)</sup> 맹인이라

배운 것 있어, 축문<sup>418)</sup>을 지어

신세자탄으로 독축<sup>419)</sup>을 허는디,

“차호 부인,<sup>420)</sup> 차호 부인,

요차요지숙녀혜여.<sup>421)</sup>

상불고이 고인이라.<sup>422)</sup>

기백년이해로<sup>423)</sup>터니,

홀연몰혜언귀오?<sup>424)</sup>

유치자이영서허니,<sup>425)</sup>

**[Jungjungmori]** “Oh, how can we go?  
 Yo-ho! Yo-ho!”  
 “Hello, pallbearers!  
 Please listen to me.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Yo-ho! Yo-ho!”  
 “Mrs. Gwak, who was wise, died tragically.”  
 “Yo-ho! Yo-ho! Yo-ho! Yo-ho!”  
 How can we go? Yo-ho! Yo-ho!”

## 10. (Burial Ritual) Mr. Sim composes and reads a burial ode.

**[Aniri]** They move up on a mountain.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Mr. Sim became blind before thirty.  
 He is learned, so he composes an ode.  
 He reads the ode, lamenting over his lot.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r virtue is equal to that of ancient people.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You suddenly died. How can you come back?  
 You left for good, leaving a child behind.

이걸 어이 길러내며,  
누산산이침금혜여,<sup>426)</sup>  
지난<sup>427)</sup> 눈물 피가 되고,  
심경경이소흔혜여,<sup>428)</sup>  
살 길이 전혀 없네.”

## 11.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무덤 앞에서 통곡한다.

[진양조] “주과포혜<sup>429)</sup> 박전이나<sup>430)</sup>  
만사<sup>431)</sup>를 모두 잊고, 많이 먹고 돌아가요.”  
무덤을 검쳐<sup>432)</sup> 안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요.  
마누라는 나를 잊고, 북망산천<sup>433)</sup> 들어가  
송죽<sup>434)</sup>으로 울<sup>435)</sup>을 삼고,  
두견<sup>436)</sup>이 벗을 삼아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어이 허리?  
노이무처환부라니<sup>437)</sup>  
사궁<sup>438)</sup> 중에 첫머리요,  
아들 없고, 앞 못 보니,  
몇 가지 궁이 되단 말가?”<sup>439)</sup>  
무덤을 검쳐 안고,  
내리둥굴 치둥굴며  
함께 죽기로만 작정을 한다.

I don't know how I will raise her.  
Tears scatter down, soaking my clothes.  
My falling tears become blood.  
I became insane due to ceaseless worries.  
I don't know how to live on."

### 11. (The Wail of Mr. Sim) Mr. Sim wails in front of the grave.

[Jinyangjo] "The food is not good,  
but forget all the trouble and help yourself, before you go back."  
He hugs the tomb.  
"My wife!  
Where did you go?  
You left me and entered the world of the dead.  
For you, pines and bamboos are a fence.  
A cuckoo is your friend.  
You lied down, having forgotten me.  
What will become of my life?  
I am old and don't have a wife.  
I have the first of the four miseries.  
Besides, I don't have a son, and I am blind.  
How many miseries do I have?"  
He hugs the tomb.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가 밤 새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아니리] 이렇듯 통곡하니,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여,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찌랴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하릴없이<sup>440</sup> 동인들<sup>441</sup>께 백배치하<sup>442</sup> 하직하고,

[중모리]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적막허고,

방 안은 텅 비었는디,

심봉사 실성발광<sup>443</sup> 미치는구나.

얼싸덜싸<sup>444</sup>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팡막대<sup>445</sup> 홀어 짚고<sup>446</sup>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sup>447</sup>이 바이없네.<sup>448</sup>

방으로 들어가 쑥내 향내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 울 제,

그때에 귀덕어미 아이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이로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십시오.”

“거, 귀덕어민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줌 주소.”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자탄<sup>449</sup>헐 제,



**12. (Mr. Sim Soothes his Crying Daughter) Mr. Sim  
back home laments while soothing his crying  
daughter all night.**

[Aniri] Mr. Sim wails, and the villagers calm him down.  
“What would become of the little child if you follow the dead  
wife?

Let’s go back home.”

Mr. Sim shows gratitude to the villagers and says goodbye to  
them.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He goes wild and crazy.

He dances and laughs as if he were out of his mind.

Mr. Sim goes to the neighboring house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lady! Is my wife here?”

He calls out to his wife,

but there is not a trace of her.

He goes back into the room and turns on the mugwort incense.

He calls his wife and bewails loudly.

At that moment, Mrs. Gwideok comes in with the baby in her  
arms.

“Hello, Mr. Sim,

Think about this baby and calm down.”

“Are you Mrs. Gwideok?

Let me see the baby.

Please come here often and give her milk.”

Mrs. Gwideok goes back over.

Mr. Sim holds the baby in his arms and sighs alone.

원춘<sup>450</sup>)에 닭이 울고,  
 찬 바람은 스르르르.  
 강보<sup>451</sup>)에 싸인 자식은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기가막혀 우는 아이를 안고 앉어,  
 “우지 마라, 내 자식아.  
 너의 모친 먼 데 갔다.  
 낙양동춘<sup>452</sup>) 이화정에 숙낭자<sup>453</sup>)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sup>454</sup>) 오신 혼백 이비<sup>455</sup>) 부인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마는<sup>456</sup>) 날은 모르겠다.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강목수생<sup>457</sup>)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제 “응아, 응아.”  
 심봉사 화가 나서 안았던 아이를 방바닥에다 메다치며,<sup>458</sup>  
 “죽어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sup>459</sup>) 안에 어미를 잃어야?<sup>460</sup>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악아,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A rooster cries from a distant village.  
A cold wind blows.  
The baby in the small blanket cries from hunger.  
Mr. Sim is dumbstruck and holds the baby in his arms.  
“Don’t cry, my baby.  
You mother went away.  
She went to see an ancient virtuous woman.  
She went to see the souls of two famous ancient queens.  
There is a day of going, but I have no idea about the day of  
coming back.  
Are you crying because you know your mother died?  
Are you crying because you are hungry?  
Don’t cry. Don’t cry. Don’t cry.  
Water doesn’t come out of a dry tree.  
Am I holding milk back from you?”  
The baby only responds with cries.  
Mr. Sim gets angry and pushes the baby on the floor.  
“Die! Die quickly!  
How good your fate is to kill your mom seven days after birth!  
If you die, I will die too.  
If I die, you can’t live.”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again.  
“Honey, don’t cry.  
If the day breaks, I will beg some milk for you.  
Don’t cry, my little girl.”

### 13. (젓동냥) 날이 밝자 심봉사가 우물가에 가서 젓을 얻어 먹인 후, 좋아한다.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sup>461)</sup>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홀어 짚고,<sup>462)</sup>  
더듬더듬 나갈 적에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초칠<sup>463)</sup> 안에 어미 잃고  
기허<sup>464)</sup>허여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sup>465)</sup>인들 아니 주며, 도척<sup>466)</sup>인들 아니 주랴.  
젓을 많이 먹여 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sup>467)</sup>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sup>468)</sup>  
이집 저집 다닐 적에,  
삼베 질쌈<sup>469)</sup> 허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13. (Begging Milk) After the day breaks, Mr. Sim is delighted, getting milk from women around a well.**

**[Jungjungmori]** Mr. Sim goes out quickly after hearing bucket sounds from the well.

He holds the baby with one hand and a cane loosely with the other hand.

He moves forward unsteadily to the well.

“Hello ladies!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This baby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hungry and weak.

Please give her some milk.”

The women around the well would give milk, even if they were a stone or a burglar.

They give a lot of milk.

“Hello, Mr. Sim.”

“Yes.”

“This family has a baby.

That family has a baby too.

Go and ask for milk often without hesitation.

Their babies might go hungry.

But would they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Thank you.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He visits this and that house.

He hears the laughs of women weaving ramie and goes quickly to them.

“Hello, ladies.

I know it’s rude, but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오뉴월 띄약별<sup>470)</sup>에 김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주오.”  
 백석청탄<sup>471)</sup> 시냇물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젓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 주고,  
 젓 없는 부인들은 돈 돈씩<sup>472)</sup> 채워주고,  
 돈 없난 부인들은 쌀 되씩<sup>473)</sup> 떠서 주며,  
 “맘쌀<sup>474)</sup>이나 허여주오.”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  
 젓을 많이 얻어 먹여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sup>475)</sup> 밑에 쭈그려 앉어 아이를 어룬다.<sup>476)</sup>  
 “아이고, 내 딸 배 불렀다.  
 배가 뽕뽕허다.  
 이 덕이 뉘 덕이나?  
 동리 부인 덕이로다.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려서 고생을 허면 부귀다남헌다더라.  
 너도 어서어서 자라나서  
 너의 모친 닮아서 현철허고 암전허여,  
 아비 귀염<sup>477)</sup>을 보여라.  
 둥둥 내 딸이야.  
 백미 닷섬의 뉘 하나,<sup>478)</sup> 열 소경 한 막대<sup>479)</sup>로다.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beautiful  
stream.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Women having milk give a lot of milk.

Women having no milk would give money.

Women having no money would give some rice.

“Make rice soup for the baby.”

Mr. Sim is happy.

“Thank you.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After feeding the baby a lot, he comes back home.

He sits down in front of his poor house and dandles the baby.

“Good! My daughter is full.

Her belly is tight.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is village.

Oh, my lovely daughter.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Please grow up quickly.

Like your mom, please be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Your father will love you.

Oh, my daughter.

You are more precious than gold.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내 새끼지야. 내 새끼.  
 금자동<sup>480</sup>이야,  
 옥자동<sup>481</sup>이야.  
 주유천하무쌍동<sup>482</sup>이야.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 환생?  
 표진강<sup>483</sup> 숙향<sup>484</sup>이 네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 옥토끼,<sup>485</sup>  
 땡기 끝에 준주시,<sup>486</sup>  
 옷고름에 밀화불수.<sup>487</sup>  
 엄마 아빠  
 도리도리<sup>488</sup>  
 쥐얏<sup>489</sup>  
 잘깡,<sup>490</sup> 내 딸이야.  
 서울 가, 밤 하나 얻어다  
 두름박<sup>491</sup> 속에 넣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쥐가 들랑달랑<sup>492</sup>  
 다 까먹고 다만 한 쪽이 남았기로,  
 한 쪽은 내가 먹고,  
 한 쪽은 너를 주마.  
 어르르르.<sup>493</sup>  
 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 14. (심봉사 동냥) 심봉사가 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아니리] 그때에 심봉사 아이 안고 돌아와



Oh, my child! My child.  
You are gold.  
You are a piece of jade.  
You are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child in the world.  
Was Vega in the Milky Way reborn into you?  
Was a novel character reborn into you?  
You are the cute hare on the moon.  
You are a pearl at the end of a pigtail ribbon.  
You are a jewel on the coat string.  
Say mom and daddy.  
Shake your head.  
Fold and unfold your fingers.  
Go to sleep, my daughter.  
I've got a handful of chestnuts from Seoul.  
I kept them in a gourd bucket.  
A mouse with a black head came in and went out.  
It ate all of the chestnuts except one.  
I will eat the first half.  
I will give you the second half.  
Look at me, baby.  
Oh, my lovely daughter."

#### **14. (Mr. Sim's 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around.**

[Aniri] Mr. Sim comes back with the baby in his arms.

포단<sup>494</sup>) 덮어 뉘어놓고,  
 이제는 동냥차로<sup>495</sup>) 나가겠다.  
 [중중모리] 삼배 전대<sup>496</sup>) 외동지어<sup>497</sup>) 윈 어깨 드러메고<sup>498</sup>)  
 동냥차로 나간다.  
 여름에는 보리 동냥,  
 가을이면 나락<sup>499</sup>) 동냥,  
 어린 아이 맘죽차로<sup>500</sup>) 쌀 얻고 감을 사서  
 허유허유<sup>501</sup>) 돌아올 제,  
 그 때여 심청이는 하늘의<sup>502</sup>) 도움이라 일취월장<sup>503</sup>) 자라날 적,  
 세월이 여류하여,<sup>504</sup>)  
 십여 세가 되어가니,  
 모친의 기제사<sup>505</sup>)를 아니 잊고 혈 줄 알고,  
 부친의 공양사<sup>506</sup>)를 의법이<sup>507</sup>) 허여 가니,  
 무정세월<sup>508</sup>)이 이 아니냐.

## 15.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공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리] 심청이 하루는 부친전 정히<sup>509</sup>) 앉어,  
 “아버지.”  
 “오냐.”  
 “오날부터는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집에 앉어 계옵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sup>510</sup>) 하겠네다.”<sup>511</sup>)  
 심봉사 깜짝 놀래,  
 “원, 이 자식아.

He lays the baby and covers her with a small blanket.  
He now goes out to beg.  
[Jungjungmori] Mr. Sim carries a ramie bag on his left shoulder.  
He goes out to beg.  
In summer he begs for barley.  
In fall he begs for rice.  
He gets rice and buys persimmons to make rice soup for the baby.  
He comes back home, making excited bodily movements.  
Sim Cheong grows up fast with the help of heaven.  
Time flows like an arrow.  
She becomes above ten.  
She holds a ritual for her mother without forgetting it.  
She serves her father with meals properly.  
Time goes fast.

**15.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o her father that she wants to support him by begging.**

[Aniri] One day Sim Cheong sits in front of her father in a solemn manner.  
“Father.”  
“Yes.”  
“From today on, stay at home without going anywhere.  
I will go out,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Mr. Sim is surprised.  
“Oh, my dear.

내 아무리 곤궁<sup>512</sup>헌들, 무남독녀<sup>513</sup> 너를 내보내어 밥을 빈단 말이  
될 말이냐?

어라,<sup>514</sup> 어라, 그런 소리는 다시는 마라.”

[중모레] “아버지, 듣조시오.<sup>515</sup>

자로<sup>516</sup>난 현인<sup>517</sup>으로 백리를 부미하고,<sup>518</sup>

순우의<sup>519</sup> 딸 제영<sup>520</sup>이는 낙양<sup>521</sup> 옥에 갇힌 아비<sup>522</sup> 몸을 팔아 속  
죄<sup>523</sup>하고,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의<sup>524</sup> 저문 날에 반포은<sup>525</sup>을 혈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sup>526</sup>만 못허리까?

그런 말씀은 마옵소서.”

[아니레] “거, 이 자식아, 그런 말은 다 어디서 들었느냐?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가지고 나왔구나.

네 효성이 그렇다면, 한 두어 집만 수이<sup>527</sup> 다녀오너라.”

## 16.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한다.

[중모레] 심청이 거동 보아라.

밥 빌러 나갈 적에

헌 베 중우<sup>528</sup> 대님<sup>529</sup> 매고,

청목<sup>530</sup> 휘양<sup>531</sup> 눌러 쓰고,

말<sup>532</sup>만 남은 헌 초마<sup>533</sup>에

깃<sup>534</sup> 없는 헌 저고리,

목만<sup>535</sup> 남은 길보신<sup>536</sup>에

바가치<sup>537</sup> 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걸음쳐 건너갈 적,

No matter how poor I am, how would I let you, my only child,  
beg for food?

It's out of the question. Please don't ask me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hundreds  
of miles to feed his father.

A daughter in ancient times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is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Don't say that, father."

**[Aniri]** "My daughter!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You must have learned all of them in your mother's womb.  
If you insist as a good daughter, travel only to a couple of  
houses."

## **16.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by begging for food.**

**[Jungmori]** Behold Sim Cheong!

She goes out to beg for food.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Only the top of her old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Only the top part of her socks remains.

She carries a bucket on her flank.

She walks on the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원산<sup>538</sup>)은 암암하고,<sup>539)</sup>  
 건넌 마을 연기 일 제,  
 추적추적<sup>540)</sup> 건너가 부엌 문전 당도하여,  
 애궁히<sup>541)</sup> 비는 말이,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초칠<sup>542)</sup>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신 늙은 아비 나를 안고 다니시며 동냥젖 얻어 먹여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앞 어두신 우리 부친 구환<sup>543)</sup>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덜 잡수고 십시일반<sup>544)</sup> 주옵시면,  
 치운<sup>545)</sup> 방 우리 부친 구환을 허겼내다.”<sup>546)</sup>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 아니 칭찬허리!  
 그릇밥,<sup>547)</sup> 김치, 장<sup>548)</sup>을 아끼잡고 후히<sup>549)</sup> 주며,  
 혹은 먹고 가라 허니,  
 심청이 대답허되, “치운 방 우리 부친 저 오기만 기다린다,<sup>550)</sup>  
 저 혼자만 먹사리까?<sup>551)</sup>  
 부친전에 가 먹겼내다.”  
 한두 집이 죽한지라.<sup>552)</sup>  
 밥을 빌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먼 산에 해가 아니 비쳤더니,  
 벌써 해가 등실 떠  
 그 새 반일<sup>553)</sup>이 되었구나.”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이고, 아버지. 침긴들<sup>554)</sup> 오직허며, 시장긴들<sup>555)</sup> 안 허리까?  
 더운 국밥 잡수시오.

A distant mountain is dark,  
Smoke rises up from a neighboring village.  
Walking wretchedly,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She begs in a pathetic voice.  
“My mom died seven days after she gave birth to me.  
My blind old father held me in his arms and begged around  
for milk.  
I grew up this much.  
I have no other way to serve my blind father.  
I am here to beg for food.  
Please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food.  
Then, I can save my father in the cold room.”  
After hearing her, ladies praise her.  
They generously give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auces.  
Some ask her to eat with them.  
Sim Cheong replies, “My father looks forward to me in the cold  
room.  
How can I eat here?  
I will go back and eat with my father.”  
She gets enough food from a couple of houses.  
She speaks to herself, a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on  
her hands.  
“When I left home, the sun was not 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gate.  
“Father, you must be cold and hungry here.  
I’ve got a hot meal for you.

이것은 흰 밥이요,  
 저것은 팔밥이요.  
 미역튀각,<sup>556)</sup>  
 갈치, 자반,<sup>557)</sup>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참게 잡수시오.”  
 심봉사 기가 막혀,  
 딸의 손을 끌어다 입에 넣고 후후 불며,  
 “아이고, 내 딸 찹다 불 쪼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너의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흐윙!”

## **17. (시비 따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리]** 세월이 여류허여<sup>558)</sup>  
 심청의 나이 그러저런 십오 세가 되어가니,  
 효행<sup>559)</sup>이 출천<sup>560)</sup>하고,  
 얼굴이 일색<sup>561)</sup>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sup>562)</sup> 낭자<sup>563)</sup>하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sup>564)</sup>이 시비<sup>565)</sup>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  
 는지라.  
 심청이 부친전<sup>566)</sup>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승상부인이 저를 청하였사오니



This is white rice,  
That is rice mixed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to you,  
Please help yourself.”  
Mr. Sim is dumfounded.  
He pulls her hands to his mouth and blows on them,  
“Daughter! Warm yourself up here,  
My life is cruel to go on,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you.  
We wouldn’t be like this if your mother were alive, God!”

**17. (Following a Mai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he follows a maid over to the village.**

[Aniri] Time goes by fast,  
Sim Cheong somehow becomes fifteen,  
Her filial piety is great,  
She is a rare beauty,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to her house,  
Sim Cheong asks her fat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as invited me.

어찌 하오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애, 청아. 그 부인과 너의 모친과는 절친<sup>567)</sup>하게 지내셨다.

네가 진즉<sup>568)</sup> 가서 뵈을 것을,

이제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sup>569)</sup>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이<sup>570)</sup> 오너라.”

[진양조] 시비<sup>571)</sup> 따라 건너간다.

무릉춘을 당도하여 승상댁을 찾아가니,

좌편은 청송<sup>572)</sup>이요,

우편 녹죽<sup>573)</sup>이라.

정하<sup>574)</sup>에 쏘는 반송<sup>575)</sup>

광풍<sup>576)</sup>이 건듯<sup>577)</sup> 불면 노룡<sup>578)</sup>이 굽니난 듯,<sup>579)</sup>

뜰 지키는 백두루미 사람 자취에<sup>580)</sup> 일어나서

나래<sup>581)</sup>를 땅에다 지르르르르르르 끌며, 뚜루루루루루 끌룩,

징검징검<sup>582)</sup> 알연성<sup>583)</sup>이 기이허구나.<sup>584)</sup>

## 18. (심청 수양딸 거절)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 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계상<sup>585)</sup>에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허여,<sup>586)</sup>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What should I do?”  
Mr. Sim is delighted.  
“Cheong, The noble lady was a good friend of your mom.  
I should have called on her.  
I didn’t until she invited you now.  
Go over and see her.  
Be courteous to her.  
Answer her questions politely.  
And come back quickly.”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They arrive in Paradise Village and in the noble lady’s house.  
On the left are pine trees.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wind rage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A white crane in the yard stands up after hearing human sounds.  
It drags its wings on the ground and cries.  
As it strides, it makes queer sounds.

## **18. (Sim Cheong Declines the Proposal to be Adopted)** **Sim Cheong declines the noble lady’s proposal to be adopted.**

**[Jungjungmori]** Sim Cheong moves up on the stone steps.  
The noble lady welcomes her.  
She grabs Sim Cheong’s hands and leads her to a room.

좌<sup>587</sup>)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무릉에<sup>588</sup>) 내가 있고,  
 도화동 내가 나니,  
 무릉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sup>589</sup>)로다.  
 이 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 일즉<sup>590</sup>) 기세허시고,<sup>591</sup>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sup>592</sup>) 가 미환허고,<sup>593</sup>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적한 빈 방안에 대하나니<sup>594</sup>) 촛불이요, 보는 것 고서<sup>595</sup>)로다.  
 네 처지를 생각허니,  
 양반의 후예로서 저렇듯 곤궁허니,  
 나의 수양딸<sup>596</sup>)이 되어 여공<sup>597</sup>)도 숭상허고, 문필<sup>598</sup>)도 학습허여  
 말년<sup>599</sup>) 재미를 볼까 허니,  
 너의 뜻이 어떠허냐?”  
**[아니레]** 심청이 대답허되, “모친 별세헌 연후,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겹 민사웁고,  
 소녀는 아버지를 모친 겹 민사와 대소사<sup>600</sup>)를 의논하고 지내오니,  
 분명 대답 못 허겠내다.”<sup>601</sup>  
 부인이 칭찬허시고,  
 “나도 너를 딸로 아니,  
 너도 나를 어미로 알려무나.”  
 일모<sup>602</sup>)가 되도록 놓지 아니허시고 이야기로 벗 삼으실 제,

She offers a seat.  
“Are you really Sim Cheong?  
You are as beautiful as they say you are.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are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in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Listen to me, sweetheart.  
My husband died long time ago.  
I have three sons.  
They live in the capital city without coming back here.  
I have neither a young child nor a grandchild.  
All I have in this empty room is candlelights and old books.  
Let me see how you are.  
You are a descendent of the high class but poor.  
I propose that you be adopted to me, learn things a woman  
should know, and learn how to write.  
You will bring joy to my remaining life.  
What do you say?”

[Aniri] Sim Cheong replies, “After my mother died, my father  
relies on me like a son.  
I rely on him like my mother, discussing every matter with him.  
So I can’t give you a definite answer.”  
The noble lady praises her.  
“I wi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take me as your mother.”  
Until the sun sets, the lady talks with her, not letting her go  
back home.

심청이 일어서며,  
“추운 방 저의 부친 날 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허시고  
비단과 양식을 후히 주어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 때여 심봉사는 적적한<sup>603</sup> 빈 방 안에서 딸 오기만 기다릴 제,

### 19. (심봉사 물에 빠짐)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한기<sup>604</sup> 들 제,  
먼 데 절 쇠북을 치니,  
날 저문 줄을 짐작하고,  
“어이허여 못 오느냐?  
부인이 잡고 안 놓느냐?  
길에 오다가 욕<sup>605</sup>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훔날린디  
후후 불고 앉었느냐?”  
새만 푸르르르 날아들어도,  
“청이 네 오느냐?”  
낙엽만 버썩 떨어져도  
심청인가 반기는구나.  
아무리 불리도 적막공산<sup>606</sup>의 인적<sup>607</sup>이 끊쳤으니,  
“내가 분명 속았구나.

Sim Cheong stands up.

“My father is waiting for me in the cold room.

I have to go now.”

The lady says it is okay.

She gives her a lot of silks and food, and has the maid follow her.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in the desolate room.

**19. (Mr. Sim Falls into a Stream) Because Sim Cheong gets late, Mr. Sim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Jinyangjo] Mr. Sim is very hungry.

The room is cold.

A bell rings from a remote buddhist temple.

He thinks that it is dark.

“Why is she not coming?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he get into trouble on a street?

A heavy snow comes down now.

Is she blowing on her hands to warm them up?”

A bird flies, making a sound.

“Are you Cheong?”

Leaves fall down.

He is glad, taking them to be Sim Cheong.

However hard he calls her, there is nobody on the quiet mountain.

“I was deceived.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헐거나.”

자진복통<sup>(608)</sup> 울음을 운다.

[자진모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닫은 방문 필쩍 열고, 지팡이 홀어 짚고,<sup>(609)</sup>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면서,

“청아! 청이 네 오느냐?

에이? 어찌하여 못 오느냐?”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는데,

그 때여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노니,

도랑 출입<sup>(610)</sup>이 서툴구나.

지팡이 홀어 짚고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다가,

길 넘는<sup>(611)</sup>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밀친 듯이<sup>(612)</sup> ‘풍’ 빠져놓  
으니,

“어푸, 사람 살려!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라면<sup>(613)</sup>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무진<sup>(614)</sup> 들어간다.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무진 들어가니,

심봉사 겁을 내어 일신<sup>(615)</sup> 수족<sup>(616)</sup>을 벌벌벌 떨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일모도궁<sup>(617)</sup>허여 인적<sup>(618)</sup>이 끊쳤으니,

어느 뉘랴 살려줄거나.

## 20. (심봉사 구출) 지나가던 중이 심봉사를 구한다.

[아니리] 꼭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What should I do now?"

He cries sadly.

**[Jajinmori]** 'I shouldn't just wait.'

Mr. Sim opens the closed door and grabs his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Cheong! Are you coming?"

Why aren't you coming back?"

He moves forward unsteadily.

Mr. Sim has stayed home for long time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awkward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He takes a wrong step and slides into a deep stream as if somebody pushed him.

"Help! Sim Hak-gyu of Peach Blossom Village is drowning!"

He pushes himself up but slides back down.

He attempts to get out but goes back down ceaselessly.

He tries to get up but falls back in.

He tries to move up but slides back in.

Mr. Sim, frightened, trembles his arms and legs.

However hard he shouts, it is dark and there is nobody on the street.

It appears that nobody can save him.

## **20.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passing by rescues Mr. Sim.**

**[Aniri]** It seems that Mr. Sim is sure to die.

[엇모래]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오는데, 저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이고?  
 몽은사 화주승<sup>(619)</sup>이라.  
 절을 중창<sup>(620)</sup>허라 허고 시주집<sup>(621)</sup> 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서산에 빗긴<sup>(622)</sup> 길로 급급히<sup>(623)</sup> 올라갈 제,  
 저 중의 차림 보소.  
 저 중의 치례<sup>(624)</sup> 보소.  
 굴갓<sup>(625)</sup> 쓰고, 장삼<sup>(626)</sup> 입고,  
 백팔염주<sup>(627)</sup> 목에 걸고, 단주<sup>(628)</sup> 팔에 걸고,  
 용두<sup>(629)</sup> 새긴 육환장<sup>(630)</sup>  
 쇠고리 많이 달아 처절철<sup>(631)</sup> 툭툭 짚고,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sup>(632)</sup> 올라갈 제,  
 원산<sup>(633)</sup>은 암암<sup>(634)</sup>허고,  
 설월<sup>(635)</sup>이 돌아오는데,  
 백저포<sup>(636)</sup> 장삼<sup>(637)</sup>은 바람결에 펄렁 펄렁,  
 염불하고 올라간다.  
 중이라 허는 것은 절에서도 염불,<sup>(638)</sup> 속가<sup>(639)</sup>에서도 염불.  
 염불 많이 허면 극락세계<sup>(640)</sup>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아아 헤 헤헤헤헤 으 아 아~.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천실원만.<sup>(641)</sup>  
 원왕생<sup>(642)</sup> 원왕생,  
 제궁종실각안녕<sup>(643)</sup>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otmori]**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Other buddhist monks go down, but he goes up.  
 Who is that monk?  
 He is a monk from Mongeun Temple in charge of donation  
 affairs.  
 He solicited donations in the village to reconstruct his old  
 temple.  
 It's getting dark.  
 The monk goes up fast on the oblique road on the west  
 mountain.  
 Behold his costume!  
 Look how he dressed.  
 He wears a cylindrical hat and a hemp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He carries a cane on which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Six iron rings dangling from it cling together.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The remote mountain is dark.  
 The moon rises over the snow.  
 His white ramie coat flutters in the wind.  
 He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while going in and out  
 of a temple.  
 Many prayers results in being in paradise.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Oh, oh, oh!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I wish I will be reborn in heaven.  
 I wish happiness for the royal family.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염불하고 올라갈 제,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언뜻<sup>(644)</sup> 들리거늘,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sup>(645)</sup> 저문 날에 하소대<sup>(646)</sup>로 올고 가던 양태진<sup>(647)</sup>의 울음이냐?  
 여우가 변화허여<sup>(648)</sup> 날 홀리란<sup>(649)</sup>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죽장<sup>(650)</sup>을 드러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sup>(651)</sup> 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늘,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 다님<sup>(652)</sup> 끄르고,  
 버선을 얼른 벗고,  
 고두누비<sup>(653)</sup> 바지 가래<sup>(654)</sup> 따달딸 딸딸딸 걷어 자개미<sup>(655)</sup> 딱 붙이고,  
 무논<sup>(656)</sup>에 백로 격으로<sup>(657)</sup> 징검<sup>(658)</sup> 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심봉사 고드레상투<sup>(659)</sup>를 에후리쳐<sup>(660)</sup>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21. (공양미 시주 약속)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에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중의 말을 듣고 심봉사는 시주 약속  
 을 하지만, 중이 떠난 뒤 후회한다.

[아니리] 심봉사 정신 차려,

The monk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The monk nears the place where Mr. Sim is.  
 He hears a faint crying sound.  
 He is surprised.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Yang Taizhen(楊太眞), an ancient beautiful  
 woman, on the way to a pavilion at the sunset?  
 Is this the cry of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He pulls his bamboo cane on his shoulder.  
 He looks at his surroundings.  
 A man has fallen into a stream and is about to die.  
 The monk feels unsettled and disturbed.  
 He takes off his hat and coat, and throws them aside.  
 He unties his ankle bands.  
 He takes off socks quickly.  
 He pulls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his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grabs his topknot and gets the man out of the water.  
 He learns that the man is Mr. Sim whom he knows.

**21. (The Promise to Donate Rice to Mongeun Temple)**  
 Mr. Sim hears from the monk that he will gain  
 sight if he donates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He promises to donate the rice, but  
 regrets after the monk left.

[Aniri] Mr. Sim comes to himself.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sup>661</sup>)이오.  
 거 뉘가 날 살렸소?”  
 “예. 소승<sup>662</sup>)은 몽은사 화주승<sup>663</sup>)이온데,  
 시주집<sup>664</sup>) 내려왔다 절을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나이다.”  
 “허허. 환인지불<sup>665</sup>)이라더니  
 대사가 나를 살렸소그려.”  
 대사 이른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면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봉사가 눈뜬단 말을 듣더니,  
 “거, 어쩐 말이오?”  
 “공양미<sup>666</sup>) 삼백 석만 우리 절에 시주하면 3년 내로 눈을 뜨오리다.”  
 심봉사가 눈 뜬단 말에 후사<sup>667</sup>)는 생각지 않고 대변에 일을 저지르는  
 디,  
 “여, 대사. 자네 말이 꼭 그럴진대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sup>668</sup>)에 적소.”  
 저 중이 어이없어,  
 “심봉사님 가세<sup>669</sup>)를 헤아리면,  
 삼백 석은커녕 단 석 주먹이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오?”  
 심봉사 화를 내어,  
 “내가 내 수단<sup>670</sup>)을 어찌 아느냐?  
 잔말 말고  
 적게, 적어!”  
 “그러면 내월<sup>671</sup>) 십오일 내로 올리겠소?”  
 “그러함세.”<sup>672</sup>)

“Sinc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gratitude.  
Who saved me?”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 was soliciting donations and was on my way back to the temple.  
Luckily, I saved you.”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You saved me, Mr. Monk.”  
The monks says, “Hello, Mr. Sim.  
If you do as I tell you to do, you will open your eyes.”  
The word about opening eyes triggers Mr. Sim’s interest.  
“Oh, tell me how.”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will gain sight within three years.”  
Mr. Sim is so excited about opening eyes that he makes a commitment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Monk, I trust what you said.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Mr. Sim, look at what you have.  
You don’t have a handful of rice, let alone 300 bags.  
How dare you say that?”  
Mr. Sim gets angry.  
“How do you know what I have?  
Don’t argue with me.  
Put my name down!”  
“Will you donate the rice by the 15th of next month?”  
“I will do it.”

저 중이 권선에 적은 후에,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 앓은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오.”  
 중은 올라가고  
 심봉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하니,  
 백계무책<sup>(673)</sup>이로구나.  
**[중모리]** “허허, 내가 미쳤구나.  
 정녕 내가 사<sup>(674)</sup>들렸네.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오?  
 살림을 팔자헌들 단 돈 열 냇 누가 주며,  
 내 몸을 팔자헌들 앞 못 보난 병신놈을 단 돈 서푼을 누가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봉사놈이 앓은뱅이마저 되고보면,  
 꿈쩍 없이 내가 죽겠구나.  
 수중고혼<sup>(675)</sup>이 될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에 쌀 삼백 석 에우고<sup>(676)</sup> 가소!”  
 실성발광<sup>(677)</sup> 기가 막혀 혼자 앓어 탄식한다.

## 22. (심청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살 없는 두 귀 밑에 눈물 흔적 웬 일이며,



The monk records this on his roster.  
 “Mr. Sim,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The monk leaves.  
 Mr. Sim comes back home and reflects on what he did.  
 He can’t come up with a solution to his problem.  
**[Jungmori]**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Even if I sell my body, it is worth less than a few dollars because  
 I am blind.  
 If you deceive Buddha, you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regret what I did.  
 Hey, monk there!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He goes wild and stunned, and sighs alone.

## **22. (Sim Cheong’s Consolation) Sim Cheong comes back,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door.  
 “Father! What happened?  
 Why are there traces of tears below your thin earlobes?

숨 없는 흰 의복에 물 흔적이 웬 일이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지경이 되어졌소?<sup>678)</sup>

승상택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키로<sup>(679)</sup> 어언간<sup>(680)</sup> 더디었소.

말을 허오. 말을 허오.

답답하여 못 살겠소.”

[아니레] 심봉사 하릴없어,

“여봐라, 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듬더듬 나가다가

이 앞 개천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뜻밖에 몽은사 화주승이 올라가다 나를 구해주고,

날다려<sup>(681)</sup> 공양미 삼백 석만 몽은사 불전에<sup>(682)</sup> 시주하면, 삼년 내로

눈을 뜬다 하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단 말에 후시는 생각지 않고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에  
적어 주었으니,

이 일을 어쩔거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백계무책<sup>(683)</sup>이로구나.”

“아버지 너무 염려 마옵소서.

지성이면 감천<sup>(684)</sup>이라,

정성껏 구하여 보겠내다.”

부친을 위로하고,

그날부터 목욕재계<sup>(685)</sup> 정히<sup>(686)</sup> 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디,

Why are there traces of water on your old clothes?  
Did you go out to meet me and fall into the stream?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alk to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Mr. Sim has no choice.

“Look, Cheong.

I couldn’t wait for you, so I moved forward unsteadily.

I fell into the stream and was about to die.

All of sudden, a monk from Mongeun temple found and saved me on his way back.

He told me that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my eyes will be opened within three years.

I was so excited about opening my eyes that I promised to donate the rice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What should I do now?

I can’t come up with a solution to my problem.”

“Father, don’t worry too much.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I will do my best to get the rice.”

She consoles her father.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and prays conscientiously.

## 23.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를 빈다.

[진양조] 후원에 단을 못고<sup>(687)</sup>

북두칠성 자야반에<sup>(688)</sup>

촛불을 돋오 켜고,<sup>(689)</sup>

새 사발에 정화수<sup>(690)</sup>를 떠서 소반 위에 받쳐놓고,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에 비나니다.

천지지신<sup>(691)</sup>

일월성신<sup>(692)</sup>

화위동심<sup>(693)</sup> 허옵소서.

무자생<sup>(694)</sup> 소경<sup>(695)</sup> 삼십 전에 안맹허여<sup>(696)</sup> 시물<sup>(697)</sup>을 못하오니,

아비의 허물일랑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아비의 눈을 밝게 허옵소서.

인간의 충효열행<sup>(698)</sup> 천신<sup>(699)</sup> 어이 모르리까?

칠일 안에 어미 잃고

앞 못 보는 부친에게 게우게우<sup>(700)</sup> 자라나서

십오세가 되었으니,

육보지은덕인댄 호천망극이라.<sup>(701)</sup>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에 시주<sup>(702)</sup>하면 부친 눈을 뜬다허니,

명천<sup>(703)</sup>이 감동허사

화위동심하옵소서.”

**23.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lights a candle.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I pray. I pray. I pray to God.  
All gods in heaven and on the earth,  
the sun, the moon, and stars,  
please be united.  
My father became blind before thirty and can't see.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open my father's eyes.  
God should know about virtuous people.  
I lost my mother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managed to raise me.  
I am now fifteen years old.  
I want to return his limitless favor.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Mongeun Temple, my father's  
eyes will be opened.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Please share the same feeling.”

24. (남경선인) 심청은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후, 부친에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속이고 행선날을 기다린다.

[아니리] 이렇듯 빌어갈 제,  
하루는 사람을 사자 왜는<sup>704)</sup> 소리 들리는데,  
[중중모리] “우리는 남경 장사 선인<sup>705)</sup>으로,  
인당수<sup>706)</sup> 인제수<sup>707)</sup>를 드리고저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를 사라허니,<sup>708)</sup>  
몸 팔 이 뉘 있습나?<sup>709)</sup>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허시오. 이이이~ 어.”  
이렇듯 왜는 소리 원근산천<sup>710)</sup>이 평그렇게<sup>711)</sup> 들린다.  
[아니리] 심청이 이 말 듣고 천우신조<sup>712)</sup>로 생각하고,  
이웃 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sup>713)</sup>하고 선인 한 사람을 청하여 말을  
허되,  
“소녀는 당년<sup>714)</sup> 십오세인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 하오니,  
나를 사감이 어떠허오?”  
선인이 좋아라고,  
“출천대효<sup>715)</sup>로다.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더도 덜도 말고 공양미 삼백 석만 내월<sup>716)</sup> 십오일 내로 몽은사로  
올려 주오.”  
“참으로 효녀로고.  
그리하오.

**24.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Chinese. After telling a lie to her father that she is adopted by the noble lady, she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Aniri] Sim Cheong prays to the gods.

One day, there are shouts that they want to buy a human.  
[Jungmori]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n order to offer a human sacrifice to Indang Water,  
we need to buy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Is there anybody to sell herself?  
If there is, please answer us.”  
The loud shouts tremble close and distant mountains.

[Aniri] Hearing the shouts, Sim Cheong thinks that heaven is helping her.

She speaks to a sailor secretly so that she is not noticed by her neighbors.

“I am fifteen years old this year.

I intend to sell myself for the sake of my father.

Why don’t you buy me?”

The sailor is delighted.

“You are a good daughter.

How much do you want?”

“Just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before 15th of next month.”

“You are really a good daughter.

We will do that.

염려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내월 십오일 날이 행선날<sup>717</sup>)이오니,  
어찌 하오리까?”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시각을 어기리까.”

피차<sup>718</sup>) 약속을 정허고,

선인과 작별하고 방으로 들어와 생각하니,  
아무리 하여도 부친을 아니 속일 수 없거늘,  
“아버지!”

“왜야?”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게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래,

“야, 그 웬 말이냐?”

“아버지, 전일<sup>719</sup>)에 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sup>720</sup>)로 정하신다 하  
온 것을 분명 대답 못했지요.

제가 오늘 건너가 아버지님 사정을 여쭙었더니,  
부인께서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시고,  
저를 수양딸로 다려간다<sup>721</sup>) 하옵디다.”

“야, 그 일 잘 되었다.

그 부인에게 수양딸로 가는 게야<sup>722</sup>) 누가 날다려 딸 팔아먹었다고  
정개<sup>723</sup>)허겠느냐?

그러면 언제 가기로 하였느냐?”

“내월<sup>724</sup>) 십오일에 가기로 하였네다.”

“그러면 나는 어찌고?”

“아버지도 모셔가기로 하였네다.”

“그렇지. 눈먼 놈을 혼자만 둘 것이냐?



Don't worry.

Actually, the 15th of next month is our departure date.

What do you say?"

"How can I not show up on time when I am sold at a price?"

They made a promise to each other.

After saying goodbye to the sailor, she comes into the room and thinks.

She finally decides to tell a lie to her father.

"Father!"

"Yes!"

"I got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o don't worry."

Mr. Sim is surprised.

"Honey, what did you say?"

"Father, I did not give a definite answer to the noble lady's proposal that I be adopted to her.

Today I went over and told her about your situation.

She said she would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and take me as an adopted daughter."

"Honey, that's great.

If you are adopted to the noble lady, nobody will blame me for having sold my daughter.

When are you leaving for her house?"

"I am leaving on 15th of next month."

"Then, what will become of me?"

"They will take you there too."

"Good. She won't leave a blind man alone.

잘 되었다.

너는 가마<sup>725</sup> 태워 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엇을 타고 갈거나?

오, 나는 김순장댁<sup>726</sup> 검은 암소나 얻어 타고 가제.”

부친의 맺힌 근심을 위로하고 행선일<sup>727</sup>을 기다릴 제,

## 25. (행선 전야)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며 탄식한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결<sup>728</sup>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 십오세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삭막하고,<sup>729</sup> 흥중<sup>730</sup>이 답답하여

하염없는<sup>731</sup> 설움이 간장<sup>732</sup>으로 솟아난다.

부친의 사시<sup>733</sup> 의복 빨래하여 농<sup>734</sup> 안에 넣어두고,

갓 망건<sup>735</sup>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일을 생각하니 하룻밤이 격한지라.<sup>736</sup>

모친 분묘<sup>737</sup> 찾아가서 주과포혜<sup>738</sup> 차려놓고,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sup>739</sup> 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제수<sup>740</sup>로 가게 되니,

불쌍헌 아버지를 차마 어니 잊고 가며,

분묘에 돈난 풀은 뉘 손으로 별초<sup>741</sup>허며,

연년이<sup>742</sup> 오난 기일<sup>743</sup> 뉘라서 받드리까?

내 손으로 부은 술을 망종<sup>744</sup> 흠향<sup>745</sup> 허옵소서.”

사배<sup>746</sup>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적적<sup>747</sup> 삼경<sup>748</sup>인디

That's great.  
You will go there on a carriage.  
How will I get there?  
Oh, let me go there on Mr. Kim's black cow."  
Sim Cheong eases her father's worry and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 **25. (Eve of Departure Date) Sim Cheong sighs,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father.**

[Jinyangjo] Sim Cheong thinks about parting with her blind old father for good,  
and about dying fifteen years after she was born.  
She feels gloomy and choked in her chest.  
Ceaseless sorrow wells up in her mind.  
She cleans her father's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mends his hat and headband and hangs them in a handy place.  
She realizes that one night left before the departure date.  
She visits her mother's tomb and lays out various food.  
"Mother! I am a bad daughter.  
I am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my father's eyes.  
I will be used as a sacrifice during a ritual.  
How could I forget my poor father?  
Who will cut the grass on your tomb?  
Who will hold the annual ritual for you?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last wine I can give to you."  
She gives big bows and comes back home.  
It is quiet and deep into the night

부친이 잠든지라.  
 후원<sup>749)</sup>에 돌아가  
 사당문<sup>750)</sup>을 가만히 열고,  
 분향사배<sup>751)</sup> 우는 말이,  
 “불효여식 청이는  
 선영<sup>752)</sup> 향화<sup>753)</sup>를 끊게 되니  
 불승비통<sup>754)</sup>허웁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거늘,  
 심청이 기가막혀 크게 우든<sup>755)</sup> 못하고,  
 속으로 느끼난디,<sup>756)</sup>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어찌 할꼬?  
 이 내 한 몸 없어지면 동리 걸인 또 될 것이니,  
 어찌 잊고 돌아가리?  
 아이고, 아버지! 날 볼 밤이 몇 밤이며, 날 볼 날이 몇 날이요?  
 얼굴도 대보고, 수족<sup>757)</sup>도 만지면서,  
 ‘아버지, 오늘 밤 오경시<sup>758)</sup>를 함지에<sup>759)</sup>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는 부상<sup>760)</sup>에다 매량이면,<sup>761)</sup>  
 불쌍허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비련만은,  
 인력으로 어이 허리!’  
 천지가 사정이 없어  
 벌써 닭이 ‘꼬끼오!’  
 “닭아, 우지 마라.  
 반야<sup>762)</sup> 진관<sup>763)</sup>의 맹상군<sup>764)</sup>이 아니로고나.  
 네가 울면 날이 새고,

Her father is sleeping.  
 She turns around to the backyard  
 She quietly opens the door of the ancestral shrine.  
 She burns incense, gives bows, and speaks in tears.  
 "I am a bad child.  
 I can't hold a ritual for you any longer.  
 Grief overtakes me.  
 She goes into the room.  
 Her father sleeps without knowing anything.  
 Sim Cheong is stunned, but can't cry loudly.  
 She only weeps in her mind.  
 'Alas. Father! Father!  
 What will become of my father?  
 If I am gone, he will become the begger of the village again.  
 How can I forget him and leave?  
 Alas, father! How many nights and days do we have to be  
 together?  
 She touches his face, hands, and feet.  
 'Father, if the sun stays in Grand Pond tonight,  
 and if the rising sun is tied on the East Sea tomorrow,  
 then, I can see my father more.  
 But how could I do that?'  
 Time is ruthless.  
 A rooster already crows.  
 "Rooster, don't crow.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ow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ow, the day breaks.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  
차마 어찌 잊고 가랴!”

## 26. (심봉사 만류) 심청이 사실을 고하자 심봉사는 죽기로 작정하며 만류한다.

[아니레] 벌써 동방<sup>765</sup>)이 밝어지니,  
심청이 하릴없어<sup>766</sup>) 정신을 다시 차려,  
‘내가 이래서는 못쓰겠다.  
부친 진지나 망종<sup>767</sup>) 지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나오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섰거늘,  
심청이 빨리 나가,  
“여보시오, 선인네들.  
부친 진지나 잡수시게 허고 떠나게 하옵시다.”  
선인들이 허락하니,  
아침밥 얼른 지어 소반<sup>768</sup>) 우에 받쳐 들고,  
“아버지, 진지<sup>769</sup>) 잡수시오.”  
“애, 오늘 아침밥은 별로<sup>770</sup>) 일쿠나.<sup>771</sup>)  
청아, 그런데 간밤에 내가 묘한 꿈을 꾸었다.  
내가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니,  
꿈에 수레라 하는 것은 귀인<sup>772</sup>)이 타는 것인디,  
내가 해몽<sup>773</sup>)을 하여 보았지.  
오늘 장승상댁 부인이 너를 데려간다고 안 했느냐?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my father has nobody to turn to.  
How can I forget and leave him?"

**26. (Mr. Sim's Deterrence) Sim Cheong tells the truth  
to Mr. Sim. He frantically deters her from going.**

[Aniri] As the sun begins to rise in the east,  
Sim Cheong can't help from collecting herself.  
'I can't do this anymore.  
Let me make the last meal for my father.'  
She goes into the kitchen.  
The sailors already stand outside the gate.  
Sim Cheong goes out quickly.  
"Hello, sailors.  
Let me leave after serving the last breakfast to my father."  
The sailors allow her to do so.  
She quickly makes breakfast and carries the food on the small  
table.  
"Father, please eat this meal."  
"Honey, we have a very early breakfast today.  
Cheong, by the wa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You were going somewhere far away on a coach.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in a dream.  
I interpreted the dream by myself.  
Aren't you leaving for the noble lady's house today?"

아마 가마<sup>774</sup>)가 올란가<sup>775</sup>) 보다.”  
 심청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진지 잡수사이다.”<sup>776</sup>)  
 “야, 오늘 아침밥은 별로 걸구나.”<sup>777</sup>)  
 진짓상을 물리고<sup>778</sup>)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 말 못하고 우두머니<sup>779</sup>)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제는 부친을 속일 수 없거늘,  
**[자진모리]** 심청이 거동<sup>780</sup>) 봐라.  
 부친 앞으로 우루루루루루.  
 “아이고, 아부지!”  
 한 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심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것 웬 일이냐? 어허, 이것 웬 일이여?  
 이 애가 급체<sup>781</sup>)하였는가?  
 악아, 정신 차려라.  
 누가 봉사 딸이라고 정개<sup>782</sup>)하드냐?”  
 “아버지. 불효 여식은  
 아버지를 속이었소.”  
 “아, 이놈, 속였으면 무슨 큰일을 속였간디,<sup>783</sup>) 이렇게 아비를 놀랜단  
 말이나?  
 말하여라. 말해여.<sup>784</sup>) 답답허다, 말해여.”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제게 주오리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오늘이 행선날이오.  
 어느 때 뵈오리까?”  
**[아니리]**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모르고 막 뛰고 미치는데,



It seems that you will be on a carriage.”  
Sim Cheong think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help yourself to the meal.”  
“Honey, today’s breakfast was outstanding.”  
She clears away the meal table and lights his tobacco.  
Sim Cheong sits vacantly without saying anything.  
She now thinks that she can’t deceive her father anymore.

**[Jajinmori]** Behold Sim Cheong.  
She runs to her father.  
“Oh, father!”  
She calls her father and passes out without saying anything.  
Mr. Sim is petrified.  
“What is going on, sweetheart? What is going on?  
Do you have an attack of indigestion?  
Honey, collect yourself.  
Did anybody despise you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 blind man?”  
“Father, I am a bad daughter.  
I told a lie to you.”  
“Oh, did you deceive me about a big thing to frighten your father like this?  
Tell me. I am anxious to know.”  
“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I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 am departing today to be used as a sacrifice to Indang Water.  
When can I see you again?”

**[Aniri]** After hearing her, Mr. Sim is at a loss and goes frantic.

[중중모리] “허허, 이게 웬일이냐?

에이? 못 되지야! 못 하여! 아이고, 청아. 아이고 청아.

에비보고 문도<sup>785</sup>) 앓고 네가 이것 웬 일이냐?

못 되지야! 못 하여!

눈을 팔아 너를 살데,<sup>786</sup>

너를 팔아서 눈을 뜨면 무엇을 보자 눈을 뜰꼬?

너의 모친 너를 낳고 칠일 안에 죽은 후에,

너를 안고 다니면서 겨우겨우 길러내어 이만큼 장성<sup>787</sup>)허니,

목은 근심, 헛근심<sup>788</sup>)을 널로 하야<sup>789</sup>) 잊었더니,

이것이 웬 일이냐?

나를 죽여 묻고 가면 갔지,

살려 두고는 못 가리라.”

벌써 선인들이 늘어서,

“심낭자 물때<sup>790</sup>) 늦어가오!”

성화같이<sup>791</sup>) 재촉허니,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엎더지며<sup>792</sup>) 자빠지며 밖으로 우루루 쫓아 나가,

“에이,<sup>793</sup>) 무지한<sup>794</sup>)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 지낸 데 어디서 보았느냐?

옛 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한<sup>795</sup>) 가물 적에 사람 잡아 빌라허니,

탕임금<sup>796</sup>) 어진 마음 사람 잡아 빌 양이면<sup>797</sup>) 내 몸으로 대신허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단발 신영백모<sup>798</sup>) 상림뜰에<sup>799</sup>)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sup>800</sup>)나 풍년이 들었던다.

나도 오늘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Jungjungmori]** “God, what did you say?  
 What? No way! No way! Alas! Cheong! Cheong!  
 How can you do that without asking your father?  
 No way! No way!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at would I see if you sell yourself to open my eyes?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I traveled often with you in my arms and you grew up.  
 I wasn’t anxious any longer thanks to you.  
 I can’t believe what you just said.  
 Over my dead body!  
 I can’t let you leave.”The sailors are outside.  
 “Miss Sim, the tide goes down!”  
 They press her hard.  
 Mr. Sim hears them.  
 He falls over and runs unsteadily to them.  
 “You savage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where did you learn sacrificing a human to hold a ritual?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 virtuous ancient king, Tang(湯) said that he would rather serve  
 as the sacrifice.  
 He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I will go instead of my daughter today!

아이고, 동리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sup>801)</sup> 뒤?  
 내 딸 어린 심청이를 꼬염꼬염<sup>802)</sup> 꼬여다 인당수에 제수하면, 네 이  
 놈들이 잘 될쏘냐?”  
 내리둥굴<sup>803)</sup> 치둥굴며<sup>804)</sup>  
 목제비질 <sup>805)</sup>을 떨컹.<sup>806)</sup>  
 죽기로 작정허니,  
 심청이 기가 막혀 부친을 부여안고,  
 “아이고 아버지.  
 쏘아놓은 살<sup>807)</sup>이옴고,  
 어크러진<sup>808)</sup> 물이오니,  
 아버지 약하신 몸 애통허여 상께<sup>809)</sup> 말고,  
 사는 대로 사시다가 어서 어서 눈을 떠서 대명천지<sup>810)</sup> 다시 보고,  
 좋은 곳에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아서, 후사<sup>811)</sup>를 전케 허옵소서.”

## **27. (장승상부인 작별) 장승상부인이 심청을 불러 만류하나 듣지 않자, 화공을 불러 심청의 초상을 그리게 한 후, 눈물로 이별한다.**

[아니리] 선인들이 이 정상<sup>812)</sup>을 보고,  
 전곡<sup>813)</sup>을 따로 내어 동인들<sup>814)</sup>께 부탁허되,  
 심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내어주었구나.  
 그 때여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시비<sup>815)</sup>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대, “장승상댁 부인이 청하였사오니,  
 잠깐 다녀오겠나이다.”  
 “웁다.<sup>816)</sup> 그 댁에는 열 번도 가고, 백 번이라도 가거라.”

Villagers, don't leave those villains alone.  
If you entice and sacrifice my young daughter to Indang Water,  
will you be happy?"  
He rolls over, up and down.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is determined to die  
Sim Cheong is stunned and hugs him.  
"Oh, father.  
An arrow is released from the bow.  
Water is spilt over.  
Please don't hurt your weak body.  
Hang on for a whil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again.  
Marry a good woman, have sons and daughters, and continue  
the family line."

**27. (Farewell to the Noble Lady) The noble lady tries  
to stop Sim Cheong in vain, has an artist draw a  
picture of Sim Cheong, and says goodbye in tears.**

[Aniri] The sailors have been watching the scene.  
They leave money and food in the care of the villagers.  
The money and food are enough for Mr. Sim's rest of life.  
Meanwhile,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ars about the  
situation.  
She sends a maid to bring Sim Cheong to her.  
Sim Cheong says to his father, "The noble lady wants to see me.  
I will come back soon."  
"Okay. You can go there as long as you want."

선인들께 말하고, 무릉춘을 건너갈 제,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간다.  
 울며불며<sup>817)</sup> 건너갈 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양친<sup>818)</sup>이 구존<sup>819)</sup>허여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내 신세는 어이 허여 십오세에 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저렇<sup>820)</sup> 길을 걸어 무릉춘을 당도하니,  
 부인이 영접<sup>821)</sup>허여,  
 “에이,<sup>822)</sup> 천하<sup>823)</sup> 무정한 사람아.  
 나는 너를 딸로 여기는데,  
 너는 나를 속였느냐!  
 효성은 지극하나,  
 앞 못 보신 너의 부친 누계<sup>824)</sup> 의탁<sup>825)</sup>허라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지금 내가 줄 터이니,  
 선인들과 해약<sup>826)</sup>하라.”  
 심청이 여짜오대,  
 “장사하는 선인들께 수삭<sup>827)</sup>만에 해약하면, 선인들도 낭패<sup>828)</sup>요,  
 이제 후회 쓸 데 있소?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이제 두 말 하오리까?”  
 부인이 심청의 기색<sup>829)</sup>을 보고  
 다시 두 말 못 하시고,  
 “네 진정 그럴진대 너의 화상<sup>830)</sup>이나 그려 널 본 듯이 보겠노라.”  
 화공<sup>831)</sup>을 즉시 불러,  
 “삼낭자 생긴 형용, 수심겨워<sup>832)</sup> 앓은 모냥<sup>833)</sup> 역력히<sup>834)</sup> 잘 그려라.”  
 화공이 영<sup>835)</sup>을 듣고,

She talks to the sailors and goes over to Paradise Village.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She goes over in tears.  
 “Alas! How bad my fate is!  
 Some people are fortunate to have parents and live in wealth  
 and fame.  
 Why is my fate so bad that I leave this world at fifteen?”  
 They somehow arrive in Paradise Village.  
 The noble lady welcomes her.  
 “My goodness! How heartless you are!  
 I took you as my daughter.  
 But you betrayed me!  
 Your filial piety is great.  
 But who will your blind father turn to?  
 I will donate 300 bags of rice for you.  
 Break the promise with the sailors.”  
 Sim Cheong responds,  
 “If I break the promise after a few months, they will be in  
 trouble.  
 It is of no use to regret now.  
 I was sold at a price.  
 How can I withdraw my words now?”  
 The noble lady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can’t push her anymore.  
 “If you insist, I’ll draw a picture of you and see it as if it were  
 you.”  
 She calls an artist right away.  
 “Make a clear drawing of Sim Cheong’s look with the sad facial  
 expression.”  
 The artist carries out the order.

오색단청<sup>836</sup>)을 늘어놓고,  
 화용월태<sup>837</sup>) 고운 얼굴  
 모란화 한 송이가 세우<sup>838</sup>) 비에 젖은 듯이,  
 난초같은 푸른<sup>839</sup>) 머리 두 귀 밑에 땅인<sup>840</sup>) 것과,  
 녹의홍상<sup>841</sup>) 입은 태도  
 날날이 그려내어,  
 족자<sup>842</sup>) 떨어 걸어 놓으니  
 심청이가 둘이로다.  
 부인이 보고 기가막혀 화제<sup>843</sup>)를 쓰시는데,  
 ‘생지사지 일몽간의  
 연장하필누삼삼고?  
 세간최루단장처는  
 초록강남의 인미환이라.’<sup>844</sup>)  
 부인이 심청을 부여안고,  
 “이제 가면 언제나 올 것이냐?  
 오는 날이나 일러다오.”

## 28.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심청이 일어서며,  
 “갈 때가 늦어가니 어서 가겠습니다.”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인들은 재촉하고, 부친은 뛰고 우니,  
 심청이 하릴없어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길을 떠나는데,



He spreads out colors.  
She is as beautiful and elegant as a flower and the moon.  
She looks like a peony blossom wet with a fine rain.  
She has two braids as fresh as an orchid below her ears.  
She wears a yellowish green jacket and a red skirt.  
A picture is drawn vividly.  
The scroll is hung up.  
So there are two Sim Cheongs.  
The noble lady, dumfounded, writes a poem on the picture.  
'Birth and death are a dream.  
Why does an old person shed tears?  
A sad thing triggers tears.  
This person will go to a place of no return.'  
The lady hugs Sim Cheong.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Tell me when you will come back."

**28. (Leaving with the Sailors) Sim Cheong cries sadly  
a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Aniri] Sim Cheong stands up.  
"Now that it is getting late, I have to go."  
After saying goodbye, she comes back home.  
The sailors press her, and her father sobs wildly.  
Sim Cheong asks senior villagers to take care of her father.  
She leaves.

[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끌리는 초마<sup>845</sup>) 자락을 거듬거듬<sup>846</sup>)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 사뭇 젖네.

옆더지며<sup>847</sup>) 자빠지며

천방지축<sup>848</sup>) 따라갈 제,

건넌 마을 바라보며,

“이진사댁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일에 앵두 따고 노든<sup>849</sup>) 일을 네가 행여 생각느냐?<sup>850</sup>)

금년 칠월칠석야에<sup>851</sup>) 함께 결교<sup>852</sup>)허잖더니<sup>853</sup>)

이제는 하릴없다.

상침질<sup>854</sup>) 수놓기를 놀과<sup>855</sup>) 함께 허자느냐?

너희는 양친이 구존<sup>856</sup>)하니,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슬하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동리<sup>857</sup>)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붉게 모도<sup>858</sup>) 울고,

하나님도 아웁는지,

백일<sup>859</sup>)은 어디 가고 음운<sup>860</sup>)이 자욱허여

청산도 쩡그난 듯,<sup>861</sup>)

강수<sup>862</sup>)는 오열<sup>863</sup>)허네.

휘늘어져 곱든 꽃이 이울고저<sup>864</sup>) 빛을 잃고,

날아가는 저 제비도 나직이<sup>865</sup>) 떠 지지<sup>866</sup>) 울음 울고,

춘조<sup>867</sup>)는 다정허여 백반제송<sup>868</sup>)허는 중에,

“문노라 저 피꼬리,

뉘를 이별하였간디<sup>869</sup>)

환우성<sup>870</sup>) 지어 울고,

뜻밖에 두견이는 ‘귀촉도,<sup>871</sup>) 귀촉도, 불여귀’<sup>872</sup>)라

**[Jungmori]** Sim Cheong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again and again.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trips and falls over.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over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house!  
 Do you remember we had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sked me to be your friend on July 7th this year.  
 It is futile now.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You have parents.  
 Be happy with them.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All villagers weep till their eyes swell.  
 God must know this situation too.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The mountains appear to frown.  
 A river chokes with sobs.  
 Beautiful drooping flowers lose their color.  
 A passing swallow flies low and chirps.  
 All spring birds are warmhearted to sing sad song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says, ‘No return. No return.’

네 아무리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이 돌아오리?"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sup>873)</sup>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 부딪치니,  
 꽃을 들고 허는 말이,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낙화래라?<sup>874)</sup>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sup>875)</sup>  
 죽으로 가는 몸이  
 어느 때나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라마는  
 수원수구<sup>876)</sup>를 어이 허리?”  
 걷는 줄을 모르고 울며불며 길을 걸어,  
 강변<sup>877)</sup>을 당도하니,  
 선두<sup>878)</sup>에다 족판<sup>879)</sup> 놓고 심청을 인도하는구나.

## **29.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슬퍼한다.**

[아니리] 이 때에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직하고,  
 공선<sup>880)</sup>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sup>881)</sup> 없이 만경창과<sup>882)</sup>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진양조] 범피중류<sup>883)</sup> 등덩실<sup>884)</sup> 떠나간다.  
 망망현<sup>885)</sup> 창해<sup>886)</sup>이며,

You cry hard.  
 But how will I come back when I was sold at a price?"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A strong wind blows.  
 A petal of a sweetbrier flies on to Sim Cheong's face.  
 She grabs it and says,  
 "If the spring wind doesn't know how I feel,  
 why would it send the falling petal to me?  
 An ancient princess once decorated herself with ume blossoms.  
 But I am leaving to die.  
 When will I come back?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But whom can I resent?"  
 She walks in tears without knowing her own walking.  
 They arrive by a river.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and lead Sim  
 Cheong.

**29.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Aniri]** Sim Cheong says goodbye to the world.  
 She moves onto the empty boat.  
 The boat drifts permanently on vast blue sea without a clear  
 direction.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탕탕헌<sup>887)</sup> 물결이라.  
 백빈주<sup>888)</sup> 갈매기는 홍요안<sup>889)</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890)</sup>의 기러기는 한수<sup>891)</sup>로 돌아든다.  
 요량한<sup>892)</sup> 남은 소리  
 어적<sup>893)</sup>이 여그런만,<sup>894)</sup>  
 곡종인불견에 수봉만 푸르렀다.<sup>895)</sup>  
 애내성중만고수<sup>896)</sup>는 날로<sup>897)</sup> 두고 이름인가?  
 장사<sup>898)</sup>를 지내가니 가태부<sup>899)</sup> 간 곳 없고,  
 먹라수<sup>900)</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901)</sup> 어복충훈<sup>902)</sup>  
 무량<sup>903)</sup>도 허시던가?  
 황학루<sup>904)</sup>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sup>905)</sup>는  
 최호<sup>906)</sup>의 유적<sup>907)</sup>이라.  
 봉황대<sup>908)</sup>를 돌아드니  
 삼산반락청원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909)</sup>는  
 이태백<sup>910)</sup>이 노든<sup>911)</sup> 데요,  
 심양강<sup>912)</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913)</sup> 일거 후에<sup>914)</sup>  
 비파성<sup>915)</sup>이 끊어졌다.  
 적벽강<sup>916)</sup>을 당도허니 소동파<sup>917)</sup> 노든 풍월<sup>918)</sup>  
 의구하야<sup>919)</sup> 있다마는,  
 조맹덕<sup>920)</sup> 일세지옹<sup>921)</sup> 이금에 안재재오?<sup>922)</sup>  
 월락오제<sup>923)</sup> 깊은 밤에  
 고소성<sup>924)</sup>에 배를 매니,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is heard from a distan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where a famous ancient official has gone.  
 A big river is seen.  
 A famous ancient poet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The sun has set.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That is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灏).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the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where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where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한산사<sup>925)</sup> 쇠북소리<sup>926)</sup> 객선에<sup>927)</sup> 텅 텅 들리는구나.<sup>928)</sup>  
 진회수<sup>929)</sup>를 건너가니,  
 격강의<sup>930)</sup> 상녀<sup>931)</sup>들은 망국한<sup>932)</sup>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데<sup>933)</sup>  
 후정화<sup>934)</sup>만 부르는구나.<sup>935)</sup>  
 악양루<sup>936)</sup> 높은 지붕 호상에<sup>937)</sup> 솟았는 듯,  
 무산<sup>938)</sup>의 돋는 달은 동정호<sup>939)</sup>로 비쳐오니,  
 상하천광<sup>940)</sup>이 거울<sup>941)</sup> 속에 푸르렀다.  
 창오산<sup>942)</sup>이 아득하니, 황룡묘<sup>943)</sup> 잠겼어라.  
 산정의<sup>944)</sup> 잔나비<sup>945)</sup>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sup>946)</sup>소인<sup>947)</sup>이 눈물을 몇몇이나 빗었든고?

### 30. (원혼 만남) 심청이 배를 타고 가며 열녀와 충신들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레] 또 한 곳을 당도하니,  
 향풍<sup>948)</sup>이 일어나며  
 죽림<sup>949)</sup> 사이로 옥패<sup>950)</sup>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sup>951)</sup>을 높이 쓰고 신을 끌고 나오면서,  
 “저기 가는 심소저<sup>952)</sup>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를 내가멸이라.<sup>953)</sup>



The sound of a bell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traveler's ears.

The boat gets to a famous canal.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wa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wa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ang songs.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like a mirror.

Smoke on a mountain covers the shrine of the two queens :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apes of three valleys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 **30. (Meeting Vindictive Spirit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on the boat.**

[Jungmori]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A fragrant wind blows.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wearing divine hats come out, dragging their shoes.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our sad story.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 will disappear.

천추<sup>954</sup>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효<sup>955</sup> 너를 보니  
 오죽이나 음전허냐?<sup>956</sup>  
 요순 후 기천 년에<sup>957</sup>  
 지금은 천자 어느 뉘며,<sup>958</sup>  
 오현금<sup>959</sup> 남풍시<sup>960</sup>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수로<sup>961</sup> 먼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는 뉘고허니<sup>962</sup> 요녀순처 만고열녀 이비로다.<sup>963</sup>  
 서산<sup>964</sup>을 당도허니  
 광풍<sup>965</sup>이 대작하며<sup>966</sup>  
 찬 기운이 소삼더니<sup>967</sup>  
 어떠한 신이 나오는데,  
 키는 구 척이요,  
 면여거륜<sup>968</sup>하야  
 미간이 광활허고,<sup>969</sup>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릅쓰고<sup>970</sup>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내의 말을 듣고 가라.  
 원통타 우리 오왕,  
 자란<sup>971</sup>의 참소 듣고  
 속루검<sup>972</sup>을 나를 주어 목 찢어서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 이 물에 던졌더니,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이 멸오함을 보려고,<sup>973</sup>  
 내 일찍 눈을 빼어 동문상에다 달고 왔네.<sup>974</sup>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Today, we saw you, a good daughter.  
 You look graceful.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our kings, Yao(堯) and  
 Shun(舜), died.  
 How is the king now?  
 Are his pentachord and poem inherited?  
 Take care on your long journey on the sea."  
 They are the two famous princesses and faithful queens of  
 ancient time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boat arrives at a shrine.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god shows up.  
 He is nine feet tall.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His eyes are closed.  
 His body is wrapped with leather.  
 He runs out quickly.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my story.  
 I resent my king.  
 He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a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slit my own throat.  
 My body was wrapped up with leather and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so resentful that in order to watch the downfall of my  
 country,  
 I gouged out my eyes and hung them on the east gate.

세상에 나가거든 내 눈 찾아 전해주소.  
 천추의 원통헌 것, 눈 없는 것이 한이로다.”  
 홀연 간 곳 없고  
 물만 와르르르르 출렁.  
 이는 넉고허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sup>975</sup>)라.  
 먹라수<sup>976</sup>)를 당도허니  
 어떠한 두 사람이 택반<sup>977</sup>)으로 나오는데,  
 앞서 오는 한 사람 슬피 통곡 우는 말이,  
 “진나라 속임 입어 삼년 무관의 고국을 바라보며<sup>978</sup>) 미귀혼<sup>979</sup>)이 되  
 었더니,  
 박랑퇴성<sup>980</sup>) 반기<sup>981</sup>) 듣고  
 속절없는 동정 달에<sup>982</sup>) 헛 춤만 추었노라.”<sup>983</sup>)  
 뒤에 오는 한 사람은 왕자<sup>984</sup>)의 기상이나  
 얼굴이 초췌<sup>985</sup>)허고  
 형용<sup>986</sup>)이 고고<sup>987</sup>)허니,  
 이는 초나라의 굴원<sup>988</sup>)이로다.  
 ‘죽은 지 수천 년에 정혼<sup>989</sup>)이 남아 있어  
 사람의 눈에 와 보일진대,  
 이도 또한 귀신이라.  
 내가 죽을 징조로구나.’  
**[진양조]** 배의 밤이 몇 밤이며,  
 물의 날이 몇 날이나 되든고?  
 무정한 사오삭<sup>990</sup>)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금풍삼이석기<sup>991</sup>)허고  
 옥우괵이쟁영이라.<sup>991</sup>)  
 낙하는 여고목제비<sup>992</sup>)허고

If you go out to the world, find my eyes for me.  
 I am resentful forever because I don't have eyes."  
 He suddenly disappears.  
 Only waves are heard.  
 This is a famous loyal subject of ancient times.  
 The boat now arrives at a big river.  
 Two men show up on a hill near a pond.  
 One of them in the front says in a sad voice,  
 "Deceived by my rival country, I died while missing my country  
 for three years.  
 I was glad to hear the sound of an iron hammer.  
 I danced in vain when the moon was reflected on the lake."  
 The other man behind him appears to be a king.  
 His face is haggard.  
 He looks thin and lean.  
 He is an ancient scholar, Qu Yuan(屈原).  
 'souls of people who died thousands of years ago  
 are seen to human eyes.  
 So he must be a spirit too.  
 This is a sign that I will die.'

**[Jinyangjo]** How many nights did I spend on the boat?  
 How many days did I spend on the sea?  
 Several crue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n arrow.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falling of the evening glow.

추수공장천일색이라.<sup>992)</sup>  
 강안에 굴농 황금이 천편,<sup>993)</sup>  
 노화에 풍기허니 백설이 만점이라.<sup>994)</sup>  
 심포세류<sup>995)</sup> 지는 앞은 만강추풍<sup>996)</sup>에 흩날리고,  
 옥로청풍<sup>997)</sup> 불었난디,  
 외로울사 어선들은 등불을 도도키고<sup>998)</sup> 어가<sup>999)</sup>로 화답을 허니,  
 도우나니 수심이요,  
 해반청산<sup>1000)</sup>은 봉봉이 칼날 되어  
 녹는 것이 간장이라.<sup>1001)</sup>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고?<sup>1002)</sup>  
 송옥<sup>1003)</sup>의 비추부<sup>1004)</sup>가 이에서<sup>1005)</sup> 슬프리오?  
 동녀<sup>1006)</sup>를 실었으니  
 진시황의 채약 뱅가?<sup>1007)</sup>  
 방사<sup>1008)</sup>는 없었으나  
 한무제<sup>1009)</sup>의 구선<sup>1010)</sup>인가?  
 “지레<sup>1011)</sup> 내가 죽자허니 선인들이 수직<sup>1012)</sup>을 허고,  
 살아 실려 가자허니 고국이 창망<sup>1013)</sup>이로구나.  
 죽도 사도 못허는 내 신세를,  
 아이고 이 일을 어쩔까나!”

### 31.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하여 심청은 아버지 눈뜨 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옛모래] 한 곳 당도허니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fall are of the same color.  
Tangerines on the bank of a river are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White flowers are scattered by a wind like snow.  
Fall winds disperse the leaves of the willows around a river.  
The leaves contain a clear dew and a cool wind.  
Lonely fish boats hang lamps high and respond with a fishing song.

What rises up is anxiety.  
The peaks of a green mountain on the beach are sharp.  
What melts down are liver and intestines.  
The sun sets in the late fall.  
Where should I pay a tribute to the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Would the poem by an ancient poet be more sad than this?  
Girls are on the boat.  
So is it an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herb?  
A student is not on the boat.  
But is it another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god?  
"I want to kill myself, but the sailors are watching me.  
I want to go back alive, but my country is far from here.  
My fate allows me neither to die nor to live.  
Alas! What should I do?"

**31.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Eot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이는 곧 인당수라.  
 어룡<sup>1014</sup>)이 싸우는 듯,  
 벽력<sup>1015</sup>)이 내리는 듯,  
 대양<sup>1016</sup>)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 뒤섞여 저저진<sup>1017</sup>)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져  
 천지 적막헌디,  
 까치늪<sup>1018</sup>) 떠들어와 뱃전머리<sup>1019</sup>) 탕탕,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  
 도사공<sup>1020</sup>) 영좌<sup>1021</sup>) 이하 황황급급<sup>1022</sup>)하야 고사기계<sup>1023</sup>)를 차린다.  
 섬쌀<sup>1024</sup>)로 밥 짓고,  
 온 소<sup>1025</sup>) 잡고,  
 동우<sup>1026</sup>) 술, 오색 탕수,<sup>1027</sup>) 삼색 실과<sup>1028</sup>)를 방위 찾아서 갈라놓고,  
 산 돌<sup>1029</sup>)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동 보라.  
 심청을 목욕 시켜 뱃전머리<sup>1030</sup>) 앉힌 후에,  
 도사공 보소.  
 의관<sup>1031</sup>)을 정제<sup>1032</sup>)허고, 복채를 양 손에 쥐고.  
**[자진모레]**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 둥 둥 두리둥 둥 둥 둥 둥.  
 “헌원씨<sup>1033</sup>) 배를 무어<sup>1034</sup>) 이제불통<sup>1035</sup>) 헌 연후에,<sup>1036</sup>)  
 후생<sup>1037</sup>)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sup>1038</sup>)허니  
 막대한 공 이 아니냐?  
 하후씨<sup>1039</sup>) 구년 치수<sup>1040</sup>) 배를 타고 다사렬<sup>1041</sup>) 제,  
 오복의 공수<sup>1042</sup>) 구주<sup>1043</sup>)로 돌아들고,



This is Indang Water.  
It is as if a fish and a dragon fought with each other.  
It is as if thunder fell down.  
A wind generates waves in the wide sea.  
A heavy fog moves around.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four directions.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hard on the bow of the boat.  
Waves run wildly around the boat.  
The leader of the sailors and the rest quickly prepare for a rite.  
They cook a bag of rice.  
A sound cow is killed.  
A jar of wine, soups of various colors, and diverse fruit are put  
in appropriate places.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Behold the leader of the sailors.  
He has Sim Cheong take a bath and sit at the bow.  
Behold the leader.  
He puts on formal clothes and holds two drumsticks.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n ancient king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Isn't th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dealt with the nine year flood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오자서<sup>1044</sup>) 분오할 제<sup>1045</sup>) 노가로 건너주고,<sup>1046</sup>)  
 해성의 패한 장수<sup>1047</sup>) 오강<sup>1048</sup>)으로 돌아들어 우선대기<sup>1049</sup>) 건너주고,  
 공맹<sup>1050</sup>)의 탈조화<sup>1051</sup>)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 대병 주유<sup>1052</sup>)로 화공<sup>1053</sup>)하니,  
 배 아니면은 어이허리?”  
 그저 북을 두리둥 등 등 등 두리둥 등 두리둥 등 등.  
 “주요요이경양<sup>1054</sup>)은 도연명<sup>1055</sup>)의 귀거래,<sup>1056</sup>)  
 해활한 고범주난<sup>1057</sup>) 장한의 강동거<sup>1058</sup>)요,  
 임술지추칠월<sup>1059</sup>)에 소동파<sup>1060</sup>) 놀아 있고,  
 지국충<sup>1061</sup>) 어사와<sup>1062</sup>)허니  
 고예승류무정거<sup>1063</sup>)난 어부의 질검,<sup>1064</sup>)  
 계도란예화정표난 오희월녀채련주요,<sup>1065</sup>)  
 타고 발선<sup>1066</sup>)허고 보니 상고선<sup>1067</sup>)이 이 아니냐?  
 우리 선인 스물네 명 상고<sup>1068</sup>)를 위업<sup>1069</sup>)하야  
 경세우경년<sup>1070</sup>)에 표박서남을 다닐 적에,  
 오늘날 인당수 인제수<sup>1071</sup>)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sup>1072</sup>)이며,  
 서해신 거승<sup>1073</sup>)이며,  
 북해신 흑룡이며,  
 남해신 청룡이며,  
 강한지장<sup>1074</sup>)과  
 천택지군<sup>1075</sup>)이  
 하감<sup>1076</sup>)하여 주읍소서.  
 비림<sup>1077</sup>)으로 바람 주고,  
 화락<sup>1078</sup>)으로 인도하야  
 환난<sup>1079</sup>) 없이 도우시고,

When an ancient warrior fled, he crossed the river with a boat song.

A defeated ancient warrior warrior, Xiang Yu(項羽), came to a river and crossed it for a future counterattack.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created a southeast wind.

He had a warrior attack a million troops with fire on a river.  
All these things were possible thanks to boats.”

The leader hits the drum: tom-tom, boom-boom.

“An ancient poet said a boat shakes and moves forward.

Another ancient poet said a lonely sailing boat leaves slowly on the vast sea.

Another ancient poet wrote a great poem on a boat in autumn.  
Let's pull up the anchor and row the boat.

It is a fisherman's fun to stop rowing and follow the current forever.

In ancient times, some women picked up lotus from a boat on a river.

We sailed on this business boat.

We, 24 sailors, took to doing business as our profession.

We traveled many places for several years.

Today, we offer a human sacrifice at Indang Water.

The god of the east sea,

the god of the west sea,

the black dragon of the north sea,

the blue dragon of the sou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good care of us.

Give us a wind from the god of the wind,

lead us to peace and happiness,

protect us from only disasters,

백천만금<sup>1080</sup>) 퇴<sup>1081</sup>)를 내어  
뚝대 위에 봉기<sup>1082</sup>) 꽃고, 봉기 위에 연화<sup>1083</sup>) 받게 짐지하야 주옵소  
서.

고시래!”<sup>1084</sup>)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여보,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데,

“도화동이 저기 운애<sup>1085</sup>)만 자욱헌 데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사배하고<sup>1086</sup>) 엎드러지더니마는,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심청이는 추호도<sup>1087</sup>) 생각 마옵시고,

어서어서 눈을 떠 대명천지<sup>1088</sup>) 다시 보고,

좋은 데 장가들어 칠십생남<sup>1089</sup>) 하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sup>1090</sup>) 퇴를 내어 고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글랑은<sup>1091</sup>)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라!”

**[휘모리]** 심청이 거동 바라.

샛별같은 눈을 감고,

치마 자락을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만경창파<sup>1092</sup>) 갈매기격으로<sup>1093</sup>) 그저 뗏다 물에 ‘퐁!’

help us make a lot of profits,  
and help us hang the banner of success and a lotus flower on  
our mast!  
Accept this food!"  
The rite is over.  
"Miss Sim, get into the water!"  
He presses her hard.  
She heard the request that she die.  
"Sailors! Where is Peach Blossom Village?"  
The leader steps forward and holds up his fingers.  
"Peach Blossom Village is below the thick clouds and fog over  
there."  
Troubled, Sim Cheong gives four big bows and kneels down.  
"Alas, father!  
Please don't miss your bad daughter at all.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Please remarry and have a son at the age of seventy.  
Sailors!  
Please make a lot of money, go back to our country, and  
console my father."  
"Don't worry about that.  
Jump into the water now!"

**[Hwimori]** Behold Sim Cheong!  
She closes her beautiful eyes.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runs to the bow.  
She jumps heavily into the vast sea like a seagull.

### 32.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후 이를 지켜보던 선인들이 울며 떠나간다.

[진양조] 향화<sup>1094</sup>)는 풍랑을 좇고,  
명월은 해문<sup>1095</sup>)에 잠겼도다.  
영좌<sup>1096</sup>)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sup>1097</sup>) 화장<sup>1098</sup>)이 모두 울 제,  
“장사도 좋거니와  
우리가 연년이<sup>1099</sup>)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sup>1100</sup>)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  
뎃 감어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우후청강무한경<sup>1101</sup>)을,  
문노라 저 백구<sup>1102</sup>)야.  
홍요월색<sup>1103</sup>)이 어는 곳고?<sup>1104</sup>)  
일강세우 네 평생<sup>1105</sup>)에 너는 어이 한가허느냐?”  
범피창과<sup>1106</sup>) 높이 떠서 도용도용<sup>1107</sup>) 떠나간다.

### 33.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극진히 모셔 수정궁으로 데려간다.

[아니리] 그 때에 심청이는 이 세상에서 꼭 죽은 줄 알았건마는,  
이러한 출천대효를 하늘이 그저 두고 볼 리 있겠느냐?  
그 때여 옥황상제<sup>1108</sup>)께옵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sup>1109</sup>)하시되,  
“묘일<sup>1110</sup>) 묘시<sup>1111</sup>)에 유리국<sup>1112</sup>) 도화동 심학규 딸이 임당수에 들  
것이니,

### 32. (The Sailors Sigh) Sailors watch Sim Cheong jump into the water, and leave weeping.

[Jinyangjo] A burning incense follows the wind.  
The full moon is immersed in the horizon.  
All sailors - the leader, rowers, assistants, and the cooks - weep.  
“Doing business is okay.  
But every year, we have been sacrificing human beings here.  
Would our children be successful?  
Pull up the anchor.  
Yo-heave-ho!  
The view is great after the rain on the river.  
I ask you, seagull.  
Where does the moonlight shine on the red stems of water peppers in autumn?  
How can you spend your whole life leisurely on a rainy river?”  
The boat leaves, floating on the blue sea.

### 33.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respectfully takes Sim Cheong to the dragon palace.

[Aniri] In the meantime, people thought that Sim Cheong died.  
Heaven would not just watch the good daughter die.  
The King of Heaven calls and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Sim Hak-gyu’s daughter will jump into Indang Water at such and such time.

수궁에 착실히 모시어라.”

용왕이 수명<sup>1113</sup>)하고 내려와,

각 궁 시녀를 불러 하교하시되,

“묘일 묘시 유리국 도화동 삼학규 딸이 인당수에 들거든  
수궁에 착실히 모시어라.”

때마침 묘시 초<sup>1114</sup>)라,

옥교<sup>1115</sup>)를 가지고 인당수 내달으니,

심낭자 물에 들렀다.

“부왕의 분부 받아 모시러 왔사오니,

교자<sup>1116</sup>)를 타시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sup>1117</sup>)한 사람으로

어찌 용궁 교자를 타오리까?”

“만일 타시지 아니하면, 옥황상제께옵서 수궁에 대죄<sup>1118</sup>)를 내리실  
것이오니

사양치 마옵소서.”

마지못하여 교자 위에 올라앉으니,

**[옛모리]** 위의<sup>1119</sup>)도 장할시고.<sup>1120</sup>)

위의도 장할시고.

천상 선녀 선관<sup>1121</sup>)들이 심소저를 보라하고,

태을진<sup>1122</sup>) 학을 타고,

안기생<sup>1123</sup>) 난<sup>1124</sup>) 타고,

구름 탄 적송자,<sup>1125</sup>)

사자 탄 갈선웅,<sup>1126</sup>)

고래 탄 이적선,<sup>1127</sup>)

청의동자,<sup>1128</sup>) 홍의동자<sup>1129</sup>) 쌍쌍이 모였다.



Take her carefully to your dragon palace.”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and comes down.  
He calls maids and gives an order.  
“Sim Cheong, Sim Hak-gyu’s daughter, will jump into Indang  
Water at such and such time.  
Bring her carefully to this dragon palace.”  
The time has come.  
The maids go to Indang Water with a carriage.  
Miss Sim jumps into the water.  
“We are here to meet you under the dragon king’s order.  
Please get on the carriage.”  
Sim Cheong responds,  
“I am a humble human being.  
How can I get on the carriage of the dragon palace?”  
“If you don’t get on it, the King of Heaven will severely punish  
us all in the dragon palace.  
Please don’t decline.”  
She has no choice but to get on the carriage.

**[Eotmori]** How magnificent!  
How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want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divine bird.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lion.  
Another is on a whale.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월궁향아,<sup>1130)</sup> 마고선녀,<sup>1131)</sup> 남악부인,<sup>1132)</sup>  
 팔선녀들<sup>1133)</sup>을 좌우로 모셨난디,  
 풍악을 갓출 제,  
 왕자 진<sup>1134)</sup>의 봉피리<sup>1135)</sup> 지나루 나루나,  
 광처사<sup>1136)</sup> 죽장구<sup>1137)</sup> 찌리렁 쿵 쩡 쿵,  
 성연자<sup>1138)</sup> 거문고 등당기 등 당.  
 장자방<sup>1139)</sup>의 옥통소 뽀뽀루디루.  
 완적<sup>1140)</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141)</sup>  
 능파사,<sup>1142)</sup> 보허사,<sup>1143)</sup>  
 우의곡,<sup>1144)</sup> 채련곡<sup>1145)</sup> 곁들여다<sup>1146)</sup> 노래할 적,  
 낭자<sup>1147)</sup>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패용골이위량하니 영광이 조일이요,  
 집어린이작와하니 서기 반공이라.<sup>1148)</sup>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sup>1149)</sup>  
 산호 주렴,<sup>1150)</sup>  
 백옥 안상<sup>1151)</sup> 광채도 찬란허다.  
 주찬<sup>1152)</sup>을 들일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sup>1153)</sup> 호박병<sup>1154)</sup>에 천일주<sup>1155)</sup>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sup>1156)</sup>를 덩그렇게<sup>1157)</sup> 괴었으니,<sup>1158)</sup>  
 세상의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sup>1159)</sup>허고, 오일에 대연허며<sup>1160)</sup> 극진히 봉공<sup>1161)</sup>헌다.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e crossbeam made of dragon bones reflects divine light on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It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represent the five blessings.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Divine food and wine are brought in.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These things can't be seen in the human world.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 34.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옥진부인이 된 모친과 만난다.

[아니리] 이렇듯 화려하게 모실 적에,  
그 때여 천상에서 옥진부인<sup>1162</sup>이 하강을 허시는데,  
이는 뉘시고 하니,  
전 곽씨부인이 죽어 광한전<sup>1163</sup> 옥진부인이 되었구나.  
심청이 수궁에 머물러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sup>1164</sup> 하강을 허시는데,  
[진양조] 오색채단<sup>1165</sup>을 기린에 가득 실코,  
벽도화<sup>1166</sup> 단계화<sup>1167</sup>를 사면에 벌여 꽃고,  
청학, 백학은 전배<sup>1168</sup> 서고 수궁에 내려올 제,  
용왕도 황갑<sup>1169</sup>하야 문전에 배례<sup>1170</sup>할 제,  
옥진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낳은 곽씨로다.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히<sup>1171</sup> 되어,  
광한전 옥진부인이 되었는디,  
너는 부친 눈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이 곳에 들어왔단 말을  
듣고,  
너를 보러 내 왔노라.  
세상에서 못 먹든 것 이제 많이 먹어 보아라.”  
심청 얼굴을 끌어다 가슴에다 문지르며,  
“아이고, 내 자식아!  
꿈이면 꺾까 염려로다.”

34.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who  
became a goddess.

[Aniri] Sim Cheong is served well.

Meanwhile, the goddess of the moon comes down to the earth.  
Who is this goddess?

Mrs. Gwak died and became the goddess of the moon.  
She heard that Sim Cheong stays in the sea palace.  
She is coming down to meet her.

[Jinyangjo] The goddess comes down with a giraffe carrying silks  
of various colors.

She is decorated with divine blue peach flowers and cinnamon  
flowers.

She is escorted b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The dragon king bows to her at the gate.

The goddess comes in and grabs Sim Cheong's hands.

"You must not know me.

I was your mother in the human world.

Your father must be old now.

I became noble after I died.

I am now the goddess of the moon.

I heard you are here because you were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your father's eyes.

I am here to see you.

Help yourself with my milk you couldn't eat in the human  
world."

She pulls Sim Cheong's face to her bosom and rubs her.

"Oh my sweetheart!

I am afraid I might wake up as if this were a dream."

그제야 심청이 모친인 줄 짐작하고,  
 부인 목을 부여안고,  
 “아이구, 어머니! 어머니 이게 꿈이요, 생시오?  
 불효여식 심청이는 앞 어두운 백발 부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뉘를 의지허오리까?”  
 부인이 심청을 만류난디,<sup>1172)</sup>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다시 나가,  
 네 몸 귀히 될 것이요, 만종록<sup>1173)</sup>을 누리리라.  
 광한전 맡은 일이 직분<sup>1174)</sup>이 허다<sup>1175)</sup>허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나는 올라간다마는  
 내 딸 너도 잘 가거라.”  
 옥패<sup>1176)</sup> 소리가 쟁쟁<sup>1177)</sup> 나더니마는  
 오색채운<sup>1178)</sup>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기가 막혀 따라갈 수도 전혀 없고,  
 가는 모친을 우두머니<sup>1179)</sup>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 35. (심청 환생) 심청이 꽃 속에 환생하여 인당수로 나오니, 지나가던 도사공이 발견한다.

[아니리] 이렇듯 작별 후에,  
 심낭자 방년<sup>1180)</sup>이 가까운지라,  
 옥황상제께옵서 사해 용왕을 불러 또 다시 하교하시되,

Sim Cheong now thinks that the goddess is her mother.  
She hugs the goddess's neck.  
"Oh my mother! Is this a dream or real?  
I, a bad daughter, left my old blind father behind.  
Whom will my lonely father rely on?"  
The goddess consoles Sim Cheong.  
"My daughter, Cheong! Don't cry.  
You will go back to the human world.  
You will become noble, and be served by the government.  
I have many things to do on the moon.  
I can't stay here for long.  
I am going up.  
Honey, take care of yourself."  
Clear sounds by jewels are made.  
The goddess flies up on clouds of various colors.  
Sim Cheong is dumb struck, but she can't follow her.  
She vacantly watches her going up.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separated again.

**35. (The Reincarnation of Sim Cheong)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and sent back to Indang  
Water. The sailors spot the flower.**

[Aniri] Sim Cheong bid farewell to her mother.  
Miss Sim gets old enough to marry.  
The King of Heaven again calls the dragon king and gives him  
another order.

“심낭자 방년이 가까우니  
 인간<sup>1181</sup>)에 귀인<sup>1182</sup>)으로 환생<sup>1183</sup>)케 하라.”  
 용왕이 수명<sup>1184</sup>)하고 내려와  
 심소저를 환송<sup>1185</sup>)할 제,  
 꽃 한 봉지<sup>1186</sup>)를 조화 있게 만들어  
 그 속에다 모시고, 양대 선녀<sup>1187</sup>)로 시위하고,  
 금은 보패<sup>1188</sup>)를 가득히 넣고  
 조석으로<sup>1189</sup>) 봉양<sup>1190</sup>)케 하여  
 인당수 띄웠구나.  
 용왕의 조환지라<sup>1191</sup>)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젖을쏘냐?  
 오색채운이 꽃봉이에 어리어  
 주야 등당실 떠 있을 제,  
 그 때여 남경 장사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sup>1192</sup>)를 내야 고국으로 돌아  
 올 제,  
 인당수 당도허니  
 홀연 심소저 효행이 감동되는지라,  
 제물을 정히<sup>1193</sup>) 차려놓고  
 심소저<sup>1194</sup>) 혼을 불러 위로를 허는디,  
**[중모레]** 북을 두리둥 둥 울리면서, 슬피 울며 제 지낸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뉘 넋이냐?  
 오장원<sup>1195</sup>)에 낙상<sup>1196</sup>)하던 공명의 넋도 아니요,  
 삼년 무관의 초 회왕<sup>1197</sup>)의 넋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낭자의  
 넋이로구나.



“Miss Sim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Reincarnate her into a noble person in the human world.”  
The dragon king comes down with the order.  
He sends her back to the human world.  
He makes a mysterious flower.  
She is served by two maids inside the flower.  
They carry many jewels in the flower.  
She is served day and night.  
The flower springs up at Indang Water.  
It is the work of the dragon king.  
So wind cannot shake it.  
Rain cannot soak it.  
Clouds of various colors surround it.  
It is afloat on the water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are on their way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money.  
They reach Indang Water.  
All of a sudden, they are reminded of Sim Cheong.  
They prepare food for a ritual.  
They conjure up Sim Cheong’s soul to console it.

**[Jungmori]** The sailors cry and hit the drum, while holding a rite.  
“We are calling up a sou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who  
got hurt from a fal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king who was held in hostage  
for three years.  
It is the soul of Miss Sim who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and  
became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o open her father’s eyes.

혼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sup>1198</sup>)을 허옵소서.”  
 제물<sup>1199</sup>)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떠있는디 세상의 못 본 바라.<sup>1200</sup>  
 도사공이 허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sup>1201</sup>) 않소.  
 옛날 진평<sup>1202</sup>)이가 범아부<sup>1203</sup>)를 잡으라고, 황금 사만 근을 초군 중  
 에다<sup>1204</sup>) 흘렸으니  
 무슨 금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화분곤산<sup>1205</sup>) 불이 붙어 옥석<sup>1206</sup>)이 모두 다 탔으니,  
 옥 한 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십리<sup>1207</sup>)가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어라, 저어라.”  
 어어 여기야 여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sup>1208</sup>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허고,  
 오색채운이 어렸구나.

If you are with us, please help yourself with this food."  
 The sailors spread the offering over the sea.  
 They wipe their tears.  
 Something unusual floats on the sea.  
 The leader asks, "What is that? Is that gold?"  
 "That can't be gold.  
 An ancient politician gave tons of gold to soldiers in order to  
 arrest an assassin."  
 So how can that be gold?"  
 "Is that jade, then?"  
 "That can't be jade.  
 All jade burned down after the mountain of jade caught on fire.  
 Would there be jade now?"  
 "Is that a wild rose, then?"  
 "That can't be a wild rose.  
 A sand beach is too far from here.  
 How can that be a wild rose?"  
 "Then, what is it?  
 Let's get close to it.  
 Row the boat!"  
 "Yo-ho! Yo-heave-ho!"  
 Once closer, they notice the fragrant aroma comes from the  
 flower.  
 Colorful clouds surround it.

### 36.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 친다.

[아니리] 그 꽃을 고이 싣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sup>1209)</sup> 남은 재물 각기 짓을<sup>1210)</sup> 나눌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sup>1211)</sup>을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해 두었구나.

그 때는 어느 땐고.

송천자<sup>1212)</sup>께옵서 황후 붕<sup>1213)</sup>하신 후 납비<sup>1214)</sup>를 아니하시고,  
온갖 기화요초<sup>1215)</sup>를 구해 들여  
황극전<sup>1216)</sup>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놓고,  
날로 구경허실 적에,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용군자용<sup>1217)</sup>

만당추수의 홍련화,<sup>1218)</sup>

암향부동월황혼<sup>1219)</sup> 소식 전턴 한매화,<sup>1220)</sup>

진시유랑거후재<sup>1221)</sup>라 붙어 있다고 복송꽃,<sup>1222)</sup>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sup>1223)</sup>

삼천제자<sup>1224)</sup>를 강론<sup>1225)</sup>을 허니 행단춘풍의<sup>1226)</sup> 은행꽃,

이화만지불개문허니 장신궁중 배꽃이요,<sup>1227)</sup>

천태산<sup>1228)</sup> 들어가니 양변개작약<sup>1229)</sup>이요,

원정부지이별허니 옥창오건의 앵도화,<sup>1230)</sup>

촉국한<sup>1231)</sup>을 못 이기어 제혈<sup>1232)</sup>허든 두견화,<sup>1233)</sup>

이화,<sup>1234)</sup> 노화,<sup>1235)</sup> 계관화,<sup>1236)</sup>

36. (Flower Song) The emperor loves flowers, and enjoys watching them. Knowing this,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 sailors carefully carry the flower to their country. They divide their hug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ir rank. Somehow, the owner of the boat is not interested in the profits. He only takes the flower.

When is it now?

The emperor hasn't yet re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collected all sorts of beautiful flowers and grass.

He planted them densely in the wide garden of the palace.

He enjoys watching them everyday.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 fall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Ginkgo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that lined both sides of the road of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from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황국,<sup>1237)</sup> 백국,<sup>1238)</sup> 사계화,<sup>1239)</sup>  
 동원도리편시춘,<sup>1240)</sup>  
 목동요지가 행화춘,<sup>1241)</sup>  
 월중단계무삼경<sup>1242)</sup>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sup>1243)</sup> 난초, 파초,<sup>1244)</sup>  
 오미자, 치자,<sup>1245)</sup> 감과,<sup>1246)</sup> 유자,  
 석류, 비파,<sup>1247)</sup> 능금,  
 포도, 머루, 어름,<sup>1248)</sup> 대초,<sup>1249)</sup>  
 각색 화초, 갓은 향과<sup>1250)</sup> 좌우로 심었는디,  
 향풍<sup>1251)</sup>이 건뒸<sup>1252)</sup> 불면, 벌, 나비, 새, 짐승들이 지자울며<sup>1253)</sup> 노닌다.

### 37.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며 즐기다가, 꽃 속에서 있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아니리] 그 때에 도선주는 천자께옵서 온갖 기화요초<sup>1254)</sup>를 구하신  
 다는 소문을 듣고,  
 인당수 뿔던 꽃을 어전<sup>1255)</sup>에 진상<sup>1256)</sup>허였구나.  
 천자 보시고 대희하시사<sup>1257)</sup>  
 선인<sup>1258)</sup>을 입시<sup>1259)</sup>시켜 무창 태수<sup>1260)</sup>를 제수<sup>1261)</sup>허고,  
 그 꽃봉오리를 후원 화계상에다<sup>1262)</sup> 심어 놓고 날로 보실 적에,  
 [중모레] 천자 보시고 좋아라고,  
 “이 꽃이 웬 꽃이나? 이 꽃이 웬 꽃이나?  
 요지 벽도화<sup>1263)</sup>를 동방삭<sup>1264)</sup>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못 다 되니

yellow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blooms in spring.

A shephe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 nut, citron,

pomegranate, loquat, apple,

grape, wild grape, aclematis berry, and jujube.

Diverse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hen a gentle breeze blows.

### **37. (The Emperor Sees Sim Cheong) While watching his flowers, the emperor sees goddesses in the flower.**

[Aniri]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hears that the emperor seeks a beautiful flower.

He donate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The emperor is delighted.

The emperor calls him into the palace and appoints him as a governor.

He plants the flower in his garden and watches it everyday.

[Jungmori] The emperor is joyous to see the flower.

“What flower is this? What flower is this?”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에 둥둥 떠왔는지?  
 그 꽃 이름은 강선화<sup>1265</sup>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구경하실 적에,  
 일야<sup>1266</sup>는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에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거늘,  
 천자 괴이히<sup>1267</sup>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나, 사람일다?”<sup>1268</sup>  
 시녀 “예.” 하고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시녀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에<sup>1269</sup> 천안<sup>1270</sup>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sup>1271</sup>하오이다.”  
 이 말이 지듯마듯<sup>1272</sup> 인흘불견<sup>1273</sup> 간 곳 없고,  
 한 선녀만 서 있거늘,

### 38. (추월만정) 심청이 황후가 되어, 부친 생각에 눈물짓는다.

[아니리] 천자께옵서 대강 탐문<sup>1274</sup>하시니 세상의 심소저로구나.  
 시녀로 시위하야 별궁<sup>1275</sup>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석상<sup>1276</sup>에서 간밤 꽃 본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sup>1277</sup>이 여짜오되, “하나님이 국모<sup>1278</sup> 없으심을 알으시고 인연을  
 내렸사오니



So it can't be a divine peach blossom.  
 Did the lotus flower co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watches it day and night.  
 One night, he feels uneasy and takes a walk in the garden.  
 Unexpectedly, God Descending Flower opens up.  
 Goddesses stand there.  
 He is surprised.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The maids respond, "We are maids from the dragon palace.  
 We have taken Miss Sim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Unexpectedly, we are spotted by you.  
 I feel nervous."  
 The moment they finish, they disappear.  
 Only one goddess is now in the flower.

### **38. (The Garden with the Bright Fall Moon) Sim Cheong becomes an empress and in tears misses her father.**

**[Aniri]** After asking some questions, the emperor realizes that the goddess is Sim Cheong of the human world.  
 He orders his maids to take her to the residence for empress.  
 On the following morning, he discusses the matter about the flower with his subjects in a meeting.  
 The subjects say, "Heaven knows we don't have an empress, so it sent one to us.

물실차기<sup>1279</sup>) 하옵소서.”

울이<sup>1280</sup>) 여겨 그날로 택일<sup>1281</sup>)할 제, 오월 오일 갑자시라.

심황후 입궁<sup>1282</sup>) 후에 요순천지<sup>1283</sup>) 다시 보고, 선강직거<sup>1284</sup>) 되었던라.

그 때여 심황후 부귀는 무쌍하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고나.

일야는 옥난간<sup>1285</sup>)에 높이 앉어,

[진양조] 추월은 만정허여<sup>1286</sup>)

산호 주렴<sup>1287</sup>)에 비치어 들 제,

청천<sup>1288</sup>)의 외기러기는 월하에<sup>1289</sup>)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길룩’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기가 막혀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럭아.

소중량 북해상의 편지 전턴 기러기냐?<sup>1290</sup>)

도화동을 가거들랑 불쌍허신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 장 전하여라.”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 숨 쉴 적에,

눈물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마다 수묵<sup>1291</sup>)이 되니,

언어가 오착<sup>1292</sup>)이로고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sup>1293</sup>)헌 구름 밖의 별과 달만 두렷이<sup>1294</sup>) 밝았구나.

Please don't miss this chance."

Thinking that is right, the emperor selects the wedding date to be May 5th.

After Empress Sim entered the palace, the country becomes peaceful as if a god from heaven lives in it.

Meanwhile, Empress Sim lives a noble life, but she only misses her father.

One night, she sits on the jade terrace.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s it flies away.

Empress Sim is dumfounded and speaks to the wild goose.

"Wild goose, over there!

Are you the wild goose who sent an ancient diplomat's letter to his country?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send a letter to my poor father."

Empress Sim goes in her room to write a letter.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Tears drop on the letter, making the characters blotted.

Characters are mixed up.

She folds the letter and opens the door.

The wild goose is gone.

Only stars and the moon twinkled brightly beyond the clouds far away.

### 39. (맹인 잔치 마련) 천자는 백일 동안 맹인 잔치를 열 것을 명하고, 심청은 부친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니리] 천자 내궁<sup>1295</sup>)에 들어오시니,  
심황후 눈물 흔적이 있겠다.  
“부는<sup>1296</sup> 천하<sup>1297</sup>)를 차지하고,  
귀는<sup>1298</sup> 황후옵난디,<sup>1299</sup>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심황후 여짜오되, “천하막비왕토<sup>1300</sup>)요  
솔토지민이 막비왕민<sup>1301</sup>)이나,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한 때 황극전에서 위로함이 어떠هل런지요?”  
천자 치하하시고,  
그 날로 각 도 각 읍으로 행관<sup>1302</sup>)하시되,  
“대소 맹인간에<sup>1303</sup>) 황성<sup>1304</sup>) 잔치에 참례<sup>1305</sup>) 안 한 봉사 있으면,  
그 골 수령은 봉고파직<sup>1306</sup>)허리라.”  
이렇듯 전령<sup>1307</sup>)을 하여노니,  
지어<sup>1308</sup>) 애기봉사까지도 잔치에 참례하게 되었구나.  
그 때여 심황후는 석달 열흘 맹인 잔치를 배설<sup>1309</sup>)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아니하니,  
주야 자탄<sup>1310</sup>)으로 지낼 적에,

**39. (Throwing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eror orders to throw a banquet for the blind. Sim Cheong waits for her father to show up.**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notices the traces of tears on the empress's face.  
"You are rich to have the whole country.  
You are noble to be an empress.  
Why are you in distress?"  
The empress replies, "Every piece of the land belongs to you.  
All people in this country are your people.  
The blind are the most miserable people.  
Why don't we invite the blind to the palace and console them?"  
The emperor praises the empress.  
He sends out an official letter to every provincial office.  
"If a blind person, young or old, in a district fails to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of the district will be fired."  
The order is stated as above.  
So even a blind child is to attend the banquet.  
Empress Sim holds the banquet for about three months.  
She waits for her father, but he doesn't show up.  
She sighs day and night.

#### 40.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sup>1311)</sup>  
지내갈 제,  
무릉춘 승상 부인이 심소저 효행에 감동되어  
강두<sup>1312)</sup>에다 망사대<sup>1313)</sup>를 지어놓고 춘추로<sup>1314)</sup> 제 지낼 제,  
도화동 사람들도 심소저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sup>1315)</sup> 타루비<sup>1316)</sup>를 세워놓고,  
비문에 허였으되, ‘지우노친폐쌍안허여  
살신성효행선거라.  
연파만리상심벽허니  
방초년년환불귀’라.<sup>1317)</sup>  
이렇듯 비문을 하여 세워 놓으니,  
오고가는 행인들도 뉘 아니 슬퍼하랴?  
심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드면,  
지팽막대<sup>1318)</sup>를 훌어 짚고<sup>1319)</sup>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문<sup>1320)</sup>을 안고 울  
음이라.  
일일은 심봉사 마음이 산란허여  
지팽막대를 훌어 짚고, 더듬더듬 망사대를 찾아가서,  
“허유! 악아, 청아! 내가 왔다.  
너는 내 눈을 띄우라고 수중고혼<sup>1321)</sup>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나?  
날 데려가거라.  
나를 데려가그라.

**40.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spends time shedding tears after losing his  
daughter.**

[Jinyangjo] Meanwhile, Mr. Sim, a die-hard person, manages to live on.

The noble lady is mov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She builds a tower near the ferry, and holds a ritual every fall and spring.

The villagers are also touch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They build a monument of tears near the tower.

The monument reads, 'she worried that her old father was blind.

She left on board to kill herself and to serve her father.

The water is always blue and deep with fog.

Flowers and grass become green every year, but she does not come back.'

The epitaph is inscribed in the monument as above.

Would there be a passerby who does not feel sad?

Whenever Mr. Sim misses his daughter,

he holds a cane, visits the tower, hugs the epitaph, and sheds tears.

One day, he feels uneasy.

He manages to walk to the tower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honey. I am here.

You became a lonely soul in water to open my eyes.

My life is cruelly persistent.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Please take me there.

Please take me there.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비문 앞에 가 엎드려져,  
 내리둥굴<sup>1322</sup> 치둥굴<sup>1323</sup>며,  
 머리도 지끈,<sup>1324</sup> 가삼<sup>1325</sup>을 꿩꿩,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지서지<sup>1326</sup>를 가르치는구나.<sup>1327</sup>

####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이웃에 사는 뽕덕이네는 심 봉사에게 자원출가하였는데, 얼굴이 박색이고 행실이 심술궂다.

[아니리] 이렇듯 낮이면은 강두에 가서 울고,  
 밤이면은 집에 돌아와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그때여 그 마을 사는 묘한 여자 하나 있는데,  
 호<sup>1328</sup>가 뽕과였다.  
 심봉사 전곡<sup>1329</sup>이 풍부하단 말을 듣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자원출가<sup>1330</sup>하여,  
 이 몸쓸 뽕덕이네가  
 심봉사 가산<sup>1331</sup>을 꼭 먹성질<sup>1332</sup>로 망하는디,<sup>1333</sup>  
 꼭 이렇게 망하것다.

[자진모리]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벼 퍼 주고 고기 사먹고,  
 쌀 퍼 주고 떡 사 먹고,



I don't want to liv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hard.  
He moves his legs wildly.  
His finger points to this and that direction randomly.

**41. (Bbaengdeok's Appearance and Behavior) Bbaengdeok,  
a female neighbor, voluntarily marries Mr. Sim. She  
is ugly and does bad things.**

[Aniri] Mr. Sim cries near the ferry during the day.  
He cries back in his house at night.  
He spends his days and nights crying.  
Meanwhile, there lives a strange woman in the village.  
Her name is Bbangdeok.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food and money.  
She voluntarily marries him without announcing to the villagers.  
She is a bad woman.  
She runs through his properties by eating them away.  
She destroys them as follows:

[Jajinmori] Bbangdeok eats and drinks a lot.  
She often eats meat and rice cakes.  
She sells unshelled rice to buy and eat meat.  
She sells hulled rice to buy and eat rice cakes.

이웃집에 밥불이기,<sup>1334)</sup>  
 동인<sup>1335)</sup> 잡고 욕 잘 하고,  
 초군<sup>1336)</sup>들과 싸움허기,  
 잠자며 이 갈기와 배 꿇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가는 행인다려<sup>1337)</sup> 담배 달라 힐난<sup>1338)</sup>허기,  
 남의 혼인허라 허고 단단히 믿었는데 훼담<sup>1339)</sup>을 잘 하기와  
 술 잔뜩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힐끗<sup>1340)</sup>하면 헬끗<sup>1341)</sup>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빼쭉<sup>1342)</sup>하면 빼  
 쭉<sup>1343)</sup>하고, 빼쭉하면 빼쭉하고,  
 신부 신랑 잠 자는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며,  
 ‘불이여!’  
 이년의 행실이 이리허여도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째 늦정<sup>1344)</sup>이 들었든지  
 나무칼로 귀를 에와가도<sup>1345)</sup> 모를 만큼 되었든가 보더라.

####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뽕덕어미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 한 심봉사는 맹인잔치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아니리] 아조 탁정<sup>1346)</sup>이 되어서  
 뽕파에게 전곡을 다 맡겨놓고 사는디,  
 하루는 심봉사가 돈궤<sup>1347)</sup>를 만져보니 엽전 한 푼이 없졌다.

She orders meals from her neighbors.  
She holds a villager and curses at him.  
She fights with woodcutters.  
While sleeping, she grinds her teeth and scratches her belly.  
She shakes her feet, and cries at night.  
She pesters a passer-by to give her tobacco.  
She speaks ill of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marry each other.  
She drinks a lot and takes a nap in a pavilion.  
She teases others with her peculiar facial expressions opposite to those of others.  
When a bride and bridegroom sleep, she approaches their room secretly.  
“Fire!”  
Bbangdeok’s behavior is bad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that.  
He is somehow emotionally attached to her at an old age.  
He became insensitive to what others say about her.

**42. (Bbaengdeok Wastes the Properties.) Deceived by  
Bbaengdeok, Mr. Sim runs through his properties.  
He hears about the banquet for the blind and  
leaves for it.**

[Aniri] Mr. Sim completely trusts his new wife.  
He entrusts her with all his properties.  
One day, he opens his safe and realizes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여, 뽕파. 대관절 여, 돈 궤에 엮진 한 푼이 없으니 어쩐 일이여?”  
“아이고,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오고 모두 이리  
저리 쓴 것이 그 돈 아니요?”

“뭇이 어찌? 나 술·담배·떡·고기 많이 잘 사주더라.

아니 그 새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여? 에이?”

**[중중모리]** “예기,<sup>1348</sup> 천하 요망<sup>1349</sup>)헌 년아!

예기, 천하 몹쓸 년아!

출천대호 내 딸 청이 사후<sup>1350</sup>)에 신세라도 의탁하라고<sup>1351</sup>) 주고 간 돈,

네 년이 무엇이랴 그 돈을 다 녹였단<sup>1352</sup>) 말이냐?

아이고, 내 신세야.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니리]** “아아, 할 수 없제.

내 팔자에 뭘?

내일보톱<sup>1353</sup>) 또 동네 걸인이 되어야지.”

“아이고, 영감!”

“어찌?”

“아, 어찌<sup>1354</sup>) 저지난 달부터서 밥 입맛은 떨어지고 신 것만 구미가  
당기니,

왜 이런가 모르겠소?”

“뭇이 어찌?

신 것만 구미가 땡겨?

파하,<sup>1355</sup>) 그 태기<sup>1356</sup>)가 있을랑가부네.<sup>1357</sup>)

어쨌든 남녀간에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 거 신 것은 뭇을 먹는가?”

“아, 살구 사 먹지요.”

“그래 살구를 얼마나 사 먹었는디?”

“Hey, Bbaengdeok. Why on earth isn’t there any money in this safe?”

“Honey, I used all the money to buy you drinks, rice cakes, tobacco, and so on.”

“What? You bought me a lot of wine, tobacco, rice cakes, and meat?

Did you already spend all the money?”

**[Jungjungmori]** “What a wicked woman you are!

What a vicious woman you are!

My daughter gave me the money so that I could hang on after she died.

Who are you to spend it all?

Alas! Why is such misery on me?

I can’t believe this.”

**[Aniri]** “Alas! I give up.

Oh, my fate!

I will be a begger again from tomorrow and on.”

“Oh, honey!”

“What?”

“Since last month, I lost my appetite and only wanted to eat sour things.

I don’t know why.”

“What did you say?

You only want to eat sour things?

Oh yeah! You must be pregnant.

Just give me one, a boy or a girl.

By the way, what sour things did you eat?”

“I ate apricots.”

“How many apricots did you eat?”

“아, 씨 되어보니 닛 말 세 되밖에는 안 됩디다.”  
 “똥이 어찌? 닛 말 서되? 그 너무 많이 먹었는 걸.  
 그 놈이 낳드라도 거 시건방질랑가<sup>1358</sup>) 모르겠네.”  
 이렇듯 지낼 적에, 하루는 관가<sup>1359</sup>)에 부름이 있어 들어가니,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sup>1360</sup>)하였다고  
 어서 급히 올라가라 노비<sup>1361</sup>)까지 내어주겠다.  
 “만일 그 잔치에 참여 안 하게 되면은, 이 골 수령이 봉고파직을 당할  
 테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그 노비를 받아가지고 나와,  
 “여, 뽕파.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잔치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 골 수령이 봉고파직을 당한대여.  
 허니, 우리가 올라가세.”  
 뽕덕이네가 그 노비까지도 웅칠<sup>1362</sup>) 양으로,  
 “아이고, 여필중부<sup>1363</sup>)라니  
 천 리라도, 만 리라도 영감 따라 가제,  
 누구 따라갈 사람 있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뽕파가 백녀<sup>1364</sup>)다, 백녀여.  
 자, 그러면 우리가 어서 떠나세.  
 그 의복 찢개<sup>1365</sup>) 있는 것 자네는 똥똥 말아 이고,  
 나는 나나리봇짐<sup>1366</sup>) 해서 뒤에 짊어지고,  
 어서 떠나세.”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고 허니 섭섭허든가 보더라.

“The seeds only added up to five bags.”

“What did you say? Five boxes? You ate too much.

You might give birth to a naughty child.”

In the meantime, the local government calls Mr. Sim, and he goes there.

He hears that the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They tell him to hurry, giving him some travel money.

“If you don’t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will be fired, so go there quickly!”

He takes the money and goes out of the office.

“Honey, a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If I don’t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will be fired.

So let’s go there.”

Bbaengeok intends to swindle him out of his travel money.

“A woman is to follow her man.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end of the earth.

Do I have anybody else to follow?”

“You are better than a virtuous woman.

Then, let’s take off right away.

You fold the clothes and carry them on your head.

I will carry this bag on my shoulder.

Let’s go.”

When Mr. Sim actually tries to leave the village, he feels sorry.

### 43. (뽕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뽕덕이네는 황봉사와 도망해 버린다.

[중모리]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춘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sup>1367)</sup>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오랴느냐?

어이 가리너?<sup>1368)</sup> 어이 가리?

황성 천 리를 어이 갈이거나.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 잘거나?

조자룡의 월강<sup>1369)</sup> 허든 청춘마<sup>1370)</sup>나 있거드면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이 내 병신이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어이 가리너. 어이 가리. 어이 가리너, 어, 어이를 갈거나?

황성 천 리를 어이 갈거나?

여보소. 뽕덕이네.”

“예.”

“길소리<sup>1371)</sup>를 좀 맞아주소.<sup>1372)</sup>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뽕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다,

어디서 또 메나리조<sup>1373)</sup>를 들었든지,

메나리조로 길소리를 메기든가<sup>1374)</sup> 보드라.

“어이 가리너, 어 어어어. 어이를 갈거나?

황성 천 리를 어이 갈거나?

날개 돌힌 학이나 되면, 수루루 펄펄 날아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가장을 데리고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뽕덕이네가 일색이여.”



**43.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Jungmori]** “Take care, Peach Blossom Village.

Take care, Paradise Village.

If I go now, when will I come back?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Where should I sleep tonight?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night?

If I have the ancient warrior’s bluish horse, I can arrive there today.

Given that I am blind, how many days should I walk to the capital city?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Bbaengdeok!”

“Yes.”

“Sing the travel song with me.

My legs hurt.”

Bbaengdeok responds to him in the travel song.

She must have heard the melody from Kyeongsang province.

She leads the travel song in that melody.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If I were a crane, I would fly to the capital city right awa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blind husband to the capital city?”

“Bravo! Bravo! You are the best, Bbaengdeok.”

이렇듯이 올라가 주막에 들어 잡자는데,  
 그 때여 뽕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sup>1375)</sup>  
 주인과 약속을 허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데,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구나.  
**[아니리]** “여, 뽕파. 어서 일어나게.  
 이 삼복 성염<sup>1376)</sup>에 대낮에는 더워서 걸어가 수 있나?  
 아침 새벽 걸음으로 한 사오십 리 처야<sup>1377)</sup> 될디.<sup>1378)</sup>  
 어서 일어나.”  
 부른들 도망해버린 뽕덕이네가 대답이 있겠느냐?  
 “어허, 또 이런 데까지 와서 장난이제.  
 거 방구석지서<sup>1379)</sup> 뭇 하고 서 있어?  
 어서 가자니까.  
 내가 또 가서 보듬고<sup>1380)</sup> 와야지.”  
 방 네 구석을 다 더듬어 봐도 뽕덕이네가 없것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를 갔어?  
 여, 주인! 주인!”  
 “예.”  
 “거,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올시다. 밤중에 어느 봉사와 밤길친다고<sup>1381)</sup> 벌써 떠났소.”  
 “뭇이 어찌?  
 아,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인자사<sup>1382)</sup> 그런 말을 허?  
 아이구, 이 년이 도망갔구나!”

They travel and drop by an inn to sleep for the night.  
 Meanwhile, Bbaengdeok falls in love with Mr. Hwang, a blind man, living nearby.  
 She talks with the landlady and runs away with Mr. Hwang.  
 Mr. Sim doesn't know anything about i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Aniri]** "Hey, Bbaengdeok! Wake up.  
 We can't walk in the middle of the day because it is too hot.  
 We should begin to walk early in the morning.  
 Get up!"  
 Would she answer when she ran away?  
 "This is not the time to play games.  
 What are you doing in the corner of the room?  
 Let's go now.  
 Let me go to you and hug you."  
 He gropes the four corners of the room in vain.  
 "Where did she go?  
 Landlady!"  
 "Yes."  
 "Is my wife there by any chance?"  
 "No, she already left with a blind man, saying they would travel at night."  
 "What did you say?  
 God! You are the landlady.  
 How can you say that now?  
 Oh my god. She ran away."

#### 44. (심봉사 탄식) 뽕덕어미가 도망해 버린 것을 안 심봉사가 탄식한다.

[진양조]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그러!

예기, 천하 의리 없고 사정없는 이 년아!

당초<sup>1383</sup>)에 내가 버릴 태면, 있던 곳에서 마다 허제,<sup>1384</sup>

수백 리 타향에다가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될쏘냐, 이년아.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 이년아.

아이고, 어라<sup>1385</sup>)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sup>1386</sup>)허신 꺾씨도 죽고 살고,

내 딸 청이 생죽음<sup>1387</sup>)도 당했ندی,

네까짓 년을 생각허는 내가 미친 놈이로고나.”

[아니레] “예기, 호랭이가 파썩<sup>1388</sup>) 깨물어갈 년.

내가 네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sup>1389</sup>)에 쇠아들놈이다.

여, 주인!”

“예.”

“밥값이나 받소.”

“밥값이고 뭇이고 그만두고 가시오.”

“그만두고 가라<sup>1390</sup>) 가지마는,

자네 집에서 참 비싼 밥 사 먹고 가네.

자네 집에서 계집까지 잃고 가니, 그 아니 비싼 밥인가?”

주인과 작별을 하고,

[중모리]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든 자리 퍼썩<sup>1391</sup>) 주저앉더니마는,

“뽕덕이네! 뽕덕이네. 모지고도 야속헌 년.

너 그럴 줄 내 몰랐다.

**44. (Mr. Sim Laments.) Mr. Sim laments, realizing that  
Bbaengdeok ran away.**

[Jinyangjo] “Oh god. Bbaengdeok has left me.  
What an ungrateful and cruel woman she is!  
If you had wanted to desert me, you should have done it in  
the village.  
You abandoned me in a strange place.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Bad woman!  
You cannot even become a ghost. Wicked woman!  
Oh god! Let me stop!  
I survived the death of my virtuous wife, Mrs. Gwak.  
I even survived the unfair death of my daughter, Cheong.  
I am crazy to think about a shallow woman like you.”

[Aniri] “Oh!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I will be a crazy son of a cow if I think about you again.  
Landlady!”  
“Yes.”  
“Here is the money for the meal.”  
“Forget the money. You can just leave.”  
“If you insist, I will go without paying.  
But I had an expensive meal in your inn.  
Since I lost my wife here, the meal was expensive.”  
He says goodbye to the landlady.

[Jungmori] Mr. Sim goes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his wife again and slumps down.  
“Bbaengdeok! What a cruel and heartless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내가 눈이 있거드면, 저기 저 산은 무슨 산이요, 이 길은 어디로 행하  
 는지<sup>1392)</sup> 분별하여 갈 것인데,  
 지척<sup>1393)</sup> 분별을 못 허는 병신이  
 어이 찾아 황성을 갈거나?”  
 새만 푸르르르르 날아가도  
 뺑뚱이넌가 의심을 허고,  
 바람만 우루루루루 불어도  
 뺑뚱이넌가 의심을 허는구나.  
 더듬더듬 올라갈 제,  
 그 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성염<sup>1394)</sup>이라.  
 더운 땀을 휘뿌리며<sup>1395)</sup> 한 곳으 점점 당도하니,

#### 45.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리] 천 리 시내는 청산<sup>1396)</sup>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솔솔,  
 열의 열두 골<sup>1397)</sup> 물이 한 데 합수쳤다,<sup>1398)</sup>  
 천방자 지방자 월터쳐 구비쳐<sup>1399)</sup> 방울이 버끔져,<sup>1400)</sup>  
 건너 병풍석<sup>1401)</sup>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요런 경개<sup>1402)</sup>가 또 있나?  
 심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할 양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If I had eyes, I could see the mountains and the roads in front  
of me.  
Being blind, I can't see anything.  
How c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A bird flies, making a sound.  
He takes it to be Bebaengdeok.  
A wind blows, making a sound.  
He takes it to be Bebaengdeok.  
He goes to the capital city unsteadily.  
What season is it now?  
It is the hottest period of the year.  
While sweating like a rain, he gets close to a certain place where  
there is a river.

**45. (Mr. Sim Takes a Bath.) Mr. Sim gets his clothes  
stolen while taking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Jungjungmori]** A stream runs around a green mountain.  
Water flows naturally from valleys.  
The water from many valleys forms a stream.  
The stream rolls wildly, making foam.  
It splashes around and over a large rock.  
The mountain trembles as the water flows away.  
This is a great view.  
Mr. Sim is delighted to hear the sound of water.  
He manages to get to the stream to take a bath.

상하 의복을 훨훨 벗어 지팡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서,  
 “에, 시원하고 장히<sup>1403)</sup> 좋다.”  
 물 한 주먹을 덥썩<sup>1404)</sup> 쥐어 양추질<sup>1405)</sup>도 꺾꺾 하고,  
 또 한 주먹 덥썩 쥐어 저드랑<sup>1406)</sup>도 문지르며,  
 “내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sup>1407)</sup> 올라선들 이에서<sup>1408)</sup> 시원하며,  
 동해 유수<sup>1409)</sup>를 다 마신들 이어서<sup>1410)</sup> 시원할거냐?  
 얼씨구 좋구나, 기화자 좋네. 툼병툼병<sup>1411)</sup> 즐시구.”<sup>1412)</sup>  
**[아니리]** 목욕을 하고 수변<sup>1413)</sup>에 나와  
 의복을 입으려 할 제,  
 무지한<sup>1414)</sup> 도적놈이 심봉사 의복을 도적질해 가버렸구나.  
 봉사 영이<sup>1415)</sup> 대단하야, 거기다 벗어났다고 해서,  
 목수 먹줄<sup>1416)</sup> 텅기듯<sup>1417)</sup> 쪽 바르게 들어와 의복을 아무리 찾아도  
 없제.  
 “아니, 내가 금방 여기다 옷을 벗어났는데  
 어디를 갔어?  
 이 바람에 날려갔나?  
 오호, 지팡이는 여가<sup>1418)</sup> 있다.”  
 누가 농한<sup>1419)</sup> 줄로만 아는구나.  
 “거, 봉사하고 농이라니?  
 어서 옷 가져와!  
 쫓, 봉사하고 농을 하다니.”  
 아무리 부르고 찾은들 도적맞은 옷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또 한 바탕 울음을 우는디,  
**[중모리]**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puts his cane on them.  
He walks slowly into the stream.  
“Oh, it is cool. This is great.”  
He grabs a handful of water and washes his teeth.  
He grabs another handful of water and rubs under his arms.  
“It is really cool. It is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Hurrah! Yipee! What a delight! What a pleasure!”

[Aniri] After taking a bath, Mr. Sim gets out of the stream.  
He tries to put on his clothes.  
A bad thief has stolen Mr. Sim's clothes.  
He has a good memory, so he knows exactly where he put them.  
He moves up in a straight line and fumbles for them in vain.  
“I know I put my clothes here a minute ago.  
Where are they?  
Were they blown away by a wind?  
But my cane is here.”  
He thinks that somebody is teasing him.  
“Are you playing with a blind man?  
Bring me my clothes!  
How can you tease a blind man?”  
No matter how he tries, he couldn't find his stolen clothes.  
He cries loudly on the spot.

[Jungmori] “Alas! I am dying here.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백수풍신<sup>1420</sup> 늙은 몸이 위아래를 벗었으니,  
 황성 천 리를 어이 가며,  
 불꽃같은 이 더위에 옷을 활썬<sup>1421</sup> 벗었으니  
 굶어서도 죽을 테요, 뜨거워서도 죽겠구나.  
 네 무지한 도적놈아, 내 의복 가져오너라!  
 봉사 것 돌아가면<sup>1422</sup> 열두 대 폐봉사 난단다.  
 내 의복 가져오너라!  
 귀머거리, 앓은뱅이 날보담은<sup>1423</sup> 상팔자<sup>1424</sup>라.  
 일월<sup>1425</sup>이 밝았어도 동서분별<sup>1426</sup>을 내 못하니,  
 살아 있는 내 팔자야.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나! 아이고, 내 신세야.”  
 죽어도 양반이라 체면은 있는지라,  
 “내 앞에 부인 오거든 저리 돌아서 가시오!  
 나 어찌다 활썬 벗었소.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냐?”  
**[아니리]** 이렇듯 탄식을 할 적에, 그 때 마침 무릉 태수가 지내노라고,  
 “돌았거라.<sup>1427</sup> 물렀거라.<sup>1428</sup> 에찌뤼! 에찌뤼!”  
 벽제<sup>1429</sup> 소리가 요란하구나.  
 ‘옳다. 내가 인자<sup>1430</sup> 살았다.  
 관은 민지부모<sup>1431</sup>라고  
 내가 저 관장<sup>1432</sup>에게 떼나 한번 써보리라.’  
 별거벗은 알봉사<sup>1433</sup>가 두 손으로 앞 가리고 앙금앙금 들어가며,  
 “아뢰어라! 아뢰어라! 급창<sup>1434</sup> 아뢰어라!

I am surely to die.  
I am old with white hair and naked up and down.  
I can't go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I am completely naked in this scorching heat.  
I might starve to death or scorch to death.  
You cruel thief! Bring my clothes back!  
If you steal a blind person's property, your family will be blind  
for twelve generations.  
Bring my clothes back!  
A deaf or a crippled person is better than I.  
I can't tell which direction is east or west even on the bright  
sun.  
Alas! What a bad fate!  
My life is cruelly persistent.  
Why does such misery fall on me?  
What should I do now? Oh god!"  
He speaks with decorum as he were a high class man.  
"If there is a lady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am somehow completely naked.  
Alas! I can't believe this."

[Aniri] While Mr. Sim laments, a governor passes by as luck  
would have it.  
"Here comes the governor. Turn around. Step back."  
There are loud shouts to clear the way.  
'Oh yes! I am out of trouble now.  
A government official is like a parent to the people.  
I will implore that the governor help me.'  
The naked blind man covers himself with his hands and slowly  
steps forward.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지내가는 과객<sup>1435</sup>)으로, 배알차로<sup>1436</sup>) 아뢰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거 어디 사는 소경이며,  
 어찌하여 의관 의복을 훔친 벗었으며,  
 무슨 말을 허랴는고?”  
 “예, 소맹<sup>1437</sup>)이 아뢰리라.  
 소맹이 사읍기는 황주 도화동 사읍논디,  
 황성 잔치에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웁기로 저 곳에서 목욕을 허다,  
 의관 의복을 잃었사오니,  
 진소위주출지망량<sup>1438</sup>)이요,  
 진퇴유곡<sup>1439</sup>)이 되었으니,  
 한 벌 내어주시고 가시든지, 옷을 찾아주고 가시든지,”  
 [중모레] “별반 처분<sup>1440</sup>)을 하옵소서.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sup>1441</sup>) 허였으니,  
 태수장<sup>1442</sup>) 덕택에 살려주오.”

#### 46.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심봉사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을 얻어 입고 황성길을 가다, 방아쪼는 부인들을 만난다.

[아니리] 교군꾼<sup>1443</sup>) 부르시더니,  
 “너는 갓, 망건<sup>1444</sup>) 소경 주어라.”  
 수노<sup>1445</sup>) 불러 노비<sup>1446</sup>)까지 내어주니,  
 “은혜 백골난망<sup>1447</sup>)이오.

Tell your master a traveler wants to see him.”  
The procession stops.  
“Where do you live, blind man?  
Why are you completely naked?  
What do you want to say?”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I was on my way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over there.  
My hat and clothes were stolen.  
I am in trouble now.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give me new clothes or find my old clothes for me.”

[Jungmori] “Please consider my plea.  
If you are nice to others, your family will prosper without fail.  
Mr. Governor, please help me.”

**46. (The Request for Clothes to a Governor) Mr. Sim comes across a governor from whom he gets clothes. He meets milling women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Aniri] The governor calls a carriage carrier.  
“Give the blind man your hat and headband.”  
He even gives him some travel money from the head servant.  
“You have my eternal gratitude.

황성 갔다 오는 길에 기언치<sup>1448</sup>) 찾아뵈옵지요.  
 그란디,<sup>1449</sup>) 거 무지한 도적놈이 저 음산동<sup>1450</sup>) 담뱃대까지 가져갔습  
 니다.”  
 태수 허허 웃으시며,  
 “그러면 어찌자는 말인고?”  
 “그저 그렇다는 말씀이지오.”  
 “대<sup>1451</sup>)와 담배까지 내어 주어라.”  
 백배사례<sup>1452</sup>) 하직하고,  
 녹수교<sup>1453</sup>) 열린 건너, 낙수교<sup>1454</sup>)를 지낸 후에  
 한 모룻<sup>1455</sup>) 돌아드니,  
 부인들이 모여 방아를 찼노라고 ‘히히 하히’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심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 들이 농<sup>1456</sup>)을 청하제.  
 “아따, 근래에 봉사덜 안 시케주드고.<sup>1457</sup>)  
 저 봉사도 황성 잔치에 가는 봉사로구만.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방애나 좀 찼어주고 가제.”  
 “뭣이 어째?  
 공연히 방애를 찼어줘?”  
 “아, 방애를 찼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지요.”  
 “거 실없이<sup>1458</sup>) 여러 가지 것 준다.  
 일포식도 채수라고,<sup>1459</sup>)  
 한번 찼어볼까?  
 그란디, 여보시오, 부인님네.  
 망노이가<sup>1460</sup>)라는 말이 있으니,  
 우리가 방애를 찼되 소리를 맞아가며<sup>1461</sup>) 찼읍시다.”  
 “그릅시다.”  
 방애소리를 맞아가며 찼어보는다,

I will visit you on my way back home.  
By the way, the heartless thief even took my tobacco pipe.”  
The governor laughs.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I am just saying he took it.”  
“Give him tobacco and a tobacco pipe.”  
Mr. Sim bows to the governor many times and says goodbye to him.  
He walks over a bridge and another one.  
He turns around a corner.  
Many women are milling together, making loud laughing sounds.  
When Mr. Sim passes by, the women joke with him.  
“These days blind men must be happy.  
That blind man must be going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too.  
Please don’t just go nonchalantly.  
Help us with this mill.”  
“What did you say?  
Mill for you for free?”  
“Oh, if you mill for us, we will give you wine, rice, and meat.”  
“Those various things are not fantastic to me.  
A saying holds that one should be lucky to eat fully.  
Let me mill for you.  
By the way, ladies!  
They say we should sing a song to forget the pain.  
Let’s mill together but als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song.”  
“Good idea.”  
They sing the mill song while milling.

#### 47. (방아타령) 심봉사가 방아를 짚는 여인들을 만나 방아를 짚어주고 밥을 얻어 먹는다.

[중중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끄덩 땡땡 잘 짚는다.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sup>1462)</sup>

남기<sup>1463)</sup> 아니 중할쏜가?”<sup>1464)</sup>

“어유아 방아요.”

“유소씨 구목위소<sup>1465)</sup> 이런 나무로 집 지셨나?”<sup>1466)</sup>

“어유아 방아요.”

“이 방애가 누 방애? 강태공의 조작이로다.”<sup>1467)</sup>

“어유아 방아요.”

“방애 만든 형용<sup>1468)</sup> 보니, 사람을 비했든가<sup>1469)</sup>

두 다리를 째 벌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sup>1470)</sup>의 비녀런가?”<sup>1471)</sup>

가는 허리에 잠<sup>1472)</sup>이 찼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룡<sup>1473)</sup>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 보니,

초왕궁의<sup>1474)</sup> 허릴런가?”<sup>1475)</sup>

“어유아 방아요.”

“머리 숙여서 내리는 양은

주문왕<sup>1476)</sup>의 돈수<sup>1477)</sup>런가?”

“어유아 방아요.”



47. (Mill Song) Mr. Sim encounters milling women. He  
mills for them, and gets food in return.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n ancient king became a king thanks to wood.

So wood is a precious thing.”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ancient king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This mill is possible thanks to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This mill looks like a human body.

Its two legs are spread wide.”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up.

It’s like an old dragon losing its temper in a wide sea.”

“Here goes a mill.”

“The waist is long and thin.

Is it an ancient court lady’s waist?”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down.

Is it the big bow by an ancient king?”

“Here goes a mill.”

“오고대부<sup>1478</sup>) 죽은 후에 방해소리가 끊겼더니,  
우리 성상<sup>1479</sup>) 즉위허사<sup>1480</sup>) 국태민안<sup>1481</sup>) 하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 고금<sup>1482</sup>)에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해타령을 허여보자.”  
“어유아 방아요.”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그렁 땡땡 잘 짊는다. 어유아 방아요.”

“만첩청산<sup>1483</sup>)을 들어가 이 낭구<sup>1484</sup>) 저 낭구 베어다가 이 방애를  
놓았는가?”

“어유아 방아요.”

“한 다리 늘여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오리락 내리락히는 양 이상하고도 맹랑허다.”<sup>1485</sup>)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그렁 땡땡 잘 짊는다. 어유아 방아요.”

“미끈미끈 보리방애.”

“어유아 방아요.”

“찐덕찐덕<sup>1486</sup>) 찰떡 방애다.”

“어유아 방아요.”

“꼬습구나<sup>1487</sup>) 깨방애로다.”

“어유아 방아요.”

“호호 맵다 고추방애.”

“어유아 방아요.”

[중중모리] “떨그렁 땡땡 잘 짊는다.

점심때가 늦었구나.”

“어유아 방아요.

“Milling sound stopped after an ancient politician died.  
After our king was crowned, this country is happy.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Let’s sing a mill song in this peaceful time.”  
“Here goes a mill.”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Did they make this mill after cutting down the trees on deep  
mountains?”  
“Here goes a mill.”  
“One leg supports the body.  
The other leg stamps the mill.  
When the mill moves up and down, it looks bizarre.”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 barley mill is slippery.”  
“Here goes a mill.”  
“A sweet rice mill is sticky.”  
“Here goes a mill.”  
“A sesame mill smells good.”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is hot.”  
“Here goes a mill.”

[Jungjungmori] “This mill works well.  
It is time for lunch.”  
“Here goes a mill.”

떨그렁 땡땡 잘 쫓는다.

어유아 방아요.”

#### 48. (안 씨 맹인) 심봉사가 황성 근처에서 안 씨 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딸을 만날 꿈을 꾸다.

[아니리] 이렇듯 방아를 쪼고,

일포식도 채수라고<sup>1488</sup>)

점심밥 걸게<sup>1489</sup>) 얻어먹은 후에 그 자리를 떠났구나.

또 한 모룻<sup>1490</sup>)을 돌아드니,

어떠한 부인이 심봉사를 소상각지<sup>1491</sup>) 알고 찾거늘,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 나를 알 리가 만무<sup>1492</sup>)한디,

누가 나를 알고 나를 찾는고?’

그 여인을 따라가니,

외당<sup>1493</sup>)에 앉혀놓고 석반<sup>1494</sup>)을 든든히 먹인 후에,

또 다시 나오더니,

“여보시오, 봉사님.

내당<sup>1495</sup>)에서 부인이 찾으시니

어서 들어가사이다.”

“아니, 나는 봉사만 되었지

무슨 독경<sup>1496</sup>)도 못하는 봉স্য요.

혹 태에 의단<sup>1497</sup>) 있소?”

내당에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sup>1498</sup>)를 주어 앉힌 후에,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48. (Blind Woman, Mrs. An) Mr. Sim marries a blind woman, Mrs. An, near the capital city, and has a dream that he will meet his daughter.**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A saying holds that one should be lucky to eat fully.  
Mr. Sim eats a heavy lunch from them and takes off.  
He turns around a corner.  
A woman knowing him in detail looks for him.  
'this is strange.  
There should be no one here who knows about me.  
Who knows about me and looks for me?'  
He follows her.  
She provides a wonderful meal for him in the guesthouse.  
She comes back.  
“Hello, Mr. Sim!  
A lady waits for you in the main room.  
Let's go in.”  
“Wait, I am just a blind man.  
I can't even chant a prayer.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is home?”  
He enters the main room.  
A lady asks him to take a seat.

[중모래] 그 부인이 허는 말이, “소녀는 안 가이요,  
 나도 맹인으로  
 부모 일찍 기세<sup>1499</sup>허고, 어려서 복술<sup>1500</sup>을 배워  
 평생을 아자지<sup>1501</sup>라.  
 이십오 세에 길연<sup>1502</sup>이 있난디,  
 금년 이십오 세일뿐더러,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의 일월이 떨어져 물에 잠겨 보이기로  
 심 씨 맹인인 줄 짐작허고,<sup>1503</sup>  
 또한 소첩<sup>1504</sup>이 품어 안아 보였으니  
 인연인가 허웁니다.”

[아니래] “무치<sup>1505</sup>하나 저버리지 마옵소서.”  
 심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날 밤 동방화촉<sup>1506</sup>의 호접몽<sup>1507</sup>을 꾸었구나.  
 심봉사 아침 일찍 일어나 수심 겨워 허는 말이,  
 “여보시오, 안 씨 맹인. 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내가 불 속에 들어가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고,  
 또 가죽을 벗겨 북을 매어<sup>1508</sup> 보이니,  
 이 아니 흉몽<sup>1509</sup>이오?”  
 안씨 맹인 해몽을 허는디,  
 “신입화허니 화락이요,  
 거피작고허니 고성이요,  
 낙엽이 귀근허니 자녀를 가봉이라.<sup>1510</sup>  
 그 꿈 장히 좋소.

[Jungmori] The lady says, "My last name is An.  
I am blind too.  
I lost my parents and learned to do fortune-telling as a child.  
I know about my fate.  
I am to marry at twenty five.  
I am twenty five this year.  
Besides, I had a dream last night.  
The sun and the moon immersed in water.  
So I thought he would be a blind man.  
Moreover, I hugged the sun and the moon.  
So he will be my husband."

[Aniri] "I am shameless. But please don't reject me."  
Mr. Sim is delighted in his mind.  
"How can we become a couple?"  
Somehow, they got married and had a sweet dream that night.  
Mr. Sim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peaks in anxiety.  
"Look, hone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It appeared that I got into fire.  
Leaves fell down and covered the root.  
My skin was taken off and made into a drum.  
Isn't this an unfavorable dream?"  
Mrs. An interprets the dream.  
"Your entering fire means you will be joyful.  
Your skin's becoming a drum means there will be loud sounds.  
The leaves' covering the root means you will meet your child.  
The dream is great.

오늘 궐내<sup>1511</sup>)에 들어가면 좋은 증험<sup>1512</sup>)이 있으리다.”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자녀를 가봉이란 말은 참 천부당만부당<sup>1513</sup>)이제.

그건 참 천부당만부당<sup>1513</sup>)이여.”

“아니올시다.

하여튼 궐내에 들어가시면, 좋은 증험이 있으리다.”

때마침,

#### 49.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부친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중중모리] 어전 사령<sup>1514</sup>)이 나온다. 어전 사령이 나온다.

“각도 각읍<sup>1515</sup>) 맹인님네!

오날 잔치 망중<sup>1516</sup>)이니,

바빠 나와 참례허오!”

골목골목 다니며, 이렇듯 외는<sup>1517</sup>) 소리

원근산천<sup>1518</sup>)이 땡그렇게<sup>1519</sup>) 들린다.

[아니리] 그 때여 심황후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아니하니, 슬피 통곡을 허는구나.

[진양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부친을 위함인디,

어찌 이리 못 오신고?

당년<sup>1520</sup>) 칠십 노환<sup>1521</sup>)으로

병이 들어서 못 오신그나?<sup>1522</sup>)

내가 정녕 죽은 줄을 아옵시고 애통하시다<sup>1523</sup>)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영검<sup>1524</sup>)으로 완연히<sup>1525</sup>) 눈을 떠서 맹인 축으<sup>1526</sup>) 빠지셨나?

어찌 이리 못 오신고?



There will be a good surprise for you in the palace.”  
“What? I will meet my child?  
It is absurd to say that I will meet my child.”  
That is really absurd.”  
“That’s not absurd.  
“I am sure that a good surprise awaits you in the palace.”  
At that moment,

#### 49. (Empress Sim Sighs) Empress Sim laments while waiting for her father.

[Jungjungmori] An officer comes out. He comes out.  
“Blind people from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Please hurry to the banquet!”  
He shouts in this and that alley.  
The shouting sounds tremble the city.

[Aniri] Meanwhile, Empress Sim looks forward to her father.  
But he doesn’t show up, so she laments sadly.  
[Jinyangjo] “This banquet is for my father.  
Why doesn’t he show up?  
He is seventy years old this year.  
Is he not coming because he is sick?  
Did he die, having longed for me and having taken me to have died?  
Is he classified as a sighted person because Buddha opened his eyes?  
Why doesn’t he show up?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나?  
이 일을 장차 어찌를 헐거나?”  
자진복통<sup>1527</sup>) 울음을 우는구나.

## 50. (부녀 상봉) 심봉사가 대궐에 들어가자 심황후가 보고 불러들여 거주와 처자에 관해 묻는다.

[아니리] 이렇듯 탄식하다 예부상서<sup>1528</sup>)를 또 다시 부르시더니,  
“네 여봐라. 오늘도 거주<sup>1529</sup>)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야 차차 호송<sup>1530</sup>)  
허되,  
만일 도화동 심맹인 계시거든 별궁<sup>1531</sup>)으로 모셔들여라.”  
봉사를 차례로 점고<sup>1532</sup>)해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sup>1533</sup>)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하여,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내 성명은 심학규요.”  
“심맹인 계신다!”  
허더니마는,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어쩔라고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심맹인을 모셔오라 허셨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제.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을 헌 것이로고나.  
아, 내가 살아서 무엇 하리?”

Alas!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now?"  
She grieves and sheds many tears.

**50. (The Father and the Daughter Meet) Mr. Sim enters the palace. Empress Sim spots and asks him about his name and address.**

[Aniri] Empress Sim sighs and calls a ceremonial official again.  
"Bring me the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blind people.  
If Mr. Sim from Peach Blossom Village shows up, bring him to my residence."

The official checks the list of blind people.

He approaches a blind man at the end of the line.

"Hello, Mister. What is your name?"

"Yes, my name is Sim Hak-gyu."

"I found Mr. Sim!"

He says, "Let's go to the empress's residence."

"What are you going to do to me there?"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punished or rewarded.

I was ordered to take you there.

So let's go to the empress's residence."

"I should not have come to this banquet.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They are holding this banquet in order to arrest me.

Oh, I don't want to live any longer.

내 지팡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더니,

“심맹인 대령하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sup>1534</sup>) 늙은 형용<sup>1535</sup>)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sup>1536</sup>)

심봉사가 딸을 보내놓고 3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갓이<sup>1537</sup>) 희어지고,<sup>1538</sup>) 또한 피골이 상접이라.<sup>1539</sup>)

산호 주렴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황후 또 다시 분부하시되,

“네 여봐라. 그 봉사 거주<sup>1540</sup>)를 묻고, 처자<sup>1541</sup>)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마는,

[중모래] “예, 소맹<sup>1542</sup>)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sup>1543</sup>)읍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삼월 달에 산후 탈<sup>1544</sup>)로 상처<sup>1545</sup>)허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sup>1546</sup>)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낼 제, 효성이 출천하야<sup>1547</sup>)

애비 눈을 띄운다고 십오 세 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sup>1548</sup>)로 죽은 지가 삼년이오.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Please hold my cane.”

They arrive at the empress’s residence.

“Mr. Sim is here, Your Highness!”

Empress Sim takes a look at her father.

He looks old, his hair now being gray.

Given that his face is full of sadness, it appears to be her father’s.

He cried so much after he lost his daughter that the rim of his eyes became soft, and he became extremely thin.

Empress Sim can’t see him clearly because of the coral blind.

She asks the official.

“Hey, officer! Ask the blind man about his address, wife, and child.”

Mr. Sim scarcely hears the words of wife and children when tears fall down from his blind eye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d in my hometown, Peach Blossom Village.

My name is Sim Hak-gyu.

My wife died of a disease after childbirth.

I held my daughter, who lost her mom, with a small blanket.

I managed to raise her by begging around for milk.

Her filial piety was great.

She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to open her father’s eyes at the age of fifteen.

She di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ree years ago.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only sold my daughter.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a parent who sold his child?

Please kill me right away.”

## 51.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아니리] 이 때에 심황후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마는, 소리를 허니<sup>1549</sup>) 일이 늦게 되었겠다.

[자진모리] 심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짝 놀래, “아니, 누가 날다려<sup>1550</sup>) 아버지여?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sup>1551</sup>) 삼년이 되었는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불효여식<sup>1552</sup>) 심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에이? 이게 웬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sup>1553</sup>)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51.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Aniri] It can't be the case that Empress Sim hears Mr. Sim out.  
That is possible because this is only a story.

[Jajinmori] Empress Sim is stunned.

She pulls the blind away and runs to him without putting on shoes.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Mr. Sim is surprised. "Who is calling me father?"

Am I your father?

What are you saying?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Oh,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Your bad daughter, Sim Cheong, came back alive.

Father, please open your eyes and take a look at me.

Oh, father!"

Upon hearing her, Mr. Sim is at a loss for what to say.

"What? Are you Sim Cheong?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Am I dead in the sea palace?

Am I dreaming now?

My daughter, Cheong, has died.

How can you say she came back here alive?

If you are my daughter, let me see you.

Let me see my daughter!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허여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심봉사가 두 눈을 끔적끔적<sup>1554</sup>허더니마는,  
부처님의 도술<sup>1555</sup>로 눈을 번쩍 떴구나.

## 52. (모든 맹인이 같이 눈뜸) 심봉사가 눈을 뜨자, 천하 맹인들도 일시에 눈을 뜬다.

[아니리] 심봉사 눈 뜬 훈짐<sup>1556</sup>에 잔치에 참례한 봉사 모두 따라서 눈을 뜨는디,

[자진모리] 만좌 맹인<sup>1557</sup>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 갈모<sup>1558</sup> 떼는<sup>1559</sup> 소리라.

‘쫍 쫍’ 허더니마는 그저 눈을 떠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례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의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도<sup>1560</sup>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실없이<sup>1561</sup> 뜨고,

어이없이 뜨고,

왜내다<sup>1562</sup>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Oh god! I need eyes to see my daughter.  
Alas, I feel choked!  
Let me see my daughter!”  
Mr. Sim blinks his eyes repeatedly.  
He suddenly opens them thanks to Buddha.

**52.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Aniri] As a result of Mr. Sim’s opening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in the banquet open their eyes too.

[Jajinmori] All the blind people on the chairs open their eyes. They make sounds as if a paper hat were torn off. They just opened their eyes, the sound filling the banquet. The banquet has been held for three months. Those who attended the banquet early open their eyes at their homes.

Those who haven’t arrived open their eyes in the streets.  
Some open while going.  
Some open while coming.  
Some open while standing.  
Some open without reason.  
Some open unexpectedly.  
Some open getting angry.  
Some open crying.  
Some open laughing.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일허다 뜨고,  
 앓어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뜻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눈을 비벼보다 뜨고,  
 지어비금주수까지<sup>1563)</sup>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sup>1564)</sup>가 되었구나.

### 53. (심봉사 환호) 심봉사가 딸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심봉사 정신을 차려 궁 안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픔 가득한 것은 심봉사의 설움이요,  
 궁 안을 살펴보니,  
 칠보금관<sup>1565)</sup>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 알제,  
 전후불견 초면이로구나.<sup>1566)</sup>  
 천천히 살펴보더니마는  
 한 기억이 나는데,  
**[중모리]** “옳제, 인제 알졌구나. 내가 인제야 알졌구나.  
 갑자 사월 초파일야<sup>1567)</sup> 꿈 속에 보던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잃었던 딸을 다시 만났으니,

Some open trying to open.  
Some open clearly.  
Some open while working.  
Some open while playing.  
Some open while waking up.  
Some open while drowsing.  
Some open while blinking their eyes.  
Some open rubbing their eyes.  
Even blind animals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The whole world becomes bright for them.

**53. (Mr. Sim Cheers.) Mr. Sim dances in joy after  
taking a look at his daughter.**

[Aniri] Mr. Sim gathers himself and takes a look around.  
He looks old with gray hair.  
He is full of sadness and sorrow.  
He takes a look around in the palace.  
He gazes in awe of a woman with a golden crown.  
He believes she is his daughter because he was told so.  
But this is the first time he sees her.  
He takes a hard look at her.  
Something occurs in his mind.

[Jungmori] “Oh, I see now. I see now.  
This is clearly the face I saw in a dream with my wife.  
I have my lost daughter back.

내가 죽어 수궁을 들어왔나?  
 내가 죽어서 황천<sup>1568</sup>)을 왔느냐?  
 이것이 꿈인가?<sup>1569</sup>  
 이거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 허겼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서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세상 분별 못했더니,  
 이제 나도 눈을 떠 천지<sup>1570</sup>) 만물<sup>1571</sup>)을 다시 보게 되니,  
 ‘지팡이 너도 고생 많이 허였다.  
 이제 너도 너 갈 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르르르’ 내던지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기화자 자자자 좋을시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기화자자 절씨구.  
 궁 안을 살펴보니,  
 창해 만 리<sup>1572</sup>) 먼먼 길 인당수에 죽은 몸이  
 환세상<sup>1573</sup>) 황후되기 천천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고.  
 어둑침침<sup>1574</sup>)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sup>1575</sup>)에 자룡<sup>1576</sup>) 본 듯이 반갑네.  
 흥진비래 고진감래<sup>1577</sup>) 날로<sup>1578</sup>) 두고 이름인가?  
 얼씨구나, 절씨구.  
 부중생남중생녀<sup>1579</sup>) 날로 두고 이름이로다.  
 얼씨구나 절씨구.”

Did I did and come to the sea palace?  
Did I die and come to the world of the dead?  
Is this a dream?  
Is this real?  
I can't tell dream and reality apart.  
I was blind until yesterday.  
I traveled the road with a cane.  
I didn't know how I would get around.  
I couldn't see anything.  
Now that I opened my eyes, I can see everything in the world.  
'Mr. Cane!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You are now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He throws his cane away.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Let me look inside the palace.  
I thought she died at Indang Water away from here.  
I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live and beco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feel great as if a light got turned on in a dark room.  
I am as glad as if I met a great warrior to help me on a  
battlefield.  
For me, happy and unhappy events occur alternately.  
Hurrah! Hurray!  
For me, a daughter is more precious than a son.  
Hurrah! Hurray!"

#### 54. (단가) 한 봉사가 나서서 단가를 부르자, 여러 봉사들이 더욱 환호한다.

[아니리] 이렇듯이 노실 적에, 한 봉사가 썩 나서더니 단가 한 마디를 허는디,

[중모리] “어와, 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허송<sup>1580</sup>) 말고,

혈 일을 허여보세.

인간의 백행<sup>1581</sup>)근본 충효밖에 또 있는가?

왕상<sup>1582</sup>)은 고빙<sup>1583</sup>)허여 얼음 궁기<sup>1584</sup>) 잉어 얻고,

맹종<sup>1585</sup>)은 읍죽<sup>1586</sup>)하야

눈 가운데 죽순<sup>1587</sup>)을 얻어

양친 성효<sup>1588</sup>)를 허여 있고,

출천대효<sup>1589</sup>) 황후 폐하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되시어 살신성효<sup>1590</sup>) 허셨는디,

하나님이 감동허사 인도환생<sup>1591</sup>)을 다시 시켜

이 대연<sup>1592</sup>)을 배설했네.

거룩하신 효성심을 광거<sup>1593</sup>) 맹종이가 당할쏜가?

서산에 지는 해를 끈으로 매어두고, 한 없이 축하허세.

하늘이 내신 효성심을 우리들이 받들어서 천추유전<sup>1594</sup>)을 허옵시다.”

[아니리] 여러 봉사 더욱 흥이 나서,

모두 나서서 춤을 추고 노는디,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자 절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이 덕이 누<sup>1595</sup>) 덕이냐?

54. (Short Poem) A blind man recites a short poem.  
The blind shout for more joy.

[Aniri] While Mr. Sim is rejoiced, a blind man moves forward  
and recites a short poem.

[Jungmori] "Listen, children!

Don't waste your youth.

Do what you ought to do.

Loyalty and filial piety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An ancient man caught fish by making a hole in the ice.

Another ancient man held bamboo and cried.

He got a bamboo sprout from snow.

They served their parents.

Our empress is a good daughter.

She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to open her father's  
eyes.

She was offer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Heaven was moved and sent her back to this world.

As a result, she is holding this banquet.

She is much greater than the ancient men of filial piety.

Let's stop the flow of time and praise her forever.

Let's glorify her spirit and pass it onto our descendents forever."

[Aniri] Many blind people were thrilled.

They have fun, dancing together.

[Jungjungmori] "Hurrah! Hurray!

Hurrah! Hurray!

Hurrah! Hurray! Yippee!

Who should we thank?

심황후 폐하의 덕이라.

태고적<sup>1596</sup>) 시절 이래로 봉사 눈 떴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좋네. 기화자자 절씨구.

송천자<sup>1597</sup>) 폐하도 만만세.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sup>1598</sup>)도 만만세.

천천만만세<sup>1599</sup>)를 태평으로만 누리소서.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절씨구!”

## 55. (황봉사) 황봉사가 죄상을 고백하자 한쪽 눈만 뜬다.

[아니리] 이렇듯이 춤추고 노닐 적에, 황극전<sup>1600</sup>) 너른 딸이 춤바다가 되었구나.

모두 이렇게 춤추고 노는디, 그 중에 봉사 하나 눈 못 뜨고 엉겨주춤 서서 울고만 있으니,

심황후 분부하시되,

“지어비금주수까지도<sup>1601</sup>) 눈을 뗀단디,

어찌해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난고?<sup>1602</sup>)

죄상<sup>1603</sup>)을 아뢰어라.”

그때여 황봉사가 뺨덕이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 엎드려지더니마는 죄상을 아뢰는구나.

[중모리] “예, 죄상을 아뢰리라. 예, 죄상을 아뢰리라.

심부원군 행차시에 뺨덕이라는 여인 앞세우고 오시다가,



We should thank Empress Sim.  
This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What a delight!  
Long live the emperor!  
Long live the empress!  
Long live the empress's father!  
Peace and happiness to everybody forever!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What a delight!  
What can bring more joy than this?  
Hurrah! Hurray!"

### **55. (Mr. Hwang Repents) Mr. Hwang confesses his wrongdoing and opens only one of his eyes.**

[Aniri] Everybody dances, as if the wide yard in the palace became the sea of dance.  
While everybody dances in joy, one man, still blind, stands awkwardly and cries.  
Empress Sim speaks.  
"Even animals opened their eyes.  
Why couldn't that man open his eyes?  
Report to me about his wrongdoing."  
Mr. Hwang couldn't open his eyes because he is guilty of seducing Bbangdeok.  
He kneels down on the ground and confesses his bad conduct.  
[Jungmori] "Okay. Let me confess my wrongdoing, Your Highness.  
Mr. Sim and Bbangdeok were on their way to the palace.

주막에 들어 유숙<sup>1604</sup>)을 허실 적에,  
 주인과 약속을 허고 뺑덕이네를 유인하여 밤중에 도망을 허였는디,  
 그날 밤 오경시<sup>1605</sup>)에 심부원군 우시는 소리 구천<sup>1606</sup>)에 사무쳐서  
 명천<sup>1607</sup>)이 아신 바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이런 천하<sup>1608</sup>) 몹쓸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비수검<sup>1609</sup>)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아니레]**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더니,  
 “인수무과리오?<sup>1610</sup>)  
 개죽위선이라.<sup>1611</sup>)  
 네 죄를 내가 아는 고로<sup>1612</sup>) 시이<sup>1613</sup>)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어명하여 놓으니,  
 황봉사 그래도 죄가 남아 있어 눈 하나밖에 못 뜬 것이,  
 마치 총 놓기<sup>1614</sup>) 좋게 뗏든가 보드라.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기에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기에 필유여앙이라.<sup>1615</sup>)  
 어찌 천도<sup>1616</sup>)가 없다 이르리오?

## 56. (후일담) 많은 사람들이 벼슬과 상을 받는다.

**[옛중모리]** 그 때여 심생원<sup>1617</sup>)은 부원군<sup>1618</sup>)을 봉허시고,  
 안씨 맹인 교지<sup>1619</sup>)를 내려 정렬부인<sup>1620</sup>)을 봉허시고,<sup>1621</sup>)  
 무릉촌 승상부인은 별급상사<sup>1622</sup>) 시키시고,

They dropped by an inn to sleep for the night.  
I talked with the landlady, seduced Bbaengdeok, and ran away  
with her.  
That night, Mr. Sim's cry was so loud that it must have been  
heard by heaven.  
That's why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am really a bad person.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me?  
Please kill me with a sharp sword right away."  
[Aniri] Empress Sim responds,  
"Who doesn't have fault?  
If you repent, you can become a good person.  
Since you repent of your wrongdoing, you are forgiven.  
Open your eyes."  
She says so.  
Mr. Hwang opens only one eye due to his wrongdoing.  
His eyes are adequate for shooting a rifle.  
The moral is that a good person will be rewarded,  
and a bad person will be punished.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divine law?

## **56. (Subsequent Story) Many people receive government positions and rewards.**

[Eotjungmori] Mr. Sim i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empress's  
father.  
A royal order is issued, declaring Mrs. An a virtuous woman.  
An award is given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그 아들은 직품<sup>1623</sup>)을 돋오아<sup>1624</sup>) 예부상서<sup>1625</sup>) 시키시고,  
화주승은 불러올려 당상<sup>1626</sup>)을 시키시고,  
젓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 어머니는 천금상<sup>1627</sup>)을 내리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sup>1628</sup>)을 없앴으니,  
천천만만세를 불렀더라.  
이 뒤야 뉘 알리오?  
호가도 장창불락이요,<sup>1629</sup>)  
고수님 팔도 아플 지경이니,  
그만 더질 더질.<sup>1630</sup>)

Her son was promoted to a higher government position.  
The Buddhist monk gets a government position. Properties are  
granted to Mrs. Gwideok and the women who gave Sim Cheong  
milk.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es and  
drafted labor.  
The villagers give shouts of thanksgiving.  
Who could know what happens next?  
A good song, sung repeatedly, ceases to be good.  
The drummer must feel tired in his arms.  
So let me finish.

- 
- 1) 宋. 중국 역사상 당나라, 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960-1279). 처음 개봉(開封)에 도읍하였으나, 1126년 정강(靖康)의 변(수도 개봉이 금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북송이 망하게 된 사건)으로 강남으로 옮겨 임안(臨安, 杭州)으로 수도를 옮겼다. 개봉시대를 북송, 임안시대를 남송이라고 한다.
  - 2) 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3)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4) 累代名門巨族.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떨친 세력이 있는 집안.
  - 5) 名聲. 좋은 평판.
  - 6) 家運. 집안의 운수.
  - 7) 二十 後. (나이가) 스무 살 이후.
  - 8) 眼盲하니. 눈이 먼니.
  - 9) 洛水靑雲에 발차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 10) 強近한. 촌수가 매우 가까운.
  - 11) 누가.
  - 12) 賢哲. 어질고 총명함.
  - 13) 諫諍하사. 諫諍하시어.
  - 14) 周南. 《시경》 “국풍”의 첫 편 이름.
  - 15) 召南. 《시경》 “국풍”의 편명.
  - 16) 關雎詩. 《시경》 “국풍”편의 첫 시 이름. 주나라 문왕과 그 후비(后妃)의 성덕을 읊은 시임.
  - 17)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18) 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남편.
  - 19)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20)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 킴.
  - 21)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22)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23) 弊衣. 소매가 넓고 뒤틀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24) 直衿. 무관이 입던 옷의 하나.
  - 25) 褰袖(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 을 넣고 뒤틀기를 길게 켜 둔 복.
  - 26)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27) 중치막.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폭으로 된 남자의 옷.
  - 28) 누비질.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29) 상침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30) 꺾음질. 바느질의 한 종류로 술기를 꺾어서 꿰매는 일.
  - 31) 외울뜨기. 단 하나의 울로 뜬 망건이나 탕건.

- 32) 폐담. ‘괴불’인 듯. 괴불은 괴불주머니로, 어린 아이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 형겅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담.
- 33) 고두누비.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34) 솔오리기. 옷솔기를 오리는 일.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 35)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굵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36) 縞子. 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터졌음.
- 37) 토시.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음.
- 38) 머신.
- 39)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40) 布帶. 베로 만든 띠.
- 41)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을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42) 줍치. 주머니.
- 43) 담배 또는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기름종이·형겅·가죽 따위로 만들.
- 44) 藥囊. 약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 45) 筆囊. 붓을 넣어 두는 주머니.
- 46) 揮項. ‘휘양’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7) 볼끼.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겅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매.
- 48)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겅으로 위는 둥글고 뺨쪽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댐.
- 49) 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것의 모피로 만들며,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임. 남녀의 것이 조금 다름.
- 50) 천의. 처네.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51) 周衣. 두루마기.
- 52) 갓은. 온갓.
- 53) 衾枕. 이불과 베개.
- 54)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님조각에 수를 놓은 형겅을 덮어 끼거나, 화각(畵角)을 대는데, 대개 남자의 것은 네모지게 만들고, 여자의 것은 둥글게 만들. ‘화각’은 목가나 세공품을 곱게 꾸미는 꾸밈새의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얹게 오려 덧붙임.
- 55) 雙鴛鴦. 두 마리의 원앙새. 한 쌍의 원앙새.

- 56) 毛紗. 털실.
- 57) 角帶. 각띠. 벼슬아치가 예복에 띠던 띠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8)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표. 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음.
- 59) 학 그리기. 여기서는 ‘학을 수놓기’의 뜻임.
- 60) 宮綃.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등근데, 흔히 땀깃감으로 씀.
- 61) 貢緞.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62)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3)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4) 낙릉.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5) 甲紗. 품질이 좋은 성글게 짠 비단.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66) 雲紋. ‘운문단(雲紋緞)’인 듯. ‘운문단’은 구름 무늬를 수놓은 비단.
- 67) 吐絢.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 68) 甲絢. 품질 좋은 명주.
- 69) 盆絢. 황해도·평안도에서 나는 명주.
- 70) 縹絢. 오색 빛 명주.
- 71) 明絢.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베.
- 72) 生絹. 생사로 얇게 짠 비단.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
- 73) 通絹. 싹 성글고 얇게 짠 비단.
- 74) 造布. 함경북도에서 나는 베의 한 가지. 너비가 좁고 두꺼우며 촘촘하게 짬.
- 75) 北布. 함경북도에서 나던,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
- 76) 黃紵布. ‘게추리’를 말하는데, ‘게추리’는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굵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77) 春布. 강원도에서 나던 베.
- 78) 門布. 삼베의 한 가지로, 중국 책문(柵門) 지방에서 남.
- 79) 게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굵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80) 白苧. 잿물에 삶아서 물에 빨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모시. 눈모시. 흰모시.
- 81) 極上細木.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82) 靑·黃·赤·白. 파랑색, 노랑색, 붉은색, 흰색.
- 83) 沈香. 황갈색.
- 84) 各色으로다. 갖가지 색으로. 여러가지 색으로.
- 85) 圓衫. 부녀의 예복으로 갖추는 옷옷의 한 가지.
- 86) 祭服. 제사를 모실 때 입는 예복.
- 87) 婚葬大事. 혼례나 장례 등 큰 일.
- 88) 熟政. 음식을 만드는 일.
- 89) 갖은. 여러 가지.
- 90) 떡의 한 가지. 뽕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 물을 붓고 질척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하룻밤쯤 부풀리어 틀에 담아 붓고, 밤·대추·잣 등을 얹어서 찜.
- 91) 中桂. 유밀과의 한 가지.



- 92) 藥果.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물 도는 설탕물과 기름에 섞어 반죽을 한 뒤에, 과줄판에 박아서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기름에 지지어 익힌 것.
- 93) 薄徹. 유밀과의 한 종류. 산자의 몸이나 혹은 엿을 얇고 반듯하게 베고,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 쪽에 붙임.
- 94) 茶食. 녹말 · 콩 · 송화 · 황밤 · 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음식.
- 95) 正果. 온갖 과일이나 새양 · 연뿌리 · 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재거나 졸이어 만든 과자.
- 96) 花菓.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국에 과실을 썰어 넣거나 꽃잎을 넣고 잣을 띄운 음료.
- 97) 상 위에 놓고 열구자당을 끓이는 그릇. 구리 · 놋쇠 · 은 따위로 만든 대접처럼 생긴 그릇인데, 가운데 숯불을 넣는 통이 있고, 통 주위에 음식을 넣어 끓이며, 밑 부분엔 굽이 있음.
- 98) 饌需. 반찬거리.
- 99) 水波蓮. 잔치 때에 차례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 100) 잔치 때 차례로 쓰는 꽃 따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오려서 만드는 일.
- 101) 排床하기. 상 놓기. 상 차리기.
- 102) 뽕질. 떡 · 과자 · 과일같은 것을 접시 따위에 높이 담아 올리는 일.
- 103) 手足. 팔다리
- 104) 盡도록. 지치도록.
- 105)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 106)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107)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108) 貫돈.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109) 日收. 본전에 이자를 얹어서 일정한 날짜에 나누어 날마다 얼마씩 갚아나가는 일, 또는 그 빚.
- 110) 遞計. 장체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에 이자를 얹어 받아들이는 일.
- 111) 長利邊. 장리로 받는 이자. '장리'는 곡식이나 돈을 꾸어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일.
- 112) 春秋時享. 봄 가을에 가묘(家廟)나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묘사.
- 113)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14) 始終이如一하니.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니.
- 115) 上下隣里. 위 아래의 가까운 마을.
- 116) 무슨.
- 117) 이승. 지금 살고 있는 세상.
- 118)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19) 便다. 편하다.
- 120) 어렵고 고되게 꾸러가는 살림살이.
- 121) 至願. 지극히 바람. 또는 그런 소원이나 염원.

- 122) 年當四十이나. 나이가 40이 되었으나.
- 123)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124)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125)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126)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 127) 死後. 죽은 후.
- 128)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29) 神供. 신에게 바치는 공양.
- 130) 男女間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간에.
- 131) 不孝三千에 無後爲大. 삼천 가지나 되는 불효 중에 후손 없는 것이 제일 큼.
- 132) 모지라지도록, 끝이 닳아서 없어지도록.
- 133) 至誠껏. 온 정성을 다 해.
- 134) 온갖.
- 135)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136) 古廟. 오래 된 사당.
- 137)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138)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139) 石佛. 돌부처.
- 140) 미륵보살. 돌로 만든 부처.
- 141)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 142) 袈裟시주. 중이 입는 옷인 가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일.
- 143)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사서 바치는 일.
- 144)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문에 문종이를 발라주는 일.
- 145) 十王佛功. 시왕전에 드리는 불공. '시왕(十王)'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고 하는 열 명의 대왕
- 146) 七星佛功. 칠성각에 드리는 불공.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
- 147) 羅漢佛功. 나한전에 드리는 불공. '나한'은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자리의 부처.
- 148) 힘을 들인.
- 149) 나무.
- 150)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 151) 蟠空. 공중에 어림.
- 152) 五彩. 파랑·노랑·주홍·검정·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 갖가지 색깔.
- 153) 하늘의.
- 154) 玉京.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상상 속의 서울.
- 155)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
- 156) 圓衫. 부녀가 예복으로 갖추던 옷인데,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 157)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 158) 拜禮. 절을 함.
- 159) 正身.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탁하여 태생하는 육신.
- 160) 山上에. 산 위에.
- 161) 觀音. 관세음보살.
- 162) 海中에. 바다 가운데.
- 163) 皓齒. 흰 이빨.
- 164) 半開히여. 반만 열어.
- 165) 灑玉聲. 옥을 씻는 소리. 곧 그렇게 고운 목소리.
- 166)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
- 167) 蟠桃. 선도 복숭아.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고 함.
- 168) 進上. 윗사람에게 바침.
- 169) 玉眞妃子. 옥진 낭자라고도 하는 선녀.
- 170) 數語. 몇 마디 말.
- 171) 酬酌. 서로 말을 주고받음.
- 172) 조금.
- 173) 늦었기 때문에.
- 174) 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 175) 得罪히여. 죄를 얻어.
- 176) 人間. 사람 사는 세상.
- 177) 내쫓으시므로.
- 178)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여 부르는 말.
- 179)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80) 諸佛菩薩. 여러 부처님과 보살.
- 181) 南柯一夢. 한 때의 헛된 꿈.
- 182)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83) 夢事. 꿈에 나타난 일.
- 184)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185) 席不正不坐. 좌석이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태교(胎教)의 한 가지.
- 186) 割不正不食. 반듯하게 썬 것이 아니면 먹지 않음. 태교(胎教)의 한 가지.
- 187)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88)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89) 坐不中席.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음. 가운데 자리는 높은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태교와 관련이 없으며, ‘좌불변(坐不邊)’(한 쪽으로 치우치게 앉지 않음. 곧 바로 앉음)으로 해야 할 듯함.
- 190) 十朔日. 열 달.
- 191) 然後. 그런 뒤.

- 192) 解腹. 해산(解産). 출산.  
 193) 一便. 한편으로는.  
 194) 섞여 있는 것에서 여럿을 골라내어.  
 195)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196) 小盤. 자그마한 밥상.  
 197) 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를 못함.  
 198) 順産.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199) 香臭. 향기로운 냄새.  
 200) 彩雲. 채색 구름.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201)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202) 仙人玉女. 신선의 딸처럼 아름답고 고운 딸.  
 203) 하겠지만. 할 것이지만.  
 204) 불명.  
 205) 불명.  
 206) 頭大日將軍. 머리가 크면 장군감임.  
 207) ‘약간의 힘’이란 의미로 ‘힘께나 쓰겠다’는 뜻.  
 208) 미끈둥. 부드러우며 미끄러운.  
 209) 晚得. 늦게 얻음.  
 210)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211) 禮儀凡節.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212) 君子好逑.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  
 213) 壽富貴多男. 오래 살며, 부귀하고, 아들을 많이 둬.  
 214) 外孫奉祀. 외손이 제사를 받들어 모심.  
 215) 없겠나?  
 216)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217) 帝王님. 여러 신들.  
 218) 화.  
 219) 절대. 영. 도무지.  
 220) 해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밥과 국. 주로 미역국과 흰 밥을 먹음.  
 221)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222) 이와 같은 사람. 보통 사람.  
 223)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224)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225) 帝王님네. 여러 신들.  
 226) 三千九萬里. 여기서는 ‘아주 먼 거리’를 가리킴.  
 227) 三十三. 불교 용어로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세 세계 가운데서 욕계의 둘째 하늘.  
 228) 忉率天.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

- 보살이 살며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歡樂)장소라고 함.
- 229)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230)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 231) 묶은 것이 되직하여지고.
- 232) 人形. 인간의 형체.
- 233) 생겨.
- 234)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신장, 폐장, 비장.
- 235) 여기서는 '생기고'의 뜻.
- 236) 육부(六腑)를 이르는 말임. 육부는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쓸개,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상부, 위 부분, 배꼽 아래 부분을 아울러 일컫는 말), 방광.
- 237)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 구멍이라고도 함.
- 238)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합한 아홉 개의 구멍.
- 239) 찬 김 받아. 곧 열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 240)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241)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242)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243)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244)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245)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46) 大舜. 순임금
- 247) 曾子. 공자의 제자로, 효행에 뛰어났으며, 《대학(大學)》을 편했음.
- 248) '기량식의 처(杞梁殖의 妻)'의 잘못. 기량식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장공(莊公)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의 처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이나 울자 마침내 성이 무너졌다. 기량식의 처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치수(澍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 249) 班姬. 반첩여(班婕妤). 첩여는 '궁녀'의 뜻. 자(字)는 혜희(惠姬). 한나라 사람으로 문장과 재능이 뛰어났다. 성제(成帝)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長信宮)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을 드는 동안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250) 才質. 재주와 기질.
- 251)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락(幸樂)을 누렸다 함.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252) 오이가 자라듯이.

- 253) 달이 점점 차듯이.  
 254)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병.  
 255)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256) 출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국과 밥. 주로 미역국과 쌀밥을 먹음.  
 257) 産後. 출산 후. 아이를 낳은 후.  
 258) 시중. 수종(隨從). 옷사람의 옆에 있으면서 온갖 심부름을 하는 일.  
 259) 過勞. 힘에 부치게 일을 함.  
 260) 産後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261) 온 몸의 근육과 뼈마디.  
 262)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263) 家君님. '가군'은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264)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265) 忘世. 죽음을 가리키는 말.  
 266) 初終葬事.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267) 죽자고 했더니.  
 268) 天命. 타고난 수명.  
 269) 끊어졌는지.  
 270) 어쩔 수 없이.  
 271) 어두우신.  
 272) 뉘라서. 누가.  
 273)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잘 받들어 모심.  
 274) 四顧無親. 사망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275) 子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276) 依託. 남에게 의지하고 부탁함.  
 277) 전혀 없어.  
 278) 지팡이.  
 279) 아무렇게나 함부로 쥔고.  
 280) 구렁. 땅이 움푹 패어 들어간 곳.  
 281)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282) 飢寒. 굶주림과 추위.  
 283) 家家門前. 집집마다 문 앞에.  
 284) 魂魄. 님.  
 285)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286)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드리는 공.  
 287) 愍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288) 걸으면.  
 289) 墳墓. 무덤.

- 290) 母女相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 291) 無窮. 끝이 없음.
- 292) 숨이 몹시 차서.
- 293) 주려고.
- 294) 어린 아이의 머리에 씌우는 수놓은 모자의 한 가지.
- 295) 金字. 금실로 수놓은 글자.
- 296) 짙은 옥색 판.
- 297) 紅絲. 붉은 색 비단 실.
- 298) 술. 책상보다 커튼 또는 띠·끈 따위의 끝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 299) 장막같은 데 꾸밈새로 늘어뜨린 좁은 형겅이나 줄 따위.
- 300) 여자아이들의 노리개의 한 가지. 고운 색 형겅을 등글거나 혹은 병 모양같이 만들어서 두 쪽을 맞대고 수를 놓기도 하며, 다른 색깔의 형겅으로 알록달록하게 바르기도 하여 끈을 매어 참.
- 301) 新行函. 혼인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함.
- 302) 下賜하신. 윗사람이 내려주신.
- 303) 壽福康寧. 오래도록 살고 행복하며, 몸이 건강하고 평안함.
- 304) 太平安樂. 태평하고 평안하며 즐거움.
- 305) 양쪽에.
- 306) 紅氈. 홍색의 모직물.
- 307) 괴불주머니. 어린애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형겅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납.
- 308) 끼던.
- 309) 玉指環. 옥가락지.
- 310) 진작. '미리'의 뜻으로 '바로 그 때에.'
- 311) 생기거나. 태어나거나.
- 312) 조금.
- 313) 끝이 없는.
- 314) 窮天之痛. 하늘까지 닿는 지극한 아픔.
- 315) 이것으로.
- 316) 죽는.
- 317) 生死間에. 삶과 죽음 사이에.
- 318) 무슨.
- 319) 亡終. 마지막.
- 320) 북받치는 감정이 대단히 참기 어려워.
- 321) 颯颯悲風. 구슬프게 부는 바람.
- 322) 簾簾細雨. 쓸쓸하게 내리는 가랑비.
- 323) 딸꼭질.
- 324)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 내는 소리.
- 325) 人命은 在天인데.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곧 운명이라는 말.
- 326) 醫家. 의원집.
- 327) 부디.
- 328) 水一升煎半服.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 먹음.
- 329)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 330)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331)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332) 全廢터니. 전폐하더니. 아주 없애버리더니. 전혀 듣지 않더니,
- 333) 氣虛. 원기가 허약함.
- 334) 콧구멍.
- 335) 김.
- 336) 아름차면. 힘에 겨우면.
- 337) 울지도.
- 338)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게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39) 지으려.
- 340) 사이에.
- 341)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 342) 藥能活人.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343) 도리어.
- 344)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 345)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 346) 還生次로. 다시 태어나기로.
- 347) 眞言. 주문(呪文).
- 348) 가슴.
- 349) 두드리며.
- 350) 목젖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351) 아래로 내려가면서 뒹굴.
- 352) 위로 올라가며 뒹굴.
- 353) 雪寒風. 눈 섞인 찬바람.
- 354)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신선 세계에 있다는 복숭아.
- 355)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 356)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 357)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
- 358)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359) 懷抱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 360) 天上의. 하늘에서.
- 361) 정성을 다하러. ‘궁을 닦다.’는 말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정성을 기울이다.’
- 362) 엮어져. ‘엮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엮어지다.
- 363) 此所謂. ‘이것이야말로’를 한문투로 일컫는 말.
- 364) 칭찬하는.
- 365) 賢哲. 어질고 슬기로움.
- 366) 왈각 달려들어 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
- 367) 才談. (익살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368) 死者는 不可復生이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 369) 初終祭禮. 초종장례(初終葬禮)를 가리킨 뜻. ‘초종장례’는 초상이 난 때부터 졸곡(卒哭. 사람이 죽은 뒤 석달 후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 지내는 제사)까지 장례의 모든 과정.
- 370) 小方牀. (본래는 대방상을 쓰는 법인데) 대방상을 쓰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 쓰던 상여.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음. ‘대방상(大方牀)’은 큰 상여로서, 높은 벼슬아치만 쓸 수 있었음.
- 371) 땃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땃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둘러가며 놓은 돌.
- 372) 행하니 높게.
- 373) 發靚祭.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 상여 앞에서 지내는 제사.
- 374) 靈輅既駕 往即幽宅 載陣遺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이미 올라졌으니, 이제 가면 무덤이 옵니다. 보내는 예를 모두 갖추어 배푼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상여가 떠날 적에 음식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는 축문(祝文).
- 375) 銘旌. 긴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본관·성씨 따위를 적어,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갔다가 관위에 함께 묻는 깃발.
- 376) 功布. 삼베를 다섯 자 내지 여섯자로 잘라서, 상여 앞에 명정과 함께 들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수건.
- 377) 嬰扇. 운불삼(雲鬘嬰). 운삼과 불삼. 모두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 뒤에 세우고 가는 것들인데, ‘운삼’은 구름 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며, ‘불삼’은 썬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임.
- 378) 等物. 등등의 물건.
- 379) 運喪. 상여를 메고 운반함.
- 380) 忘勞而歌. 힘드는 일을 잊어가며 노래를 부름.
- 381) 상두소리.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 382) 搖鈴.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83) 별다른 의미가 없는 후렴구임.
- 384) 北邙山川. 중국의 낙양성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

- 385)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밋자리의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킴.
- 386) 才質. 사람의 됴됨이와 쓸모 있는 소질.
- 387) 特殊터니마는. 특수하더니만.
- 388) 春草. 봄풀.
- 389) 年年緣. 해마다 다시 푸르러짐.
- 390) 王孫. 왕의 자손.
- 391) 歸不歸. 가서는 돌아오지 않음. 곧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말.
- 392) 종달새.
- 393) 불명. 혹 '50 길'일 수도 있음. '길'은 자기 키만큼의 길이.
- 394) 西天. 서쪽 하늘.
- 395) 明月. 밝은 달.
- 396) 遠山. 먼 데 산.
- 397) 인정(人定).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을 쳤는데 이에 따라 성문(城門)을 닫았다.
- 398) 罷漏.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 399) 여자 종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 400) 開門. 문을 열.
- 401) 襦袢. 포대기.
- 402) 屈冠. 상복(喪服)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巾).
- 403) 祭服. 상복. 성긴 삼베로 만들되, 그냥 호거나 혹은 재단만 하고,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음.
- 404) 상여.
- 405) 가마나 상여 또는 들것 따위의 뒤의 사람이 메거나 들게 된 부분.
- 406) 거머쥐어 잡고.
- 407) 山疊疊路茫茫.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멀.
- 408) 日沈沈路暝暝. 날은 저물고 길은 어두움.
- 409) 酒店. 주막. 쉬어갈 주막.
- 410)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합한다는 뜻.
- 411)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 412) 나와.
- 413) 가십시다. 갑시다.
- 414) 상두꾼들. 상여를 멘 사람들.
- 415)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416)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 417) 三十前. 삼십 세 전. 서른 살 전.
- 418)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 419) 讀祝. 축문을 읽음.

- 420) 嗟呼 婦人. 아, 슬프다, 부인이여.
- 421) 요차요조숙녀혜(邀此窈窕淑女兮)여. 이렇게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 422) 행불구혜고인(行不苟兮古人)이라. 행동거지가 옛 사람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 423) 期百年而偕老.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함.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 424) 忽然沒兮焉歸오.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 425) 遺稚子而永逝히니.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리니.
- 426) 淚散散而沾襟兮여. 눈물이 여기저기 흠어져 옷깃을 적시는구나.
- 427) 지는. 떨어지는.
- 428) 心耿耿而消魂兮.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근심으로 낮이 나갔구나.
- 429)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 430) 薄奠이나. 변변치 못한 제사이나.
- 431) 萬事. 모든 일.
- 432) 거머쥐어.
- 433) 北邙山川. 묘지가 있는 곳. 사람이 죽어 가는 곳을 이르는 말.
- 434)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 435) 울타리.
- 436) 杜鵑. 두견새. 소쩍새.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운(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 437) 老而無妻鰥夫라니.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부(홀아비)라고 하니.
- 438)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 439) 말인가?
- 440) 어쩔 수 없이.
- 441) 洞人들. 동네 사람들.
- 442) 百拜致賀. 여러 번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함.
- 443)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444) 얼싸절싸. 흥이 나서 뛰노는 모양.
- 445) 지팡이.
- 446) 아무렇게나 함부로 쥔고.
- 447)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 448) 전혀 없네.
- 449) 自歎. 저 홀로 탄식함.
- 450) 遠村. 멀리 떨어진 마을.
- 451) 포대기.
- 452)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 453)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 454) 竹上之淚.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꽃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알록

-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 455)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456) 온다고 하는.
- 457) 剛木水生.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남. 곧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58) '메어치며'를 강조한 말.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려치며.
- 459)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60) 잃느냐?
- 461) 두레박.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들.
- 462) 흠어 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쥘고.
- 463)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64) 氣虛. 원기가 허약함.
- 465) 鐵石. 쇠와 돌.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
- 466) 盜拓. 중국 춘추시대의 큰 도둑. 공자와 같은 시대의 노나라 사람. 현인 유하혜(柳下惠)의 아우로, 그의 도당 9천 명과 함께 전국을 휩쓸었다고 함.
- 467) 어렵게.
- 468) 壽福康寧. 명이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 469) 길쌈.
- 470) 심하게 내리쬘는 여름의 뜨거운 별.
- 471)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 472) 몇 돈 되는 돈. '돈'은 한 냥(兩)의 십분의 일.
- 473) 몇 되 되는 쌀.
- 474) 암쌀. 암죽 끓일 쌀. '암죽'은 어린 아이에게 젓 대신 먹이려고 곡식이나 밤 가루로 물게 끓인 죽.
- 475) 언덕.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76) 어른다.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다.
- 477) 귀여움.
- 478) 쌀 다섯 섬 속의 뉘(쌀 속의 겉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 하나처럼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79) 소경 열 명에 막대기 하나처럼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80)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481)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482) 周遊天下無雙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아도 둘도 없는 귀한 아이.
- 483)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숙향이 빠져 죽으려다가 항아의 도움으로 살아난 강의 이름.
- 484) 고전 소설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 485)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 털빛이 흰 토끼.
- 486) 불명. '진주(珍珠)씨'라고 하기도 한다. '진주씨'는 작은 진주를 가리킨 듯.
- 487) 密花佛手. 보석의 일종인 밀화로 부처 손같이 만든 패물.

- 488)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489) 어린 아이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490)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491) 두레박.  
 492) 들랑날랑. 지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493) 아이를 어르면서 내는 소리.  
 494) 이불.  
 495) 동냥을 하려고.  
 496) 纏帶. 무명이나 베 형식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 놓고, 가운데는 막았는 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함.  
 497) 한 덩어리로 만들어.  
 498) 둘러메고.  
 499) 벼.  
 500) 암죽을 끓일려고.  
 501) ‘허위허위’의 방언.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502) 하늘의.  
 503) 日就月將. 몸, 마음, 학문 등이 날로 달로 진보함.  
 504)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505) 忌祭祀. 삼 년 상이 끝난 후,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506) 供養事.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일.  
 507) 依法이. 법도에 맞게.  
 508) 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빠른 세월.  
 509) 正히. 단정히.  
 510)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511)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512) 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513) 無男獨女. 아들 없이 하나 있는 딸.  
 514)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  
 515) 들어보십시오.  
 516) 子路. ‘자로’는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517)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518) 百里를 負米하고.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519)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간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520) 酈榮.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간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521)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522)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523)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524) 空林의. 빈 숲의. 낙엽이 진 겨울 숲의.
- 525) 反哺恩. 새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526) 微物. 작고 보잘 것 없는 동물.
- 527) 쉬. 빨리.
- 528) 바지.
- 529)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530)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531)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532)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533) 치마.
- 534)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535) 어떤 사물의 윗부분.
- 536) 길버선. ‘길 갈 때 신는 버선’인 듯.
- 537) 바가지.
- 538) 遠山. 먼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539) 暗暗하고. 몹시 어둡고.
- 540) 을씨년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양.
- 541) 哀矜히. 불쌍하게.
- 542)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543) 求患. 어려운 지경에서 구함.
- 544) 十匙一飯. 열 숟가락의 밥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말.
- 545) 추운.
- 546)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547) 그릇에 담은 밥, 혹은 그릇에 담은 만큼의 밥.
- 548) 醬.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49) 厚히. 마음 씩씩이가 너그럽게. 많이.
- 550) 기다리는데.
- 551) 먹사오리카. 먹겠습니까.
- 552) 足한지라. 충분한지라.
- 553) 半日. 반나절.
- 554) 출근들.
- 555) 시장하지는. 배가 고프지.
- 556)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 557)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쌀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 558)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 559) 孝行. 효성스런 행동.
- 560)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 561)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 562)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 563)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564) 張丞相宅 夫人. 승상 벼슬을 한 장씨 성을 지닌 사람의 부인.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 565)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 566) 父親前. 아버지께.
- 567) 切親. 매우 친함.
- 568) 진작.
- 569) 蛾眉. 미인의 눈썹을 이르는 말.
- 570) 빨리.
- 571)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 572) 青松. 푸른 소나무.
- 573) 綠竹. 푸른 대나무.
- 574) 亭下. 정자 아래.
- 575)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 576) 狂風. 미친 바람. 거센 바람.
- 577)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 578) 老龍. 늙은 용.
- 579)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 580) 자취에.
- 581) 날개.
- 582) 발을 멀쩡멀쩡 띄어놓으며 걷는 모양.
- 583) 戛然聲. 학이 우는 소리.
- 584) 奇異하구나.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 585) 階上. 섬돌 위.
- 586) 반가와 하여.
- 587) 座. 앉을 자리.
- 588) 武陵에. 무릉촌에.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뜻하기도 하는데,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를 이룸.
- 589) 開花. 꽃이 필.
- 590) 일찍.
- 591) 棄世하시고. 세상을 버리시고. 돌아가시고.
- 592)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593) 未還하고.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 594) 대하는 것이.
- 595)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 596) 收養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 597) 女功.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 598) 文筆. 글과 글씨.
- 599) 末年. 일생의 마지막 무렵.
- 600) 大小事.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 601)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 602) 日暮. 날이 저물. 저물녘.
- 603)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 604)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 605)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 606) 寂寞空山.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산.
- 607) 人跡. 사람의 자취.
- 608) 自盡腹痛. 배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 609)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610) 도량 出入. 도량을 드나드는 일. '도량'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 611) 한 길이 넘는. '길'은 자기 키만한 높이나 깊이.
- 612) 힘껏 밀어뜨린 듯이
- 613) 나오려고 하면.
- 614) 無盡無盡. 다함이 없을 만큼 끝없이.
- 615) 一身. 자기 한 몸.
- 616) 手足. 팔과 다리.
- 617) 日暮途窮.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힘.
- 618) 人跡. 사람의 자취.
- 619)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620) 重棚. (낡은 건물을)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 621)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집.
- 622) 비스듬한.
- 623) 急急히. 매우 급하게.
- 624) 잘 손질하여 멋을 낸 차림새.
- 625) 벼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 626) 長衫. 중의 옷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들.
- 627)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댄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들.
- 628)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629) 龍頭. 용의 머리.
- 630)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고 다니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631)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 632)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 633) 遠山. 멀리 보이는 산.
- 634) 暗暗. 어두컴컴함.
- 635) 雪月. 눈 위로 뜨는 달.
- 636) 白苧布. 흰 모시베.
- 637)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 638) 念佛. 부처의 모습이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는 일,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일.
- 639) 俗家. 불교를 믿지 않는 집안을 불가에서 이르는 말.
- 640) 極樂世界. 불교에서 이상적 세계로 이르는 것으로,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지경이나 그런 곳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641)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어,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랍.
- 642) 願往生.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람.
- 643) 諸宮宗室各安寧. 임금의 친족과 왕실이 두루 평안하기를 빕.
- 644) 잠깐. 열핏.
- 645)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를 죽인 곳.
- 646)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647)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채주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648) 둔갑하여.
- 649) 오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뉘를 빼앗으려는.
- 650) 竹杖. 대나무 지팡이.
- 651) 개울. 작은 내.
- 652)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줄다란 끈.
- 653)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훑듯이 누비는 바느질.
- 654) 가랑이.
- 655) 자개미에. '자개미'는 거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656) 물이 괴어 있는 논.
- 657)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658) 발을 밀쩍밀쩍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659) '고드름상투'인 듯. 고드름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상투.
- 660) 얼싸안아. 여기서는 '감아 쥐어' 정도의 의미.

- 661) 白骨難忘. 죽어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662)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63)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664) 施主집. 중이나 절에 재물을 내는 사람의 집.
- 665)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666)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667) 後事. 뒷일.
- 668) 勸善.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보시를 청함. 여기서는 ‘권선책(勸善冊)’인. ‘권선책’은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669)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 670) 手段.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 671) 來月. 다음달.
- 672) 그렇게 하겠네.
- 673)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는 피를 다 써봐도, 해결할 만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음.
- 674)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 675)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 676) 지우고.
- 677)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678) 되시었소?
- 679) 挽留키로. 만류하기로. 만류하기 때문에.
- 680) 於焉間. 어느새.
- 681) 나더러. 나에게.
- 682) 佛前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 683)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는 피를 다 써봐도, 해결할 만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음.
- 684)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 685)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686) 淨히. 깨끗이.
- 687) 모으고. 쌓아올리고.
- 688) 子夜半에. 한밤중에.
- 689) 돌우어 켜고.
- 690)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691) 天地之神.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
- 692) 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
- 693) 和爲同心.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694) 戊子生. 육십 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 695) 눈이 멀거나 어두워 못 보는 사람. 장님.
- 696) 眼盲하여. 눈이 멀어.
- 697) 視物. 사물을 봄.
- 698) 忠孝烈行. 충신과 효자와 열녀의 행동.
- 699) 天神. 하늘에 있는 신. 하느님.
- 700) 겨우겨우.
- 701) 欲報之恩德인덴 昊天罔極이라. 그 은덕을 갚으려고 하면 하늘 끝까지 다함이 없다.
- 702)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703)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704) 외치는.
- 705) 船人. 뱃사람.
- 706)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 707)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708) 사려고 하니.
- 709) 있습니까.
- 710)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711) 크고 우렁차게.
- 712) 天佑神助. 하늘과 신의 도움.
- 713) 隱身. 몸을 숨김. 몸을 감춤.
- 714) 當年. 일이 있는 바로 그 해. 올해.
- 715)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716) 來月. 다음 달.
- 717)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 718) 彼此. 이쪽과 저쪽의 양쪽.
- 719) 前日. 전 날.
- 720)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 721) 데려간다.
- 722) 것이야. 것은.
- 723) 정가. 지난 허물이나 결함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 724) 來月. 다음 달.
- 725) 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연(輦), 덩, 초헌(輶軒), 남여(籃輿), 사인교(四人轎) 따위가 있다.
- 726) 金巡將宅. 김씨 성을 가진 순장 벼슬을 한 집. ‘순장’은 조선조 때 정3품 문무관으로, 밤에 도성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 여기서는 김씨택을 높여 이르는 말.
- 727) 行船日. 배가 떠나는 날.
- 728) 永訣. 영원히 이별함.
- 729) 잊어버려 생각이 아득하고. 황폐하여 쓸쓸하고.
- 730) 胸中.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

- 731) 끝없는.
- 732) 肝腸. 마음. 애.
- 733) 四時. 사철.
- 734) 籠. 자그마하게 만든 옷을 넣어두는 가구.
- 735) 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걸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걸쳐 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736) 隔한지라. 사이가 떨어진지라. 남은지라. 남았다.
- 737) 墳墓. 무덤.
- 738)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 739)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 740) 祭需.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이나 물건.
- 741) 伐草. 무덤의 풀을 베는 일.
- 742) 年年이. 해마다.
- 743) 忌日. 죽은 날. 제삿날.
- 744) 亡終. 마지막.
- 745) 歆饗. 신령의 제물을 받아서 먹음.
- 746) 四拜. 네 번 절을 함.
- 747) 寂寂. 아주 고요함.
- 748) 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 749) 後園. 뒤뜰.
- 750) 祠堂門. 사당의 문.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 751) 焚香四拜. 향을 피우고 네 번 절을 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함.
- 752)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753) 香火. 향불. 제사에는 언제나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제사를 가리킴.
- 754) 不勝悲痛. 비통함을 이기지 못함.
- 755) 울지는.
- 756) 흐느끼는데.
- 757) 手足. 손과 발.
- 758) 五更時.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해가 뜨는 시각.
- 759) 咸池에. '함지'는 중국 전설에서 해가 진다는 큰 연못.
- 760) 扶桑.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의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이름, 또는 그곳.
- 761) 맬 양이면. 맬 것 같으면. 맨다면.
- 762) 半夜. 한밤중.
- 763)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 764) 孟嘗君.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찌

- 기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 765) 東方. 동쪽.  
 766)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767) 亡終. 마지막.  
 768) 小盤. 자그마한 밥상.  
 769) 진지.  
 770) 別로. 특별히.  
 771) 이르구나.  
 772) 貴人. 귀한 사람.  
 773) 解夢. 꿈 속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774) 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짐 모양의 탈것. 연(輦), 덩, 초현(輶軒), 남여(籃輿), 사인교(四人轎) 따위가 있다.  
 775) 오려나.  
 776) 잡수시지요.  
 777) 차려놓은 음식의 가짓수가 많아 푸짐하구나.  
 778) 다른 자리로 옮겨 놓고.  
 779) 우두커니.  
 780) 舉動. 몸을 움직이는 짓이나 태도.  
 781) 急滯. 갑작스럽게 체함.  
 782)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783) 속였기에.  
 784) 말하여! 말해!  
 785) 묻지도. 물어보지도.  
 786) 살 것인데.  
 787) 長成. 자라서 어른이 됨.  
 788) 새로 생긴 근심.  
 789) 너로 인하여. 네 덕분에.  
 790) 아침 저녁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  
 791) 星火같이. 몹시 급하고 심하게. ‘성화’는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으로, 몹시 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2) 엎드려지며. ‘엎드려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793)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794) 無知한. 미련하고 사나운.  
 795)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796)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797) 빌 것 같으면. 빌려고 하면.

- 798)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풀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 799) 상림(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 800)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 801)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 802) 자꾸 찢는 모양.
- 803)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뒹굴.
- 804) 위쪽으로 뒹굴며.
- 805) 목젖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806) 떨커덕. 크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 807) 화살.
- 808) 엮질러진.
- 809) 傷꺠. 상하게. 다치게.
- 810) 大明天地. 밝은 천지.
- 811) 後嗣. 대를 잇는 자식.
- 812) 情狀.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 813) 錢穀. 돈과 곡식.
- 814) 洞人들. 동네 사람들.
- 815) 侍婢. 몸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종.
- 816)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817) 소리 내어 야단스럽게 부르짖으며 우는 모양.
- 818) 兩親. 부모.
- 819) 俱存. 모두 다 살아 있음.
- 820) 그럭저럭.
- 821) 迎接.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함.
- 822) 예기.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 823)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824) 누구에게.
- 825) 依託.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826) 解約. 약속을 소멸시킴.
- 827) 數朔. 몇 달.
- 828)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829) 氣色.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 830)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831) 畫工. 화가.
- 832) 愁心겨워. 근심스런 생각이 북받쳐 참기 어려워하면서.
- 833) 모양. 모습.
- 834) 歷歷히. 환히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 835) 命. 명령.
- 836) 五色丹青.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 837) 花容月態. 꽃같이 고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
- 838) 細雨. 가랑비. 이슬비.
- 839) 젊고 싱싱한.
- 840) 땅아진. 셋 이상의 가닥으로 넓고 길게 엮어진.
- 841) 綠衣紅裳.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복장.
- 842) 簇子.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만든 것으로, 기둥이나 벽에 걸기도 하고, 말아두기도 함.
- 843) 書題. 그림 위에 쓰는 시문(詩文).
- 844) 生之死一夢間에 年長何必淚森森고? 世間催淚斷腸處는 草綠江南人未還이라. 나고 죽는 것이 한 바탕의 꿈인데, 나이 들어 하필 눈물을 흘리는가? 세상에 살며 눈물을 재촉하는 가슴 아픈 일은, 푸른 강남에 한번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이라네.
- 845) 치마.
- 846) 여러 번 걷는 모양.
- 847) 엮드리지며. '엮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엮여지다.
- 848)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849) 놀던.
- 850) 생각하느냐?
- 851) 七月七夕夜에. 칠월칠석날 밤에.
- 852) 結交. 친구로 맺음.
- 853) 하자고 했더니.
- 854) 上針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855) 누구와.
- 856) 俱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심.
- 857) 洞里. 마을. 동네.
- 858) 모두.
- 859) 白日. 밝은 해.
- 860)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 861) 찡그리는 듯.
- 862) 江水. 강물.
- 863) 嗚咽. 슬프게 읊.
- 864) 시들고자. 시들려고 하여.
- 865) 나지막하게. 낮게.
- 866) 제비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 867) 春鳥. 봄철의 새.
- 868)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 869) 이별하였기에.
- 870)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 871)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촉나라로 돌아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872)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873)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 874) 若道春風不解意 何因吹送落花來라? 만약 봄바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는 꽃을 날려 보내겠는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끝 구절임.
- 875) 송(宋)무제(武帝) 수양공주 매화장(梅花粧)은 있지만. 송나라 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은 있지만, '매화장'은 처마 밑에 누운 공주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져 마지 매화 꽃잎으로 화장한 것과 같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나타낸 말.
- 876)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 877) 江邊. 강가.
- 878) 船頭. 뱃머리. 배의 맨 앞부분.
- 879) 足板.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 880) 空船. 사람도 태우지 않고 짐도 싣지 않은 배.
- 881) 指向.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 882) 萬頃蒼波.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 883)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884)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 885)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 886) 滄海. 넓고 큰 바다.
- 887)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888)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889)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890) 三江.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 891)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892)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893)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 894) '그언마는'의 잘못. 그것이건마는.
- 895)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 896)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897) 나로. 나를.
- 898)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899)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넋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900)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 901)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902)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903)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904)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 905) 日暮鄉關何處是 오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 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의 끝 구절.
- 906)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 907) 遺蹟. 옛 자취.
- 908)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909) 三山半落青天外 오 二水中分白鷺洲라.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이수(伊水)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 910) 李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 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911) 놀던.
- 912)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913)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914) 一去後에. 한 번 간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 915)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916)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917)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 918)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919) 依舊하여. 옛과 같이.
- 920)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 921)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922)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923)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924)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925)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

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926) 종소리.

927)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928)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딴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火對愁眼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鍾聲到客船(달은 지고 가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929)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930) 隔江의. 강 건너편의.

931) 商女. 술파는 여인.

932)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933)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934)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935)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딴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936)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937) 湖上에. 호수 위에.

938)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된 명산.

939)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940)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 빛.

941)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942)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943)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944)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중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945) 원숭이.

946)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947)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948) 香風. 향기로운 바람.

- 949) 竹林. 대나무 숲.
- 950) 玉佩. (여자들이 지나는) 옥으로 만든 패물.
- 951)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 952)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953)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竹上之淚乃可絶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954) 千秋. 아주 오랜 세월.
- 955)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956)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젊잖으나.
- 957) 堯舜 後 幾千年에. 요순 임금 후 수천 년이 흐른 뒤에.
- 958) 누구이며.
- 959)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960)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 961) 水路. 물길. 바닷길.
- 962) 이는 누구인고하니.
- 963) 堯女舜妻 萬古烈女 二妃로다.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만고의 열녀인 두 왕비 (곧 아황과 여영)로다.
- 964) 胥山.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 사람으로 오나라에서 장군으로 있다가 모함으로 죽은 오자서의 사당이 있는 곳.
- 965) 狂風. 사나운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
- 966) 大作하며. 크게 일어나며.
- 967) 蕭颯하더니. 쓸쓸하더니.
- 968) 面如巨輪. 얼굴이 큰 수레바퀴와 같이 큼.
- 969) 眉間이 廣闊하고, 두 눈썹 사이가 넓고.
- 970) 오나라 왕 부차가 간신 백비의 말을 듣고 오자서를 자결케한 뒤, 가족 부대에 시신을 담아 강물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음.
- 971) ‘백비(伯嚭)여야 할 듯 함.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972) 屬鏑劍.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973) 越兵이 滅吳함을 보려고.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려고.
- 974) 참소로 죽게 된 오자서가 죽을 때, 월나라에 의해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죽은 뒤에 두 눈을 빼어 동문(東門)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고사를 이룸.
- 975)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족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 976)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 977) 澤畔. 연못가에 있는 언덕.
- 978)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무관(武關)에서 만나자는 말에 속아 무관에 갔다가 잡혀 죽은 일을 가리킴.
- 979) 未歸魂. 돌아오지 못한 혼령.
- 980) 博浪槌聲. 하남성의 박랑사(博浪沙)에서의 철퇴 소리. 한(漢)나라의 모사가 된 장량(張良)이 장사를 얻어,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진시황이 타고 가는 수레를 박랑사에서 철퇴로 내려친 일을 가리킴. 진시황의 살해 계획은 실패했음.
- 981) 반겨.
- 982) 洞庭 月. 동정호에 비치는 달빛.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 북동쪽, 양자강 중류에 있는 민물 호수.
- 983) 진시황은 진나라 소왕(昭王)의 후예이기 때문에, 진시황을 죽여 소왕에게 당한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듯함.
- 984) 王者. 왕.
- 985) 憔悴. 고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안색이 파리하고 해쓱함.
- 986) 形容. 생긴 모양.
- 987) 枯槁. 야위어서 파리함.
- 988) 屈原. 중국 전후시대 초나라의 선비로 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 회왕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로 물러나 먹다수에 빠져 죽었음. 《초사(楚辭)》와 《어부사(漁夫辭)》를 지었음.
- 989) 精魂. 죽은 사람의 영혼.
- 990) 四五朔. 4~5개월.
- 991) 金風颯而夕起하고, 玉宇廓而崢嶸이라. 가을 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일어나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 시대 김인후(金仁厚)가 지은 〈칠석부(七石賦)〉의 한 구절.
- 992) 落霞는 與孤鶩齊飛하고, 秋水共長天一色이라.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滕王閣)〉의 머릿글인 〈등왕각서〉의 한 구절.
- 993) 江岸에 橘濃 黃金이 千片. 강 언덕에 귤빛이 질어지니 마치 수많은 황금 조각 같음.
- 994) 蘆花에 風起하니 白雪이 萬點이라. 갈꽃에 바람이 부니, (갈꽃이 바람에 날려) 흰눈이 가득하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 995) 深蒲細柳. 냇버들과 가는 버들.
- 996) 滿江秋風에. 강에 가득한 가을 바람에.
- 997) 玉露清風. 맑은 이슬과 서늘한 바람.
- 998) 돈우어 켜고.
- 999) 漁歌. 어부들의 뱃노래.
- 1000) 海畔靑山. 바닷가 언덕의 청산.
- 1001) 肝腸이라. '간장'은 마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
- 1002)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吊湘君고. 장사에 해는 지고 가을은 깊어가는데, 어디

- 가서 상군을 조문할지 모르겠구나.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의 마지막 두 구절. '장사'는 동정호 곁에 있는 지명이며,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킴.
- 1003) 宋玉.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辭)와 부(賦)에 능하여 〈구변(九辯)〉, 〈초혼(招魂)〉, 〈풍부(風賦)〉, 〈고당부(高唐賦)〉 등의 작품을 남겼다.
- 1004) 悲秋賦. 《초사(楚辭)》의 〈구변(九辯)〉을 가리킴.
- 1005) 이보다.
- 1006) 童女. 여자 아이.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함.
- 1007) 採藥. 땀. 약을 캐러 가는 배인가.
- 1008) 方士.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 1009) 전한(前漢)의 7대 왕.
- 1010) 求仙. 신선을 구함.
- 1011)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012)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 1013) 蒼茫. 넓고 멀어 아득함.
- 1014)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 1015) 霹靂. 벼락.
- 1016) 大洋. 큰 바다.
- 1017) 지물어진.
- 1018) '까치놀'인 듯. '까치놀'은 석양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쩍거리는 물결.
- 1019) 배의 맨 앞 부분.
- 1020)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 1021)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 1022) 遑遑急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 1023)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 1024) 한 섬이나 되는 쌀.
- 1025) 온전한 소. 한 마리 통째의 소.
- 1026) 둥이.
- 1027)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 1028)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 1029) 멧돼지.
- 1030) 배의 맨 앞 부분.
- 1031)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 1032)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 1033)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034) 만들어.

- 1035)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036) 然後에. 후에.
- 1037)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1038)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039)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 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 1040)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우는 이 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 1041) 다스릴.
- 1042) 五服으로 定한 貢收. 오복에 (따라) 정한 공수. 오복에 따라 정한 세금의 징수. ‘오복’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시대에는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으로 나누었는데, 한 복은 각각 500리임.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稅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물품을 뜻함.
- 1043)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 1044) 伍子胥.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수. 이름은 원(員).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파살되었기 때문에 오(吳)나라로 도망가서, 오나라를 도와 초를 쳐서 원수를 갚았음.
- 1045) 奔吳할 제. 오나라로 도망갈 때.
- 1046) 檣歌로 건너주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건너주고.
- 1047) 해하성(垓下城)에서 패한 장수. 곧 항우를 가리킴. 해하는 중국 안휘성 영벽현에 있는 옛 싸움터로, 기원전 202년 한 고조 유방(劉邦)의 군사가 초나라 항우(項羽)의 군사를 무찌른 곳임.
- 1048)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1049) 于先待期. 우선 (다시 반격할)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며.
- 1050) 孔明. 삼국시대 촉(蜀)의 모사인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현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 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1051) 脫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뛰어난 재간.
- 1052)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명장.
- 1053) 火攻. 불로 하는 공격. 조조의 백만군과 오·촉 연합군이 적벽강에서 접전할 때, 공명이 겨울철에 동남풍을 빌어 화공을 통해 조조의 군사를 대파한 일을 가리킴.
- 1054) 舟搖搖以輕易.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나아간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
- 1055) 陶淵明. 중국 진(晉)나라의 시인으로 심양 출신. 이름은 잠(潛). 405년에 팽택(彭澤)의 슈이 되었으나 80여일 후에 〈귀거래사〉를 남겨두고 귀향했음. 문 앞에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일컬었음.
- 1056) 〈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이 지은 시.

- 1057) 해환고범지(海闊孤帆遲). 바다는 넓은데, 외로운 돛단배는 느릿느릿 떠간다.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 나오는 시구.
- 1058) 장한강동거(張翰江東去). 장한이 강동으로 떠남.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의 첫 구절.
- 1059) 壬戌之秋七月. 임술년 가을 7월.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첫 구절.
- 1060)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軾), 자(字)는 자첨(子瞻). 동파는 그의 호. 아버지 순(洵), 동생 철(徹)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지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 1061)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1062) ‘어기영차’와 같은 의성어.
- 1063) 叩枻乘流無定去. 노를 놓아두고 물결을 타고서 한없이 감.
- 1064) 즐거움.
- 1065) 桂棹蘭枻華亭彪는 吳姬越女採蓮舟요. 화정의 강물에 뜬 계수나무 노와 난목 샅대를 한 배는, 오나라와 월나라 여인들이 연을 캐는 배요. ‘화정’은 중국 강소성 송강현에 있는 지명.
- 1066) 發船. 배가 떠남. 배를 타고서 떠남.
- 1067) 商賈船. 장사하는 배.
- 1068) 商賈. 장사.
- 1069)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070) 經世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남. 곧 여러 해가 지남.
- 1071)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1072)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073)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074)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075)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076) 下瞰. 위에서 내려다봄.
- 1077)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 1078) 和樂. 화평하고 즐거움.
- 1079)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1080) 百千萬金. 수많은 돈.
- 1081) 堆. 이익.
- 1082) 鳳旗. 봉이 그려진 깃발.
- 1083) 蓮花. 연꽃.
- 1084) 고수레. 무당이 굿을 할 때, 또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남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귀신에게 음식을 먼저 바친다하여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면서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 1085) 雲霓.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한 기운.
- 1086) 四拜하고. 절을 네 번 하고.

- 1087) 秋毫도. 조금도.  
 1088) 大明天地. 환하게 밝은 세상.  
 1089) 七十生男. 일흔 살에 아들을 낳음.  
 1090) 億十萬金. 수많은 돈.  
 1091) 그것일랑은. 그것은.  
 1092) 萬頃蒼波. 한없이 넓은 바다.  
 1093) 갈매기처럼.  
 1094) 香火. 향불이나 그 연기.  
 1095)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1096)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1097) 格軍. 조선시대 선원으로 사공의 일을 돕던 사람.  
 1098) 火匠. 밥을 짓는 일을 맡은 선원.  
 1099) 年年이. 해마다.  
 1100) 後嗣. 대를 이을 자식.  
 1101) 雨後清江無限景. 비 온 후의 맑은 강물에 펼쳐진 무한한 경치.  
 1102) 白鷗. 갈매기.  
 1103) 紅蓼月色. 가을이 되어 잎이 다 떨어져 붉은 대만 남은 여뀌에 비치는 달빛.  
 1104) 곳인고?  
 1105) 逸江細雨 네 平生. 가랑비 내리는 한가한 강에서 보내는 네 평생.  
 1106) 泛彼滄波. 저 넓은 푸른 물결 위에 둥둥 떠서.  
 1107) 滔滔滔滔. 넘실넘실.  
 1108) 玉皇上帝. 도가(道家)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109)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1110) 卯日. 12간지로 卯에 해당하는 날.  
 1111) 卯時. 아침 5~7시 사이.  
 1112) 琉璃國. 가상의 나라 이름.  
 1113) 受命. 명을 받음.  
 1114) 卯時初. 묘시(5~7시)의 처음. 곧 다섯 시 무렵.  
 1115) 玉轎. 위를 꾸미지 않은, 임금이 타는 가마.  
 1116) 轎子.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앞뒤로 2명씩 네 명이 메는 가마.  
 1117) 微賤. 보잘 것 없고 천한.  
 1118) 大罪. 큰 죄.  
 1119) 威儀. 위엄 있는 거동.  
 1120) 壯할시고.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1121) 仙官. 신선.  
 1122)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1123)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 1124)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 1125) 赤宋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 1126)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127) 李謫仙. '이씨 성을 가진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킴.
- 1128)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29)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30) 月宮姮娥. '항아'는 달에 산다고 전해 오는 선녀. '월궁'은 항아가 살고 있다는 궁전.
- 1131)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뿔나무밭으로 변하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 1132)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 1133) 八仙女들. 여덟 선녀들.
- 1134) 王子 晉.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1135) 鳳竽.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136)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괘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137) 질장구.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 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돛처럼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138) 成連子.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 1139) 張子房.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1140)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 1141) 擊鼗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142) 凌波詞. 당나라 현종(玄宗)이 꿈에 능파뚝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이 깬 후에 지었다는 노래.
- 1143)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144) 羽衣曲. 당나라 현종(玄宗)이 지은 노래.
- 1145) 採蓮曲. 양(梁)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146) 곁들여서.
- 1147) 狼藉.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1148) 掛龍骨以爲樑하니 靈光이 照日이요, 緝魚鱗以作瓦하니 瑞氣 蟠空이라. 용의 뼈를 걸어 들보를 삼으니 신령한 빛이 햇살에 더욱 빛나고, 고기들의 비늘로 기와를 만들어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렸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149) 珠宮貝闕은 應天上之三光이요, 袞衣繡裳은 備人間之五福이라.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하고 곤의(고대 천자가 입던 옷)와 수상(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150) 珠簾. 구슬로 만든 발.
- 1151) 案床. 책상.
- 1152) 酒饌. 술과 만찬.
- 1153)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1154)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115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나 된 좋은 술.
- 1156)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 1157)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 1158) ‘괴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높이 쌓아올리다’라는 뜻.
- 1159) 小宴. 작은 잔치
- 1160) 大宴하며. 큰 잔치를 벌이며.
- 1161) 奉供. 받들어 공양함.
- 1162)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 1163) 廣寒殿. 달 속의 선녀인 항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 1164) 相逢次. 서로 만나려고.
- 1165) 五色綵緞.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 1166)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 1167)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붉은 계수나무의 꽃.
- 1168)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가에서 부리던 하인.
- 1169) 惶怯. 마음이 몹시 급하여 겁먹은 듯이 허둥짐.
- 1170) 拜禮. 절을 함.
- 1171) 貴히. 귀하게.
- 1172) 만류(挽留)하는데. 권하여 못하게 하는데.
- 1173)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 ‘봉록’은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 ‘종’은 용량의 단위로 64말(斗).
- 1174) 職分. 맡은 바 일의 본분.
- 1175) 許多. 몹시 많음.
- 1176)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 1177) 琤琤. 옥이 맞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 1178) 五色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 1179) 우두커니.
- 1180) 芳年. 꽃다운 젊은 여자의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
- 1181) 人間. 사람 사는 세상.
- 1182) 貴人. 귀한 사람.

- 1183) 還生. 다시 태어남.  
 1184) 受命. 명령을 받음.  
 1185) 還送. 되돌려 보냄.  
 1186) 봉오리.  
 1187) 陽臺 仙女. 양대의 선녀. 무산(巫山)의 선녀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산에 내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양대에 나타난다'고 한 말이 나온다. 양대선녀는 따라서 무산의 선녀이다.  
 1188) 寶貝. 보배.  
 1189)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1190) 奉養.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1191) 조화인지라.  
 1192) 堆. 이익.  
 1193) 淨히. 깨끗하게.  
 1194) 심소저(沈小姐)의. '소저'는 나이 어린 아가씨를 이르는 말.  
 1195) 오장원(五丈原). 중국 섬서성에 있는 옛 전쟁터. 제갈공명이 병사한 곳임.  
 1196)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침.  
 1197) 三年 武關의 楚懷王. 옛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에게 속아,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믿고 무관에 갔다가 잡혀서,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죽은 일을 말함.  
 1198) 飲饗. 귀신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1199)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1200) 世上의 못 본 바라. 세상에서는 못 본 것이다.  
 1201) 當치. 마땅하지.  
 1202) 陣平.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한 고조(高祖)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음.  
 1203) 范亞父. 이름은 증(增). 거소(居巢) 출신으로, 나이 칠십에 항우의 모사가 되어, 홍문에서 잔치를 벌이고 유방을 죽이려다 실패하였음.  
 1204) 楚軍中에다. 초나라 군대에.  
 1205) 火焚崑山. 불이 나서 곤륜산을 태움. 곤륜산은 옥의 명산지.  
 1206) 玉石. 옥과 돌.  
 1207) 明沙十里. 하얀 모래가 10리나 깔려 있는 바닷가.  
 1208) 노를 저을 때 내는 소리. '영차'와 비슷함.  
 1209) 許多히. 매우 많이.  
 1210) 직(職)대로. 맡은 바 직책에 따라.  
 1211) 財物.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1212) 宋天子. 송나라 천자, 곧 임금.  
 1213) 崩.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  
 1214)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1215)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216)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전각.
- 1217) 八月芙蓉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 1218) 萬塘秋水의 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 1219)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 1220)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 1221)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랑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희증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우석을 가리킴.
- 1222) 복숭아꽃.
- 1223)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기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구월용산음 황화소축신(九日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 1224) 三千弟子. 삼천 명이나 되는 제자.
- 1225)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 1226) 杏壇春風의. 행단의 봄바람에.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 1227) 梨花滿地不開門허니 長信宮中 배꽃이요.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던 장신궁 속의 배꽃이요. ‘이화만지불개문(梨花滿地不開門)’은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女)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 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 1228)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 1229)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한나라 사람인 유신과 완조가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갔을 때에 길 양쪽에 작약꽃(합박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는 뜻.
- 1230) 怨征夫之離別허니 玉窓五見의 櫻桃花.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
- 1231)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닢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232) 啼血. 피를 토함.
- 1233) 진달래꽃.
- 1234) 李花. 오얏꽃. 자두꽃.
- 1235) 蘆花. 갈대꽃.
- 1236) 鷄冠花. 맨드라미.
- 1237) 黃菊. 노란색 국화.
- 1238) 白菊. 흰색 국화.
- 1239) 四季花. 월계화(月季花). 월계꽃.

- 1240) 東園桃李片時春. 봄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이 잠시 동안의 봄을 누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 1241) 牧童遙指가 杏花村.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을 가리킴. 당나라 때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淸明)〉의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오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에서 따온 구절.
- 1242)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밤11시에서 1시 사이의 시간. 곧 한밤중)이 없다.
- 1243) 진달래꽃.
- 1244)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245) 梔子.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높이는 2~3m정도이며, 7월에 크고 흰 꽃이 핀.
- 1246) 柑果. 장과(漿果)의 하나. 속 열매껍질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감자, 유자 따위가 있다.
- 1247)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 큰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약간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248) 으름.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249) 대추.
- 1250) 향果. 향기로운 과일.
- 1251)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252) 슬쩍.
- 1253) 지저귀어 울며.
- 1254)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255) 御殿. 임금의 있는 곳.
- 1256) 進上.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 1257) 大喜하시어. 크게 기뻐하시어.
- 1258) 船人. 뱃사공.
- 1259)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260) 太守.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1261) 除授. 벼슬에 추천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 1262) 花階上에다. 화단 위에다.
- 1263) 瑤池 碧桃花.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연못가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고 함.
- 1264) 東方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청(曼淸).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俗說)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265)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266) 一夜는. 하룻밤에는.  
 1267) 怪異히. 괴이하게.  
 1268) 사람인가.  
 1269) 不意에. 뜻하지 않게.  
 1270) 天眼, 임금을 높이어 그 눈을 가리키는 말.  
 1271) 惶恐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매우 무섭고 두려움.  
 1272) 떨어지자마자.  
 1273)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져 보이지 않음.  
 1274) 探問. 더듬어 찾아 물음.  
 1275) 別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1276) 朝會席上. 조회를 하는 자리. ‘조회’는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1277) 諸臣. 여러 신하.  
 1278) 國母. 왕후.  
 1279) 勿失次機.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1280) 옳게.  
 1281) 擇日. 날을 잡음.  
 1282) 入宮. 궁에 들어감.  
 1283)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의 세상. 곧 태평성대.  
 1284) 仙降則居. 신선이 내려와 삶.  
 1285)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1286) 秋月은 滿庭하여. 가을 달빛은 정원에 가득하여.  
 1287) 珠簾.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1288) 晴天. 맑은 하늘.  
 1289) 月下에. 달 아래.  
 1290) 蘇中郎 北海上의 便紙 傳던 기러기나. 소중랑은 한무제(漢武帝) 때의 충신으로, 이름은 무(武), 자(字)는 자경(子卿).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으므로 소중랑이라고 함. 소무는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는데, 기러기 발에다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 자신이 잇는 곳을 알려 19년 만에 돌아왔음.  
 1291) 水墨. 빛이 엷은 먹물. 여기서는 글씨에 물이 번져 뭉개진 것을 이룸.  
 1292) 誤錯. 잘못되어 뒤섞임.  
 1293) 滄茫. 너르고 멀어 아득함.  
 1294) 분명하고 뚜렷하게.  
 1295) 內宮.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란 의미로 쓴 듯함.  
 1296) 富는. 부유하기는.  
 1297) 天下. 온 세상.  
 1298) 貴는. 귀하게 되기는. 귀함으로 말하면.  
 1299) 皇后읍는데. 황후이운데. 황후이신데.  
 1300) 天下莫非王土.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온 세상이 다 왕의 땅임.

- 1301) 率土之民이 莫非王民. 온 나라 안의 일반 백성이 왕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음.
- 1302) 行關. 동등한 관청 사이에 공문을 보냄.
- 1303) 大小 盲人間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맹인은 모두.
- 1304)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1305) 參禮. 예식에 참여함.
- 1306) 封庫罷職.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많은 관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던 일.
- 1307) 傳令. 명령을 전함.
- 1308) 至於. ~에 이르기까지.
- 1309) 排設. 벌여 베풀어 놓음.
- 1310) 晝夜自歎. 밤낮으로 스스로 탄식함.
- 1311) 僅僅扶持. 겨우 건디어 나감.
- 1312)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1313)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314) 春秋로. 봄, 가을로.
- 1315) 곁에.
- 1316)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양양현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 1317) 至憂老親廢雙眼하여 殺身成孝行船去라. 煙波萬里常深碧허니 芳草年年還不歸라. 늙으신 아버지께서 두 눈이 다 없는 것을 지극히 근심하여,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배를 타고 떠났네. 멀고먼 안개 낀 물 늘 깊고 푸른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지만, (심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 1318) 지팡이.
- 1319)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1320) 碑文. 비석에 새긴 글.
- 1321) 水中孤魂. 물 속의 외로운 혼령.
- 1322) 아래로 내려가면서 땡끓.
- 1323) 위로 올라가며 땡끓.
- 1324) 세계 한 번 때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325) 가슴.
- 1326) 南之西之. '남쪽과 서쪽'인 듯.
- 1327) 가리키는구나.
- 1328) 號. 별호(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329) 錢穀. 돈과 곡식.
- 1330) 自願出家. 자기가 원하여 시집을 감.
- 1331) 家山. 집안의 재산.

- 1332) 음식을 먹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1333) 忙하느디. 망하게 하는데.  
 1334) 밥을 시켜 먹는 일.  
 1335) 洞人, 동네 사람.  
 1336) 樵軍, 나무꾼.  
 1337) 行人에게, 길가는 사람에게.  
 1338) 詰難,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1339) 毀談, 헐뜯는 말.  
 1340) 가볍게 한 번 훑어보는 모양.  
 1341) 가볍게 한 번 눈동자를 옆으로 굴러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1342) ‘빼죽’보다 강한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343) ‘빼죽’보다 센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344) 늦게 든 정.  
 1345) 에어가도,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어가도.  
 1346) 託情, 정을 붙임.  
 1347) 돈櫃, 돈을 넣어두는 께. ‘께’는 나무로 상자처럼 만든 그릇.  
 1348)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랄 때 하는 소리.  
 1349) 妖妄, 요사스럽고 망령됨.  
 1350) 死後, 죽은 뒤.  
 1351) 依託하라고, 의지하여 맡기라고.  
 1352) 흔적 없이 없앴다는.  
 1353) 내일부터.  
 1354) 어찌, 웬 일인지.  
 1355) 갑자기 숨을 터뜨리며 웃는 웃음을 표현한 말임.  
 1356) 胎氣, 아이를 뱃 기미.  
 1357) 있으려나 보네.  
 1358) 시큰둥하게 건방질는지.  
 1359) 官家,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1360) 排設, 벌여 배풀어 놓음.  
 1361) 路費, 여행 경비.  
 1362) 숙여서 떼어먹을.  
 1363) 女必從夫,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름.  
 1364) ‘열녀(烈女)’보다 더하므로 ‘백녀’라고 했는데, ‘백녀’는 ‘백여우’를 연상시켜, ‘간사하고 요망한 계집’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함.  
 1365) 조금.  
 1366) 괴나리봇짐.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매는 작은 짐.  
 1367) 이제.  
 1368) 어떻게 같까?



- 1369) 越江. 강을 건너 땀.  
 1370) 靑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 말.  
 1371)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  
 1372) 받아주소. 앞소리를 하면 뒤에 받아 소리를 하여 주소.  
 1373) 경상도 민요의 가락.  
 1374) 메기던가. ‘메기다’는 ‘메기고 받는 노래에서 먼저 소리를 하다.’는 뜻.  
 1375) 서로 마음이 통하여.  
 1376) 三伏盛炎. 삼복의 불꽃같은 더위.  
 1377) 가야.  
 1378) 뉘 텐데.  
 1379) 방 구석에서.  
 1380) 부둥켜안고.  
 1381) 밤길 간다고.  
 1382) 이제야.  
 1383) 當初.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1384) 하지.  
 1385) 아서라. 그리하지 말라고 금지할 하는 말.  
 1386)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1387)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 자살, 타살, 사고사 따위를 이른다.  
 1388)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이 부스러지면서 내는 소리.  
 1389) 人事不省. 신상에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모를 만큼 의식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  
 1390) 가라고 해서.  
 1391) 텅썩. 갑자기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92) 行하는지. 가는지.  
 1393)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1394) 三伏盛炎. 삼복의 심한 더위. ‘삼복’은 한 해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이룸.  
 1395) 세차게 뿌리며.  
 1396) 靑山. 푸른 산.  
 1397) 골짜기.  
 1398) 합수(合水)졌다가. 물이 합쳐졌다가.  
 1399) 천방지축으로 틱을 넘고 구비쳐.  
 1400) 거품이 일어.  
 1401) 병풍처럼 생긴 바위.  
 1402) 景概. 경치.  
 1403) 壯히. 매우.  
 1404)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1405) 양치질.

- 1406) 거드랑이.  
 1407) 三角山. 서울 남산의 옛 이름.  
 1408) 이보다.  
 1409) 東海流水. 동해의 흐르는 물.  
 1410) 이에서. 이보다.  
 1411) 크고 묵직한 물건이 깊은 물에 자꾸 떨어져 잠기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412) 종을시키고.  
 1413) 川邊. 물가.  
 1414) 無知한. 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악한.  
 1415) ‘기억력’을 뜻하는 말인 듯한데 불명.  
 1416) 먹통에 팔려 목재에 곤은 줄을 긋는 데 쓰는 줄.  
 1417) 텅기듯. 먹통을 사용해서 곤은 줄을 그을 때, 먹줄을 늘어 놓은 다음 이것을 잡아당겼  
 다 놓음.  
 1418) 여기에 가. 여기에.  
 1419) 弄한. 희롱한. 장난한.  
 1420) 白首風神. 머리가 허연 노인의 풍채  
 1421)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1422) 흠쳐가면.  
 1423) 나보다는.  
 1424) 上八字. 좋은 팔자. 좋은 운수.  
 1425) 日月. 해와 달.  
 1426) 東西分別.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별하여 가름.  
 1427) 돌아서 있거라.  
 1428) 물러서 있거라.  
 1429) 辟除. 존귀한 사람의 행차 때 하인들이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던 일로,  
 ‘물렀거라’하고 소리침.  
 1430) 이제.  
 1431) 官은 民之父母. 관리는 백성의 부모임.  
 1432) 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수령을 일컫던 말.  
 1433)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된 봉사를 우습게 이르는 말.  
 1434) 及唱. 옛날 지방 관청에 딸려있던 하인.  
 1435) 過客. 지나가는 손님.  
 1436) 拜謁次로. 뵙겠다고.  
 1437)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438) 眞所謂畫出之魍魎. 참으로 이른바 대낮에 나온 도깨비임.  
 1439) 進退難谷.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이르는 말.  
 1440) 別般處分. 보통과 달리 잘 처리해 줌.  
 1441)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1442) 太守長. 태수 어른.

- 1443) 轎軍꾼. 가마를 메는 사람.
- 1444)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1445) 首奴. 노비 중의 우두머리.
- 1446) 여행 경비.
- 1447)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 1448) 기어이.
- 1449) 그런데.
- 1450) 불명.
- 1451) 담뱃대.
- 1452) 百拜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 1453) 가상의 다리 이름.
- 1454) 가상의 다리 이름.
- 1455) 모통이.
- 1456) 弄. 희롱. 장난.
- 1457) 안 시켜주드고, 안 시켜주더구만. 봉사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말.
- 1458) 실답지 못하게. '실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 1459) 一飽食도 재수라고. 한 번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도 재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
- 1460) 忘勞而歌. 수고로움을 잊어가며 노래를 함.
- 1461) 주고받아 가며.
- 1462)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였으니. 옛적 천황씨는 목덕으로서 왕노릇을 하였으니. 천황씨는 중국 전설상의 최초의 왕. '목덕'은 총명예지와 인·의·예·지의 다섯 가지 덕을 오행으로 형상화한, 우주 만물에 그 힘이 미친다는 임금의 덕.
- 1463) 나무.
- 1464) 重할쏜가? 중하지 않겠는가?
- 1465) 有巢씨 構木爲巢.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집을 지었음. 유소씨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466) 지으셨나?
- 1467) 강태공이 만든 것이로다. 방아의 등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썼는데, 이는 경신이 넷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1468) 形容. 모양. 생김새
- 1469) 比했든가. 견주었든가. 곧 '사람에 견주어 이를 본따 만들었든가'하는 의미임.
- 1470)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471) 비녀이딘가? 비녀인가?
- 1472) 簪. 비녀.
- 1473) 滄海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474) 楚王宮人의. 초나라 궁녀의

- 1475) 허리일런가. 허리인가?
- 1476) 周文王의. 주나라 문왕의.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임. 그러나 ‘돈수’와 관련이 없음.
- 1477) 頓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
- 1478)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479) 聖上. 자기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1480)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481)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
- 1482) 古今. 옛과 지금.
- 1483) 萬疊青山. 아주 깊은 산.
- 1484) 나무.
- 1485) 孟浪하다. 가볍게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뽄뽄하고 갑작하다.
- 1486) 전득전득. 녹진하게 차져 끈적끈적하게 자꾸 달라붙는 모양.
- 1487) 고소하구나.
- 1488) 一飽食도 재수라고. 한 번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도 재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
- 1489)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게.
- 1490) 모퉁이.
- 1491) ‘자세히’라는 의미인 듯함.
- 1492) 萬無. 결코 없음.
- 1493) 外堂. 바깥채.
- 1494) 夕飯. 저녁밥.
- 1495) 內堂. 안채.
- 1496) 讀經. 경문을 소리 내어 외거나 읽음.
- 1497) 疑端. 의심스러운 일의 실마리. 여기서는 ‘뭔가 안 좋은 일’ 정도의 의미인 듯함.
- 1498) 坐. 자리
- 1499) 棄世. 세상을 버림. 죽음.
- 1500) 卜術. 점치는 법.
- 1501) 平生을 我自知라. 평생을 내 스스로 알아.
- 1502) 吉緣. 운수가 좋은 인연.
- 1503) 일월(日月)은 눈을 상징하므로, 일월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이고, 잠길 침(沈)은 성으로는 심(沈)으로도 읽히므로 심 씨인 줄 짐작하였다는 뜻.
- 1504) 小妾.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 1505) 無恥. 염치가 없음.
- 1506) 洞房華燭.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지는 의식.
- 1507) 胡蝶夢.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즐기며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음.

- 1508) 만들어.
- 1509) 凶夢. 불길한 꿈.
- 1510) 身入火허니 和樂이요, 去皮作鼓허니 鼓聲이요, 落葉이 歸根허니 子女를 可逢이라. 자신이 불에 들어가니 화평하고 즐거우며 (‘火落(불에 떨어짐)과 화락(和樂)이 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임.),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드니 북소리가 날 것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1511) 關內. 궁궐의 안.
- 1512) 證驗. 증거로 될 만한 경험.
- 1513) 千不當萬不當. 천 번 만 번을 해도 마땅하지 않음. 아주 부당함을 이르는 말.
- 1514) 使令.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1515) 各邑. 각 고을. 각각의 고을.
- 1516) 亡終. 마지막
- 1517) 외치는.
- 1518)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1519) 크고 우렁차게.
- 1520) 當年. 그 해의 나이. 올해의 나이.
- 1521) 當年 七十 老患. 연세가 70이나 되어 늙고 병들어.
- 1522) 오시는가?
- 1523) 哀痛하시다가. 몹시 슬퍼하시다가.
- 1524)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신령스런 보람.
- 1525) 宛然히. 분명하고 뚜렷하게.
- 1526) 맹인 속에서. 맹인 중에서.
- 1527) 自盡腹痛. 몸과 마음을 다하여. 뼈에 사무치는 듯이 원통하게.
- 1528)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529) 居住. 머물러 삶. 여기서는 ‘사는 곳’.
- 1530) 護送. 호위하여 보냄.
- 1531)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1532) 點考. 장부에다 점을 찍어가며 확인함.
- 1533)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
- 1534)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
- 1535) 形容. 모습.
- 1536) 隱隱하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 하나.
- 1537) 눈의 가장자리가.
- 1538) 물러지고. 단단한 것이 무르게 되고.
- 1539) 皮骨이 相接이라. 가죽과 뼈가 서로 맞닿아 있다. 곧 매우 말랐다는 말.
- 1540) 居住. 사는 곳.
- 1541) 妻子. 아내와 자식.
- 1542)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543) 故土. 고향의 땅. 고향.  
 1544) 產後頗. 출산 후에 일어난 병.  
 1545) 喪妻. 아내를 잃음.  
 1546) 襁褓. 포대기.  
 1547) 出天하여. 하늘이 내서. 아주 뛰어나서.  
 1548) 祭需. 제사에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  
 1549) 관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니.  
 1550) 나더러.  
 1551) 于今. 지금까지.  
 1552)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1553) 버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1554) ‘깜짝깜짝’의 약한 말. 자꾸 깜짝거리는 모양.  
 1555) 道術.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1556) 어떤 일의 여파, 또는 영향.  
 1557) 滿座盲人. 좌석에 가득한 맹인.  
 1558) ‘갈모’는 ‘갓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갓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펴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철부채처럼 훌쭉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1559) 찢어내는.  
 1560) 中途. 중로(中路). 길 가는 중간.  
 1561) 실답지 못하게. ‘실답다’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참되다.  
 1562) 화내다가.  
 1563) 至於飛禽走獸까지.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1564) 光明天地. 밝은 세상.  
 1565) 七寶金冠. 칠보로 장식한 금관.  
 1566) 前後不見 初面이로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1567)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짝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1568) 黃泉. 저승.  
 1569) 꿈인가?  
 1570) 天地. 하늘과 땅. 온 세상.  
 1571) 萬物. 모든 사물.  
 1572)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1573) 還世上. 세상으로 돌아옴.  
 1574) 어둡침침. 어둡고 컴컴함.  
 1575)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1576)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1577) 興盡悲來 苦盡甘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오고, 고통이 다하면 기쁨

- 일이 돌아온다.
- 1578) 나를.
- 1579) 不重生男重生女. 아들 낳기를 중하게 여기지 말고, 딸 낳기를 중히 여김.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구절.
- 1580) 虛送. 헛되이 보냄.
- 1581) 百行. 모든 행동
- 1582) 王祥. 진(晉)나라 임기(臨沂)사람. 일찍이 모친을 잃고 계모 주씨(朱氏) 밑에서 크며 효도를 다했다고 함. 계모가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므로, 왕상이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강물에 들어가려 하니, 얼음이 저절로 깨어지며 잉어 두 마리가 뛰어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모를 봉양하였다고 함.
- 1583) 叩冰. 얼음을 두드림.
- 1584) 구멍.
- 1585) 孟宗. 자(字)는 공무(恭武). 중국 삼국시대 사람으로, 어머니의 병환에 쓸 죽순을 얻으려고 한겨울에 대나무 밑에서 밤낮 울고 있었더니, 죽순이 솟아나와 병환을 고쳤다고 함.
- 1586) 泣竹. 대나무를 붙들고 울.
- 1587) 竹筍. 대의 땅속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린 싹.
- 1588) 兩親誠孝. 어버이에 대한 참된 효도.
- 1589)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1590) 殺身成孝. 자신의 목숨을 버려 효도를 함.
- 1591) 引導還生.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도를 깨치게 하여, 다시 태어나게 함.
- 1592) 大宴. 큰 잔치.
- 1593) 郭巨. 후한(後漢)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가난하였다. 부모 반찬을 자기 자식이 먹는다고, 산 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파니, 금이 나와서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함.
- 1594) 千秋遺傳. 오래오래 후세에 물려줌.
- 1595) 누구의.
- 1596) 太古積. 아주 오래된 옛날.
- 1597) 宋天子. 송나라의 천자. 송나라 황제.
- 1598)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599)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1600)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전각.
- 1601) 至於飛禽走獸까지도.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도.
- 1602) 뜨는고? 뜨느냐?
- 1603) 罪狀.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 1604) 留宿. 머물러 잠.
- 1605) 五更時.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
- 1606)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1607)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1608)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 쓰는 말.
- 1609) 匕首劍. 비수. 작고 날카로운 칼.
- 1610) 人誰無過리오? 사람으로 누가 허물이 없으리오?
- 1611) 改則爲善이라. 마음을 고치면 선하게 된다.
- 1612) 알기 때문에.
- 1613) 是以. 이로써. 이 때문에.
- 1614) 쏘기.
- 1615)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요, 積惡之家에 必有餘殃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
- 1616) 天道. 하늘이 낸 도리나 법.
- 1617) 沈生員. 심 씨 성을 가진 선비. ‘생원’은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 1618)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619) 教旨. 임금의 명령.
- 1620) 貞烈夫人. 정렬(貞烈)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던 가자(加資).
- 1621) 封하시고.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시고.
- 1622) 別給賞賜. 따로 상을 내려줌.
- 1623) 職品. 벼슬의 품계.
- 1624) 올려.
- 1625)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626) 堂上.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일컫는 말.
- 1627) 千金賞. 상으로 내린 많은 재물.
- 1628) 稅役. 세금과 부역.
- 1629) 好歌도 長唱不樂이요. 좋은 노래도 오래 부르면 즐겁지 아니하고.
- 1630) 북소리의 의성어로, 판소리의 맨 끝에 부르는 관용구.



성창순 창

Sung by Seong Chang-sun

##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스무 살 이후에 봉사가 되었다.

[아니리] 예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sup>1)</sup>에 한 소경<sup>2)</sup>이 살았는데,  
성은 심 가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명문거족<sup>3)</sup>으로 명성<sup>4)</sup>이 자자터니,<sup>5)</sup>  
가운<sup>6)</sup>이 불행하여 삼십 전에<sup>7)</sup> 안맹하니,<sup>8)</sup>  
뉘라서<sup>9)</sup> 받들꼬냐?  
그러나 그 아내 곱씨부인 또한 현철하고<sup>10)</sup> 얌전하사<sup>11)</sup>  
모르는 게 전혀 없고,  
백집사가감<sup>12)</sup>이라.  
곱씨 부인이 품<sup>13)</sup>을 팔아 봉사 가장을 받드는데,

## 2. (곱씨부인 품팔이) 곱씨부인이 품을 팔아 가장을 보살핀다.

[자진모리] 샅바느질, 관대,<sup>14)</sup> 도복,<sup>15)</sup> 행의,<sup>16)</sup> 창의,<sup>17)</sup> 직령<sup>18)</sup>이며,  
섭수,<sup>19)</sup> 쾌자,<sup>20)</sup> 중치막<sup>21)</sup>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sup>22)</sup>  
상침질,<sup>23)</sup> 꺾음질<sup>24)</sup>과  
외올뜨기,<sup>25)</sup> 꿰담<sup>26)</sup>이며,  
고두누비,<sup>27)</sup>  
솔오리기,<sup>28)</sup> 망건<sup>29)</sup> 꾸며  
갓끈 접기, 배자,<sup>30)</sup>  
토수,<sup>31)</sup> 보선,<sup>32)</sup> 행전,<sup>33)</sup> 포대,<sup>34)</sup> 허리띠, 대님,<sup>35)</sup>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fter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was Sim, and his first name wa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before thirty.

Who would respect him?

But his wife, Mrs. Gwak, is wise and graceful.

She is knowledgeable.

She can handle any matter.

She supports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takes care of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ajin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an official's, a Toist's, a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a headband and a bag.

She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patches and embroiders a headband.

She works on a string of cylindrical hat, a female vest,

wristlests, socks, leggings, a ramie band, a belt, ankle bands,

줍치,<sup>36)</sup> 씹지,<sup>37)</sup> 약낭<sup>38)</sup>에 필낭,<sup>39)</sup>  
 휘항,<sup>40)</sup> 불치,<sup>41)</sup> 복건,<sup>42)</sup> 풍차<sup>43)</sup>이며,  
 천의,<sup>44)</sup> 주의,<sup>45)</sup> 갓인<sup>46)</sup> 금침,<sup>47)</sup>  
 베갯모<sup>48)</sup> 쌍원앙<sup>49)</sup> 수도 놓고,  
 오색 모사,<sup>50)</sup> 각대,<sup>51)</sup>  
 흉배<sup>52)</sup> 학 그리기,<sup>53)</sup>  
 궁초,<sup>54)</sup> 공단,<sup>55)</sup> 서주,<sup>56)</sup>  
 선주,<sup>57)</sup> 낙룡,<sup>58)</sup> 갑사,<sup>59)</sup>  
 운문,<sup>60)</sup> 토주,<sup>61)</sup>  
 갑주,<sup>62)</sup> 분주,<sup>63)</sup>  
 표주,<sup>64)</sup> 명주,<sup>65)</sup>  
 생초,<sup>66)</sup> 통견,<sup>67)</sup> 조포,<sup>68)</sup> 복포,<sup>69)</sup>  
 황저포,<sup>70)</sup> 춘포,<sup>71)</sup> 문포,<sup>72)</sup> 제추리<sup>73)</sup>며,  
 삼배, 백저,<sup>74)</sup> 극상세목<sup>75)</sup> 샅을 받고 말어 짜기,  
 청 · 황 · 적 · 백<sup>76)</sup> · 침향,<sup>77)</sup> 회색 각색으로다<sup>78)</sup> 염색허기,  
 초상난 집의 원삼,<sup>79)</sup> 제복,<sup>80)</sup>  
 혼장대사<sup>81)</sup> 음식 숙정,<sup>82)</sup>  
 갓은<sup>83)</sup> 증편,<sup>84)</sup> 중계,<sup>85)</sup> 약과,<sup>86)</sup>  
 박산,<sup>87)</sup> 과자에 다식,<sup>88)</sup> 정과,<sup>89)</sup> 냉면,  
 화채<sup>90)</sup>에 신선로,<sup>91)</sup> 각각 찬수,<sup>92)</sup> 약주 빚기,  
 수과련,<sup>93)</sup> 봉오림<sup>94)</sup>과  
 배상하기,<sup>95)</sup> 고임질<sup>96)</sup>을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sup>97)</sup>이 다 진토록<sup>98)</sup> 품 팔아 모일 제,  
 푼<sup>99)</sup> 모아 돈<sup>100)</sup> 짓고, 돈 모아 양<sup>101)</sup> 만들어, 양을 지어서 관돈<sup>102)</sup>되니,  
 일수,<sup>103)</sup> 체계,<sup>104)</sup> 장리변<sup>105)</sup>을 이웃집 사람들에게 착실한 곳 빛을 주  
 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a bag, a tobacco poach, a money pouch, a brush pouch,  
 a long headgear, a muff, a cloth headgear, a furred headgear,  
 a small quilt, a topcoat, a quilt, a pillow,  
 a pillow end, a pair of mandarin ducks,  
 woolen yarns of five colors, and a belt.  
 She embroiders nobilities' clothing with a crane.  
 She weaves a thin silk, a thick silk, a silk of high quality,  
 cloths, a silk for summer clothe,  
 a silk having a cloud figure, a silk cloth,  
 a fancy silk, a silk from a region,  
 a silk with five colors, a silk without a figure,  
 a raw silk, a coarse silk, a narrow ramie cloth, a fine ramie cloth,  
 ramie cloths from different regions,  
 a white ramie cloth, and a fine cotton cloth to make money.  
 She dyes them with blue, yellow, red, white, yellowish brown,  
 and gray colors.  
 She makes a clothe for a funeral and a uniform.  
 For a big event, such as marriage, she makes food:  
 a rice cake, an oily cake, a honey cake,  
 a thin candy, a kind of candy, fruit, a noodle,  
 a flower drink in a bowl, side dishes, and wine.  
 She prepares lotus flowers and flowery decorations.  
 She places food on a food table.  
 Without taking a rest, she works hard as a day laborer.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increases.  
 She lends the money to good neighbors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춘추시향<sup>106</sup>)의 봉제사,<sup>107</sup>)

앞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 여일허니,<sup>108</sup>)

상하인리<sup>109</sup>) 사람들이,

### 3. (기자 치성)<sup>110</sup>) 곽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공을 드리다가, 어느 날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다.

[아니레] 곽씨부인 어진 마음 뉘 아니 칭찬하랴.

그때에 심봉사 사십이 장근토록<sup>111</sup>) 슬하<sup>112</sup>) 일점혈육<sup>113</sup>)이 없어  
매일 부부 한탄할 제,

곽씨 부인 그날부터 공<sup>114</sup>)을 드리는데,

[중모레] 곽씨부인 그날부터 품 팔아 모은 재물, 원갓<sup>115</sup>) 공을 다 드릴 제,

명산대찰,<sup>116</sup>) 영신당<sup>117</sup>)과

고묘,<sup>118</sup>) 충사,<sup>119</sup>) 석왕사<sup>120</sup>)며,

석불,<sup>121</sup>) 미륵<sup>122</sup>) 서 계신 데 허유허유<sup>123</sup>) 다니시며,

가사시주,<sup>124</sup>) 인등시주,<sup>125</sup>) 창호시주,<sup>126</sup>)

시왕불공,<sup>127</sup>) 칠성불공,<sup>128</sup>) 나한불공,<sup>129</sup>) 가지가지 다 드리니,

공 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sup>130</sup>) 남기<sup>131</sup>) 꺾어지랴.

갑자 사월 초과일야<sup>132</sup>) 한 꿈을 얻은지랴.

서기 반공<sup>133</sup>)허고,

오채<sup>134</sup>)가 영롱허니,

하날의<sup>135</sup>) 선녀 하나 옥경<sup>136</sup>)으로 내려올 제,

머리 위에 화관<sup>137</sup>)이요, 몸에는 원삼<sup>138</sup>)이라.

계화가지<sup>139</sup>) 손에 들고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People in neighboring villages praise her.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in her dream.**

[Aniri] Who wouldn't praise Mr. Gwak's for being kindhearted?  
Meanwhile, Mr. Sim doesn't have a child although he reaches  
forty.

The couple laments every day.

From the day on, Mr. Gwak prays to have a child.

[Jungmori] Mrs. Gwak spends the properties she earned as a day  
laborer to pray to gods.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She travels to many places to pray to the statues of Buddha.

She donates clothes, lamp oil, and papers to buddhist temples.

She prays to the Ten Judges, the Ursa Major, and a Buddha's  
disciple.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from the capital city of heaven comes down.

She wears a flowery hat and silky clothe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on her hand.

부인 전 배례<sup>140</sup>)하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 정신<sup>141</sup>)이 산상에<sup>142</sup>) 솟아난 듯,  
 남해 관음<sup>143</sup>)이 해중에<sup>144</sup>)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sup>145</sup>)를 반개하여<sup>146</sup>)  
 쇠옥성<sup>147</sup>)으로 말을 한다.  
 “소녀는 서왕모<sup>148</sup>) 딸일러니,  
 반도<sup>149</sup>) 진상<sup>150</sup>) 가는 길에,  
 옥진비자<sup>151</sup>) 잠깐 만나 수어<sup>152</sup>) 수작<sup>153</sup>)을 허옵다가,  
 시각이 조금<sup>154</sup>) 늦은 고로<sup>155</sup>) 상제<sup>156</sup>)께 득죄하여,<sup>157</sup>)  
 인간<sup>158</sup>)에 내치시매<sup>159</sup>)  
 갈 바를 몰랐더니,  
 태상노군,<sup>160</sup>) 후토부인,<sup>161</sup>) 제불보살,<sup>162</sup>)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왔사오니,  
 어여뻐 여기소서.”  
 품 안으로 달려들어,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일몽<sup>163</sup>)이라.

#### 4. (심청 출생) 곽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 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레] 양주<sup>164</sup>) 몽사<sup>165</sup>) 의논허니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날부터 태기<sup>166</sup>)가 있는디,  
 [중중모리] 석부정부좌,<sup>167</sup>) 할부정불식,<sup>168</sup>) 이불청음성<sup>169</sup>) 목불시  
 악색<sup>170</sup>)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next to her.  
 It looks as if the moon soared above a mountain,  
 and as i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rose up from the sea.  
 Mrs. Gwak is in raptures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elegant goddess exposes the half of her white teeth.  
 She speaks with beautiful voice.  
 "I am an adopted daughter of a goddess.  
 I was on my way to offer a divine peach.  
 I talked briefly with another goddess on my way back.  
 I was a little late, which amounted to a crime to the King of  
 Heaven.  
 He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s.  
 I was at a loss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uddha, and saints recommended that I go  
 to you.  
 So I am here.  
 Please accept me."  
 The goddess runs into Mrs. Gwak's bosom.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from the dream.

####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gets pregnant. She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daughter.**

**[Aniri]** The husband and wife realize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From the day on, Mrs. Gwak shows the sign of pregnancy.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and bad colors.

입불비,<sup>171)</sup> 와불촉,<sup>172)</sup>

십삭일<sup>173)</sup>이 찬 연후에<sup>174)</sup> 하루는 해복<sup>175)</sup>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심봉사 거동을 보소.

일편은<sup>176)</sup> 반갑고, 일편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짚 한 줌 쑥쑥 추려<sup>177)</sup>

정화수<sup>178)</sup> 새 소반<sup>179)</sup>에 받쳐놓고,

좌불안석<sup>180)</sup> 급한 마음 순산<sup>181)</sup>허기를 기다릴 제,

향취<sup>182)</sup>가 진동허고, 채운<sup>183)</sup>이 두르더니,

혼미 중<sup>184)</sup> 탄생허니, 선인옥녀<sup>185)</sup> 딸이라.

## 5. (남녀 확인) 심봉사가 아이를 더듬어 보고 딸인 것을 확인하자, 곽씨부인이 섭섭해 한다.

[아니리] 곽씨부인 순산<sup>186)</sup>은 하였으나,

“남녀간에<sup>187)</sup> 무엇이오?”

심봉사, “아이를 만져봐야 알겠소.”

하고 아이를 위에서부터 더듬더듬 내려가는데,

아무 거침새<sup>188)</sup> 없이 내려가겠다.

“아마도 마누라같은 딸을 낳았나 보오.”

곽씨부인이 서운히 여겨,

“만득<sup>189)</sup>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허오.”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sup>190)</sup>할 것이요,

She doesn't stand obliquely on one leg and doesn't lie on her side.

After ten months passed, one day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Behold Mr. Sim.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runs out of the house.

He picks a handful of straws.

He puts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Mr. Sim is not at ease, and hopes that she has an easy birth.

Fragrance lingers, and clouds of diverse colors drift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as beautiful as a goddess is born.

**5. (Checking the Gender) Mr. Sim touches the baby  
and learns that she is a girl. Mrs. Gwak gets  
disappointed.**

[Aniri] Mrs. Gwak had easy birth.

"Is the baby a boy or a girl?"

Mr. Sim replies, "Let me touch the baby."

His hand goes down from the baby's head.

His hand slides down without any obstacle.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Mrs. Gwak is disappointed.

"To my chagrin, the child is a girl."

"Don't say that, honey.

A bad son can be a disgrace even to ancestors.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 문필<sup>191)</sup> 잘 가르치고, 침선<sup>192)</sup> 방적<sup>193)</sup> 다 시켜서  
 종사위<sup>194)</sup> 진진<sup>195)</sup>하면 외손봉사<sup>196)</sup> 못 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심봉사 첫국밥<sup>197)</sup> 얼른 지어 삼신상<sup>198)</sup>에 받쳐놓고 비는데,  
 여느 사람<sup>199)</sup> 같으면은 오직 조용히 빌런마는,  
 앞 못보는 맹인이라 껍성<sup>200)</sup>이 있어,  
 삼신<sup>201)</sup> 제왕님<sup>202)</sup>이 삼천구만리<sup>203)</sup>나 도망허게 빌것다.

## 6.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자진모리] “삼십삼천<sup>204)</sup> 도솔천<sup>205)</sup> 신불,<sup>206)</sup> 제석,<sup>207)</sup> 삼신 제왕님네,  
 화위동심<sup>208)</sup>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 후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sup>209)</sup>  
 석 달에 피 어리고,<sup>210)</sup>  
 녁 달에 인형<sup>211)</sup> 삼겨,<sup>212)</sup>  
 다섯 달 오포<sup>213)</sup> 넣고,<sup>214)</sup>  
 여섯 달에 육경<sup>215)</sup> 삼겨,  
 일곱 달에 칠규<sup>216)</sup>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규<sup>217)</sup> 열려,  
 열 달만에 찬 짐 받아,<sup>218)</sup>  
 금강문,<sup>219)</sup> 하달문<sup>220)</sup> 고이 열어서

A good daughter is better than a son.  
Let's raise this girl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 how to write, needlework, and weaving.  
If we get a good son-in-law, her sons may hold a ritual for us.  
So don't say that."  
He cooks rice and soup for God of Birth and prays.  
A normal person would pray softly.  
Being blind, he is petulant.  
He prays so loudly that the gods might run away from him.

## **6. (Pray to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gods for the well-being of his daughter.**

[Jajinmori] "All gods in all heavens!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I had a child after forty.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the head.  
In the eighth month, a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received a cold energy.  
The firm door was open beautifully.

순산하니,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난망<sup>221)</sup> 잊으리까?  
 다만 독녀<sup>222)</sup> 딸이오나,  
 동방삭<sup>223)</sup>의 명을 주고  
 태임<sup>224)</sup>의 덕행이며,  
 대순<sup>225)</sup> 증자<sup>226)</sup> 효행이며,  
 길량의 처<sup>227)</sup> 절행이며,  
 반희<sup>228)</sup>의 재질<sup>229)</sup>이며,  
 석승<sup>230)</sup>의 복을 주어  
 외 분듯<sup>231)</sup> 달 분듯<sup>232)</sup> 잔병<sup>233)</sup> 없이 잘 자라나  
 일취월장<sup>234)</sup>하게 하옵소서.”

## **7.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될 줄을 안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한다.**

[아니레] 빌기를 다 한 후에, 더운 국밥 다시 떠다 산모를 먹인 후에,  
 “여보, 마누라! 이 아이 젖 좀 먹여주오.”  
 그때 곽씨부인은 산후<sup>235)</sup>에 손대<sup>236)</sup> 없어,  
 찬물에 빨래를 하였던가 뜻밖에도 산후별증<sup>237)</sup>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사대삭신<sup>238)</sup> 육천 마디가 아니 아픈 데가 전혀 없네.”  
 곽씨부인 아무리 생각하여도 더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유언을 하는데,  
 [진양조] 가군<sup>239)</sup>의 손길 잡고 유언하고 죽더니라.

It was easy birth.  
I am eternally grateful to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child.  
Please help her live long.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virtuous!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rich!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7. (Mrs. Gwak's Last Words) Mrs. Gwak says her last words, knowing that she will die of childbirth complication.**

[Aniri] After praying, Mr. Sim gives the hot food to Mrs. Gwak.  
"Honey, please give this baby milk."

There is nobody to work on behalf of Mrs. Gwak after childbirth.

While washing clothes in cold water, she suddenly has a childbirth complication.

"My legs hurt! My waist hurts! My legs hurt!

I feel pain in every part of my body."

Mrs. Gwak realizes that she can't live anymore.

She speaks her last words.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and says her last words.

“아이고, 여보 가군님,<sup>240)</sup>

내 평생 먹은 마음, 앞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백년<sup>241)</sup> 봉양타가,  
불행 망세<sup>242)</sup> 당허오면 초종장사<sup>243)</sup>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잖더니,<sup>244)</sup>  
천명<sup>245)</sup>이 이뿐인지,

인연이 끊쳤는지<sup>246)</sup>

하릴없이<sup>247)</sup> 죽게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앞 어두신<sup>248)</sup> 우리 가장 헛 옷 뉘랴<sup>249)</sup> 지어주며,

조석공대<sup>250)</sup> 뉘랴 허리?

사고무친<sup>251)</sup> 혈혈단신<sup>252)</sup> 의탁<sup>253)</sup>할 곳 전혀 없어,<sup>254)</sup>

지팽막대<sup>255)</sup> 홀어 짚고<sup>256)</sup> 더듬더듬 다니시다,

굴형<sup>257)</sup>에도 떨어지고,

돌에 채여 넘어져서

신세자탄<sup>258)</sup> 우는 모양 내 눈으로 본 듯허고,

기한<sup>259)</sup>을 못 이기어 가가문전<sup>260)</sup> 다니시며,

‘밥 좀 주오.’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난 듯,

나 죽은 혼백<sup>261)</sup>인들 차마 어이 듣고 보리?

명산대찰<sup>262)</sup> 신공<sup>263)</sup> 들여

사십 이후 낳은 자식,

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모르고, 죽단 말이 웬 일이오?

이 일 저 일을 생각허니,

멀고먼 황천길을 눈물 겨워 어이 가며, 앞이 막혀 어이 가리?

여보시오, 가군님.

뒷마을 귀덕어미 정친허게<sup>264)</sup> 지냈으니,



“Oh, my darling!

I was determined to take good care of my blind husband until he dies.

If you die, I wanted to follow you after I finish the funeral service.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How can I close my eyes on you?

Who would make old clothes for my blind husband?

Who would serve you with meals?

You have no relative and nobody to turn to.

You will travel aroun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cane.

You will fall into a pit.

You will fall over because of a stone.

I can see you cry and lament over your fate.

You will beg around to overcome hunger and the cold.

‘Please give me some food.’

I feel like I hear your plaintive voice.

It will be hard for my soul to watch you.

I prayed in buddhist temples on famous mountains.

I had a child after forty.

I didn't even give her the milk.

I can't believe I am dying without even seeing her face.

Many things occur in my mind.

Tears prevent me from going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Hello, husband!

I got along with Mrs. Gwideok in the neighboring village.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젓 좀 먹여 달라하면, 팔시<sup>265)</sup> 아니 허오리다.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제 발로 걷거들랑,<sup>266)</sup> 앞을 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묘 앞에 찾아오서  
 모녀상면<sup>267)</sup>을 하여 주오.  
 헐 말은 장차 무궁<sup>268)</sup>허나,  
 숨이 가빠서<sup>269)</sup> 못 하겠소.”  
**[중모레]** “아차 아차, 내 잊었소,  
 저 아이 이름일랑 청이라고 불러주오.  
 저 주려 지은 굴레,<sup>270)</sup> 오색 비단  
 금자<sup>271)</sup> 박어,  
 진옥판<sup>272)</sup> 홍사<sup>273)</sup> 수실<sup>274)</sup>  
 진주 느림<sup>275)</sup> 부전<sup>276)</sup> 달아  
 신행함<sup>277)</sup>에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라에서 하사허신<sup>278)</sup> 크나큰 은돈 한 푼,  
 수복강녕<sup>279)</sup> 태평안락<sup>280)</sup> 양편에<sup>281)</sup> 새겼기로,  
 고운 홍전<sup>282)</sup> 괴불쭈치<sup>283)</sup> 끈을 달아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 찌던<sup>284)</sup> 옥지환<sup>285)</sup>이 손에 적어 못 찌기로  
 농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끼워주오.”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낮을 한 데 문지르며,  
 “아이고, 내 자식아.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구나.

She would not decline if you ask her to give some milk to this baby.

If this child survives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Le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see each other.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feel short of breath.”

**[Jungmori]** “Oh, there is one thing I forgot.

Please call this child Cheong.

I made a hat for her with the silk of five colors.

A golden letter is embroidered on it.

A jade plate with a red silky thread is on it.

A pearl ornament hangs on it.

It is in a marriage box.

Please put the hat on her.

I was once awarded a silver coin from the government.

On both sides are figures representing longevity, health, peace, and happiness.

I made a bag with red woolen cloth to carry the coin in.

Please put the bag on her.

The jade ring I used to wear became too small for me.

I kept it in the wardrobe.

Please put the ring on her too.”

Mrs. Gwak sighs and turns over.

She hugs her baby and rubs her face.

“Oh my baby.

Heaven is cruel to us.

Gods are heartless to us.

네가 진즉<sup>286)</sup> 삼기거나,<sup>287)</sup>  
 내가 조끔<sup>288)</sup>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가이없는<sup>289)</sup> 궁천지통<sup>290)</sup>을 너로 하여 품게 되니,  
 죽는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sup>291)</sup> 무슨 죄냐?  
 내 젓 망종<sup>292)</sup>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지어 부는 바람 삽삽비풍<sup>293)</sup> 되어 불고,  
 눈물 맺혀 오는 비는 소소세우<sup>294)</sup>가 되었어라.  
 폭각질<sup>295)</sup> 두세 번에 숨이 덜컥<sup>296)</sup> 지는구나.

## 8. (곽씨부인 죽음)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한다.

[아니리] 그 때에 심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까?  
 내 의가<sup>297)</sup>에 가 약을 지어 올 테니  
 부디 안심허오.”  
 심봉사 약을 지어와,  
 수일승전반복<sup>298)</sup>에 얼른 달여 짜 들고 방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이 약 자시면<sup>299)</sup> 즉효<sup>300)</sup>한다 하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 있겠느냐?  
 그제야 심봉사 의심이 나서  
 양 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longer.  
I die right after you are born.  
So our limitless sorrow rise up to heaven.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are pitiful.  
Eat my last milk as much as you can.”  
She slowly releases her baby.  
A wind mourning her death becomes a plaintive wind.  
A tearful rain becomes a drizzling rain.  
After a few hiccups, she does not breathe anymore.

**8. (The Death of Mrs. Gwak) Mr. Sim bewails, after realizing that his wife has died.**

[Aniri] Meanwhile,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Hello, sweetheart.  
Not all sick people die.  
I will go get medicine from a doctor.  
You will be all right.”  
He comes back with medicine.  
He boils the medicine quickly and comes into the room.  
“Honey, this medicine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Something now occurs in his mind.  
He tries to sit her up with his arms.  
Her waist is stiff.

수족은 늘어져  
 콧궁기<sup>301)</sup> 찬 짐<sup>302)</sup>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실성발광<sup>303)</sup>을 하는데,  
 설움도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나지,  
 위낙 아람이 차놓으면<sup>304)</sup>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중중모리]** 심봉사 기가막혀, 뗐다 절컹<sup>305)</sup>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방바닥에다 내던지며,  
 “아이고, 마누라!  
 허허, 이것이 웬일이오?  
 약 지러<sup>306)</sup> 갔다오니, 그 새에<sup>307)</sup> 죽었네.  
 병불능살인<sup>308)</sup>이요,  
 약능활인<sup>309)</sup>이라더니,  
 약이 되려<sup>310)</sup>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러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있어, 서천서역<sup>311)</sup> 연화세계<sup>312)</sup> 환생차로<sup>313)</sup> 진언<sup>314)</sup>  
 외고, 염불이나 허여 줄 걸.  
 절통허고 분하여라.”  
 가슴 쿵쿵 뛰다려,<sup>315)</sup>  
 목제비질<sup>316)</sup>을 덜컹,  
 내리궁굴<sup>317)</sup> 치궁굴<sup>318)</sup>며,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지 선달 설한풍<sup>319)</sup>에 무얼 입혀 길러내며,  
 뉘 젓 먹여 길러낼거나?  
 꽃도 졌다 다시 피고,

Her limbs are loose,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she is dead,  
 He goes frantic,  
 A moderate sorrow would produce cries and tears,  
 Too much sorrow would make a person not cry but go wild  
 and crazy.  
**[Jungjungmori]** Mr. Sim, dumfounded, stands up and slumps  
 down.  
 He throws the medicine dish on the floor.  
 “Alas! Darling!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ou died while I was away for medicine.  
 They say that illness can’t kill a person,  
 and medicine can save a person.  
 But medicine is my enemy.  
 If I had known you were dying, I should not have gone for  
 the medicine.  
 I should have stayed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are reborn  
 in heaven.  
 I feel sad and angry“  
 He hits his chest hard with his fists.  
 His head falls down fast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ey, honey!  
 How can you die on the baby?  
 What should I put on her in cold winter?  
 Whose milk should I give to her?  
 A flower falls down and comes back.

해도 졌다 돌건마는,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돌아와?  
 삼천벽도<sup>320</sup> 요지연<sup>321</sup>의 서왕모<sup>322</sup>를 따라가?  
 황룡묘<sup>323</sup> 이비<sup>324</sup>한테 회포말<sup>325</sup>을 하러 가?  
 천상에<sup>326</sup> 죄를 짓고, 공을 닦으러<sup>327</sup> 올라가?  
 나는 뉘를 따라 갈거나!”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져,<sup>328</sup>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차소위<sup>329</sup> 계집 추는<sup>330</sup> 놈은 미친 놈이라 허였으나,  
 현철<sup>331</sup>허고 얹전한 우리 꺾씨가 죽었소!”  
 방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마누라 목을 덥석<sup>332</sup> 안고, 낫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마누라!  
 재담<sup>333</sup>으로 이리나? 농담으로 이리나?  
 실담<sup>334</sup>으로 이러는가?  
 이 지경이 웬 일이오?  
 내 신세를 어찌라고,  
 이 죽음이 웬 일인가?”

## 9.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꺾씨부인의 상여소리를 하며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sup>335</sup>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찌시랴오?”



The sun sets and rises back.  
 But if my wife goes now, when does she come back?  
 Did she go to the goddess having a peach party near a pond?  
 Did she go to the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o tell her deep story?  
 Did she go to heaven to repay her wrongdoing?  
 To whom should I go?"  
 He goes out and falls over on the yard.  
 "Hey, villagers!  
 A man praising his wife is said to be crazy.  
 But my wise and courteous wife has died!"  
 He runs into the room.  
 He hugs her neck swiftly and rubs her face.  
 "Alas! Sweetheart!  
 Is this a witty remark or a joke?  
 Are you serious?  
 I can't believe this.  
 What will become of my fate?  
 I can't believe you died."

## **9.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as they carry Mrs. Gwak's bier forward.**

[Aniri] Villagers get together.  
 "Hello, Mr. Sim.  
 A dead person cannot come back to life.  
 If you follow the dead person, what would become of the  
 baby?"

곽씨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여들어 초·종제례<sup>336)</sup>를 맞추는데,  
곽씨 시체 소방상<sup>337)</sup> 대뜰<sup>338)</sup> 위에 덩그렇게<sup>339)</sup> 모셔놓고,  
명정<sup>340)</sup> 공포<sup>341)</sup> 삽선<sup>342)</sup> 등물<sup>343)</sup> 좌우로 갈라 세우고  
거리제<sup>344)</sup>를 지내는데,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중천.<sup>345)</sup>

관음보살!”<sup>346)</sup>

[중모레] 요령<sup>347)</sup>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념차 너화념.”<sup>348)</sup>

“북망산천<sup>349)</sup>이 멀다더니,

저 건너 안산<sup>350)</sup>이 북망이로다.”

“어념차 너화념.”

“새벽 중달이<sup>351)</sup> 쇠길<sup>352)</sup> 떠,

서천<sup>353)</sup> 명월<sup>354)</sup>이 밝아온다.”

“어념차 너화념.”

“물가 가재는 뒷걸음질 치고,

다람쥐 앉아서 밤을 줍는다,

원산<sup>355)</sup> 호랑이 술주정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인경<sup>356)</sup> 치고 파루<sup>357)</sup>를 치니,

각 댕 하념<sup>358)</sup>이 개문<sup>359)</sup>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어너 어너 어어념차

어이가리 념차 너화념.”

그때여 심봉사는 어린 아이를 강보<sup>360)</sup>에 싸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Mrs. Gwak was virtuous.  
 So villagers come and prepare for a funeral.  
 Mrs. Gwak's body is in a small coffin in front of the room.  
 A banner with her name, a hemp towel, and planks are on the  
 left and right.  
 They hold a farewell ritual on the street.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The Goddess of Mercy!"

**[Jungmori]** A bell rings: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The mountain of the dead is said to be far,  
 but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A skylark flies high in the morning sky.  
 A bright moon rises in the west sky."  
 "Yo-ho! Yo-ho!"  
 "A crayfish walks back in water.  
 A squirrel picks up chestnuts.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Yo-ho! Yo-ho!"  
 "A large bell rings, announcing a curfew.  
 A maid opens a gate in each house."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eanwhile, Mr. Sim wraps the baby with a small blanket.  
 He leaves her in the care of Mrs. Gwideok.

꼭 죽어도 굴관<sup>361</sup> 제복<sup>362</sup> 얻어 입고,  
 상부<sup>363</sup> 뒤채<sup>364</sup> 검쳐잡고,<sup>365</sup>  
 “아이고, 마누라!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눈먼 가장, 간난 자식을 불고인정<sup>366</sup>을 바리시고 영결종천을 허네그려.  
 산첩첩노망망<sup>367</sup>에  
 다리 아퍼서 어이 가며,  
 일침침로명명<sup>368</sup>에  
 주점<sup>369</sup>이 없어서 어이 가리?  
 부창부수<sup>370</sup> 우리 정분<sup>371</sup>  
 나와 함께 가사이다.”<sup>372</sup>  
 상여는 그대로 나가면서,  
 “어허 넘차 너화님.”  
**[중중모리]** “어너, 어허너,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여보소, 친구네들,<sup>373</sup>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길ियो,  
 내가 죽어도 이 길이로다.”  
 “어넘차 너화님. 어너 어너 어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님”  
 “현철 허신 곱씨 부인, 불쌍히도 떠나셨네.”  
 “어넘차 너화님. 어너 어너 어너 어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He wears a funeral uniform he borrowed.  
He grabs the end of the bier.  
“Oh my dear,  
Let me go with you.  
It was merciless of you to die on the blind husband and the  
young child.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will we go when our legs hurt?  
The sun sets, and it is dark on the road.  
How can we go when there is no inn?  
A wife is to follow her husband.  
Let’s go together.”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Jungjungmori]** “Oh, how can we go?  
Yo-ho! Yo-ho!”  
“Hello, pallbearers!  
Please listen to me.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Yo-ho! Yo-ho! Yo-ho! Yo-ho!”  
“Mrs. Gwak, who was wise, died sadly.”  
“Yo-ho! Yo-ho! Yo-ho! Yo-ho!”

## 10.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는다.

[아니리] 산천에 올라가  
고이 안장<sup>374</sup>헌 후  
평토제<sup>375</sup>를 지낼 적에,  
심봉사가 이십 후 안맹인<sup>376</sup>으로  
그 전 글<sup>377</sup>이 또한 문장<sup>378</sup>이라,  
축문<sup>379</sup>을 지어 외는디,  
“차호 부인,<sup>380</sup> 차호 부인,  
요차요지숙녀혜여.<sup>381</sup>  
상불고이 고인이라.<sup>382</sup>  
기백년이해로<sup>383</sup>터니,  
홀연몰혜언귀오?<sup>384</sup>  
유치자이영서허니,<sup>385</sup>  
저걸 어이 길러내며,  
누산산이첨금혜여,<sup>386</sup>  
지난<sup>387</sup> 눈물 피가 되고,  
심경경이소흔혜여,<sup>388</sup>  
살 길이 바이없네.”

## 11.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무덤 앞에서 통곡한다.

[진양조] “주과포혜<sup>389</sup> 박전이나<sup>390</sup>  
만사<sup>391</sup>를 모두 잊고, 많이 먹고 돌아가오.”

**10. (Burial Ritual) Mr. Sim composes and reads a burial ode.**

[Aniri] They move up on a mountain.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Mr. Sim became blind after twenty.  
So he is a good poet.  
He composes and recites an ode.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r virtue is equal to that of ancient people.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You suddenly died. How can you come back?  
You left a little child behind forever.  
I don’t know how I will raise her.  
Tears scatter down, soaking my clothes.  
My falling tears become blood.  
I became insane due to ceaseless worries.  
I don’t know how to live on.”

**11. (The Wail of Mr. Sim) Mr. Sim wails in front of the grave.**

[Jinyangjo] “The food is not good.  
but forget all the trouble and help yourself, before you go back.”

무덤을 검쳐<sup>392)</sup> 안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마누라는 나를 잊고, 북망산천<sup>393)</sup> 들어가  
 송죽<sup>394)</sup>으로 울<sup>395)</sup>을 삼고,  
 두견<sup>396)</sup>이 벗이 되니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어이 허리?  
 노이무처환부라니<sup>397)</sup>  
 사궁<sup>398)</sup> 중에 첫머리요,  
 아들 없고, 앞 못 보니,  
 몇 가지 궁이 되단 말가?”<sup>399)</sup>  
 무덤을 검쳐 안고,  
 내리둥굴 치둥굴며  
 함께 죽기로만 작정을 한다.

##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램)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가 밤 새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을 어찌시려 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심봉사 하릴없이<sup>400)</sup> 역군<sup>401)</sup>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올 제,  
 동인들<sup>402)</sup>께 백배치하<sup>403)</sup> 하직하고,



He hugs the tomb.  
 "Hello, my wife!  
 Where did you go?  
 You left me and entered the world of the dead.  
 For you, pines and bamboos are a fence.  
 A cuckoo is your friend.  
 You lied down, having forgotten me.  
 What will become of my fate?  
 I am old and don't have a wife.  
 I have the first of the four miseries.  
 Besides, I don't have a son, and I am blind.  
 How many miseries do I have?"  
 He hugs the tomb.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12. (Mr. Sim Soothes his Crying Daughter) Mr. Sim  
 back home laments while soothing his crying  
 daughter all night.**

[Aniri] Villagers speak to him.  
 "What would become of the little child if you follow the dead person?  
 Let's go back home."  
 Mr. Sim shows is helped by the villagers back home.  
 Mr. Sim shows gratitude to the villagers and says goodbye to them.

[중모래]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적막허고,  
 방 안은 행 비었는데,  
 심봉사 실성발광<sup>404</sup> 미치는데,  
 얼싸덜싸<sup>405</sup>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팽막대<sup>406</sup> 홀어 짚고<sup>407</sup>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sup>408</sup>이 바이없네.<sup>409</sup>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서 쑥내 향기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 울 제,  
 그때에 귀덕어미 아이를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애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거, 귀덕어민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줌 주소.”  
 귀덕어미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자탄<sup>410</sup>혈 제,  
 강보<sup>411</sup>에 싸인 자식은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악아,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의 모친 먼 데 갔다.  
 낙양동촌<sup>412</sup> 이화정에 숙낭자<sup>413</sup>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sup>414</sup> 오신 혼백 이비<sup>415</sup> 부인을 보러 갔다.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He goes wild and crazy.  
 He dances and laughs as if he were out of his mind.  
 Mr. Sim goes to the neighboring house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lady! Is my wife here?”  
 He calls his wife around,  
 but there is not a trace of her.  
 He comes back home, and looks at the kitchen.  
 “Honey! My wife!”  
 He goes back into the room and turns on the mugwort incense.  
 He calls his wife and bewails loudly.  
 At that moment, Mrs. Gwideok comes in with the baby in her arms.  
 “Hello, Mr. Sim,  
 Think about this baby and calm down.”  
 “Are you Mrs. Gwideok?”  
 Let me see the baby.  
 Please come here often and give her milk.”  
 Mrs. Gwideok goes back over.  
 Mr. Sim holds the baby in his arms and sighs alone.  
 The baby in the small blanket cries from hunger.  
 “Don’t cry, my baby.  
 You mother went away.  
 She went to see an ancient virtuous woman.  
 She went to see the souls of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가는 날은 안다마는, 오마는<sup>416)</sup> 날은 모르겠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수생<sup>417)</sup>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심봉사 화가 나서 안았던 아이를 방바닥에다 메다치며,<sup>418)</sup>  
 “죽어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sup>419)</sup> 안에 어미를 잃어야?<sup>420)</sup>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다시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 13. (젓동냥) 날이 밝자 심봉사가 우물가에 가서 젖을 얻어 먹인 후, 좋아한다.

[아니레]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sup>421)</sup>하고,  
 어둔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 제,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sup>422)</sup> 소리 얼른 듣고 나갈 적에,

There is a day of going, but I have no idea about the day of coming back.

Don't cry. Don't cry.

Are you crying because you know your mother died?

Are you crying because you are hungry?

Water doesn't come out of a dry tree.

Am I holding milk back from you?"

The baby only responds with cries.

Mr. Sim gets angry and pushes the baby on the floor.

"Die! Die quickly!

How good your fate is to kill your mom seven days after birth!

If you die, I will die too.

If I die, you can't live."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again.

Don't cry, my little girl."

If the day breaks, I will beg some milk for you.

Don't cry, my baby."

### **13. (Begging Milk) After the day breaks, Mr. Sim is delighted, getting milk from women around a well.**

[Aniri] Mr. Sim stayed up all night, so his blind eyes hurt.

The baby is exhausted.

He waits for the daybreak.

[Jungjungmori] Mr. Sim goes out quickly after hearing bucket sounds from the well.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홀어 짚고,<sup>423)</sup>  
 더듬 더듬 더듬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초칠<sup>424)</sup> 안에 어미 잃고  
 기허<sup>425)</sup>허여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듣고 보는 부인들이 철석<sup>426)</sup>인들 아니 주며, 도척<sup>427)</sup>인들 아니 주랴.  
 젓을 많이 먹여 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러이<sup>428)</sup>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sup>429)</sup>  
 이집 저집 다닐 적에,  
 삼베 질쌈<sup>430)</sup> 허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오늘월 피약별<sup>431)</sup>에 김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주오.”  
 백석청탄<sup>432)</sup> 시냇물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젓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 주고,

He holds the baby with one hand and a cane loosely with the other hand.

He moves forward unsteadily to the well.

“Hello ladies!

This baby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hungry and weak.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The women around would give milk, even if they were a stone or a burglar.

They give a lot of milk.

“Hello, Mr. Sim.”

“Yes.”

“This family has a baby.

That family has a baby too.

Go and ask for milk often without hesitation.

Our babies might go hungry.

But would we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Thanks a lot.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He visits many house.

He hears the laughs of women weaving ramie and goes quickly to them.

“Hello, ladies.

I know it’s rude, but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beautiful stream.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Women having milk give a lot of milk.

젓 없는 부인들은 돈 돈씩<sup>433)</sup>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sup>434)</sup> 떠서 주며,  
 “맘쌀<sup>435)</sup>이나 허여주오.”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  
 젓을 많이 얻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sup>436)</sup> 밑에 쭈그려 앉어 아이를 어룬다.<sup>437)</sup>  
 “아이고, 내 딸이야.  
 악아, 악아, 웃느냐?  
 내 딸 배부르다.  
 예상 배가 뽕뽕허구나.  
 이 덕이 뉘 덕이나?  
 동리 부인 덕이다.  
 너도 어서어서 자라나,  
 너의 모친 닮아 현철허고 암전허여,  
 아비 귀염<sup>438)</sup>을 보여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려서 고생을 허면 부귀다남<sup>439)</sup>하느니라.  
 백미 닷 섬의 뉘 하나,<sup>440)</sup> 열 소경 한 막대<sup>441)</sup>로구나.  
 둥 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 준들 너를 사랴?  
 어덕 밑의 귀남<sup>442)</sup>이 아니냐?  
 설설 기어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자진모리]**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sup>443)</sup>이나,  
 옥자동?<sup>444)</sup>



Women having no milk give some money.  
 Women having no money give some rice.  
 “Make rice soup for the baby.”  
 Mr. Sim is happy.  
 “Thanks a lot.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After feeding the baby a lot, he comes back home.  
 He sits down in front of his poor house and dandles the baby.  
 “Oh, my daughter!  
 Baby, did you smile?  
 My daughter is full.  
 Her belly is tight.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is village.  
 Please grow up quickly.  
 Like your mom, please be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Your father will love you.  
 Oh, my daughter.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han you.  
 Oh, my daughter.  
 Would I be able to buy you with gold or jade?  
 Are you my precious child?  
 Crawl, baby! Oh, my lovely daughter.”

**[Jajinmori]** “Oh my daughter.  
 You are gold.  
 You are jade.

주유친하에 무쌍동.<sup>445)</sup>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 환생?<sup>446)</sup>  
 표진강<sup>447)</sup> 숙향<sup>448)</sup>이 네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sup>449)</sup>  
 땡기 끝에 준주시,<sup>450)</sup>  
 옷고름에 밀화불수.<sup>451)</sup>  
 쥐암쥐암<sup>452)</sup>  
 달깁잘깁,<sup>453)</sup>  
 엄마, 아빠,  
 도리도리,<sup>454)</sup>  
 어허 둥둥, 내 딸.  
 서울 가, 서울 가 밤 하나 얻어다  
 두릅박<sup>455)</sup> 속에 넣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쥐가 들랑달랑<sup>456)</sup>  
 다 까먹고 다만 한 쪽이 남았기에,  
 한 쪽은 내가 먹고,  
 한 쪽은 너를 주마.  
 어르르르.<sup>457)</sup>  
 아나,<sup>458)</sup> 악아.  
 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 딸.”

#### 14. (심봉사 동냥) 심봉사가 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아니리] 아이를 안고 돌아와  
 포단<sup>459)</sup> 덮어 뉘어놓고,

You are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child in the world.  
Was Vega in the Milky Way reborn into you?  
Was a novel character reborn into you?  
You are the cute hare on the moon.  
You are a pearl at the end of a pigtail ribbon.  
You are a jewel on the coat string.  
Fold and unfold your fingers.  
Go to sleep.  
Say mom and daddy.  
Shake your head.  
Oh, my daughter.  
I got a handful of chestnuts from Seoul.  
I kept them in a gourd bucket.  
A mouse with a black head came in and went out.  
It ate them all the chestnuts except one.  
I will eat the first half.  
I will give you the second half.  
Look at me, baby.  
Here you are, baby.  
Oh, my lovely daughter.”

#### **14. (Mr. Sim's 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around.**

[Aniri] Mr. Sim comes back with the baby in his arms.  
He lays the baby and covers her with a small blanket.

이제는 동냥차로<sup>460</sup> 나가는데,  
 권마성제<sup>461</sup> 늦은 중중모리로 나가겠다.  
**[중중모리]** 삼배 전대<sup>462</sup> 외동지어<sup>463</sup> 윈 어깨 드러메고<sup>464</sup>  
 동냥차로 나간다.  
 여름에는 보리 동냥,  
 가을이면 나락<sup>465</sup> 동냥,  
 어린 아이 맘죽차로<sup>466</sup> 쌀 얻고 감을 사서  
 허유허유<sup>467</sup> 다닐 적에,  
 그 때여 심청이는 하늘의<sup>468</sup> 도움이라 일취월장<sup>469</sup> 자라날 제,  
 세월이 여류하여,<sup>470</sup>  
 십여 세가 되어가니,  
 모친의 기제사<sup>471</sup>를 아니 잊고 혈 줄 알고,  
 부친의 공양사<sup>472</sup>를 의법이<sup>473</sup> 하여 가니,  
 무정세월<sup>474</sup>이 이 아니냐.

## **15.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공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리]** 심청이 하루는 부친전 단정히 꿇어 앉어,  
 “아버지.”  
 “오냐.”  
 “오날부터는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sup>475</sup> 하오리다.”  
 “여봐라, 청아.  
 내 아무리 곤궁<sup>476</sup>헌들, 무남독녀<sup>477</sup> 너를 내보내 밥을 빈단 말이  
 될 법이나 할 말이나?

He now goes out to beg.  
He walks forcefully.  
**[Jungjungmori]** Mr. Sim carries a ramie bag on his left shoulder.  
He goes out to beg.  
In summer he begs for barley.  
In fall he begs for rice.  
He gets rice and buys persimmons to make rice soup for the baby.  
He comes back home, making excited bodily movements.  
Sim Cheong grows up fast with the help of heaven.  
Time flows like an arrow.  
She becomes above ten.  
She holds a ritual for her mother without forgetting it.  
She serves her father with meals properly.  
Time goes fast.

**15.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o her father that she wants to support him by begging.**

**[Aniri]** One day Sim Cheong sits in front of her father in a solemn manner.  
“Father.”  
“Yes.”  
“From today on, I will go out,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Look, Cheong.  
No matter how poor I am, how would I let you, my only child, beg for food?”

어라,<sup>478)</sup> 어라, 그런 말 마라.”

[중모리] “아버지, 듣조시오.<sup>479)</sup>

자로<sup>480)</sup>난 현인<sup>481)</sup>으로 백리를 부미하고,<sup>482)</sup>

순우의<sup>483)</sup> 딸 제영<sup>484)</sup>이는 낙양<sup>485)</sup> 옥에 갇힌 아비<sup>486)</sup> 몸을 팔아 속  
죄<sup>487)</sup>하고,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의<sup>488)</sup> 저문 날에 반포은<sup>489)</sup>을 혈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sup>490)</sup>만 못허리까?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이 욕도 할 것이요,  
천방지축<sup>491)</sup> 다니시다 행여 병이 날까 염려오니,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아니리] “여봐라, 청아.

너 그 이제 한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너의 성의<sup>492)</sup>가 그럴진대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 16.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한다.

[중모리] 심청이 거동 보아라.

밥 빌러 나갈 적에

헌 베 중우<sup>493)</sup> 대님<sup>494)</sup> 매고,

말<sup>495)</sup>만 남은 헌 초마<sup>496)</sup>에

깃<sup>497)</sup> 없는 헌 저고리,

목만<sup>498)</sup> 남은 길보신<sup>499)</sup>에

청목<sup>500)</sup> 휘양<sup>501)</sup> 눌러 쓰고,

바가치<sup>502)</sup> 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걸음쳐 나갈 적,

No way! Please don't say that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hundreds of miles to feed his father.

A daughter in ancient times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is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in an empty grove at sunset.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If my blind father begs around for food, others will blame me.

I am afraid you might get sick if you travel here and there.

So don't say that."

**[Aniri]** "Look, Cheong.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If you insist, travel only to a couple of houses."

## **16.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by begging for food.**

**[Jungmori]** Behold Sim Cheong!

She goes out to beg for food.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Only the top of her old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Only the top part of her socks remains.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She carries a bucket on her flank.

She walks on the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in the wind.

원산<sup>503</sup>)에 해 비치고  
 건넌 마을 연기 일 제,  
 추적추적<sup>504</sup>) 건너가 부엌 문을 다다르며  
 애궁히<sup>505</sup>) 비는 말이,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초칠<sup>506</sup>)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신 늙은 아비 나를 안고 다니시며 동냥젖 얻어 먹여  
 이만큼이나 자랐으되,  
 앞 어두신 우리 부친 구환<sup>507</sup>)할 길 전혀 없어  
 밥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덜 잡수고 십시일반<sup>508</sup>) 주옵시면,  
 추운 방 우리 부친 구환을 허겔내다.”<sup>509</sup>)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 아니 슬퍼허리!  
 그릇밥,<sup>510</sup>) 김치, 장<sup>511</sup>)을 아끼잡고 후히<sup>512</sup>) 주며,  
 혹은 먹고 가라 허니,  
 심청이 여짜오되, “치운 방 우리 부친 저 오기만 기다린다,<sup>513</sup>)  
 저 혼자만 먹사리까?<sup>514</sup>)  
 부친전에 가 먹겔내다.”  
 한두 집이 죽한지라.<sup>515</sup>)  
 밥을 빌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제,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원산<sup>516</sup>)에 해가 아니 비쳤더니,  
 벌써 해가 등실 떠,  
 그 새에 반일<sup>517</sup>)이 되었구나.”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이고, 아버지. 출근들 오직허며, 시장킨들<sup>518</sup>) 안 허리까?  
 더운 국밥 잡수시오.



The sun shines on the distant mountain.  
 A smoke rises up from a neighboring village.  
 Walking wretchedly,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She begs in a pathetic voice.  
 “My mom died seven days after she gave birth to me.  
 My blind old father held me in his arms and begged around  
 for milk.  
 I grew up this big.  
 I have no other way to serve my blind father.  
 I am here to beg for food.  
 Please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food.  
 Then, I can save my father in the cold room.”  
 After hearing her, ladies take pity on her.  
 They generously give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auces.  
 Some ask her to eat with them.  
 Sim Cheong replies, “My father looks forward to me in the cold  
 room.  
 How can I eat here?  
 I will go and eat with my father.”  
 She gets enough food from a couple of houses.  
 She speaks to herself, a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on  
 her hands.  
 “When I left home, the sun did not shine up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The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gate.  
 “Father, you must feel cold and hungry here.  
 I got a hot meal for you.

이것은 흰 밥이요,  
 저것은 팔밥이요.  
 미역튀각,<sup>519)</sup>  
 갈치, 자반,<sup>520)</sup>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참게 잡수시오.”  
 심봉사 기가 막혀,  
 딸의 손을 끌어 입에 넣고 후후 불며,  
 “아이고, 내 딸 춥다 불 쬐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 **17. (시비 따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리]** 세월이 여류허여<sup>521)</sup>  
 심청의 나이 벌써 십오 세가 되었구나.  
 효행<sup>522)</sup>이 출천<sup>523)</sup>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sup>524)</sup>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sup>525)</sup> 낭자<sup>526)</sup>하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sup>527)</sup>이 시비<sup>528)</sup>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  
 것다.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승상부인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This is white rice,  
That is rice mixed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it to you,  
Please help yourself.”  
Mr. Sim is dumfounded.  
He pulls her hands to his mouth and blows on them,  
“Daughter! Warm yourself up here.”  
My life is cruel to go on,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you.”

**17. (Following a Mai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he follows a maid over to the village.**

[Aniri] Time goes fast,  
Sim Cheong somehow becomes fifteen.  
Her filial piety is great,  
She is a rare beauty.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Sim Cheong asks her fat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as invited me.  
What should I do?”

심봉사 좋아라고,  
 “아빠, 아야!<sup>529)</sup> 그 부인과 너의 모친과는 별친<sup>530)</sup>허게 지냈니라.  
 진즉<sup>531)</sup> 찾아가서 뵈을 것을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sup>532)</sup>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이<sup>533)</sup> 오너라.”  
 심청이 부친 허락을 받고,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간다.  
 무릉춘을 당도하여 승상댁을 찾아가니,  
 좌편은 청송<sup>534)</sup>이요,  
 우편 녹죽<sup>535)</sup>이라.  
 정하<sup>536)</sup>에 쏘는 반송<sup>537)</sup>  
 광풍<sup>538)</sup>이 건듯<sup>539)</sup> 불면 노룡<sup>540)</sup>이 굽니난 듯,<sup>541)</sup>  
 뜰 지키는 백두루미 사람 자취에<sup>542)</sup> 일어나서  
 나래<sup>543)</sup>를 땅에다 지르르르르르르 끌며, 뚜루루루루루 끌룩,  
 징검징검<sup>544)</sup> 알연성<sup>545)</sup>이 기이허구나.<sup>546)</sup>

## 18. (심청 수양딸 거절)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 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계상<sup>547)</sup>에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허여,<sup>548)</sup>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Mr. Sim is delighted.  
“Oh, the noble lady was a good friend of your mom.  
I should have called on her.  
I didn’t until she invited you now.  
Go over and see her.  
Be respectful to her.  
Answer her questions politely.  
Come back quickly.”  
Sim Cheong got her father’s permission.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They arrive in Paradise Village and in the noble lady’s house.  
On the left are pine trees.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wind rage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A white crane in the yard stands up after hearing human sounds.  
It drags its wings on the ground and cries.  
As it strides, it makes queer sounds.

**18. (Sim Cheong Declines the Proposal to be Adopted)**  
**Sim Cheong declines the noble lady’s proposal to  
be adopted.**

**[Jungjungmori]** Sim Cheong moves up on the stone steps.  
The noble lady welcomes her.  
She grabs Sim Cheong’s hands and leads her to a room.

좌<sup>549</sup>)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무릉에<sup>550</sup> 내가 있고,  
 도화동 내가 나니,  
 무릉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sup>551</sup>)로다.  
 네 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 일찍 기세허시고,<sup>552</sup>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sup>553</sup>) 가 등양<sup>554</sup>)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적한 빈 방안에 대하나니<sup>555</sup>) 촛불이요, 보는 것 고서<sup>556</sup>)로다.  
 네 처지를 생각하니,  
 양반의 후예로서 저렇듯 곤궁하니,  
 나의 수양딸<sup>557</sup>)이 되어 여공<sup>558</sup>)도 숭상허고, 문필<sup>559</sup>)도 학습허여  
 말년<sup>560</sup>) 재미를 볼까 하니,  
 너의 뜻이 어떠허냐?”  
**[아니레]** 심청이 대답허되, “모친 별세헌 연후,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겜 믿사웁고,  
 소녀는 아버지를 모친 겜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 허겠내다.”<sup>561</sup>)  
 “기특타 내 딸이야.  
 나도 너를 딸로 아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일모<sup>562</sup>)가 되도록 놓지 아니허시고 이야기로 벗 삼으실 제,

She offers a seat.  
“Are you really Sim Cheong?  
You are as beautiful as they say you are.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are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in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Listen to me, sweetheart.  
My husband died long time ago.  
I have three sons.  
They hold high position in the capital city.  
I have neither a young child nor a grandchild.  
All I have in this empty room is candlelights and old books.  
Let me see how you are.  
You are a descendent of the high class but poor.  
I propose that you be adopted to me, learn things a woman  
should know, and learn how to write.  
You will bring joy to my remaining life.  
What do you say?”

[Aniri] Sim Cheong replies, “After my mother died, my father  
relies on me like a son.  
I rely on him like my mother.  
I can’t give you a definite answer.”  
“How praiseworthy you are, my daughter.  
I wi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take me as your mother.”  
The lady talks with her until the sun sets, not letting her go back  
home.

심청이 여짜오대, “추운 방 저의 부친 날 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겠내다.”  
 부인이 허락을 하되,  
 비단과 양식을 후히 주며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 때여 심봉사는 적적한<sup>563)</sup> 빈 방 안에서 딸 오기를 기다리는데,

### 19. (심봉사 물에 빠짐)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한기<sup>564)</sup> 들 제,  
 먼 데 절 쇠북소리,  
 날 저문 줄을 짐작하고  
 딸 오기만 기다릴 제,  
 “어찌하여 못 오느냐?  
 부인이 잡고 말리는가?  
 길에 오다가 욕<sup>565)</sup>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훔날린디  
 후후 불고 앉었느냐?”  
 새만 푸르르르 날아들어도,  
 “내 딸 청이 네 오느냐?”  
 낙엽만 버썩 떨어져도,  
 “내 딸 청이 네 오느냐?”  
 아무리 불리도 적막공산<sup>566)</sup>에 인적<sup>567)</sup>이 끊쳤으니,



Sim Cheong speaks, "My father is waiting for me in the cold room.

I have to go now."

The lady says it is okay.

She gives her a lot of silks and food, and has the maid follow her.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in the desolate room.

**19. (Mr. Sim Falls into a Stream) Because Sim Cheong gets late, Mr. Sim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Jinyangjo] Mr. Sim is very hungry.

The room is cold.

A bell rings from a remote buddhist temple.

He thinks that it is dark.

He only waits for his daughter.

"Why is she not coming?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he get into trouble on a street?

A heavy snow comes down now.

Is she blowing on her hands to warm them up?"

A bird flies, making a sound.

"Is that my daughter, Cheong?"

Leaves fall down.

"Is my daughter, Cheong, coming?"

However loudly he calls her, there is nobody on the quiet mountain.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헐거나.”

신세자탄<sup>568</sup>)으로 울음을 운다.

[자진모리] ‘이래서는 못쓰것다.’

닫은 방문 필쩍 열고, 지팡이 홀어 짚고,<sup>569</sup>)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면서,

“청아! 오느냐?

어찌허여 못 오느냐?”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는데,

그 때여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앓어 먹어노니,

도랑 출입<sup>570</sup>)이 서툴구나.

지팡이 홀어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이<sup>571</sup>) 나가다가,

길 넘는<sup>572</sup>)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빠져놓  
으니,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라면<sup>573</sup>)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히고,<sup>574</sup>)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I was deceived.  
 What should I do now?”  
 He laments over his fate.  
**[Jajinmori]** ‘I shouldn’t just wait.’  
 Mr. Sim opens the closed door and grabs his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Cheong! Are you coming?  
 Why aren’t you coming back?”  
 He moves forward unsteadily.  
 Mr. Sim has stayed home for long time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awkward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He takes a false step and slides upside down into a deep stream.  
 “Help! Sim Hak-gyu is drowning!”  
 He pushes himself up but slides back down.  
 He attempts to get out but goes back down ceaselessly.  
 He tries to get up but falls back in.  
 He gradually goes down.  
 “My mind is normal.  
 I breathe well,  
 I am not sick,  
 But I am dying!”

## 20. (심봉사 구출) 지나가던 중이 심봉사를 구한다.

[아니리] 한참 이리 헐 제,  
[엇모리]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오는디, 이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고?  
몽은사 화주승<sup>575</sup>)이라.  
절을 중창<sup>576</sup>)허라 허고 시주집<sup>577</sup>) 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서산에 빗긴<sup>578</sup>) 길로 급급히<sup>579</sup>) 올라간다.  
저 중의 차림 보소.  
저 중의 거동<sup>580</sup>) 보소.  
굴갓<sup>581</sup>) 쓰고, 장삼<sup>582</sup>) 입고,  
백팔염주<sup>583</sup>) 목에 걸고, 단주<sup>584</sup>) 팔에 걸고,  
용두<sup>585</sup>) 새긴 육환장<sup>586</sup>)  
쇠고리 많이 달아 처절철<sup>587</sup>) 툭툭 짚고,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sup>588</sup>) 올라갈 제,  
중이라 허는 것은 절에서도 염불,<sup>589</sup>) 속가<sup>590</sup>)에 와도 염불.  
염불 많이 허면 극락세계<sup>591</sup>)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아 아 어 어 아.  
상래소수공덕해요, 회향삼천실원만.<sup>592</sup>)  
원왕생<sup>593</sup>) 원왕생,  
제궁종실각안녕<sup>594</sup>)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sup>595</sup>)허고 올라갈 제,

## 20.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passing by rescues Mr. Sim.

[Aniri] The situation is as stated above.

[Eotmori]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Other buddhist monks go down, but he goes up.

Who is that monk?

He is a monk from Mongeun Temple in charge of donation affairs.

He solicited donations in the village to reconstruct his old temple.

It's getting dark.

The monk goes up fast on the oblique road on the west mountain.

Behold his costume.

Behold his action.

He wears a cylindrical hat and a hemp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He carries a cane on which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Six iron rings dangling from it make sounds.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A lot of prayers results in being in paradise.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Oh, oh, oh!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I wish I will be reborn in heaven.

I wish the royal family are happy.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The monk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얼른<sup>596)</sup> 들린다.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sup>597)</sup> 저문 날에 하소대<sup>598)</sup>로 울고 가던 양태진<sup>599)</sup>의 울음이냐?  
 여우가 변화허여<sup>600)</sup> 날 홀리란<sup>601)</sup> 울음인거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죽장<sup>602)</sup>을 드러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끼웃거리고 올라갈 제,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sup>603)</sup> 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되었구나.  
 (잡은 엇모리)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 다님<sup>604)</sup> 끄르고,  
 버선을 얼른 벗고,  
 고두누비<sup>605)</sup> 바지 가래<sup>606)</sup> 따달딸 딸딸딸 건너 자개미<sup>607)</sup> 딱 붙이고,  
 무논<sup>608)</sup>에 백로 격으로<sup>609)</sup> 징검<sup>610)</sup> 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심봉사 고드레상투<sup>611)</sup>를 에뚜루미쳐<sup>612)</sup>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He monk arrives at a certain place.  
 He hears a faint crying sound.  
 He is surprised.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n ancient beautiful woman on the way to a pavilion at the sunset?  
 Is this the cry of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He pulls his bamboo cane on his shoulder.  
 He looks around as he goes up.  
 He looks at a place.  
 A man has fallen into a stream and is about to die.  
 (Frequent Eotmori) The monk feels unsettled and disturbed.  
 He takes off his hat and coat, and throws them around.  
 He unties his ankle bands.  
 He takes off socks quickly.  
 He pulls up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the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grabs his topknot and gets him out of the water.  
 He learns that he is Mr. Sim he knows.

21. (공양미 시주 약속)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에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중의 말을 듣고 심봉사는 시주 약속  
을 하지만, 중이 떠난 뒤 후회한다.

[아니리] 심봉사 정신 차려,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sup>613</sup>)이오.

거 뉘가 살렸소?”

“예. 소승<sup>614</sup>)은 몽은사 화주승<sup>615</sup>)이온데,

시주집<sup>616</sup>) 내려왔다 절을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소.”

“허허. 활인지불<sup>617</sup>)이라더니

대사가 나를 살렸소그려.”

저 중이 하는 말이, “여보, 봉사님.

내 말을 들으면 두 눈을 꼭 뜨오리다마는.”

봉사 눈뜰단 말에,

“아니, 그 어쩐 말이어?”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sup>618</sup>)하야

공양미<sup>619</sup>) 삼백 석만 우리 절에 시주하면 꼭 눈을 뜨오리다.”

심봉사가 눈 뜰단 말에 후사<sup>620</sup>)는 생각지 않고,

“여, 대사. 자네 말이 정녕 그러할진대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sup>621</sup>)에 적소, 적어.”

저 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가산<sup>622</sup>)을 둘러보니

삼백 석은 고사하고 삼백 주먹도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21. (The Promise to Donate Rice to Mongeun Temple)

Mr. Sim hears from the monk that he will gain sight if he donates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He promises to donate the rice, but regrets after the monk left.

[Aniri] Mr. Sim comes to himself.

"Sinc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gratitude.

Who saved me?"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 was soliciting donations and was on my way back to the temple.

Luckily, I saved you."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You saved me, Mr. Monk."

The monks says, "Hello, Mr. Sim.

If you do as I tell you to do, you will open your eyes."

The word about opening eyes triggers Mr. Sim's interest.

"Oh, tell me how."

"Buddha in my temple can work out a miracle.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will gain sight."

Mr. Sim is so excited about opening eyes that speaks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Hello, monk. I trust what you said.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Mr. Sim, look at what you've got.

You don't have a handful of rice, to say nothing of 300 bags.

How dare you say that?"

심봉사 화를 벌컥 내며,  
 “내가 내 수단<sup>(623)</sup>을 어찌 아느냐?  
 잔말 말고  
 적으라면 씹 적어!”  
 저 중이 어이없어  
 권선에 공양미 삼백 석을 적은 후,  
 “여보시오,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 앓은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  
 심하오.”  
 “염려 말고  
 불공<sup>(624)</sup>이나 착실히 하여주게.”  
 중은 올라가고,  
 심봉사는 곰곰히 생각하니,  
 ‘이런 실없는<sup>(625)</sup> 일이 있나?’  
**[중모레]** “허허, 내가 미쳤구나.  
 분명 내가 사<sup>(626)</sup>들렸네.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오?  
 살림을 팔자헌들 단 돈 열 냥 뉘랴<sup>(627)</sup> 주며,  
 내 몸을 팔자헌들 앞 못 보난 병신놈을 단 돈 서푼을 뉘랴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봉사놈이 앓은뱅이마져 되고보면,  
 꿈쩍 없이 내가 죽겠구나.  
 수중고혼<sup>(628)</sup>이 될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에 쌀 삼백 석 에우고<sup>(629)</sup> 가소!”  
 실성발광<sup>(630)</sup> 기가 막혀 홀로 앓어 탄식한다.

Mr. Sim loses his temper.  
“How do you know about what I have?  
Don’t argue with me.  
Put my name down right away!”  
The monk is speechless.  
He does the record on his roster.  
“Mr. Sim,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Don’t worry.  
Just pray well to Buddha on my behalf.”  
The monk leaves.  
Mr. Sim reflects on what he did.  
‘Wasn’t I stupid?’

**[Jungmori]** “Gosh,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Even if I sell my body, it is worth less than a few dollars because  
I am blind.  
If I deceive Buddha, I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regret what I did.  
Hey, monk there!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He goes wild and stunned, and sighs alone.

## 22. (심청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저의 부친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 발 구르며,

“아버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살 없는 두 귀 밑에 눈물 흔적 웬 일이며,

숨 없는 흰 의복에 물 흔적이 웬 일이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지경을 당하셨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어언간<sup>(631)</sup> 더디었소.

말씀이나 하여주오.

답답하여 못 살겠소.”

[아니리] 심봉사 하릴없어,

“여봐라, 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듬더듬 나가다가

이 앞 개천 물에 빠져 꼭 죽게 되었는데,

아, 뜻밖에 몽은사 화주승이 올라가다 나를 구해주고,

날다려<sup>(632)</sup> 공양미 삼백 석만 몽은사 불전에<sup>(633)</sup> 시주하면, 삼년 내로  
눈을 뜬다 하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단 말에 후시는 생각지 않고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에  
적어 보냈으니,

이 일을 어쩔거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백계무책<sup>(634)</sup>이로구나.”

“아버지 너무 염려 마옵소서.

지성이면 감천<sup>(635)</sup>이라,

정성껏 구하여 보겠내다.”

**22. (Sim Cheong's Consolation) Sim Cheong comes back,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door.

She is surprised to look at her father and stamps on the ground.

"Father! What happened?

Why are there traces of tears below your thin earlobes?

Why are there traces of water on your old clothes?

Did you go out to meet me and fall into the stream?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alk to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Mr. Sim has no choice.

"Look, Cheong.

I couldn't wait for you, so I moved forward unsteadily.

I fell into the stream and was about to die.

Unexpectedly, a monk from Mongeun temple saved me on his way back.

He told me that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I will open my eyes within three years.

I was so excited about opening my eyes that I promised to donate the rice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What should I do now?

I can't come up with a solution to my problem."

"Father, don't worry too much.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I will do my best to get the rice."

부친을 위로한 후,  
그날부터 목욕재계<sup>(636)</sup> 정히<sup>(637)</sup> 하고 지극 정성을 드리겠다.

## 23.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를 빈다.

[진양조] 후원에 단을 못고<sup>(638)</sup>  
복두칠성 자야반에<sup>(639)</sup>  
촛불을 돋오 켜고,<sup>(640)</sup>  
새 사발에 정화수<sup>(641)</sup>를 떠서 소반 위에 받쳐놓고,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에 비나니다.  
천지지신<sup>(642)</sup>  
일월성신<sup>(643)</sup>  
화위동심<sup>(644)</sup> 허옵소서.  
무자생<sup>(645)</sup> 소경<sup>(646)</sup> 삼십 전에 안맹허여<sup>(647)</sup> 오십이 장근토록<sup>(648)</sup> 시  
물<sup>(649)</sup>을 못하오니,  
아비의 허물을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아비 눈을 밝히소서.  
인간의 충효지심<sup>(650)</sup> 천신<sup>(651)</sup> 어이 모르리까?  
칠일 안에 어미 잃고  
앞 못 보는 부친에게 게우게우<sup>(652)</sup> 자라나서  
십오세가 되었으니,  
육보지덕택인댄 호천망극이라.<sup>(653)</sup>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에 시주<sup>(654)</sup>하면 아비 눈을 뜬다하니,  
명천<sup>(655)</sup>이 감동허사  
공양미 삼백 석을 지급하여 주옵소서.”

She consoles her father.

From the day on, she cleans her body and prays conscientiously.

### **23.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turns on a candlelight.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I pray. I pray. I pray to God.

All gods in heaven and the earth,

the sun, the moon, and stars,

please share the same feeling.

My father became blind before thirty and can't see things when he approaches fifty.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make my father's eyes bright.

God should know about virtuous people.

I lost my mother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managed to raise me.

I am now fifteen years old.

I want to return his limitless favor.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Buddha, my father will open his eyes.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Please grant me 300 bags of rice."

24. (남경선인) 심청은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후, 부친에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속이고 행선날을 기다린다.

[아니리] 이렇듯 지극 정성을 드리는디,  
[중중모리] 하루는 문전에 외는<sup>(656)</sup> 소리,  
“우리는 남경 장사 선인<sup>(657)</sup>으로,  
인당수<sup>(658)</sup> 인제수<sup>(659)</sup>를 드리고저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를 사라허니,<sup>(660)</sup>  
몸 팔 이 뉘 있습나?<sup>(661)</sup>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오.”  
이렇듯 왜는<sup>(662)</sup> 소리 원근산천<sup>(663)</sup>이 땡그렇게<sup>(664)</sup> 들린다.  
[아니리]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천재일시<sup>(665)</sup>의 좋은 기회로구나.’  
이웃 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sup>(666)</sup>하고, 선인 한 사람을 청하여 여짜오되,  
“소녀는 당년<sup>(667)</sup> 십오세인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 하오니,  
저를 사감이 어떠허오?”  
선인들이 좋아라고,  
“어허, 거 출천지대효<sup>(668)</sup>로고.  
거,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더도 덜도 말고 공양미 삼백 석만 내월<sup>(669)</sup> 십오일 내로 몽은사로 올려 주오.”  
“허, 거 출천지대효로고.  
그러나 우리도 내월 십오일이 행선날<sup>(670)</sup>이오니,



24.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After telling a lie to her father that she is adopted by the noble lady, she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Aniri] Sim Cheong prays hard to gods.

[Jungjungmori] One day, there are shouts in front of her house.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n order to offer a human sacrifice to Indang Water,  
we want to buy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Is there anybody to sell herself?

If there is, please answer us.”

The loud shouts tremble close and distant mountains.

[Aniri] Hearing the shouts, Sim Cheong thinks that heaven is helping her.

She speaks to a sailor secretly so that she is not noticed by her neighbors.

“I am fifteen years old this year.

I intend to sell myself for the sake of my father.

Why don't you buy me?”

The sailor is delighted.

“You are a good daughter.

How much do you want?”

“Just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before 15th of next month.”

“You are really a good daughter.

But we are scheduled to depart on 15th of next month.

어찌 하오리까?”

“중값<sup>671</sup>을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글랑은 염려 마옵소서.”

선인들과 약속한 후,

심청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부친을 아니 속일 수 없는지라,

“아버지!”

“오냐!”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게 되었으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래,

“야야,<sup>672</sup> 그 어쩐 말이냐?”

“전일<sup>673</sup>에 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sup>674</sup>로 말씀하신 걸 것을 분명 대답 못했지요.

제가 오늘 건너가 아버지 사정을 여쭙었더니,

부인께서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시고,

저를 수양딸로 데려간다 하옵디다.”

“야야, 그 일 참 잘 되었다.

그 부인에게 수양딸로 가는 게야<sup>675</sup> 누가 날다려 딸 팔아먹었다고 정개<sup>676</sup>허겼느냐?

그래, 언제 가기로 하였느냐?”

“내월<sup>677</sup> 십오일에 가기로 하였네다.”

“그러면 나는 어찌고?”

“아버지도 모셔가기로 하였어요.”

“그렇지야. 눈먼 놈을 혼자만 둘 것이냐?

잘 되었다, 야야. 그 일 참 잘 되었다.”

부친의 맺힌 근심을 위로하고 행선일<sup>678</sup>을 기다릴 제,

What do you say?"

"How would I break the promise when I am sold at a high price?"

Don't worry about that."

She makes the promise with the sailors.

No matter how hard she thinks, she can't help from deceiving her father.

"Father!"

"Yes!"

"I sent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o don't worry."

Mr. Sim is surprised.

"Honey, what did you say?"

"Father, I did not give a definite answer to the noble lady's proposal that I be adopted by her.

Today I went over and told her about your situation.

She said she would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and take me as an adopted daughter."

"Honey, that's great.

If you are adopted to the nobly lady, nobody will blame me for having sold my daughter.

When are you leaving for her house?"

"I am leaving on 15th of next month."

"Then, what will become of me?"

"They will take you there too."

"Good. She won't leave a blind man alone.

That's great. That's fantastic."

Sim Cheong eases her father's worry and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 25. (행선 전야)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며 탄식한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생존시<sup>(679)</sup>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삭막하고,<sup>(680)</sup> 흥중<sup>(681)</sup>이 답답하여  
하염없는<sup>(682)</sup> 설움이 간장<sup>(683)</sup>에서 솟아난다.  
부친의 사시<sup>(684)</sup> 의복 빨래하여 농<sup>(685)</sup> 안에 넣어두고,  
갓 망건<sup>(686)</sup>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일을 생각하니 하룻밤이 격한지라.<sup>(687)</sup>  
모친 분묘<sup>(688)</sup> 찾아가서  
분향사배<sup>(689)</sup> 통곡을 한다.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sup>(690)</sup> 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제수<sup>(691)</sup>로 가게 되니,  
불쌍헌 아버지를 차마 어이 잊고 가며,  
연년이<sup>(692)</sup> 오난 기일<sup>(693)</sup> 뉘라서 받드리까?  
분묘에 돌는 풀을 뉘 손으로 별초<sup>(694)</sup>허리!  
내 손으로 부은 술을 망종<sup>(695)</sup> 흠향<sup>(696)</sup> 허읍소서.”  
사배<sup>(697)</sup>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올린 후에,  
밤 적적<sup>(698)</sup> 삼경<sup>(699)</sup>이 되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염려 되어 크게 울진 못하고  
속으로만 느끼는디,<sup>(700)</sup>  
“아버지, 날 볼 날이 몇 날이며, 날 볼 밤이 몇 밤이나 되오?  
제가 철<sup>(701)</sup>을 안 연후에 밥 빌기를 놓았더니마는,  
내일부터는 동리 걸인이 또 될 것이니,

## 25. (Eve of Departure Date) Sim Cheong sighs,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father.

[Jinyangjo] Sim Cheong thinks about her dying when her old blind father is alive.

She feels gloomy and choked in her chest.

Ceaseless sorrow wells up in her mind.

She cleans her father's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mends his hat and headband and hangs them in a handy place.

She realizes that there is one night left before the departure date.

She visits her mother's tomb.

She burns an incense, bows four times, and bewails.

"Hello, mother! I am a bad daughter.

I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my father's eyes.

I will be used as a sacrifice during a ritual.

How could I forget my poor father?

Who will hold the annual ritual for you?

Who will cut the grass on your tomb?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last wine I can give to you."

She gives big bows and comes back home.

She serves her father with a meal.

It is quiet and deep into the night

Her father sleep without knowing anything.

Afraid he might wake up, she can't cry loudly.

She only weeps in her mind.

"Father! How many nights and days do we have to be together?

After I became mentally mature, I begged food for you.

You will become the beggar of the village again from tomorrow on.

아버지를 어찌고 갈꼬?

오늘 밤 오경시<sup>702</sup>를 함지에<sup>703</sup>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는 부상<sup>704</sup>에다 매달으면  
불쌍하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뵈련만은,  
인력으로 어이 허리!”

천지가 사정이 없어

벌써 닭이 ‘꼬끼오!’

“닭아,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반야<sup>705</sup> 진관<sup>706</sup>의 맹상군<sup>707</sup>이 아니로고나.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을

어이 잊고 가잔 말이냐?”

## 26. (심봉사 만류) 심청이 사실을 고하자 심봉사는 죽기로 작정하며 만류한다.

[아니리] 벌써 동방<sup>708</sup>이 점점 밝어오니,

심청이 정신을 차려,

‘내가 이래서는 못쓰겠다.

부친 진지나 망종<sup>709</sup> 지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나가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섰거늘,

심청이 급히 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How will I leave him?  
If the sun stays in Grand Pond tonight,  
and if the rising sun is tied to the divine mulberry tree on the  
East Sea,  
then I can serve my father more,  
but how could I do that?"  
Time is ruthless.  
A rooster already cries.  
"Rooster, rooster, rooster, don't cry.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y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y,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my father has nobody to turn to.  
How can I forget and leave him?"

**26. (Mr. Sim's Deterrence) Sim Cheong tells the truth  
to Mr. Sim. He frantically deters her from going.**

[Aniri] As the sun begins to rise in the east,  
Sim Cheong collects herself.  
'I shouldn't be like this.  
I will serve him with the last meal.'  
She goes to the kitchen.  
The sailors are already outside the gate.  
She goes to them in a minute.  
"Hello, sailors.

부친 진지나 망중 지어드리고 떠나심이 어떠하오?”  
 선인들이 허락하니,  
 심청이 눈물 섞어 아침밥 급히 지어  
 소반<sup>710</sup> 우에 받쳐 들고,  
 “아버지, 어서 일어나 진지<sup>711</sup> 잡수시오.”  
 “애, 오늘 아침밥은 별로<sup>712</sup> 713) 일쿠나.<sup>714</sup>  
 청아, 그런데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아,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니,  
 꿈에 수레라 하는 것은 귀인<sup>715</sup>이 타는 것이라,  
 거 내 손수 해몽<sup>716</sup>했지야.  
 오늘 장승상댁 부인이 너를 수양딸로 데려가려고 가마<sup>717</sup> 가지고 오  
 려나보다.”  
 심청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진지 잡수시오.”  
 “야, 오늘 아침밥은 별로 걸구나.<sup>718</sup>  
 어느 댁에 제사 모셨드냐?”  
 심청이 진짓상을 물리고<sup>719</sup> 담배 붙여 올린 후,  
 심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머니<sup>720</sup> 앉었다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부친을 더 속일 수는 없는지라,  
**[자진모리]** 심청이 거동<sup>721</sup> 봐라.  
 부친 앞으로 우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부지!”  
 한 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심봉사 깜짝 놀라,



Can I leave after making the last breakfast for my father?"  
The sailors allow her to do so.  
She comes back in the house and makes food in tears.  
She brings it on the meal table.  
"Father, please get up and eat this meal."  
"Honey, why is the breakfast so early today?"  
Cheong,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What dream was it?"  
"You were going somewhere ceaselessly on a coach.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in a dream.  
I interpreted the dream by myself.  
The noble lady must be sending a carriage to take you as an  
adopted daughter."  
Sim Cheong think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help yourself to the meal."  
"Honey, today's breakfast was outstanding."  
Did somebody hold a ritual in the village?"  
She clears away the meal table and turns on his tobacco.  
Sim Cheong sits vacantly without saying anything.  
She now thinks that she can't deceive her father anymore.

**[Jajinmori]** Behold Sim Cheong!

She runs to her father.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She calls her father and passes out without saying anything.

Mr. Sim is startled.

“아이고, 이것 웬 일이냐? 어허, 이것 웬 일이여?  
 아니, 오늘 아침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채했느냐?<sup>722)</sup>  
 악아, 소금 좀 먹어라.  
 악아,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정개<sup>723)</sup>하드냐?  
 어서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불효 여식은  
 아버지를 속이었소.”  
 “아, 이놈아, 속였으면 무슨 큰일을 속였간디,<sup>724)</sup> 이렇게 아비를 놀라  
 게 한단 말이냐?  
 말하여라! 답답허다,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제를 주오리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중 보옵소서.  
 어느 때나 뵈오리까?”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중중모리]** “허허, 이게 웬 말이냐?  
 에이? 여봐라, 청아. 무엇이 어째? 에이?  
 애비보고 묻도<sup>725)</sup> 앓고 네가 이것 웬 일이냐?  
 못 하지야! 못 하여!  
 눈을 팔아 너를 살데,<sup>726)</sup>  
 너를 팔아서 눈을 뜨면 무엇 보자고 눈을 뜰꼬?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설움을 네 들어라.  
 너의 모친 너를 낳고 칠일 안에 죽은 후에,

“What is going on, sweetheart? What is going on?  
The breakfast was gorgeous.  
Do you have an upset stomach?  
Eat some salt, baby.  
Did anybody despise you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 blind man?”  
Talk to me!”  
“Father, I am a bad daughter.  
I told a lie to you.”  
“Oh, did you deceive me about a big thing to frighten your father like this?  
Tell me, I am anxious to know.”  
“Father, 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I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Today is the departure day.  
This is the last moment with you.  
When can I see you again?”  
After hearing her, Mr. Sim goes frantic.

**[Jungjungmori]** “God, what did you say?  
Uh? Look, Cheong. What? Uh?  
How can you do that without asking your father?  
No way! No way!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at would I see if you sell yourself to open my eyes?  
You thoughtless girl!  
Listen to my sorrow.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너를 안고 다니며 동냥젓 얻어 맥여 이만큼이나 장성,<sup>727)</sup>  
 묵은 근심, 햇근심<sup>728)</sup>을 너로 하여<sup>729)</sup> 잊었더니,  
 이것이 웬 일이나?  
 나 눈 안 뜰란다.”  
 그때에 선인들이 문전에 늘어서서,  
 “심낭자 물때<sup>730)</sup> 늦어가요!”  
 성화같이<sup>731)</sup> 재촉하니,  
 심봉사가 이 말 듣고 엎어지며,  
 넘어지며 밖으로 우루루 쫓아 나가,  
 “에이,<sup>732)</sup> 무지한<sup>733)</sup> 상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 지낸 데 어디서 보았느냐?  
 옛 말을 못 들었나?  
 칠년대한<sup>734)</sup> 가물 적에 사람 잡아서 빌라허니,  
 탕임금<sup>735)</sup> 어진 마음, ‘사람 잡아 빌 양이면<sup>736)</sup> 내 몸으로 대신허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단발 신영백모<sup>737)</sup> 상림뜰에<sup>738)</sup>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sup>739)</sup>나 풍년이 들었던단다.  
 나도 오늘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가슴 쿵쿵 두드리고,  
 목제비질<sup>740)</sup>을 덜컹.<sup>741)</sup>  
 내리둥굴<sup>742)</sup> 치둥굴며<sup>743)</sup>  
 죽기로만 작정을 하는구나.

I traveled a lot with you in my arms and you grew up.  
I could get off various anxieties thanks to you.  
I can't believe what you just said.  
I don't want to open my eyes."  
The sailors are outside of the gate.  
"Miss Sim, the tide goes down!"  
They press her hard.  
Mr. Sim hears them.  
He falls over and runs unsteadily to them.  
"You savage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where did you learn sacrificing a human to hold a ritual?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 virtuous ancient king said that he would rather serve as the  
sacrifice.  
He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I will go instead of my daughter today!  
I don't want money, rice, or eyes."  
He hits his chest hard.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 27.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선인들이 이 정상<sup>744</sup>)을 보고

심봉사를 가궁히<sup>745</sup>) 여겨,

백미<sup>746</sup>) 백 석,<sup>747</sup>) 마포,<sup>748</sup>)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내주었겠다.

심청이 하릴없이<sup>749</sup>) 부친을 동네 어른들께 부탁하고

선인들을 따라가는데,

[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초마<sup>750</sup>) 자락을 거듬거듬<sup>751</sup>)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 사뭇 젖네.

엎더지며<sup>752</sup>) 자빠지며

천방지축<sup>753</sup>) 따라갈 제,

건넌 마을 바라보며,

“이진사댁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일에 앵두 따고 노든<sup>754</sup>) 일을 네가 행여 생각느냐?<sup>755</sup>)

금년 칠월칠석야에<sup>756</sup>) 함께 결교<sup>757</sup>)허잖더니<sup>758</sup>)

이제는 하릴없다.

상침질<sup>759</sup>) 수놓기를 놀과<sup>760</sup>) 함께 허자느냐?

너희는 양친이 구존<sup>761</sup>)허니,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슬하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iero다.”

동리<sup>762</sup>)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붉게 모도<sup>763</sup>) 울고,

하나님도 아웁신지,

백일<sup>764</sup>)은 어디 가고 음운<sup>765</sup>)이 자욱하여

청산도 찡그난 듯,<sup>766</sup>)

**27. (Leaving with the Sailors) Sim Cheong cries sadly  
a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Aniri] The sailors have been watching the scene.  
They take pity on Mr. Sim.  
They give him 100 bags of rice and ramie cloths that he can  
use for the rest of his life.  
She asks the villagers to take care of her father.  
She goes with the sailors.  
[Jungmori] Sim Cheong leaves. She leaves.  
She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again and again.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falls down and over.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over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house!  
Do you remember we had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sked me to be your friend on July 7th this year.  
It is futile now.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You have parents.  
Be happy with them.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All villagers weep till their eyes swell.  
God must know this situation too.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The mountains appear to frown.

초목도 눈물진 듯.  
 휘날어져 곱던 꽃이 이울고져<sup>767)</sup> 빛을 잃고,  
 춘조<sup>768)</sup>는 다정하여 백반제송<sup>769)</sup>허는 중에,  
 “묻노라 저 찌꼬리,  
 뉘를 이별하였는지  
 환우성<sup>770)</sup> 지어 울고,  
 뜻밖에 두견이는 ‘귀촉도,<sup>771)</sup> 귀촉도, 불여귀<sup>772)</sup>라  
 가지 위에 앉아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찌 돌아오리?”  
 한 곳을 당도하니,  
 광풍<sup>773)</sup>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치니,  
 꽃을 들고 허는 말이,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낙화래랴?<sup>774)</sup>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sup>775)</sup>  
 죽으러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라마는  
 수원수구<sup>776)</sup>를 어이 허리?”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울며불며 길을 걸어,  
 강변<sup>777)</sup>을 당도하니,  
 선두<sup>778)</sup>에다 족관<sup>779)</sup> 놓고 심청을 인도하는구나.



Grass and trees appear to shed tears.  
 Beautiful drooping flowers lose their color.  
 All spring birds are warmhearted to sing sad song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says, 'No return. No return.'  
 You cry on a branch.  
 But how will I come back when I was sold at a price?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A strong wind blows.  
 A petal of a sweetbrier flies on to Sim Cheong's face.  
 She grabs it and says,  
 "If the spring wind doesn't know how I feel,  
 why would it send the falling petal to me?  
 An ancient princess once decorated herself with ume blossoms.  
 But I am on my way to die.  
 When will I come back?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But whom can I resent?"  
 She walks in tears without knowing her own walking.  
 They arrive by a river.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and lead Sim  
 Cheong.

## 28.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의 경관을 보고 슬퍼한다.

[아니리] 이 때에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직하고,  
공선<sup>780</sup>)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sup>781</sup>) 없이 만경창과<sup>782</sup>)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죽판 떼고 행선을 하는데,  
[진양조] 범피중류<sup>783</sup>) 등덩실<sup>784</sup>) 떠나간다.  
망망현<sup>785</sup>) 창해<sup>786</sup>)이며,  
탕탕현<sup>787</sup>) 물결이라.  
백빈주<sup>788</sup>) 갈매기는 홍요안<sup>789</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790</sup>)의 기러기는 한수<sup>791</sup>)로 돌아든다.  
요량한<sup>792</sup>) 남은 소리  
어적<sup>793</sup>)이 여그런만,<sup>794</sup>)  
곡종인불견에 수봉만 푸르렀다.<sup>795</sup>)  
애내성중만고수<sup>796</sup>)는 날로<sup>797</sup>) 두고 이름인가?  
장사<sup>798</sup>)를 지내가니  
가태부<sup>799</sup>) 간 곳 없고,  
떡라수<sup>800</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801</sup>) 어복충훈<sup>802</sup>)  
무량<sup>803</sup>)도 하시던가?  
황학루<sup>804</sup>)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sup>805</sup>)는  
최호<sup>806</sup>)의 유적<sup>807</sup>)이라.  
봉황대<sup>808</sup>)를 돌아드니

28.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Aniri] Sim Cheong says goodbye to the world.  
She moves onto the empty boat.  
The boat drifts permanently on vast blue sea without a clear  
direction.  
They take off the plank and leave.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approaches from a distant pla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A famous ancient official, Jia Yi(賈誼), has gone.  
A big river is seen.  
A famous ancient poet, Qu Yuan(屈原),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Huanhelou(黃鶴樓).  
The sun sets.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That is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灝).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삼산반락청원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809)</sup>는  
 이태백<sup>810)</sup>이 노던<sup>811)</sup> 데요,  
 심양강<sup>812)</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813)</sup> 일거 후에<sup>814)</sup>  
 비파성<sup>815)</sup>이 끊어졌다.  
 적벽강<sup>816)</sup>을 당도하니  
 소동파<sup>817)</sup> 노던 풍월<sup>818)</sup>  
 의구허여<sup>819)</sup> 있다마는,  
 조맹덕<sup>820)</sup> 일세지웅<sup>821)</sup> 이금에 안재재오?<sup>822)</sup>  
 월락오제<sup>823)</sup> 깊은 밤에  
 고소성외<sup>824)</sup> 배를 매니,  
 한산사<sup>825)</sup> 쇠북소리<sup>826)</sup> 객선에<sup>827)</sup> 텅 텅 들리는구나.<sup>828)</sup>  
 진회수<sup>829)</sup>를 건너가니,  
 격강의<sup>830)</sup> 상녀<sup>831)</sup>들은  
 망국한<sup>832)</sup>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에<sup>833)</sup>  
 후정화<sup>834)</sup>만 부르는구나.<sup>835)</sup>  
 악양루<sup>836)</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837)</sup> 솟았는 듯,  
 무산<sup>838)</sup>의 돌는 달은 동정호<sup>839)</sup>로 비쳐오니,  
 상하천광<sup>840)</sup>이 거울<sup>841)</sup> 속에 푸르렀다.  
 창오산<sup>842)</sup>이 아득하니, 황룡묘<sup>843)</sup> 잠겼어라.  
 삼협<sup>844)</sup>의 잔나비<sup>845)</sup>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sup>846)</sup>소인<sup>847)</sup>이 눈물을 몇몇이나 뿌렸든가?  
 팔경을 다 본 후에,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an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Juyi(白居易),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ve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The bell sounds from a buddhist temple reach the travelers'  
 boat.  
 The boat gets to famous rivers.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wa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wa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ang songs.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like a mirror.  
 A smoke on a mountain covers the shrine for the two queens  
 :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apes of three valleys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Sim Cheong finishes watching Eight Scenes.

## 29. (원혼 만남) 심청이 배를 타고 가며 열녀와 충신들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레] 한 곳을 당도하니,  
향풍<sup>848</sup>)이 일어나며  
죽림<sup>849</sup>) 사이로 옥패<sup>850</sup>)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sup>851</sup>)을 높이 쓰고 신음거려<sup>852</sup>)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sup>853</sup>)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내가떨이라.<sup>854</sup>)  
천추<sup>855</sup>)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효<sup>856</sup>) 너를 보니  
오죽이나 음전허냐?<sup>857</sup>)  
요순 후 기천 년에<sup>858</sup>)  
지금은 천자 어느 뉘며,<sup>859</sup>)  
오현금<sup>860</sup>) 남풍시<sup>861</sup>)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수로<sup>862</sup>) 먼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는 뉘고허니<sup>863</sup>) 요녀순처 만고열녀 이비로다.<sup>864</sup>)  
소상강<sup>865</sup>) 바빠 건너 서산<sup>866</sup>)을 당도하니,  
광풍<sup>867</sup>)이 대작하며<sup>868</sup>)  
찬 기운이 소삼더니<sup>869</sup>)  
어떠한 신이 나오는데,  
키는 구 척이요,  
면여거륜<sup>870</sup>)하야  
미간이 광활하고,<sup>871</sup>)

29. (Meeting Vindictive Spirit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on the  
boat.

[Jungmori]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A fragrant wind blows.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wearing divine hats groan as they come out.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our sad story.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s will disappear.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Today, we saw you, a good daughter.  
You look graceful.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our kings, Yao(堯) and  
Shun(舜), died.  
How is the king now?  
Are his pentachord and poem inherited?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They are the two famous princesses and faithful queens of  
ancient time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boat passes by a river and arrives at a shrine.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certain warrior shows up.  
He is nine feet tall.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릅쓰고<sup>872)</sup>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우리 오왕,  
 백비<sup>873)</sup>의 참소 듣고  
 속루검<sup>874)</sup>을 나를 주어 목 찢러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 이 물에 던졌더니,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의 멸오함을 보려고,<sup>875)</sup>  
 내 일찍 눈을 빼어 동문상에다 달고 왔네.<sup>876)</sup>  
 세상에 나가거든 내 눈 찾아 전해주소.  
 천추에 깊은 한은 눈 없는 것이 한이로세.”  
 홀연 간 곳 없고  
 물만 와르르르르르 출렁.  
 이는 넋고허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sup>877)</sup>라.  
 맥라수<sup>878)</sup>를 당도허니  
 어떠한 두 사람이 택반<sup>879)</sup>으로 나오는데,  
 앞서 오는 한 사람 슬피 통곡 우는 말이,  
 “진나라 속임 입어 삼년 무관의 고국을 바라보며<sup>880)</sup> 미귀혼<sup>881)</sup>이 되  
 었더니,  
 박랑퇴성<sup>882)</sup> 반기<sup>883)</sup> 듣고  
 숙절없는 동정 달에<sup>884)</sup> 헛 춤만 추었노라.”<sup>885)</sup>  
 뒤에 오는 한 사람은 왕자<sup>886)</sup>의 기상이나  
 얼굴이 초췌<sup>887)</sup>허고  
 형용<sup>888)</sup>이 고고<sup>889)</sup>허니,



His eyes are closed.  
His body is wrapped with a leather.  
He runs out quickly.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my story.  
I resent my king.  
He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a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kill myself in the throat.  
My body was wrapped up with a leather and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so resentful that in order to watch the downfall of my country,  
I gouged out my eyes and hung them on the east gate.  
If you go out to the world, find my eyes for me.  
I am resentful forever because I don’t have eyes.”  
He suddenly disappears.  
Only waves are heard.  
This is a famous loyal subject of ancient times.  
The boat now arrives at a big river.  
Two men show up on a hill near a pond.  
One of them in the front says in a sad voice,  
“Deceived by my rival country, I died while missing my country for three years.  
I was glad to hear the sound of an iron hammer.  
I danced in vain when the moon was reflected on a lake.”  
The other man behind him appears to be a king.  
His face is haggard.  
He looks thin and lean.

이는 초나라의 굴원<sup>890)</sup>이로다.  
 ‘죽은 지 수천 년에 정혼<sup>891)</sup>이 남아 있어  
 사람의 눈에 와 보일진대,  
 이도 또한 귀신이라.  
 내가 죽을 징조로구나.’  
 [진양조] 배의 밤이 몇 밤이며,  
 물의 날이 몇 날이나 되든고?  
 무정한 사오삭<sup>892)</sup>을 물과 같이 흘리가니,  
 금풍삽이석기하고  
 옥우괵이쟁영이라.<sup>893)</sup>  
 낙하는 여고목제비하고  
 추수공장천일색이라.<sup>894)</sup>  
 강안에 굴농 황금이 천편,<sup>895)</sup>  
 노화에 풍기허니 백설이 만점이라.<sup>896)</sup>  
 심포세류<sup>897)</sup> 지는 잃은 만강추풍<sup>898)</sup>에 흩날리고,  
 옥로청풍<sup>899)</sup> 불었난디,  
 외로울사 어선들은 등불을 도도키고<sup>900)</sup> 어가<sup>901)</sup>로 화답을 허니,  
 돌우나니 수심이요,  
 해반청산<sup>902)</sup>은 봉봉이 칼날 되어  
 녹는 것이 간장이라.<sup>903)</sup>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고?<sup>904)</sup>  
 송옥<sup>905)</sup>의 비추부<sup>906)</sup>가 이에서<sup>907)</sup> 슬프리오?  
 동녀<sup>908)</sup>를 실었으니  
 진시황의 채약 땀가?<sup>909)</sup>  
 방사<sup>910)</sup>는 없었으나

He is an ancient scholar, Qu Yuan(屈原).  
'souls of people who died thousands of years ago  
are seen to human eyes.  
So he must be a spirit too.  
This is a sign that I will die.'

[Jungmori] How many nights did I spend on the boat?  
How many days did I spend on the sea?  
Several crue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n arrow.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falling evening glow.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fall are of the same color.  
Tangerines on the bank of a river are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White flowers are scattered by a wind like snow.  
Fall winds disperse the leaves of the willows around a river.  
The leaves contain a clear dew and a cool wind.  
Lonely fish boats hang lamps high and respond with a fishing song.  
What rises up is anxiety.  
The peaks of a green mountain on the beach are sharp.  
What melts down are a liver and intestines.  
The sun sets in the late fall.  
Where should I pay a tribute to the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Would the poem by an ancient poet be more sad than this?  
Girls are on the boat.  
So is it an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herb?  
A student is not on the boat.

한무제<sup>911</sup>)의 구선<sup>912</sup>) 뱀가?

“지례<sup>913</sup>) 내가 죽자허니 선인들이 수직<sup>914</sup>)을 허고,

살아 실려 가자허니 고국이 창망<sup>915</sup>)이라.

죽도 사도 못허는 신세를,

아이고, 이를 어이를 할까나?”

### 30.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하여 심청은 아버지 눈뜨 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옛모래] 한 곳 당도허니

이는 곧 인당수라.

어룡<sup>916</sup>)이 싸우는 듯,

벽력<sup>917</sup>)이 내리는 듯,

대양<sup>918</sup>)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 뒤섞여 저저진<sup>919</sup>)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져

천지 적막헌디,

까치늪<sup>920</sup>) 떠들어와 뱃전머리<sup>921</sup>) 탕탕,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

도사공<sup>922</sup>) 영좌<sup>923</sup>) 이하 황황급급<sup>924</sup>)하야 고사기계<sup>925</sup>)를 차릴 제,

섬쌀<sup>926</sup>)로 밥 짓고,

온 소<sup>927</sup>) 잡고,

동우<sup>928</sup>) 술, 오색 탕수<sup>929</sup>) 삼색 실과<sup>930</sup>)를 방위 찾아 갈라놓고,

산 돌<sup>931</sup>) 잡아

But is it another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god?  
"I want to kill myself, but the sailors are watching me.  
I want to go back alive, but my country is far from here.  
My fate allows me neither to die nor to live.  
Alas! What should I do?"

**30.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Eot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It is as if a fish and a dragon fought with each other.  
It is as if thunder fell down.  
A wind generates waves in the wide sea.  
A heavy fog moves around.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four directions.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hard on the bow of the boat.  
Waves run wildly around the boat.  
The leader of the sailors and the rest quickly prepare for a rite.  
They cook a bag of rice.  
A cow is killed.  
A jar of wine, soups of various colors, and diverse fruit are put  
in appropriate places.  
A live pig is slaughtered.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동 바라.  
 심청을 목욕 시켜 뱃전머리<sup>932</sup>) 앓힌 후에,  
 도사공 보소.  
 의관<sup>933</sup>)을 정제<sup>934</sup>)허고, 복채를 양 손에 쥐고.  
**[자진모리]**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 둥 둥 두리둥 둥 둥 둥 둥.  
 “헌원씨<sup>935</sup>) 배를 무어<sup>936</sup>) 이제불통<sup>937</sup>) 헌 연후에,<sup>938</sup>)  
 후생<sup>939</sup>)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sup>940</sup>)허니  
 막대한 공 이 아니냐?  
 하후씨<sup>941</sup>) 구년치수<sup>942</sup>) 배를 타고 다사릴<sup>943</sup>) 제,  
 오복의 정한 공수<sup>944</sup>) 구주<sup>945</sup>)로 돌아들고,  
 오자서<sup>946</sup>) 분오할 제<sup>947</sup>) 노가로 건너주고,<sup>948</sup>)  
 해성의 패한 장수<sup>949</sup>) 오강<sup>950</sup>)으로 돌아들어 우선대기<sup>951</sup>) 건너주고,  
 공맹<sup>952</sup>)의 탈조화<sup>953</sup>)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 대병 주유<sup>954</sup>)로 화공<sup>955</sup>)하니,  
 배 아니면 어이허리?”  
 그저 북을 두리둥 둥 둥 둥 두리둥 둥 두리둥 둥 둥.  
 “주요요이경양<sup>956</sup>)은 도연명<sup>957</sup>)의 귀거래,<sup>958</sup>)  
 해활한 고범주난<sup>959</sup>) 장한의 강동거<sup>960</sup>)요,  
 임술지추칠월<sup>961</sup>)에 소동파<sup>962</sup>) 놀아 있고,  
 지국충<sup>963</sup>) 어사와<sup>964</sup>)허니  
 고예승류무정거<sup>965</sup>)난 어부의 질검,<sup>966</sup>)  
 계도란예화정표난 오희월녀채련주요,<sup>967</sup>)  
 타고 발선<sup>968</sup>)허고 보니 상고선<sup>969</sup>)이 이 아니냐?  
 우리 선인 스물네 명 상고<sup>970</sup>)를 위업<sup>971</sup>)하야  
 경세우경년<sup>972</sup>)에 표박서남을 다니다가,

It is hung on a big knife as if it crawled.  
 Behold the leader of the sailors.  
 He has Sim Cheong take a bath and sit at the bow.  
 Behold the leader.  
 He puts on formal clothes and holds two drumsticks.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n ancient king made a boat so that we could go anywhere.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Isn’t th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dealt with the nine year flood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When an ancient warrior fled, he crossed a river with a boat song.  
 A defeated ancient warrior, Xiang Yu(項羽), came to a river and crossed it for a future counterattack.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Kong Ming(孔明), created a southeast wind.  
 He had a warrior attack a million troops of Cao Cao(曹操) with fire on a river.  
 All these things were possible thanks to boats.”  
 The leader hits the drum: tom-tom, boom-boom.  
 “An ancient poet said a boat shakes and moves forward.  
 Another ancient poet said a lonely sailing boat leaves slowly on the vast sea.  
 Another ancient poet wrote a great poem on a boat in autumn.  
 Let’s pull up the anchor and row the boat.  
 It is a fisherman’s fun to stop rowing and follow the current forever.  
 In ancient times, some women picked up lotus on a boat on a river.  
 We sailed on this business boat.  
 We, 24 sailors, took doing business as our profession.  
 We have traveled many places for several years.

오늘날 인당수 인제수<sup>973</sup>)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축융이며,  
 북해신 우강<sup>974</sup>)이며,  
 강한지장<sup>975</sup>)과  
 천택지군<sup>976</sup>)이  
 하감<sup>977</sup>)하여 주옵소서.  
 비렴<sup>978</sup>)으로 바람 주고,  
 화락<sup>979</sup>)으로 인도하여  
 환난<sup>980</sup>)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sup>981</sup>) 퇴<sup>982</sup>)를 내어  
 돛대 위에 봉기<sup>983</sup>) 꽃고, 봉기 위에 연화<sup>984</sup>) 반게 점지하야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마는,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데,  
 “도화동이 저기 운애<sup>985</sup>)만 자욱헌 데가 도화동이요.”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정화수<sup>986</sup>) 떠 받쳐놓고 분향사배 우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하릴없이 죽사오니,  
 아버지는 어서 눈을 떠 대명천지<sup>987</sup>) 다시 보고, 칠십생남<sup>988</sup>) 하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sup>989</sup>) 퇴를 내어 본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 주  
 읍소서.”



Today, we offer a human sacrifice at Indang Water.  
 The god of the east sea,  
 the god of the west sea,  
 the god of the south sea,  
 the god of the nor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good care of us.  
 Give us a wind via the god of the wind,  
 lead us to peace and happiness,  
 protect us from a disaster,  
 help us make a lot of profits,  
 and help us hang the banner of success and a lotus flower on  
 our mast!"

The rite is over.  
 "Miss Sim, get into the water!"  
 He presses her hard.  
 She heard the request that she die.  
 "Hello, sailors! Where is Peach Blossom Village?"  
 The leader steps forward and holds up his hand.  
 "Peach Blossom Village is below the thick clouds and fog over  
 there."  
 After hearing him, Sim Cheong bows four times in front of a  
 bowl of clean water and weeps.  
 "Alas, father! I am dying now.  
 Please open your eyes, see the bright world, and have a son  
 at the age of seventy.  
 Hello, sailors!  
 Please make a lot of money, go back to our country, and  
 console my father."

“글랑은<sup>990</sup>)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라!”  
 [휘모리] 심청이 거동 보라.  
 샛별같은 눈을 감고,  
 치마 자락 무릅쓰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우루루루루.  
 만경창과<sup>991</sup>) 갈매기격으로<sup>992</sup>) 물에 가 ‘퐁!’ 빠져 놓으니,

### 31.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후 이를 지켜보던 선인들이 울며 떠나간다.

[진양조] 향화<sup>993</sup>)는 풍랑을 좇고,  
 명월은 해문<sup>994</sup>)에 잠겼도다.  
 영좌<sup>995</sup>)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sup>996</sup>) 화장<sup>997</sup>)이 모두 운다.  
 “장사도 좋거니와  
 우리가 연년이<sup>998</sup>)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sup>999</sup>)가 잘 되겠느냐?”  
 영좌도 울고, 집좌<sup>1000</sup>)도 울음을 울며,  
 “명년부터는 이 장사를 구만두자.  
 닷 감어라.  
 어기야 어야 어야 어기야 어기야.  
 우후청강<sup>1001</sup>) 좋은 흥<sup>1002</sup>)을,  
 묻노라, 저 백구<sup>1003</sup>)야.  
 흥요월색<sup>1004</sup>)이 어느 곳고?<sup>1005</sup>)  
 일강세우노평생<sup>1006</sup>)에 너는 어이 한가하더냐?”  
 범피창과<sup>1007</sup>) 높이 떠서 도용도용<sup>1008</sup>) 떠나간다.

“Don’t worry about that.  
Jump into the water now!”  
[Hwimori] Behold Sim Cheong!  
She closes her beautiful eyes.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staggers and runs to the bow.  
She jumps into the vast sea like a seagull.

### 31. (The Sailors Sigh.) Sailors watch Sim Cheong jump into the water, and leave weeping.

[Jinyangjo] A burning incense follows the wind.  
The full moon is immersed in the horizon.  
All sailors - the leader, rowers, assistants, and the cooks - weep.  
“Doing business is okay.  
But every year, we have been sacrificing human beings here.  
Would our children be successful?”  
The leader and his men sob.  
“From next year on, let’s stop this business.  
Pull up the anchor.  
Yo-heave-ho!  
The view of the river after the rain gives rise to a good feeling.  
I ask you, seagull,  
Where does the moonlight shine on the red stems of water  
peppers in autumn?  
How can you spend your whole life leisurely on a rainy river?”  
The boat leaves, floating on the blue sea.

### 32.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극진히 모셔 수정궁으로 데려간다.

[아니리] 그 때에 심청이는 이 세상에서 꼭 죽은 줄 알고 있으련마는,  
이러한 출천대효를 어찌 하늘이 그저 둘 리가 있겠느냐?

옥황상제<sup>1009</sup>)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sup>1010</sup>)하시되,  
“오늘 무릉촌 심학규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 터이니,  
착실히 모셔 들여라.”

용왕이 수명<sup>1011</sup>)하고 심소저<sup>1012</sup>)를 환수<sup>1013</sup>)할 제,  
시녀를 불러들여,

“오늘 묘시 초<sup>1014</sup>)에 심소저가 인당수에 들 터이니,  
백옥교<sup>1015</sup>)에 착실히 모셔들여라.”

시녀 분부 듣고 인당수에 내달으니,<sup>1016</sup>

심낭자 물에 들거늘,

“용왕의 분부 듣고 심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어서 옥교<sup>1017</sup>)에 오르옵소서.”

심소저 이 말 듣더니,

“어찌 미천<sup>1018</sup>)한 사람으로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타지 않으시면 옥황상제께옵서 중죄<sup>1019</sup>)를 내리실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낭자 마지못해 그 백옥교를 타고 수궁을 들어오는데,

[엇모래] 위의<sup>1020</sup>)도 장할시고.<sup>1021</sup>

위의도 장할시고.

천상 선녀 선관<sup>1022</sup>)들이 심소저를 보라하고,

32.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respectfully takes Sim Cheong to the  
dragon palace.

[Aniri] In the meantime, people thought that Sim Cheong died.  
Heaven would not just watch the good daughter die.  
The King of Heaven calls and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Sim Hak-gyu's daughter will jump into Indang Water today.  
Serve her well."

Under the order, the dragon king welcomes Miss Sim.

He calls his maids.

"Miss Sim will jump into Indang Water today.

Pick her up with the white jade carriage with respect."

With the order, the maids go to Indang Water.

Miss Sim jumps into the water.

"We are here to meet you under the dragon king's order.

Please get on the carriage."

Sim Cheong responds,

"I am a humble human being.

How can I get on the jade carriage?"

"If you don't get on it, the King of Heaven will severely punish  
us all in the dragon palace.

Please don't decline."

She has no choice but to get on the white jade carriage to the  
sea palace.

[Eotmori] How magnificent!

How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want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태을진<sup>1023</sup>) 학을 타고,  
 안기생<sup>1024</sup>)은 구름 타고,  
 적송자<sup>1025</sup>) 난<sup>1026</sup>)을 타.  
 갈선웅<sup>1027</sup>) 사자 타고,  
 고래 탄 이적선,<sup>1028</sup>)  
 청의동자,<sup>1029</sup>) 홍의동자<sup>1030</sup>) 쌍쌍이 모셨네.  
 월궁향아,<sup>1031</sup>) 마고선녀,<sup>1032</sup>) 남악부인,<sup>1033</sup>)  
 팔선녀들<sup>1034</sup>)이 좌우로 모셨난디,  
 풍악을 갓출 제,  
 왕자 진<sup>1035</sup>)의 봉피리<sup>1036</sup>) 네나니 나니나노.  
 괘처사<sup>1037</sup>) 죽장구<sup>1038</sup>) 찌리렁 쿵 쟁 쿵.  
 성연자<sup>1039</sup>) 거문고 둥덩 둥덩.  
 장자방<sup>1040</sup>)의 옥통소 뽀뽀루 디루.  
 혜강<sup>1041</sup>)의 해금<sup>1042</sup>)이며, 완적<sup>1043</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044</sup>)  
 능파사,<sup>1045</sup>) 보허사,<sup>1046</sup>)  
 우의곡,<sup>1047</sup>) 채련곡<sup>1048</sup>) 곁들여다<sup>1049</sup>) 노래할 적,  
 낭자<sup>1050</sup>)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패용골이위량하니 영광이 조일이요,  
 집어린이작와하니 서기 반공이라.<sup>1051</sup>)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sup>1052</sup>)  
 산호 주렴,<sup>1053</sup>)  
 백옥 안상<sup>1054</sup>) 광채도 찬란허구나.  
 주찬<sup>1055</sup>)을 들일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bird.  
 Another is on a lion.  
 Another is on a whale.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e crossbeam made of dragon bones reflects divine light on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It is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represent the five blessings.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Divine food and wine are brought in.

유리잔<sup>1056</sup>) 호박병<sup>1057</sup>)에 천일주<sup>1058</sup>)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sup>1059</sup>)를 덩그렇게<sup>1060</sup>) 괴었으니,<sup>1061</sup>)  
 세상의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sup>1062</sup>)허고, 오일에 대연허며<sup>1063</sup>) 극진히 봉공<sup>1064</sup>)한다.

### 33.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옥진부인이 된 모친과 만난다.

[아니리]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부인<sup>1065</sup>)이 내려오시는데,  
 이 부인은 뉘신고 허니,  
 세상의 심학규 아내 꼭씨로다.  
 심소저 수궁 들어올 줄 알고  
 모녀 상봉차<sup>1066</sup>)로 하강을 허시는데,  
 [진양조] 오색채단<sup>1067</sup>)을 기린에 가득 싣고,  
 벽도화<sup>1068</sup>) 단계화<sup>1069</sup>)를 사면에 벌여 꽂고,  
 청학, 백학은 전배<sup>1070</sup>) 서서 수궁에 내려올 제,  
 용왕도 황급<sup>1071</sup>)하야 문전에 배례<sup>1072</sup>)할 제,  
 부인이 들어와 심청 보고 반기하여,  
 와락 뛰어 달려들어 심청 손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낳은 꼭씨로다.  
 그간 십여 년에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히<sup>1073</sup>) 되어,  
 천상에 올라가 광한전 옥진부인이 되었더니,  
 네가 수궁에 들어왔단 말을 듣고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These things can't be seen in the human world.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33.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who  
became a goddess.**

[Aniri] The goddess of the moon comes down to the earth.  
Who is the goddess?  
She was Mrs. Gwak, Sim Hak-gyu's wife in the human world.  
She knows that Miss Sim stays in the sea palace.  
She is coming down to meet her.  
[Jinyangjo] The goddess comes down with a giraffe carrying silks  
of various colors.  
She is decorated with divine blue peach flowers and cinnamon  
flowers.  
She is escorted b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The dragon king bows to her at the gate.  
The goddess is glad to see Sim Cheong.  
She runs to Sim Cheong and grabs her hands.  
"You must not know me.  
I was your mother in the human world.  
Since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your father must be old  
now.  
I became noble after I died.  
I am now the goddess of the moon in heaven.  
I heard you are in the sea place.

상봉차로 내 왔노라.

입모습 생긴 것이 어찌 아니 내 딸이라?

귀와 목이 희었으니, 너의 부친 분명하다.

뒷마을 귀덕어미 공을 어이 갚을거나?

네 낳은 칠일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십오년 고생이야 어찌 다 말할쏘냐?”

심청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하고,

“아니고,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세상을 떠나신 후,

앞 못보는 아버지는 동냥젖 얻어 맥여

십오세가 되었으나,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이곳에 들어와 어머니를 만나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던 날 부친전에 이 말씀을 여쭙었다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sup>1074</sup>) 위로하올 텐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뉘를 믿고 사오리까?”

부인도 울며 하는 말이, “너나 세상을 다시 나가,

너의 부친 다시 만나 만종록<sup>1075</sup>)을 누리면서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한전 말은 일이 직분<sup>1076</sup>)이 허다<sup>1077</sup>)허여

오래 쉬기 어려워라.”

옥패<sup>1078</sup>) 소리가 쟁쟁<sup>1079</sup>) 나더니마는

오색채운<sup>1080</sup>)으로 올라가니,

심소저 모친 따라갈 수도 없고,

가는 곳만 우두머니<sup>1081</sup>)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I am here to see you.  
Looking at your mouth, I can see you are my daughter.  
Your ears and neck resemble that of your father.  
How can I return Mrs. Gwideok's favor?  
I left the worl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I trust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for the past fifteen years."  
Sim Cheong now thinks that the goddess is her mother.  
"Oh, mother.  
You left the world seven days after you gave birth to me.  
My blind father raised me by begging around for milk.  
I grew up to be fifteen.  
I sold myself at 300 bags of rice to open my father's eyes.  
I was brought here and met you.  
If I had known this, I would have told my father about it on  
the day of the departure.  
Then, he would have felt less sad after I had left him.  
Whom will my lonely father rely on?"  
The goddess speaks in tears, "You will go back to the human  
world.  
You will meet your father again and be served by the  
government.  
I have many things to do on the moon.  
I can't stay here for long."  
Jewels make clear sounds.  
The goddess flies up on clouds of various colors.  
Miss Sim can't follow her.  
She watches her going up vacantly.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separated again.

### 34. (심청 환생) 심청이 꽃 속에 환생하여 인당수로 나오니, 지나가던 도사공이 발견한다.

[아니리] 이렇듯 작별 후에,  
심낭자 방년<sup>1082</sup>)이 가까운지라,  
옥황상제께옵서 사해 용왕을 불러 또 다시 하교하시되,  
“심소저<sup>1083</sup>) 방년이 늦어가니  
어서 인간<sup>1084</sup>)으로 환생<sup>1085</sup>)하되,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하여 주어라.”  
용왕이 수명<sup>1086</sup>)하고 내려와  
심소저를 환송할 적,  
꽃 한 봉<sup>1087</sup>)을 조화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소저를 모시고, 양대 선녀<sup>1088</sup>)로 시위하여,  
조석지공<sup>1089</sup>)과 찬수범절,<sup>1090</sup>)  
금은 보패<sup>1091</sup>)를 많이 싣고  
용왕과 각국 시녀 작별 후 돌아서니,  
이는 곧 인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sup>1092</sup>)  
바람이 분들 요동<sup>1093</sup>)하며,  
비가 온들 젖을쏘냐?  
오색채운이 꽃봉이에 어리어  
주야로 등실 떠 있을 제,  
그 때여 남경 장사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sup>1094</sup>)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  
오다,  
인당수를 당도허니  
심소저 효행에 홀연히<sup>1095</sup>) 감동되는지라,

**34. (The Reincarnation of Sim Cheong)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and sent back to Indang  
River. The sailors spot the flower.**

[Aniri] Sim Cheong bid farewell to her mother.  
Miss Sim gets old enough to marry.  
The King of Heaven again calls the dragon king and gives him  
an order again.  
“Miss Sim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Send her back to the human world.  
Find a good man for her.”  
The dragon king comes down with the order.  
He sends her back to the human world.  
He makes a mysterious flower.  
She is escorted by two maids inside the flower.  
She is served with good meal day and night.  
She is served by two maids inside the flower.  
She says goodbye to the dragon king and his maids.  
She is at Indang Water now.  
The flower is the work of the dragon king.  
So wind cannot shake it.  
Rain cannot soak it.  
Colorful clouds surround it.  
It is afloat on the water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are on their way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money.  
They reach Indang Water.  
All of a sudden, they are reminded of Sim Cheong.

제물을 정히<sup>1096</sup> 차려놓고  
 심소저의 냇을 위로하는데,  
 [중모리] 북을 두리둥 등 올리면서, 슬픈 말로 제 지낼 적,  
 “냇이야, 냇이로다. 이 냇이 뉘 냇이냐?  
 오장원<sup>1097</sup>에 낙상<sup>1098</sup>하던 공명의 냇도 아니요,  
 삼년 무관의 초 회왕<sup>1099</sup>의 냇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낭자의  
 냇이로구나.  
 냇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sup>1100</sup>을 허옵소서.”  
 제물<sup>1101</sup>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떠 있는데, 세상의 못 본 바라.<sup>1102</sup>  
 도사공이 허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sup>1103</sup> 않소.  
 옛날 진평<sup>1104</sup>이가 범아부<sup>1105</sup>를 잡으라고, 황금 사만 근을 초진<sup>1106</sup>  
 중에다<sup>1107</sup> 흘렸으니  
 금이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그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출곤강<sup>1108</sup> 아니어든  
 옥 한 쪽이 있소리까?”<sup>1109</sup>  
 “그러면 그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이 당치 않소.  
 명사십리<sup>1110</sup>가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무엇이냐?

They prepare food for a ritual.  
 They conjure up Sim Cheong's soul to console it.  
**[Jungmori]** The sailors hit the drum, holding a rite in a sad voice.  
 "We are calling up a sou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who  
 got hurt from a fal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king who was held in hostage  
 for three years.  
 It is the soul of Miss Sim who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and  
 became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o open her father's eyes.  
 If you are with us, please help yourself with this food."  
 The sailors throw the offering over the sea.  
 They wipe out their tears.  
 Something unusual floats on the sea.  
 The leader asks, "What is that? Is that gold?"  
 "That can't be gold.  
 An ancient politician gave tons of gold to soldiers in order to  
 arrest an assassin."  
 So how can that be gold?"  
 "Is that jade, then?"  
 "That can't be jade.  
 This place is not the origin of jade.  
 Would there be a jade here?"  
 "Is that a wild rose, then?"  
 "That can't be a wild rose.  
 A sand beach is too far from here.  
 How can that be a wild rose?"  
 "Then, what is it?

가까이 가서 보자.

저어라, 저어라.”

“우겨라, 우겨라, 저어라, 저어라, 어기야 뒤여.”<sup>1111)</sup>

가까이 가서 보니, 향취<sup>1112)</sup> 진동허고,

오색채운<sup>1113)</sup>이 어렸구나.

### 35.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 친다.

[아니리] 가까이 가서 보니 꽃 한 봉이 떠 있구나.

배에 건져 놓고 보니,

크게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쿠나.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sup>1114)</sup> 남은 재물 각기 분재<sup>1115)</sup>할 적,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sup>1116)</sup>을 마다허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저의 집 후원에 두었구나.

그때에 송천자<sup>1117)</sup>께서 황후 봉<sup>1118)</sup>하신 후 남비<sup>1119)</sup>하기 뜻이 없고,

세상의 기화요초<sup>1120)</sup>를 구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조석으로<sup>1121)</sup> 화초를 구경할 제,

이것이 화초타령이겠다.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용군자용<sup>1122)</sup>

만당추수의 흥련화,<sup>1123)</sup>



Let's get close to it,  
Row the boat!"  
"Yo-ho! Yo-heave-ho!"  
On close look, the flower gives off a fragrant smell.  
Colorful clouds surround it,

**35. (Flower Song) The emperor loves flowers, and enjoys watching them. Knowing this,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y approach it, and realize that a flower floats on the sea.

They pull it up onto the boat.

It is as large as a wheel and gives off fragrance.

They come back to their country and divide their profits.

Somehow, the owner of the boat is not interested in the profits.

He only takes the flower.

He keeps it in the backyard of his house.

Meanwhile, the emperor remains un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collected all sorts of beautiful flowers and grass.

He plants them here and there.

He enjoys watching them day and night.

Here goes the flower song.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 fall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암향부동월황혼<sup>1124)</sup> 소식 전턴 한매화,<sup>1125)</sup>  
 진시유랑거후재<sup>1126)</sup>라 붙어 있다고 복송꽃,<sup>1127)</sup>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sup>1128)</sup>  
 삼천제자<sup>1129)</sup>를 강론<sup>1130)</sup>하니 행단춘풍의<sup>1131)</sup> 은행꽃,  
 이화만지불개문허니 장신궁중 배꽃이요,<sup>1132)</sup>  
 천태산<sup>1133)</sup> 들어가니 양변개작약<sup>1134)</sup>이요,  
 원정부지이별허니 옥창오건의 앵도화,<sup>1135)</sup>  
 축국한<sup>1136)</sup>을 못 이기어 제혈<sup>1137)</sup>허든 두견화,<sup>1138)</sup>  
 이화,<sup>1139)</sup> 노화,<sup>1140)</sup> 계관화,<sup>1141)</sup>  
 황국,<sup>1142)</sup> 백국,<sup>1143)</sup> 사계화,<sup>1144)</sup>  
 동원도리편시춘,<sup>1145)</sup>  
 목동요지가 행화춘,<sup>1146)</sup>  
 월중단계무삼경<sup>1147)</sup>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래, 난초, 파초,<sup>1148)</sup>  
 오미자, 치자,<sup>1149)</sup> 감과,<sup>1150)</sup> 유자,  
 석류, 비파,<sup>1151)</sup> 능금,  
 포도, 머루, 어름,<sup>1152)</sup> 대초,<sup>1153)</sup>  
 각색 화초, 갓은 향과<sup>1154)</sup> 좌우로 심었는데,  
 향풍<sup>1155)</sup>이 건듯<sup>1156)</sup> 불면, 벌, 나비, 새, 짐승들이 지지울며<sup>1157)</sup> 노닌다.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Ginkgo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on both sides of a road on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from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yellow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blooms in spring.  
 A shepa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a nut, citron,  
 pomegranate, loquat, apple,  
 grape, wild grape, clematis berry, and jujube.  
 Diverse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hen a gentle breeze  
 blows.

### 36.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며 즐기다가, 꽃 속에서 있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아니리] 이때에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당수 뒤편 꽃봉<sup>1158</sup>)을 어전<sup>1159</sup>)에 진상<sup>1160</sup>)하니, 천자 보시고, “세상에서는 못 본 꽃이로다.” 선인<sup>1161</sup>)을 입시<sup>1162</sup>)하여 치하<sup>1163</sup>)하신 후 무릉춘 태수<sup>1164</sup>)를 봉하였구나.

제수<sup>1165</sup>)허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다<sup>1166</sup>) 심어 놓으니,

[중모리] 천자 이 꽃 반기<sup>1167</sup>) 여겨,

요지 벽도화<sup>1168</sup>)를 동방삭<sup>1169</sup>)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못 다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에 떠왔는데,

그 꽃 이름은 강선화<sup>1170</sup>)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 적,

일야<sup>1171</sup>)는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에 거니는데,

뜻밖에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 둘이 서 있거늘,

천자 괴이히<sup>1172</sup>) 여겨,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나?”<sup>1173</sup>)

선녀 “예.” 하고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시녀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에<sup>1174</sup>) 천안<sup>1175</sup>)을 범하였사오니

황궁무지<sup>1176</sup>)하오이다.”

이 말이 지듯마듯<sup>1177</sup>) 인홀불견<sup>1178</sup>) 간 곳이 없다.

36. (The Emperor Sees Sim Cheong) While watching  
his flowers, the emperor sees goddesses in the  
flower.

[Aniri]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hears that the emperor seeks a beautiful flower.

He donate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The emperor responds, "I ha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wer."  
The emperor calls him into the palace and appoints him as a governor.

After appointing him, the emperor plants the flower in his garden.

[Jungmori] The emperor is joyous to see the flower.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So it can't be a divine peach blossom.

Did the lotus flower co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watches it day and night.

One night, he feels uneasy and takes a walk in the garden.

Unexpectedly, God Descending Flower opens up.

Goddesses stand there.

He is surprised.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A goddess responds, "I am a maid from the dragon palace of South Sea.

I escorted Miss Sim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Unexpectedly, we are spotted by you.

I feel nervous."

The moment she finishes, she disappears.

### 37. (추월만정) 심청이 황후가 되어, 부친 생각에 눈물짓는다.

[아니리] 황제 반기하야<sup>1179)</sup>

대강 연유<sup>1180)</sup>를 탐문<sup>1181)</sup>한 바, 세상의 심소저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sup>1182)</sup>으로 모신지라.

이튿날 조회<sup>1183)</sup> 끝에 만조백관<sup>1184)</sup>을 모아놓고 간밤 꽃 본 사연을 말씀하시니,

만조제신<sup>1185)</sup>이 여짜오되, “국모<sup>1186)</sup> 없으심을 하나님께서 아옵시고 인도하심이니,

천여불취면 반수기앙이라,<sup>1187)</sup>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 즉시 택일<sup>1188)</sup>하니, 오월 오일 갑자시라.

심황후 입궁<sup>1189)</sup> 후에 연년이<sup>1190)</sup> 풍년이요, 가가호호<sup>1191)</sup> 태평이라.

그때에 심황후는 부귀는 극진하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는 옥난간<sup>1192)</sup>에 빗겨<sup>1193)</sup> 앉어,

[진양조] 추월은 만정허여<sup>1194)</sup>

산호 주렴<sup>1195)</sup> 비쳐들 제,

청천<sup>1196)</sup>의 외기러기는 월하에<sup>1197)</sup>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길룩’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력아.

소중랑 북해상의 편지 전턴 기러기냐?<sup>1198)</sup>

도화동을 가져들랑 불쌍허신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 장 전하여라.”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라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37. (The Garden with the Bright Fall Moon) Empress  
Sim becomes an empress and in tears misses her  
father.**

**[Aniri]** The emperor is delighted.

After asking some questions, he comes to know about Miss Sim.  
He orders his maids to take her to the residence for empress.  
On the following morning, he discusses the matter about the  
flower with his subjects in a meeting.

The subjects say, "Heaven knows we don't have an empress, so  
it sent one to us.

There will be a disaster if you refuse your spouse from heaven.  
Please accept her as your wife."

Thinking that is right, the emperor selects the wedding date to  
be May 5th.

After Empress Sim entered the palace, they have good harvest  
every year and every family is happy.

Meanwhile, Empress Sim lives a noble life, but she only misses  
her father.

One night, she sits obliquely on a jade terrace.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s it flies away.

Empress Sim is dumfounded and speaks to the wild goose.

"Hey, wild goose coming over there!

Are you the wild goose which sent an ancient diplomat's letter  
to his country?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send a letter to my poor father."

Empress Sim goes in her room to write a letter.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두 자 쓰고 한 숨을 쉬니,  
 글자가 모두 수묵<sup>1199</sup>)이 되니,  
 언어가 오착<sup>1200</sup>)이로구나.  
 편지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sup>1201</sup>)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두렷이<sup>1202</sup>) 밝았구나.

### 38. (맹인 잔치 마련) 천자는 백일 동안 맹인 잔치를 열 것을 명하고, 심청은 부친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니리] 이때 천자 내궁<sup>1203</sup>)에 들어와  
 황후를 살펴보시니 수색<sup>1204</sup>)이 만면<sup>1205</sup>)하니,  
 “부는<sup>1206</sup>) 천하<sup>1207</sup>)를 차지하고,  
 귀는<sup>1208</sup>) 황후읍난디,<sup>1209</sup>)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심황후 여짜오되, “천하막비왕토<sup>1210</sup>)요  
 솔토지민이 막비왕민<sup>1211</sup>)이나,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일월<sup>1212</sup>)을 못 보니,  
 적포지한<sup>1213</sup>)을 풀어주심이 신첩<sup>1214</sup>)의 원이로소이다.”  
 “국모지덕행<sup>1215</sup>)이요.”  
 황제 칭찬하시고,  
 그날부터 맹인잔치를 여시는데,  
 각 도 각 읍으로 행관<sup>1216</sup>)하시되,  
 “대소 인민간에<sup>1217</sup>) 맹인 잔치 참여하게 하되,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Tears drop on the letter, making the characters blotted.  
Characters are mixed up.  
She holds the letter and opens the door.  
The wild goose is gone.  
Only stars and the moon twinkled brightly beyond the clouds  
far away.

**38. (Throwing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eror  
orders to throw a banquet for the blind. Sim  
Cheong waits for her father to show up.**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perceives the anxiety in the empress's face.  
"You are rich to have the whole country.  
You are noble to be an empress.  
Why are you in distress?"  
The empress replies, "Every piece of the land belongs to you.  
All people in this country are your people.  
The blind are the most miserable people.  
They can't see things in the world.  
I wish that we console them.  
"You are a virtuous empress."  
The emperor praises the empress.  
A banquet for the blind is held from the day on.  
An official letter is sent to each province.  
"Make sure that a blind person, young or old, joins the banquet  
for the blind.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골 수렁은 봉고파직<sup>1218</sup>)허리라.”  
이렇듯 전령<sup>1219</sup>)을 하여노니,  
어명인지라, 지어<sup>1220</sup>) 애기봉사까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 39.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sup>1221</sup>)  
지내갈 제,  
무릉춘 승상 부인이 심소저 효행에 감동되어  
망사대<sup>1222</sup>) 옆에다 타루비<sup>1223</sup>)를 세웠는데,  
그 비문<sup>1224</sup>)에 하였으되, ‘지우기친폐쌍안허여  
살신성효행선거라.  
연파만리상심벽허니  
방초년년환불귀’라.<sup>1225</sup>)  
이렇듯 비문을 하여 세워 놓으니,  
오고가는 행인들이 뉘 아니 슬퍼하랴?  
심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드면,  
지팽막대<sup>1226</sup>) 홀어 짚고<sup>1227</sup>) 더듬더듬 찾아가서 비문<sup>1228</sup>)을 안고 우  
더니라.  
일일도<sup>1229</sup>) 심봉사 마음이 산란허여  
지팽막대를 홀어 짚고, 타루비를 찾아가서,  
“허유!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또 왔다.

If a blind person fails to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of the relevant district will be fired.”

The order is stated as above.

With the order from the king, even a blind child is to attend the banquet.

### **39.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spends time shedding tears after losing his daughter.**

[Jinyangjo] Meanwhile, Mr. Sim, a die-hard person, manages to live on.

The noble lady is mov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She built a monument of tears near the tower.

The monument reads, ‘she worried that her old father was blind.

She sacrifice herself to serve her parent.

The water is always blue and deep with fog.

Flowers and grass become green every year, but she does not come back.’

The epitaph is inscribed in the monument as above.

Would there be a passerby who does not feel sad?

Whenever Mr. Sim misses his daughter,

he holds a cane, visits the tower, hugs the epitaph, and sheds tears.

One day, he feels uneasy.

He manages to walk to the tower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my baby. I am here again.

너는 애비 눈을 띄우려고 수중고혼<sup>1230</sup>)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냐?  
 날 데려가거라.  
 나를 데려가거라.  
 삼신<sup>1231</sup>) 부라퀴<sup>1232</sup>)야, 나를 잡아가거라.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비문 앞에 가 엎드려져서,  
 내리둥굴<sup>1233</sup>) 치둥굴<sup>1234</sup>)며,  
 머리도 찢고, 가삼<sup>1235</sup>) 꿩꿩,  
 두 발을 굴러  
 남지서지<sup>1236</sup>)를 가르치는구나.<sup>1237</sup>)

#### 40.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이웃에 사는 뽕덕이네는 심 봉사에게 자원출가하였는데, 얼굴이 박색이고 행실이 심술궂다.

[아니리] 낮이면은 강두에 가서 울고,  
 밤이면은 집에 돌아와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마침 본촌<sup>1238</sup>)에 묘한 여인네가 하나 사는디,  
 호<sup>1239</sup>)가 뽕파것다.  
 심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sup>1240</sup>)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 알지 못하게 자원출가<sup>1241</sup>)하였것다.

You became a lonely soul in water to open my eyes.  
My life is cruelly persistent.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Please take me there.  
Please take me there.  
Ghosts, take me there quickly.  
I don't want to liv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hard.  
He moves his legs wildly.  
His finger points to this and that direction randomly.

**40. (Bbaengdeok's Appearance and Behavior) Bbaengdeok,  
a female neighbor, voluntarily marries Mr. Sim.  
She is ugly and does bad things.**

[Aniri] Mr. Sim cries near the ferry during the day.  
He cries back in his house at night.  
He spends his days and nights crying.  
Meanwhile, there lives a strange woman in the village.  
Her name is Bbangdeok.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food and money thanks to his daughter.  
She voluntarily marries him without announcing to the villagers.

이 여인네가 어떻게 입주전부리<sup>1242</sup>)가 굶던지 말로 다 할 수 없던가  
보더라.

거, 불쌍한 심봉사 가산<sup>1243</sup>)을 꼭 먹성질<sup>1244</sup>)로만 탕진을 하느니,  
꼭 이리것다.

[자진모리]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이웃집에 밥불이기,<sup>1245</sup>)

동인<sup>1246</sup>) 잡고 욕 잘 하고,

초군<sup>1247</sup>)들과 싸움허기,

잠자며 이 갈기와 배 꿇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가는 행인다려<sup>1248</sup>) 담배 달라 힐난<sup>1249</sup>)허기.

힐끗<sup>1250</sup>)하면 헬끗<sup>1251</sup>)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뺨쭈<sup>1252</sup>)하면 뺨

쭈<sup>1253</sup>)하고, 뺨쭈하면 뺨쭈하고,

술 잔뜩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허랴 허고 단단히 믿었느니 해답<sup>1254</sup>)을 잘 하기와

신부 신랑 잠 자느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며, 봉  
창<sup>1255</sup>)에 입을 대고, ‘불이야!’

이년의 행실이 이러허여도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This woman's mouth is so voracious that it is beyond description.

She runs through his pathetic properties by eating them away.  
She behaves as follows:

**[Jajinmori]** Bbangdeok eats and drinks a lot.

She eats meat and rice cakes a lot.

She sells unshelled rice to buy and eat meat.

She orders meals from her neighbors.

She holds a villager and curses at him.

She fights with woodcutters.

While sleeping, she grinds her teeth and scratches her belly.

She shakes her feet, and cries at night.

She pesters a passer-by to give her tobacco.

She teases others with her peculiar facial expressions opposite to those of others.

She drinks a lot and takes a nap on a pavilion.

She speaks ill of a man and a woman who planned to marry later.

When a bride and bridegroom sleep, she approaches their room secretly and shouts "Fire!" at a window.

This woman behaves bad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 41. (뽕덕이네 가산 탕진) 뽕덕어미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 한 심봉사는 뽕인잔치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아니리] 어찌 미쳐 놓았던지,  
나무칼로 귀를 싹 베어가도 모르게 되었겠다.  
하루는 돈궤<sup>1256</sup>)에 손을 넣어 보니, 엽전 한 푼이 없겠다.  
“여, 뽕파, 돈궤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저러기에 외정<sup>1257</sup>)은 살림속을 몰라.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오고,  
이리저리 쓴 돈이 그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요?”  
“체!<sup>1258</sup>) 술, 고기, 떡, 담배, 많이 사다주더라.  
계집 먹은 것, 쥐 먹은 것이라더니, 할 수 있나?”  
하루는 관가<sup>1259</sup>)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즉,  
황성<sup>1260</sup>)서 뽕인 잔치를 배설<sup>1261</sup>)하였는데,  
만일 불참<sup>1262</sup>)하면 중죄<sup>1263</sup>)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고 노비<sup>1264</sup>)까지 후히<sup>1265</sup>) 내어주었구나.  
그 노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여보, 뽕파! 황성서 뽕인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잔치에 불참하면 중죄를 면치 못한다니,  
어서 올라가세.  
노비까지 후히 주데.”  
뽕파가 그의 노비까지 읍을<sup>1266</sup>) 양으로,  
“아이고, 영감! 여필종부<sup>1267</sup>)라니,



**41. (Bbaengdeok Wastes the Properties) Deceived by  
Bbaengdeok, Mr. Sim runs through his properties.  
He hears about the banquet for the blind and  
leaves for it.**

[Aniri] Mr. Sim is so crazy about Bbaengdeok  
he wouldn't even realize even if his ear were cut off with a  
wooden knife.

One day, he opens his safe and realizes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Bbaengdeok, why is it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in the  
money box?"

"Oh, honey!

That's why people say a man doesn't have an eye for finance.  
I bought you drinks, meat, rice cakes, and tobacco.

I used the money for that.

Do you think the money fell down from heaven?"

"What? You bought me a lot of wine, rice cakes, and tobacco?  
What a ravenous woman! I gave you up."

One day, he is called into the local government.

He hears that the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and that if he doesn't go there, he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y tell him to hurry, giving him a lot of travel money.

He takes the money and comes back home.

"Honey, a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If I don't attend the banquet, I will be severely punished.

So let's go there.

I got a lot of travel money."

Bbaengeok intends to swindle him out of his travel money.

"A woman is to follow her man.

천 리라도 만 리라도 영감 따라가제,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뺑파 같은 사람 없더라.  
 열녀다, 열녀여. 암, 백녀<sup>1268</sup>)지.”  
 행장<sup>1269</sup>)을 챙겨 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 가자니 섭섭하것다.

#### 42. (뺑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뺑덕이네는 황봉사와 도망해 버린다.

[중모리]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춘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sup>1270</sup>)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오랴느냐?  
 어이 가리너?<sup>1271</sup>) 어이 가리?  
 황성 천 리를 어이 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 잘거나?  
 조자룽이 월강<sup>1272</sup>)허든 청춘마<sup>1273</sup>)나 있거드면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요 내 다리로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어이 가리너. 어이 가리. 어이 가리너, 어, 어이를 갈거나?  
 황성 천 리를 어이 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sup>1274</sup>)나 좀 메겨주소.<sup>1275</sup>)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end of the earth.  
Do I have anybody else to follow?”  
“That sounds good. I have never seen a better woman than you.  
You are better than a virtuous woman.”  
They pack up things, and carry them on the shoulder and on  
the head.  
They feel sorry when they are about to leave Peach Blossom  
Village.

**42.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Jungmori] “Take care, Peach Blossom Village.  
Take care, Paradise Village.  
If I go now, when will I come back?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Where should I sleep tonight?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night?  
If I have the ancient warrior’s bluish horse, I can arrive there  
today.  
Given that I am blind, how many days should I walk to the  
capital city?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Hello, Bbaengdeok.”  
“Yes.”  
“Sing the travel song with me.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뽕덕이네가 길소리를 메기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경상도 메나리조<sup>1276</sup>)와 전라도 밭매기소리<sup>1277</sup>)를  
반반<sup>1278</sup>) 메기겠다.

“어이 가리너, 어이를 갈거나? 어이 가리너, 어이 갈거나?

날개 돌힌 학이나 되면, 수루루 펄펄 날아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봉사 가장 데리고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뽕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렇듯이 올라가다 일모<sup>1279</sup>)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그 때여 뽕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어<sup>1280</sup>)

심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에 도망을 허였는데,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구나.

**[아니리]** 심봉사 새벽잠 잠이 깨어,

“여보소, 뽕파! 뽕파!

어허, 오뉴월 삼복더위<sup>1281</sup>)라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sup>1282</sup>)로 한 사오십 리 쳐야<sup>1283</sup>) 할디.<sup>1284</sup>)

뽕파! 뽕파!”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여편네가 대답이 있겠느냐?

심봉사 겁이 왈각 나,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혹 안에 들어갔소?”

“아니오. 간밤에 어느 봉사와 밤길친다고<sup>1285</sup>) 벌써 떠났소.”

“뫼이 어째?

아니, 그러면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인자사<sup>1286</sup>) 그런 말을 허?”

My legs hurt.”

Bbaengdeok responds to him in the travel song.

She alternates the melodies from K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If I were a crane, I would fly to the capital city right awa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blind husband to the capital city?”

“Bravo! Bravo! You are the best, Bbaengdeok.”

As they travel, the sun sets.

They drop by an inn and go to sleep.

Meanwhile, Bbaengdeok falls in love with Mr. Hwang, a blind man, living nearby.

While Mr. Sim sleeps, they run away at nigh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Aniri] Mr. Sim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Hey, Bbaengdeok!

We can't walk in the middle of the day because it is too hot.

We should begin to walk early in the morning.

Bbaengdeok!”

Would she answer when she ran away?

Mr. Sim feels scared.

“Hello, landlady! Is my wife there?”

“No, she already left with a blind man, saying they would travel at night.”

“What did you say?

God! You are the landlady.

How can you say that now?”

“아, 그 봉사와 내외간<sup>1287</sup>인 줄 알았지,  
심봉사님과 내외간인 줄 알았소?”  
“그도 그렇겠다. 아이고, 이년 갔구나! 허허허!”

### 43. (심봉사 탄식) 뽕덕어미가 도망해 버린 것을 안 심봉사가 탄식한다

[진양조]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그러!

예기, 천하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당초<sup>1288</sup>에 내가 버릴 태면, 있던 곳에서 마다고 하지,

수백 리 타향에다가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될쏘냐?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 요년아!

너 그럴 줄 내 몰랐다.

아서라,<sup>1289</sup> 내가 시러베아들놈<sup>1290</sup>이제.

현철<sup>1291</sup>허신 곱씨도 죽고 살고,

내 딸 청이도 생죽음<sup>1292</sup>을 당했ندی,

네까짓 년을 생각허는 내가 미친 놈이로고나.”

[아니리] “예라, 이 호랭이나 파썸<sup>1293</sup> 깨물어갈 년!”

주인에게 작별하고,

[중모리]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든 자리 퍼썸<sup>1294</sup> 주저앉더니마는,

“뽕덕이네! 뽕덕이네. 모지고도 야속헌<sup>1295</sup> 년.

너 그럴 줄 내 몰랐다.

내가 눈이 있거드면,<sup>1296</sup> 저기 저 산은 무슨 산이요, 이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sup>1297</sup> 분별허여 갈 것인데,

“I thought they were a couple.  
How would I know you are her husband?”  
“Okay. Alas! She has gone. God!”

**43. (Mr. Sim Laments.) Mr. Sim laments, realizing that  
Bbaengdeok ran away.**

[Jinyangjo] “Oh god. Bbaengdeok has left me.  
What an ungrateful and cruel woman you are!  
If you had wanted to desert me, you should have done it in  
the village.  
You abandoned me in a strange place.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You cannot even become a ghost. Wicked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Let me stop! I shouldn’t do this.  
I survived the death of my virtuous wife, Mrs. Gwak.  
I even survived the unfair death of my daughter, Cheong.  
I am crazy to think about a shallow woman like you.”

[Aniri] “Oh!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He says goodbye to the landlady.

[Jungmori] Mr. Sim goes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his wife again and slumps down.  
“Bbaengdeok! What a cruel and heartless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If I had eyes, I could see the mountains and the roads in front  
of me.

지척<sup>1298</sup>) 분별을 못 허는 병신이  
 어이 찾아 황성을 갈거나?”  
 새만 푸르르르르 날아가도  
 뽕택이넌가 의심을 허고,  
 바람만 우루루루루 불어도  
 뽕택이넌가 의심을 허는구나.  
 더듬더듬 올라갈 제,  
 그 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성염<sup>1299</sup>)이라.  
 더운 땀을 휘뿌리며<sup>1300</sup>)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 44.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리] 천 리 시내는 청산<sup>1301</sup>)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꿩꿩,  
 열의 열두 골<sup>1302</sup>) 물이 한 테로<sup>1303</sup>) 합수쳤다,<sup>1304</sup>)  
 천방자 지방자 월터져 구비쳐,<sup>1305</sup>) 방울이 버끔져,<sup>1306</sup>)  
 건너 병풍석<sup>1307</sup>)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나?  
 심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할 양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상하 의복을 훔훔 벗어 지팡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Being blind, I can't see anything.  
How c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A bird flies, making a sound.  
He takes it to be Bebaengdeok.  
A wind blows, making a sound.  
He takes it to Bebaengdeok.  
He goes to the capital city unsteadily.  
When is it now?  
It is the hottest period of the year.  
While sweating like a rain, he gets close to a certain place.

**44. (Mr. Sim Takes a Bath) Mr. Sim gets his clothes  
stolen while taking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Jungjungmori]** A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Water flows naturally from valleys.  
The water from many valleys forms a stream.  
The stream rolls wildly, making foams.  
It bumps head-on against a large rock.  
The mountain trembles as the water flows away.  
What a great view!  
Mr. Sim is delighted to hear the sound of water.  
He manages to get to a stream to take a bath.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puts his cane on them.  
He walks slowly into the stream.

물에 풍덩 들어앉으며,

“에, 시원하고 장히<sup>1308)</sup> 좋다.”

물 한 주먹을 덩싹<sup>1309)</sup> 쥐어 양추질<sup>1310)</sup>도 께꿘 히고,

또 한 주먹 덩썩 쥐어 엉덩이도 문지르며,

“내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sup>1311)</sup> 올라선들 이에서<sup>1312)</sup> 시원허며,

동해 유수<sup>1313)</sup>를 다 마신들 이에서 시원헐거나?

얼씨구 좋구나, 기화자 좋네. 툼병툼병<sup>1314)</sup> 즐시구.”<sup>1315)</sup>

**[아니레]** 이렇게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sup>1316)</sup> 도적놈이 심봉사 의관행장<sup>1317)</sup>을 싹 가져가 버려렸  
것다.

심봉사 기가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또 한바탕 설움으로 우는데,

**[중모레]**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백수풍신<sup>1318)</sup> 늙은 몸이 위아래를 벗었으니,

황성 천 리를 어이 가리?”

위아래를 훨썬<sup>1319)</sup> 벗고 더듬더듬 올라갈 적,

체면 있는 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을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오거던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소!”

He is completely in the water now.

“Oh, it is cool. This is great.”

He grabs a handful of water and washes his teeth.

He grabs another handful of water and rubs his bottom.

“It is really cool. It is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Hurrah! Yippee! What a delight! What a pleasure!”

**[Aniri]** After taking a cool bath, Mr. Sim gets out of the stream.

A bad thief has stolen Mr. Sim’s hat and clothes.

Mr. Sim is astonished.

He can’t move at all.

He laments over his lot again.

**[Jungmori]** “How bad my fate is!

I am old with white hair and naked up and down.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He moves forward unsteadily, completely naked up and down.

Since he was a high class man, he covers his front part with his hands.

“If there is a lady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am naked!”

45.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심봉사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을 얻어 입고 황성길을 가다, 방아짚는 부인들을  
만난다.

[아니리] 뜻밖에도 관자<sup>1320</sup>)가 내려오는데,  
“에이 찌루! 에이 찌루허!”  
심봉사 이 소리를 듣더니,  
‘웁다, 되었다. 관은 민지부모<sup>1321</sup>)라니,  
내 억지나 좀 써보리라.’  
두 손으로 앞 가리고 기엄기엄<sup>1322</sup>) 들어가며,  
“아뢰어라! 아뢰어라! 급창<sup>1323</sup>) 아뢰어라!  
황성 가는 봉사로서  
백활차<sup>1324</sup>)로 아뢰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어디 사는 소경이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중모리] “예, 소맹<sup>1325</sup>)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읍기는 황주 도화동 사읍는다,  
황성 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웁기로,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의관행장이 없소그려.  
찾아주고 가시든지, 한 벌 내어주고 가시든지,  
별반 처분<sup>1326</sup>)을 하옵소서.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sup>1327</sup>) 허였으니,  
태수장<sup>1328</sup>) 덕택에 살려주오.”  
[아니리] 태수 이 말 들으시고 심봉사를 가궁히<sup>1329</sup>) 여겨

45. (Asking a Governor for Clothes) Mr. Sim comes across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gets clothes from him, and meets milling woman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Aniri] By chance a governor passes by.

“Step back! Move back!”

Mr. Sim is glad to hear the sound.

‘Good. A government official is like a parent to the people. I will ask that governor to help me.’

He covers his front part with his hands and slowly steps forward.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I am a blind man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I have something to ask to your master!”

The procession stops.

“Where do you live, Mr. Blind?

What do you want to say?”

[Jungmori]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I was on my way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in the stream.

I got my hat and clothes stolen.

Please give me new clothes or find my old clothes for me.

Please give me a special consideration.

If you are nice to others, your family will prosper without fail.

Mr. Governor, please help me.”

[Aniri] After hearing him, the governor takes a pity on him.

의관행장을 내어주었구나.  
 심봉사 받아 입고 쓰더니마는,  
 “황송한 말씀이오나 무상한 도적놈이 담뱃대까지 가져갔사오니,  
 이를 어찌 하오리까?”  
 심봉사 백배사례<sup>1330</sup>) 하직하고,  
 낙수교<sup>1331</sup>)를 건너, 녹수정<sup>1332</sup>)을 지나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찼노라고 야단이겠다.  
 한 여인네가 심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느니,  
 “흥! 근래에 봉사덜 안 시케주드고.<sup>1333</sup>  
 저 봉사도 황성 맹인 잔치 가지맹.<sup>1334</sup>  
 거, 이리 와 방애나 좀 찼어주고 가제.”  
 “아, 방아를 공연히 찼어줘?”  
 “아, 방아만 찼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묶음 주지라우.”<sup>1335</sup>  
 “그것, 참 실없이<sup>1336</sup>) 여러 가지 짓 준다.  
 그럼시다.  
 일포식도 재수라고,<sup>1337</sup>  
 한번 찼어보지요.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망노이가<sup>1338</sup>)라 하였으니,  
 방아를 찼더라도 선소리<sup>1339</sup>)를 맞어가며<sup>1340</sup>) 찼읍시다.”  
 심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찼는데,

He gives him a hat and clothes.  
Mr. Sim takes them and put them on.  
“I am sorry to tell you that the heartless thief even took my tobacco pipe.  
What should I do?”  
Mr. Sim bows to the governor many times and says goodbye to him.  
He walks over a bridge and passes by a pavilion.  
He arrives at a place.  
Many women are milling together, make loud sounds.  
A woman ridicules Mr. Sim.  
“These days blind men are not classified as blind.  
That blind man must be going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too.  
Hey, come here and mill for us.”  
“Mill for you for free?”  
“Oh, if you mill for us, we will give you meat, rice, wine, and tobacco.”  
“Those things are very impressive.  
But let me do it.  
A saying holds that one should be lucky to eat fully.  
Let me mill for you.  
By the way, ladies!  
People sing a song to forget the pain.  
Let’s mill together bu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song.”  
Mr. Sim mills for them to get lunch from them.

#### 46. (방아타령) 심봉사가 방아를 찧는 여인들을 만나 방아를 찧어주고 밥을 얻어 먹는다.

[중중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끄덩 땡 잘 찧는다.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sup>1341)</sup>

남기<sup>1342)</sup> 아니 중할쏘냐?”<sup>1343)</sup>

“어유아 방아요.”

“유소씨 구목위소<sup>1344)</sup> 이런 나무로 집 지셨나?”<sup>1345)</sup>

“어유아 방아요.”

“이 방애가 누 방애? 강태공의 조작이로다.”<sup>1346)</sup>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sup>1347)</sup>의 비너런가?”<sup>1348)</sup>

가는 허리에 잠<sup>1349)</sup>이 찢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떨끄덩 땡 잘 찧는다. 어유아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룡<sup>1350)</sup>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 숙여서 내리는 양은

주문왕<sup>1351)</sup>의 돈수<sup>1352)</sup>런가?”

“어유아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왕궁인의<sup>1353)</sup> 허릴런가?”<sup>1354)</sup>

“어유아 방아요.”

“오고대부<sup>1355)</sup> 죽은 후에 방애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sup>1356)</sup> 즉위허사<sup>1357)</sup> 국태민안<sup>1358)</sup> 하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 고금<sup>1359)</sup>에 없는지라,



46. (Mill Song) Mr. Sim encounters milling women. He  
mills for them, and gets food in return.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n ancient king became a king thanks to wood.

So wood is a precious thing.”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ancient king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This mill is possible thanks to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up.

It’s like an old dragon losing its temper in a wide sea.”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down.

Is it an ancient king giving a big bow?”

“Here goes a mill.”

“The waist is long and thin.

Is it an ancient court lady’s waist?”

“Here goes a mill.”

“Milling sound stopped after an ancient politician died.

After our king was crowned, this country is happy.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타령을 허여보자.”

“어유아 방아요. 덜크덩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아니리] “여보시오, 봉사님!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말이 걸릴지 모르겠소.”

“그럼 자주자주 찢읍시다.”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민첩청산<sup>1360</sup>)을 들어가 길고 곧은 술<sup>1361</sup>)을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sup>1362</sup>)

“어유아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sup>1363</sup>) 보니, 사람을 비양튼가<sup>1364</sup>)

두 다리를 째 벌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오리락 내리락<sup>1365</sup>)허는 양 이상하고도 맹랑허다.”<sup>1366</sup>)

“어유아 방아요.”

“황성 천 리 가는 길에 방아 찢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아 방아요.”

“덜크덩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보리쌀 뜨물<sup>1367</sup>)에 푯호박국<sup>1368</sup>) 끓여라.

우리 방아꾼들 배충복<sup>1369</sup>)허자.”

“어유아 방아요.”

“덜크덩 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고소허구나, 깨방아.

Let's sing a mill song in this peaceful time."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niri] "Mr. Blind, if we mill at this pace, it may take long."

"Then, let's mill faster."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Did they make this mill after cutting down a long and straight pine tree on a deep mountain?"

"Here goes a mill."

"This mill looks like a human body.

Its two legs are spread wide."

"Here goes a mill."

"One leg supports the body.

The other leg stamps the mill.

When the mill moves up and down, it looks bizarre."

"Here goes a mill."

"This is the first time to mill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Make a pumpkin soup with a bale.

Let's fill up the millers' stomachs."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 sesame mill smells good."

찐덕찐덕<sup>1370</sup> 찰떡방아.”

“어유아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덜크덩 땡 잘 찢는다.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유아 방아요.”

#### 47. (안 씨 맹인) 심봉사가 황성 근처에서 안 씨 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딸을 만날 꿈을 꾀다.

[아니리] 심봉사가 방아를 찢고,

점심밥을 잘 얻어먹고

그렇저렇 황성을 당도하여 한 곳을 다다르니,

어떠한 부인이 심봉사를 소상각지<sup>1371</sup> 알고 찾거늘,

심봉사 괴이히<sup>1372</sup> 여겨,

‘이곳에서 나를 알 리 만무<sup>1373</sup>한디, 이상한 일이다.’

그 여인 따라가

외당<sup>1374</sup>에 앉아 석반<sup>1375</sup>을 든든히 먹은 후,

여인이 다시 나와,

“여보시오, 심봉사님.

나를 따라 내당<sup>1376</sup>으로 들어가사이다.”

“아니, 왜 이러시오?

나는 봉사만 되었지

독경<sup>1377</sup>도 못하는 봉사요.

“A sweet rice mill is sticky.”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makes us sneeze.”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It is time for lunch.”  
“Here goes a mill.”

**47. (Blind Woman, Mrs. An) Mr. Sim sleeps with a  
blind woman, Mrs. An, near the capital city, and  
has a dream that he will meet his daughter.**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He gets lunch from them.  
He manages to reach a place in the capital city.  
A woman knowing him in detail looks for him.  
Mr. Sim is puzzled.  
'there should be no one here who knows about me. This is  
strange.'  
He follows her.  
She serves him with a wonderful meal in the guesthouse.  
She comes back.  
“Hello, Mr. Sim.  
Please follow me to the main room.”  
“What for?  
I am just a blind man.  
I can't even chant a prayer.

혹 댁에 의단<sup>1378</sup>) 있소?”

“아니올시다. 내당에서 찾사오니 어서 들어가사이다.”

심봉사 마지못해 내당에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sup>1379</sup>)를 주며 하는 말이,

**[중모레]** 그 부인이 허는 말이, “소녀는 안 가이요,

나도 맹인으로

부모 일찍 기세<sup>1380</sup>)허고, 어려서 복술<sup>1381</sup>)을 배웠기로

평생을 아자지<sup>1382</sup>)라.

이십오 세에 길연<sup>1383</sup>)이 있난디,

금년 이십오 세일뿐더러,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의 일월이 떨어져 물에 잠겨 보이기로

심 씨 맹인인 줄 짐작허고,<sup>1384</sup>)

차차 사람을 놓아 이제야 만나 뵈었으니,

인연인가 하옵니다.”

**[아니레]** “저버리지 않으시면 평생 한이 없겠내다.”

심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소?

내게는 천부당만부당<sup>1385</sup>)한 일이오.”

어찌 되었든지 그날 밤 동방화촉<sup>1386</sup>)에 호접몽<sup>1387</sup>)을 꾸었것다.

심봉사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수심 겨워 허는 말이,

“여보시오, 안 씨 맹인.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내가 불 속에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북을 매어<sup>1388</sup>)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is home?"

"No, somebody is waiting for you in the main room."

Mr. Sim goes into the main room.

A lady offers a seat and speaks.

**[Jungmori]** The lady says, "My last name is An.

I am blind too.

I lost my parents and learned to do fortune-telling in childhood.

I know about my fate.

I am to marry at twenty five.

I am twenty five this year.

Besides, I had a dream last night.

The sun and the moon immersed in water.

So I thought he would be a blind man.

I met him with the help of my maid.

So he will be my husband."

**[Aniri]** "If you don't reject me, I will be happy forever."

Mr. Sim is delighted in his mind.

"How can we become a couple?

That doesn't sound right to me."

Somehow, they got married and had a sweet dream that night.

Mr. Sim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peaks in anxiety.

"Look, hone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It appeared that I got into fire.

My skin was taken off and made into a drum.

Leaves fell down and covered the root.

Isn't this a dream that I will die?"

안씨 맹인 이말을 듣고 해몽을 허는디,  
 “신입화허니 화락이요,  
 거피작고허니 큰 소리 날 것이요,  
 낙엽이 귀근허니 자녀를 가봉이라.<sup>1389)</sup>  
 그 꿈 장히 좋소이다.  
 오늘 월내<sup>1390)</sup>에 들어가면 좋은 증험<sup>1391)</sup>이 있으리다.”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내게는 천부당만부당이제.”  
 뜻밖에,

#### 48.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부친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중중모리] 어전 사령<sup>1392)</sup>이 나온다. 어전 사령이 나온다.  
 “각도 각읍<sup>1393)</sup> 맹인님네!  
 오늘 잔치 망종<sup>1394)</sup>이니,  
 바빠 나와 참례허오!”  
 골목골목 다니며, 이렇듯 외는<sup>1395)</sup> 소리  
 원근산천<sup>1396)</sup>이 땡그렇게<sup>1397)</sup> 들린다.  
 [아니리] 이때여<sup>1398)</sup> 심황후께서는 맹인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 들어오시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진양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부친상봉하겠더니,<sup>1399)</sup>  
 어찌 이리 못 오신고?  
 당년<sup>1400)</sup> 칠십  
 노환<sup>1401)</sup>으로 병이 들어서 못 오신그나?<sup>1402)</sup>



After hearing him, Mrs. An interprets his dream.  
“Your entering fire means you will be joyful.  
Your skin’s becoming a drum means there will be loud sounds.  
The leaves’ covering the root means you will meet your child.  
The dream is great.  
There will be a good surprise for you in the palace.”  
“What? I will meet my child?  
That doesn’t make sense.”  
Unexpectedly,

#### 48. (Empress Sim Sighs) Empress Sim laments while waiting for her father.

[Jungjungmori] An officer comes out. He comes out.  
“Blind people from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Please hurry up to the banquet!”  
He shouts in the alleys.  
The shouting sounds tremble the world.  
[Aniri] Meanwhile, Empress Sim throws the banquet for the blind.  
She anxiously waits for him.  
But he doesn’t show up, so she laments sadly.  
[Jinyangjo] “I am throwing this banquet to meet my father.  
Why doesn’t he show up?  
He is seventy years old this year.  
Is he not coming because he is sick?

내가 정녕 죽은 줄 알으시고 애통타가<sup>1403</sup>)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영검<sup>1404</sup>)으로 완전히<sup>1405</sup>) 눈을 떠 맹인 축에<sup>1406</sup>) 빠지셨나?  
오늘 잔치 망종<sup>1407</sup>)인디,  
어찌 이리 못 오신고?”

#### 49. (부녀 상봉) 심봉사가 대궐에 들어가자 심황후가 보고 불러들여 거주와 처자에 관해 묻는다.

[아니리] 이렇듯 슬피 탄식하시다가 예부상서<sup>1408</sup>)를 또 다시 불러,  
“오늘도 봉사 거주<sup>1409</sup>)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sup>1410</sup>)허되,  
만일 심맹인이 계시거든 별궁<sup>1411</sup>) 안으로 모셔오라.”  
예부상서 분부 듣고 봉사 점고<sup>1412</sup>)를 차례로 불러나가는디,  
제일 말석<sup>1413</sup>)에 앉은 봉사 앞에 당도하여,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심맹인 계신다!”허더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심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제.  
이놈 용케 잘 죽으러 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Did he die, having longed for me and having taken me to have died?

Is he classified as a sighted person because Buddha opened his eyes?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Why doesn't he show up?"

**49. (The Father and the Daughter Meet) Mr. Sim enters the palace. Empress Sim spots and asks him about his name and address.**

[Aniri] Empress Sim sighs and calls a ceremonial official again. "Hey, bring me the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blind people.

If Mr. Sim from Peach Blossom Village shows up, bring him to my place."

Under her order, the official checks the list of blind people. He approaches a blind man at the end of the line.

"Hello, Mister. What is your name?"

"Yes, my name is Sim Hak-gyu."

"I found Mr. Sim!"

He says, "Let's go to the empress's residence."

"What are you doing this to me?"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punished or rewarded.

I was ordered to take you to the empress's place.

Let's go."

"I knew this would come.

I am lucky to be here to die.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sup>1414</sup> 맹인 만좌중<sup>1415</sup>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배설한 것이로구나.

에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

내 지팡이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심봉사를 별궁으로 모시고 들어가,

“심맹인 대령하셨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볼 제,

백수풍신<sup>1416</sup> 늙은 형용<sup>1417</sup>)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sup>1418</sup>

또한 산호 주렴<sup>1419</sup>)이 앞을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그 봉사 거주<sup>1420</sup>)를 묻고, 처자<sup>1421</sup>)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 눈에서 눈물이 뚝 뚝 뚝 떨어지며,

[중모레] “예, 소맹<sup>1422</sup>)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sup>1423</sup>)웁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 달에 산후탈<sup>1424</sup>)로 상처<sup>1425</sup>)허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sup>1426</sup>)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십오 세가 되었는데,

효성이 출천하여,<sup>1427</sup>)

애비 눈을 띄운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sup>1428</sup>)로 죽으러 간 지가 삼 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웁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두어 쓸 데 있소?

비수검<sup>1429</sup>)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They are holding this banquet in order to kill me in front of the blind people.

Okay, I am ready to face my death.

Hold my cane. Let's get in."

Mr. Sim is escorted to the empress's residence.

"Mr. Sim is here, Your Highness!"

The empress takes a look at her father.

He looks old, his hair being gray.

Given that his face is full of sadness, it appears to be his father's.

Empress Sim can't see him clearly because of the coral blind.

"Hey, officer! Ask the blind man about his address, wife, and child."

Mr. Sim scarcely hears the words of wife and children, when tears fall down from his blind eye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d in my hometown, Peach Blossom Village.

My name is Sim Hak-gyu.

My wife died of a disease after childbirth.

I held my daughter, who lost her mom, with a small blanket.

I managed to raise her by begging around for milk.

She became fifteen.

Her filial piety was great.

She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to open her father's eyes.

She di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ree years ago.

I haven't yet opened my eyes.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a parent who sold his child?

Please kill me with a sharp sword right away."

## 50.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자진모리] 심황후 이 말 듣고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짝 놀라, “아니, 아버지라니? 누가 날더러<sup>1430</sup> 아버지여?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sup>1431</sup> 삼년이 되었는데,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에이?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삼 년인데, 누가 날더러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어서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청이라니? 에이?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수궁에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sup>1432</sup>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50.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Jajinmori] Listening to him, the empress pulls the blind away  
and runs to him without putting on shoes.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Mr. Sim is surprised, "Uh? Who is calling me father?"

Uh? Am I your father?

What are you saying?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Uh?

I have neither a son nor a daughter.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Oh,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I was to be drowned to death at Indang Water.

But I came back alive.

Please open your eyes and take a look at me!"

Upon hearing her, Mr. Sim becomes ecstatic.

"What? Are you Sim Cheong? Uh?"

What are you saying?

Am I dead in the sea palace?

Am I dreaming?

My daughter died.

How can she be here alive?

If you are my daughter, let me see.

Let me see my daughter!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제.

아이고, 답답하여라!”

두 눈을 끔적끔적<sup>1433</sup>하더니마는, 눈을 번쩍 떴구나.

## 51. (모든 맹인 동시 개안) 심봉사가 눈을 뜨자, 천하 맹인 들도 일시에 눈을 뜬다.

[아니리] 이게 모두 부처님의 도술<sup>1434</sup>이것다.

심봉사 눈 뜬 훈짐<sup>1435</sup>에 여러 봉사들도 따라서 눈을 뜨는데,

[자진모리] 만좌 맹인<sup>1436</sup>이 눈을 뜬다.

어떻게 눈을 뜨는고 하니,

전라도 순창 담양 새 갈모<sup>1437</sup> 떼는<sup>1438</sup> 소리로

‘썩 썩’ 허더니마는 모두 눈을 떠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참례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로<sup>1439</sup>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가 뜨고,

서서 뜨고,

실없이<sup>1440</sup>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Oh god! I need eyes to see my daughter.  
Alas, I feel choked!"  
He blinks his eyes repeatedly and opens them.

**51.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Aniri] This is a miracle by Buddha.

As a result of Mr. Sim's opening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too.

[Jajinmori] All the blind people in the palace open their eyes.  
They open their eyes as follows:

They make sounds as if a paper hat were torn off.

They just opened their eyes, making opening sounds.

The banquet has been held for three months.

Those who attended the banquet early open their eyes at their homes.

Those who haven't arrived open their eyes in the streets.

Some open while going.

Some open while coming.

Some open while standing.

Some open without reason.

Some open unexpectedly.

Some open getting angry.

Some open crying.

Some open laughing.

Some open trying to open.

시원히 뜨고,  
 일허다 뜨고,  
 앓어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뜻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눈을 비벼보다 뜨고,  
 지어비금주수까지<sup>1441)</sup>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sup>1442)</sup>가 되었구나.

## 52. (심봉사 환호) 심봉사가 딸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심봉사 정신을 차려 궁 안을 살펴보니,  
 칠보금관<sup>1443)</sup> 황홀하여  
 딸이라니 딸인 줄 알제,  
 전후불견 초면이라.<sup>1444)</sup>  
 가만히 살펴보니,  
**[중모리]** “옳제, 인제 알졌구나. 내가 인제야 알졌구나.  
 갑자 사월 초파일야<sup>1445)</sup> 꿈 속에 보던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죽었든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sup>1446)</sup>을 하였는가?  
 내가 죽어서 따라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 허졌네.

Some open clearly.  
Some open while working.  
Some open while playing.  
Some open while waking up.  
Some open while drowsing.  
Some open while blinking their eyes.  
Some open rubbing their eyes.  
Even blind animals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The world becomes bright for them.

**52. (Mr. Sim Cheers) Mr. Sim dances in joy after taking  
a look at his daughter.**

[Aniri] Mr. Sim gathers himself and takes a look around.  
He gazes in rapture at a woman with a golden crown.  
He believes she is his daughter because he was told so.  
But this is the first time to see her.  
He takes a hard look at her.

[Jungmori] “Oh, I see now. I see now.  
This is clearly the face I saw in a dream with my wife.  
I got my lost daughter back.  
Were you reborn?  
Did I die and follow you?  
Is this a dream?  
Is this real?  
I can’t tell dream and reality apart.

나도 이제까지 맹인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서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아느냐?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지팡이 너도 고생 많이 허였다.  
 이제 너도 너 갈 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르르르’ 내던지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네! 기화자자 좋을시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을시고.  
 어둡던 눈을 뜨니, 황성 궁궐이 웬 일이며,  
 궁 안을 살펴보니,  
 창해 만 리<sup>1447)</sup> 먼먼 길 인당수 죽은 몸이  
 환세상<sup>1448)</sup> 황후되기 천천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구.  
 어둑침침<sup>1449)</sup>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sup>1450)</sup>에 자룡<sup>1451)</sup> 본 듯이 반갑네.  
 흥진비래 고진감래<sup>1452)</sup> 날로<sup>1453)</sup> 두고 이름인가?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절씨구.  
 일월이 밝아 조림<sup>1454)</sup>허여  
 요순천지<sup>1455)</sup>가 되었네.  
 부중생남중생녀<sup>1456)</sup> 날로 두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여러 봉사들도, 좋아라 춤을 추며 노닌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 덕이 뉘 덕이나?  
 심황후 폐하의 덕이라.

I was blind so far.  
I got on the road with a cane.  
I didn't know how I could get around.  
From now on, I live in a new world.  
'Mr. Cane!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You are now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He throws his cane away.  
"Hurrah! Hurray! Whoopee! What a delight!"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After opening my eyes, I am surprised to see the palace.  
Let me look inside the palace.  
I thought she died at Indang Water away from here.  
I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live and beco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feel great as if a light got turned on in a dark room.  
I am glad as if I met a great warrior on a battlefield.  
For me, happy and unhappy events occur alternately.  
Hurrah! Hurray! Whoopee!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on the sky.  
It became a paradise.  
For me, a daughter is more precious than a son.  
Hurrah! Hurray!"  
Other blind people dance too in joy.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Whom do we owe this to?  
We owe this to the empress.

태고적<sup>1457</sup>) 시절 이후로 봉사 눈 뿔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송천자<sup>1458</sup>) 폐하도 만만세.<sup>1459</sup>)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sup>1460</sup>)도 만만세.

여러 귀빈<sup>1461</sup>)들도 만만세.

천천만만세<sup>1462</sup>)를 태평으로만 누리소서.

얼씨구나, 좋을씨고.”

### 53. (황봉사) 황봉사가 죄상을 고백하자 한쪽 눈만 뜬다.

[아니리] 이렇게 춤으로 황극전<sup>1463</sup>)이 춤바다가 되었는데,  
그 중에 눈 못 뜬 봉사 하나 우두머니<sup>1464</sup>) 서서 울고 있거늘,  
심황후 분부하시되, “지어비금주수까지도<sup>1465</sup>) 눈을 뿔는데,  
어찌하여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그때여 황봉사가

뺨덕이네 유인한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 엎드러지며,

[중모리] “예, 죄상<sup>1466</sup>)을 아뢰리다. 예, 죄상을 아뢰리다.

심부원군 행차시<sup>1467</sup>)에 뺨덕이란 여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그 여인 유인하여 밤중 도망을 하였는데,

그날 밤 오경시<sup>1468</sup>)에 심부원군 우시는 소리 구천<sup>1469</sup>)에 사무쳐서

명천<sup>1470</sup>)이 아신 바라,

여태 눈을 못 뿔으니,

We never heard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since ancient times.

Hurrah! Hurray!

Long live the emperor!

Long live the empress!

Long live the empress's father!

Long live the distinguished guests!

May they live happily forever.

What a delight!"

### **53. (Mr. Hwang Repents) Mr. Hwang confesses his wrongdoing and opens only one of his eyes.**

[Aniri] The yard in the palace became the sea of dance.

One man, still blind, stands vacantly in tears.

The empress asks, "Even animals opened their eyes.

Why couldn't that man open his eyes?

He is Mr. Hwang.

He couldn't open his eyes because he is guilty of seducing Bbaengdeok.

He kneels down on the spot.

[Jungmori] "Okay. Let me confess my wrongdoing, Your Highness.

Mr. Sim and Bbangdeok were on their way to the palace.

They dropped by an inn to sleep in.

I seduced Bbaengdeok, and ran away at night.

On that night, Mr. Sim's cry was so loud that it must have been heard by heaven.

That's why I haven't yet opened my eyes.

이런 천하<sup>1471</sup>) 몹쓸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당장 목숨을 끊어주오.”

[아니레]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고,

“인수무과리오.<sup>1472</sup>)

개죽위선이라.<sup>1473</sup>)

네 죄를 내가 아는 고로<sup>1474</sup>) 시이<sup>1475</sup>)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어명허여 놓으니,

황봉사가 그제야 눈을 뜨는데,

마치 총 놓기<sup>1476</sup>) 좋을 만하게 한 눈만 떴구나.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에 필유여앙이라.<sup>1477</sup>)

어찌 천도<sup>1478</sup>)가 없으리오?

#### 54. (후일담) 많은 사람들에게 벼슬과 상을 받는다.

[옛중모리] 그 때여 심생원<sup>1479</sup>)은 부원군<sup>1480</sup>)을 봉허시고,

안씨 맹인 교지<sup>1481</sup>)를 내려 정렬부인<sup>1482</sup>)을 봉허시고,<sup>1483</sup>)

무릉촌 승상부인은 별급상사<sup>1484</sup>) 하시고,

그 아들은 직품<sup>1485</sup>)을 돈오아<sup>1486</sup>) 예부상서<sup>1487</sup>) 시키시고,

화주승은 불러 올려 당상<sup>1488</sup>)을 시키시고,

젓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 어머니는 천금상<sup>1489</sup>)을 내리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sup>1490</sup>)을 없앴으니,



What would be the use of letting such a bad man alive?  
Please kill me right away.”

**[Aniri]** Empress Sim responds,

“Who couldn’t have a fault?

If you repent, you become a good person.

Since you repent of your wrongdoing, you are forgiven.

Open your eyes.”

She says so.

Mr. Hwang now opens his eyes.

He opens only one, making him suitable to shoot a rifle.

The moral is that a good person will be rewarded,

and a bad person will be punished.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divine law?

#### **54. (Subsequent Story) Many people receive government positions and rewards.**

**[Eotjungmori]** Mr. Sim i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empress’s father.

A royal order is issued, declaring Mrs. An a virtuous woman.

An award is given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r son was promoted to a higher government position.

The Buddhist monk gets a government position. Properties are granted to Mrs. Gwideok and the women who gave Sim Cheong milk.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es and drafted labor.

천천만만세<sup>1491)</sup>를 누리더라.

어화, 여러 소년님네,

인간의 백행<sup>1492)</sup> 근본 충효밖에 또 있느냐?

그 뒤야 뉘 알쏘냐?

그만 더질 더질.<sup>1493)</sup>

They live happily forever.

Hey, young people!

Loyalty to a king and filial piety to parents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Who could know what happens next?

- 1)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2) 맹인(盲人). 눈먼 사람.
- 3) 累代名門巨族.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떨친 세력이 있는 집안.
- 4) 名聲. 좋은 평판.
- 5) 자자하더니.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더니.
- 6) 家運. 집안의 운수.
- 7) 三十 前에. 서른 살이 되기 전에.
- 8) 眼盲하니. 눈이 먼지.
- 9) 누가.
- 10) 賢哲하시고. 어질고 총명하시고.
- 11) 淹淹하시어. 얹어.
- 12)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13)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14)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 킴.
- 15)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16)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17) 襪衣.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18) 直令. 무관이 입던 옷의 하나.
- 19) 협수(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 을 넣고 뒷솔기를 길게 찢은 군복.
- 20) 快子. 등솔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21) 중치막.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쪽으로 된 남자의 옷.
- 22) 누비질.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23) 상침질. 박이옷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24) 꺾음질. 바느질의 한 종류로 솔기를 꺾어서 꿰매는 일.
- 25) 외울뜨기. 단 하나의 울로 뜬 망건이나 탕건.
- 26) 꿰담. ‘괴불’인 듯. 괴불은 괴불주머니로, 어린 아이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 형질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 27) 고두누비.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28) 솔오리기. 옷솔기를 오리는 일.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 29)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30) 襟子. 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터졌음.

- 31) 토시.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음.
- 32) 버선.
- 33)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34) 布帶. 베로 만든 띠.
- 35)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을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36) 줌치. 주머니.
- 37) 담배 또는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기름종이·형겔·가죽 따위로 만들.
- 38) 藥囊. 약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 39) 筆囊. 붓을 넣어 두는 주머니.
- 40) 揮項. '휘양'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1) 불끼.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겔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맨.
- 42)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겔으로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맨.
- 43) 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것의 모피로 만들며,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임. 남녀의 것이 조금 다름.
- 44) 천의. 치네.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45) 周衣. 두루마기.
- 46) 갓은. 온갖.
- 47) 衾枕. 이불과 베개.
- 48)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널조각에 수를 놓은 형겔을 덮어 끼거나, 화각(畵角)을 대는데, 대개 남자의 것은 네모지게 만들고, 여자의 것은 둥글게 만들. '화각'은 목기나 세공품을 곱게 꾸미는 꾸밈새의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얹게 오려 덧붙임.
- 49) 雙鴛鴦. 두 마리의 원앙새. 한 쌍의 원앙새.
- 50) 毛紗. 털실.
- 51) 角帶. 각띠. 벼슬아치가 예복에 띠던 띠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2)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겔. 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음.
- 53) 학 그리기. 여기서는 '학을 수놓기'의 뜻임.
- 54) 宮納.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둥근데, 흔히 땡깁감으로 씀.
- 55) 貢緞.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56)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57)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58) 낙릉.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59) 甲紗. 품질이 좋은 성글게 짠 비단.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60) 雲紋. ‘운문단(雲紋緞)’인 듯. ‘운문단’은 구름 무늬를 수놓은 비단.
- 61) 吐紬.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 62) 甲紬. 품질 좋은 명주.
- 63) 盆紬. 황해도·평안도에서 나는 명주.
- 64) 縹紬. 오색 빛 명주.
- 65) 明紬.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베.
- 66) 生絹. 생사로 얇게 짠 비단.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
- 67) 通絹. 싹 성글고 얇게 짠 비단.
- 68) 造布. 함경북도에서 나는 베의 한 가지. 너비가 좁고 두꺼우며 촘촘하게 짬.
- 69) 北布. 함경북도에서 나던, 올이 가늘고 고운 삼베.
- 70) 黃紬布. ‘계추리’를 말하는데, ‘계추리’는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71) 春布. 강원도에서 나던 베.
- 72) 門布. 삼베의 한 가지로, 중국 책문(柵門) 지방에서 남.
- 73) 계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74) 白苧. 잿물에 삶아서 물에 빨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모시. 눈모시. 흰모시.
- 75) 極上細木. 아주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
- 76) 靑·黃·赤·白. 파랑색, 노랑색, 붉은색, 흰색.
- 77) 沈香. 황갈색.
- 78) 各色으로다. 갖가지 색으로. 여러가지 색으로.
- 79) 圓衫. 부녀의 예복으로 갖추는 옷옷의 한 가지.
- 80) 祭服. 제사를 모실 때 입는 예복.
- 81) 婚葬大事. 혼례나 장례 등 큰 일.
- 82) 熟政. 음식을 만드는 일.
- 83) 갖은. 여러 가지.
- 84) 증편. 떡의 한 가지. 뽕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 물을 붓고 질척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하룻밤쯤 부풀리어 틀에 담아 붓고, 밤·대추·잣 등을 얹어서 찜.
- 85) 中桂. 유밀과의 한 가지.
- 86) 藥果.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물 도는 설탕물과 기름에 섞어 반죽을 한 뒤에, 과줄판에 박아서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기름에 지지어 익힌 것.
- 87) 薄欖. 유밀과의 한 종류. 산자의 몸이나 혹은 엿을 얹고 반듯하게 베고,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 쪽에 붙임.
- 88) 茶食. 녹말·콩·송화·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음식.
- 89) 正果. 온갖 과일이나 새양·연뿌리·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재거나 졸이어 만든 과자.
- 90) 花菓.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국에 과실을 썰어 넣거나 꽃잎을 넣고 잣을 띄운 음료.

- 91) 상 위에 놓고 열구자탕을 끓이는 그릇. 구리·놋쇠·은 따위로 만든 대접처럼 생긴 그릇인데, 가운데 숯불을 넣는 통이 있고, 통 주위에 음식을 넣어 끓이며, 밑 부분엔 굽이 있음.
- 92) 饌需. 반찬거리.
- 93) 水波蓮. 잔치 때에 치레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 94) 잔치 때 치레로 쓰는 꽃 따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오려서 만드는 일.
- 95) 排床하기. 상 놓기. 상 차리기.
- 96) 껌질. 떡·과자·과일같은 것을 접시 따위에 높이 담아 올리는 일.
- 97) 手足. 팔다리
- 98) 盡토록. 지치도록.
- 99)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 100)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101)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102) 貫돈.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103) 日收. 본전에 이자를 없어서 일정한 날짜에 나누어 날마다 얼마씩 갚아나가는 일, 또는 그 빚.
- 104) 遞計. 장체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에 이자를 없어 받아들이는 일.
- 105) 長利邊. 장리로 받는 이자. '장리'는 곡식이나 돈을 꾸어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일.
- 106) 春秋時享. 봄 가을에 가묘(家廟)나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묘사.
- 107)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08) 始終이如一하니.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니.
- 109) 上下隣里. 위 아래의 가까운 마을.
- 110) 祈子 致誠.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신불에게 드리는 정성.
- 111) 將近토록. 곧 가깝도록.
- 112)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113)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114) 申供(申供). 정성 들여 소원을 밝.
- 115) 온갖.
- 116)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17)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118) 古廟. 오래 된 사당.
- 119)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120)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121) 石佛. 돌부처.
- 122) 미륵보살. 돌로 만든 부처.
- 123)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 124) 袈裟시주. 중이 입는 옷인 가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일.

- 125)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사서 바치는 일.
- 126)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문에 문종이를 발라주는 일.
- 127) 十王佛供. 시왕전에 드리는 불공. ‘시왕(十王)’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고 하는 열 명의 대왕
- 128) 七星佛供. 칠성각에 드리는 불공.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
- 129) 羅漢佛供. 나한전에 드리는 불공. ‘나한’은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자리의 부처.
- 130) 힘을 들인.
- 131) 나무.
- 132)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 133) 蟠空. 공중에 어림.
- 134) 五彩. 파랑·노랑·주홍·검정·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 갖가지 색깔.
- 135) 하늘의.
- 136) 玉京.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상상 속의 서울.
- 137)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
- 138) 圓衫. 부녀가 예복으로 갖추던 옷옷인데,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 139) 桂花가지. 개수나무의 가지.
- 140) 拜禮. 절을 함.
- 141) 正身.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탁하여 태생하는 육신.
- 142) 山上에. 산 위에.
- 143) 觀音. 관세음보살.
- 144) 海中에. 바다 가운데.
- 145) 皓齒. 흰 이빨.
- 146) 半開히여. 반만 열어.
- 147) 灑玉聲. 옥을 씻는 소리. 곧 그렇게 고운 목소리.
- 148)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았었던 선녀.
- 149) 蟠桃. 선도 복숭아.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고 함.
- 150) 進上. 윗사람에게 바침.
- 151) 玉眞妃子. 옥진 낭자라고도 하는 선녀.
- 152) 數語. 몇 마디 말.
- 153) 酬酌. 서로 말을 주고받음.
- 154) 조금.
- 155) 늦었기 때문에.
- 156) 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 157) 得罪히여. 죄를 얻어.
- 158) 人間. 사람 사는 세상.
- 159) 내쫓으시므로.
- 160)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여 부르는 말.



- 161)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62) 諸佛菩薩. 여러 부처님과 보살.
- 163) 南柯一夢. 한 때의 헛된 꿈.
- 164)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65) 夢事. 꿈에 나타난 일.
- 166)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167) 席不正不坐. 좌석이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태교(胎敎)의 한 가지.
- 168) 割不正不食. 반듯하게 썬 것이 아니면 먹지 않음. 태교(胎敎)의 한 가지.
- 169)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70)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71) 立不蹕. 한 쪽 발로 비스듬히 서지 않음.
- 172) 臥不側. 옆으로 눕지 않음.
- 173) 十朔日. 열 달.
- 174) 然後에. 그런 뒤에.
- 175) 解腹. 해산(解産). 출산.
- 176) 一便. 한편으로는.
- 177) 섞여 있는 것에서 여럿을 골라내어.
- 178)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179) 小盤. 자그마한 밥상.
- 180) 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를 못함.
- 181) 順産.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 182) 香臭. 향기로운 냄새.
- 183) 彩雲. 채색 구름.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184)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185) 仙人玉女. 신선의 딸처럼 아름답고 고운 딸.
- 186) 順産. 순조롭게 출산을 함.
- 187) 男女間에. 남자와 여자 중에. 아들과 딸 중에.
- 188)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히는 상태.
- 189) 晚得. 늦게 얻음.
- 190)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 191) 文筆.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 192) 針線. 바느질.
- 193) 紡績. 길쌈.
- 194) 宗사위. 아들 대신 대를 이어줄 사위.
- 195) 秦晉. '진진지의(秦晉之誼)'의 준말. 새로 혼인한 양 집안의 사이가 좋음을 뜻함.
- 196) 外孫奉祀. 외손이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97) 해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밥과 국. 주로 미역국과 흰 밥을 먹음.
- 198)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199) 이와 같은 사람. 보통 사람.
- 200)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 201)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02) 帝王님. 민속에서 삼신을 이르는 말.
- 203) 三千九萬里. 여기서는 '아주 먼 거리'를 가리킴.
- 204) 三十三天. 불교 용어로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세 세계 가운데서 욕계의 둘째 하늘.
- 205) 忉率天.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 보살이 살며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歡樂)장소라고 함.
- 206) 神佛. 신령과 부처.
- 207) 帝釋. 제석신. 민속에서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 집안사람들의 수명, 곡물, 의류 및 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고 한다.
- 208)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209)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 210) 묶은 것이 되직하여지고.
- 211) 人形. 인간의 형체.
- 212) 생겨.
- 213)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신장, 폐장, 비장.
- 214) 여기서는 '생기고'의 뜻.
- 215) 육부(六腑)를 이르는 말임. 육부는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쓸개,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상부, 위 부분, 배꼽 아래 부분을 아울러 일컫는 말), 방광.
- 216)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 구멍이라고도 함.
- 217)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합한 아홉 개의 구멍.
- 218) 찬 김 받아. 곧 열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 219)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220)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221)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222)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223)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224)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25) 大舜. 순임금
- 226) 曾子. 공자의 제자로, 효행에 뛰어났으며, 《대학(大學)》을 편했음.

- 227) ‘기량식의 처(紀梁殖의 妻)’의 잘못. 기량식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장공(莊公)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의 처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이나 울자 마침내 성이 무너졌다. 기량식의 처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치수(淄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 228) 班姬, 반첩여(班婕妤). 첩여는 ‘궁녀’의 뜻. 자(字)는 혜희(惠姬). 한나라 사람으로 문장과 재능이 뛰어났다. 성제(成帝)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長信宮)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을 드는 동안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229) 才質, 재주와 기질.
- 230)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락(幸樂)을 누렸다 함. 뭇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231) 오이가 자라듯이.
- 232) 달이 점점 차듯이.
- 233)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병.
- 234)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 235) 產後, 출산 후. 아이를 낳은 후.
- 236) 일을 할 사람.
- 237) 產後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 238) 온 몸의 근육과 뼈마디.
- 239)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 240) 家君님, ‘가군’은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 241)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 242) 忘世, 죽음을 가리키는 말.
- 243) 初終葬事,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 244) 죽자고 했더니.
- 245) 天命, 타고난 수명.
- 246) 끊어졌는지.
- 247) 어쩔 수 없이.
- 248) 어두우신.
- 249) 뉘라서. 누가.
- 250)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잘 받들어 모심.
- 251) 四顧無親, 사망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 252) 子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253) 依託, 남에게 의지하고 부탁함.
- 254) 전혀 없어.

- 255) 지팡이.  
 256) 아무렇게나 함부로 짚고.  
 257) 구렁. 땅이 움푹 패어 들어간 곳.  
 258)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259) 飢寒. 굶주림과 추위.  
 260) 家家門前. 집집마다 문 앞에.  
 261) 魂魄. 넋.  
 262) 名山大剎.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263)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드리는 공.  
 264) 情親하게. 정답고 친절하게.  
 265) 忽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266) 걸으면.  
 267) 母女相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268) 無窮. 끝이 없음.  
 269) 숨이 몹시 차서.  
 270) 어린 아이의 머리에 씌우는 수놓은 모자의 한 가지.  
 271) 金字. 금실로 수놓은 글자.  
 272) 짙은 옥색 판.  
 273) 紅絲. 붉은 색 비단 실.  
 274) 술. 책상보다 커튼 또는 띠·끈 따위의 끝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275) 장막같은 데 꾸밈새로 늘어뜨린 좁은 형짚이나 줄 따위.  
 276) 여자아이들의 노리개의 한 가지. 고운 색 형짚을 등글거나 혹은 병 모양같이 만들어서 두 쪽을 맞대고 수를 놓기도 하며, 다른 색깔의 형짚으로 알록달록하게 바르기도 하여 끈을 매어 참.  
 277) 新行函. 혼인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함.  
 278) 下賜하신. 옷사람이 내려주신.  
 279) 壽福康寧. 오래도록 살고 행복하며, 몸이 건강하고 평안함.  
 280) 太平安樂. 태평하고 평안하며 즐거움.  
 281) 양쪽에.  
 282) 紅氍. 홍색의 모직물.  
 283) 괴불주머니. 어린애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형짚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284) 끼던.  
 285) 玉指環. 옥가락지.  
 286) 진작. '미리'의 뜻으로 '바로 그 때에.'  
 287) 생기거나. 태어나거나.  
 288) 조금.  
 289) 끝이 없는.

- 290) 窮天之痛. 하늘까지 닿는 지극한 아픔.  
 291) 生死間에. 삶과 죽음 사이에.  
 292) 亡終. 마지막.  
 293) 颯颯悲風. 구슬프게 부는 바람.  
 294) 簫簫細雨. 쓸쓸하게 내리는 가랑비.  
 295) 딸꾹질.  
 296)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297) 醫家. 의원집.  
 298) 水一升煎半服.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 먹음.  
 299) 잠수시면.  
 300)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301) 콧구멍.  
 302) 김.  
 303)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칩.  
 304) 아름차면. 힘에 겨우면.  
 305)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306) 지으려.  
 307) 사이에.  
 308)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309) 藥能活人.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310) 도리어.  
 311)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312)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313) 還生次로. 다시 태어나기로.  
 314) 眞言. 주문(呪文).  
 315) 두드리며.  
 316) 목적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317) 아래로 내려가면서 뒹굴.  
 318) 위로 올라가며 뒹굴.  
 319) 雪寒風. 눈썹인 찬바람.  
 320)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신선 세계에 있다는 복숭아.  
 321)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322)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323)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

- 324)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325) 懷抱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말.
- 326) 天上에. 하늘에서.
- 327) 정성을 다하러. ‘공을 닦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정성을 기울이다.’
- 328) 엎어져.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329) 此所謂. ‘이야말로’를 한문투로 일컫는 말.
- 330) 칭찬하는.
- 331) 賢哲. 어질고 슬기로움.
- 332) 왈각 달려들어. 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
- 333) 才談. (익살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334) 失談. 실수로 잘못 말한 이야기.
- 335) 死者는 不可復生이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 336) 初終祭禮. 초종장례(初終葬禮)를 가리킨 뜻. ‘초종장례’는 초상이 난 때부터 졸곡(卒哭, 사람이 죽은 뒤 석달 후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 지내는 제사)까지 장례의 모든 과정.
- 337) 小方牀. (본래는 대방상을 쓰는 법인데) 대방상을 쓰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 쓰던 상여.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음. ‘대방상(大方牀)’은 큰 상여로서, 높은 벼슬아치만 쓸 수 있었음.
- 338) 뗏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뗏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둘러가며 놓은 돌.
- 339) 행하니 높게.
- 340) 銘旌. 긴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본관·성씨 따위를 적어,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갔다가 관위에 함께 묻는 것말.
- 341) 功布. 삼베를 다섯 자 내지 여섯자로 잘라서, 상여 앞에 명정과 함께 들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수건.
- 342) 襲扇. 운불삽(雲蔽襲). 운삽과 불삽. 모두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 뒤에 세우고 가는 것들인데, ‘운삽’은 구름 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며, ‘불삽’은 켜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임.
- 343) 等物. 등등의 물건.
- 344) 상여가 나갈 때에, 거리에서 친척이나 친지가 지내는 제사.
- 345) 靈輜既駕 往即幽宅 載陣遣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이미 올려졌으니, 이제 가면 무덤이 옵니다. 보내는 예를 모두 갖추어 배운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상여가 떠날 적에 음식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는 축문(祝文).
- 346) 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존송되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聲音)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 347) 搖鈴.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48) 별다른 의미가 없는 후렴구임.
- 349) 北邙山川. 중국의 낙양성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

- 350)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밋자리의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킴.
- 351) 종달새.
- 352) 불명. 혹 ‘50 길’일 수도 있음. ‘길’은 자기 키만큼의 길이.
- 353) 西天. 서쪽 하늘.
- 354) 明月. 밝은 달.
- 355) 遠山. 먼 데 산.
- 356) 인정(人定).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을 쳤는데 이에 따라 성문(城門)을 닫았다.
- 357) 罷漏.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 358) 여자 종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 359) 開門. 문을 엽.
- 360) 襦褌. 포대기.
- 361) 屈冠. 상복(喪服)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巾).
- 362) 祭服. 상복. 성긴 삼베로 만들되, 그냥 호거나 혹은 재단만 하고,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음.
- 363) 상여.
- 364) 가마나 상여 또는 들것 따위의 뒤의 사람이 메거나 들게 된 부분.
- 365) 거머쥐어 잡고.
- 366) 不顧人情.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감정을 돌아보지 않음.
- 367) 山疊疊路茫茫.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멀.
- 368) 日沈沈路暝暝. 날은 저물고 길은 어두움.
- 369) 酒店. 주막. 쉬어갈 주막.
- 370)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합한다는 뜻.
- 371)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 372) 가십시다. 갑시다.
- 373) 상두꾼들. 상여를 멘 사람들.
- 374)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375)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 376) 眼盲人. 눈이 먼 사람. 장님.
- 377) 옛글. 곧 한문을 이름.
- 378) 文章. 문장가(文章家). 글을 뛰어나게 잘 짓는 사람.
- 379)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 380) 嗟呼 婦人. 아, 슬프다, 부인이여.
- 381) 요차요조숙녀혜(邀此窈窕淑女兮)여. 이렇게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 382) 행불구혜고인(行不苟兮古人)이라. 행동거지가 옛 사람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 383) 期百年而偕老.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함.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 384) 忽然沒兮焉歸오.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385) 遺稚子而永逝히니.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리니.  
 386) 淚散散而沾襟兮여. 눈물이 여기저기 흠어져 옷깃을 적시는구나.  
 387) 지는. 떨어지는.  
 388) 心耿耿而消魂兮.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근심으로 녀이 나갔구나.  
 389)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390) 薄奠이나. 변변치 못한 제사이나.  
 391) 萬事. 모든 일.  
 392) 거머쥐어.  
 393) 北邙山川. 묘지가 있는 곳. 사람이 죽어 가는 곳을 이르는 말.  
 394)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395) 울다리.  
 396) 杜鵑. 두견새. 소쩍새.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397) 老而無妻鰥夫라니.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부(홀아비)라고 하니.  
 398)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399) 말인가?  
 400) 어쩔 수 없이.  
 401) 役軍. 공사장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402) 洞人들. 동네 사람들.  
 403) 百拜致賀. 여러 번 절을 하며 고마움을 포함.  
 404)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405) 얼싸절싸. 흥이 나서 뛰노는 모양.  
 406) 지광이.  
 407)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408)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409) 전혀 없네.  
 410) 自歎. 저 홀로 탄식함.  
 411) 포대기.  
 412)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413)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414) 竹上之淚.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쫓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알록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415)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416) 운다고 하는.



- 417) 剛木水生.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남. 곧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18) ‘메어치며’를 강조한 말.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려치며.
- 419)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20) 잃느냐?.
- 421) 氣盡.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음.
- 422) 두레박.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들.
- 423) 흠어 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쪼고.
- 424)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25) 氣虛. 원기가 허약함.
- 426) 鐵石. 쇠와 돌.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
- 427) 盜拓. 중국 춘추시대의 큰 도둑. 공자와 같은 시대의 노나라 사람. 현인 유하혜(柳下惠)의 아우로, 그의 도당 9천 명과 함께 전국을 횡횡했다고 함.
- 428) 어렵게.
- 429) 壽福康寧. 명이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 430) 길쌈.
- 431) 심하게 내리쬘는 여름의 뜨거운 별.
- 432)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 433) 몇 돈 되는 돈. ‘돈’은 한 냥(兩)의 십분의 일.
- 434) 몇 되 되는 쌀.
- 435) 맘죽 끓일 쌀. ‘맘죽’은 어린 아이에게 젓 대신 먹이려고 곡식이나 밤 가루로 뭉개 끓인 죽.
- 436) 언덕.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37) 어른다.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다.
- 438) 귀여움.
- 439) 富貴多男. 지위가 높고 부유하며, 아들을 많이 낳음.
- 440) 쌀 다섯 섬 속의 뉘(쌀 속의 겉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 하나처럼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41) 소경 열 명에 막대기 하나처럼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42) 貴男. 귀한 아들.
- 443)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444)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445) 周遊天下에 無雙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아도 둘도 없는 귀한 아이.
- 446) 幻生. 형상을 바꾸어 다시 생겨남.
- 447)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숙향이 빠져 죽으려다가 항아의 도움으로 살아난 강의 이름.
- 448) 고전 소설 《숙향전(淑香傳)》의 주인공.
- 449)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 털빛이 흰 토끼.

- 450) 불명. ‘진주(珍珠)씨’라고 하기도 한다. ‘진주씨’는 작은 진주를 가리킨 듯.
- 451) 密花佛手. 보석의 일종인 밀화로 부처 손같이 만든 패물.
- 452) 어린 아이에게 주먹을 자꾸 쥐었다 폈다 하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 453)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 454)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 455) 두레박.
- 456) 들랑날랑.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 457) 아이를 어르면서 내는 소리.
- 458) 물건을 건네 줄 때 ‘여기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
- 459) 이불.
- 460) 동냥을 하려고.
- 461) 勸馬聲制. 권마성조(勸馬聲調). 판소리 선율의 하나. 덜렁제, 설렁제, 덜렁조, 설렁조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초 명창인 권삼득이 만들었다고 한다. ‘권마성’이란 ‘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하졸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를 뜻하는데, 권마성처럼 판소리에서 도약 선율을 사용하여 매우 씩씩하고 남성적인 선율을 가리킨다. 〈홍보가〉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춘향가〉의 ‘군로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 대목’, 〈적벽가〉의 ‘위국자의 노래’ 등이 권마성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 462) 纏帶. 무명이나 베 형식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티 놓고, 가운데는 막았는데, 양쪽 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함.
- 463) 한 덩어리로 만들어.
- 464) 둘러메고.
- 465) 벼.
- 466) 암죽을 끓이려고.
- 467) ‘허위허위’의 방언.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468) 하늘의.
- 469) 日就月將. 몸, 마음, 학문 등이 날로 달로 진보함.
- 470)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 471) 忌祭祀. 삼 년 상이 끝난 후,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 472) 供養事. 옷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일.
- 473) 依法이. 법도에 맞게.
- 474) 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빠른 세월.
- 475) 朝夕供養. 옷어른을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 476) 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477) 無男獨女. 아들 없이 하나 있는 딸.
- 478)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
- 479) 들어보십시오.
- 480) 子路. ‘자로’는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 481)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 482) 百里를 負米하고. 자료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 483)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484) 醜榮.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485)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486)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487)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488) 空林의. 빈 숲의. 낙엽이 진 겨울 숲의.
- 489) 反哺恩. 새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490) 微物. 작고 보잘 것 없는 동물.
- 491)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뛸.
- 492) 誠意. 정성스러운 뜻.
- 493) 바지.
- 494)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495)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496) 치마.
- 497)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498) 어떤 사물의 윗부분.
- 499) 길버선. ‘길 갈 때 시는 버선’인 듯.
- 500)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501)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502) 바가지.
- 503) 遼山. 먼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504) 을씨년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양.
- 505) 哀矜히. 불쌍하게.
- 506)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507) 求患. 어려운 지경에서 구함.
- 508) 十匙一飯. 열 손가락의 밥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말.
- 509)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 510) 그릇에 담은 밥, 혹은 그릇에 담은 만큼의 밥.
- 511) 醬.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12) 厚히. 마음 씩씩이가 너그럽게. 많이.  
 513) 기다리는데.  
 514) 먹사오리카. 먹겠습니까.  
 515) 못한지라. 충분한지라.  
 516) 遠山. 멀리 떨어져 있는 산.  
 517) 半日. 반나절.  
 518) 시장하지는. 배가 고프지.  
 519)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520)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쌀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521)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522) 孝行. 효성스런 행동.  
 523)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524)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525)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526)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527) 張丞相宅 夫人. 승상 벼슬을 한 장씨 성을 지닌 사람의 부인.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528)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529) 애야.  
 530) 別親. 특별히 친함.  
 531) 진작.  
 532) 蛾眉. 미인의 눈썹을 이르는 말.  
 533) 빨리.  
 534) 青松. 푸른 소나무.  
 535) 綠竹. 푸른 대나무.  
 536) 亭下. 정자 아래.  
 537)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538) 狂風. 미친 바람. 거센 바람.  
 539)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540) 老龍. 늙은 용.  
 541)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542) 자취에.  
 543) 날개.  
 544) 발을 멀쩡멀쩡 띄어놓으며 걷는 모양.  
 545) 戛然聲. 학이 우는 소리.  
 546) 奇異하구나.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547) 階上. 섬돌 위.

- 548) 반가와 하여.
- 549) 座. 앉을 자리.
- 550) 武陵에. 무릉촌에.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뜻하기도 하는데,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를 이룸.
- 551) 開花. 꽃이 폼.
- 552) 棄世히시고. 세상을 버리시고. 돌아가시고.
- 553)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554) 騰揚. 세력이나 지위가 높아서 드날림.
- 555) 대하는 것이.
- 556)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 557) 收養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 558) 女工.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 559) 文筆. 글과 글씨.
- 560) 末年. 일생의 마지막 무렵.
- 561)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562) 日暮. 날이 저물. 저물녘.
- 563)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 564)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 565)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 566) 寂寞空山.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산.
- 567) 人跡. 사람의 자취.
- 568)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 569)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570) 도량 出入. 도량을 드나드는 일. ‘도량’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 571) 더듬더듬하면서.
- 572) 한 길이 넘는. ‘길’은 자기 키만한 높이나 깊이.
- 573) 나오려고 하면.
- 574)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
- 575)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576) 重棚. (낡은 건물들)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 577)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집.
- 578) 비스듬한.
- 579) 急急히. 매우 급하게.
- 580) 舉動. 몸의 움직임이나 태도.
- 581) 버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 582)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583)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댄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584)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585) 龍頭. 용의 머리.
- 586)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고 다니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587)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 588)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 589) 念佛. 부처의 모습이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는 일,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일.
- 590) 俗家. 불교를 믿지 않는 집안을 불가에서 이르는 말.
- 591) 極樂世界. 불교에서 이상적 세계로 이르는 것으로,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지경이나 그런 곳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592)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어,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랍.
- 593) 願往生.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람.
- 594) 諸宮宗室各安寧. 임금의 친족과 왕실이 두루 평안하기를 빌.
- 595)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596) 언뜻. 지나가는 곁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
- 597)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를 죽인 곳.
- 598)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599)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채주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 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600) 둔갑하여. 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 601) 오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602) 竹杖. 대나무 지팡이.
- 603) 개울. 작은 내.
- 604) 대님.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좁다란 끈.
- 605)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606) 가랑이.
- 607) 자개미에. '자개미'는 겨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608) 물이 꺾여 있는 논.
- 609)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610)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611) '고드름상투'인 듯. 고드름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상투.
- 612) 에후리쳐. 여기서는 '감아 쥐어' 정도의 의미.

- 613) 白骨難忘. 죽어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614)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15)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616) 施主집. 중이나 절에 재물을 내는 사람의 집.
- 617)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618) 靈驗.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험.
- 619)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620) 後事. 뒷일.
- 621) 勸善.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보시를 청함. 여기서는 ‘권선책(勸善冊)’임. ‘권선책’은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622) 家産. 한 집안의 재산.
- 623) 手段.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 624) 佛供. 부처님께 음식이나 재물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 625) 말이나 하는 것이 미답지 못한.
- 626)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 627) 뉘라서. 누가.
- 628)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 629) 지우고.
- 630)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631) 於焉間. 어느새.
- 632) 나더러. 나에게.
- 633) 佛前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 634)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는 꾀를 다 써봐도, 해결할 만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음.
- 635)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 636) 목욕재계(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637) 淨히. 깨끗이.
- 638) 모으고. 쌓아올리고.
- 639) 子夜半에. 한밤중에.
- 640) 돋우어 켜고.
- 641)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642) 天地之神.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
- 643) 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
- 644) 和爲同心.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645) 戊子生. 육십 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 646) 눈이 멀거나 어두워 못 보는 사람. 장님.

- 647) 眼盲하여. 눈이 멀어.  
 648) 將近토록. 곧 가깝도록. 거의 다 되도록.  
 649) 視物. 사물을 봄.  
 650) 忠孝之心. 충성과 효도를 하려는 마음.  
 651) 天神. 하늘에 있는 신. 하느님.  
 652) 겨우겨우.  
 653) 欲報之德澤인댄 昊天罔極이라. 그 덕택을 갚으려고 하면 하늘 끝까지 다함이 없다.  
 654)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655)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656) 외치는.  
 657) 船人. 뱃사람.  
 658)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659)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660) 사려고 하니.  
 661) 있습니까.  
 662) 외치는.  
 663)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664) 크고 우렁차게.  
 665) 千載一時. 천년에 한번 만나는 좋은 기회.  
 666) 隱身. 몸을 숨김. 몸을 감춤.  
 667) 當年. 일이 있는 바로 그 해. 올해.  
 668) 出天之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669) 來月. 다음 달.  
 670)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671) 重값. 많은 값.  
 672) 애야.  
 673) 前日. 전 날.  
 674)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675) 것이야. 것은.  
 676) 정가. 지난 허물이나 결함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677) 來月. 다음 달.  
 678) 行船日. 배가 떠나는 날.  
 679) 生存時. 살아 있는 때.  
 680) 잊어버려 생각이 아득하고. 황폐하여 쓸쓸하고.  
 681) 胸中.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  
 682) 끝없는.  
 683) 肝腸. 마음. 애.  
 684) 四時. 사철.



- 685) 籠. 자그마하게 만든 옷을 넣어두는 가구.
- 686) 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눌러 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687) 隔한지라. 사이가 떨어진지라. 남은지라. 남았다.
- 688) 墳墓. 무덤.
- 689) 焚香四拜. 향불을 피우고 네 번 절을 함.
- 690)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 691) 祭需.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이나 물건.
- 692) 年年이. 해마다.
- 693) 忌日. 죽은 날. 제삿날.
- 694) 伐草. 무덤의 풀을 베는 일.
- 695) 亡終. 마지막.
- 696) 歆饗. 신령의 제물을 받아서 먹음.
- 697) 四拜. 네 번 절을 함.
- 698) 寂寂. 아주 고요함.
- 699) 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 700) 흐느끼는데.
- 701)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702) 五更時.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해가 뜨는 시각.
- 703) 咸池에. '함지'는 중국 전설에서 해가 진다는 큰 연못.
- 704) 扶桑.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의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이름, 또는 그곳.
- 705) 半夜. 한밤중.
- 706)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 707) 孟嘗君.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찌기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 708) 東方. 동쪽.
- 709) 亡終. 마지막.
- 710) 小盤. 자그마한 밥상.
- 711) 진지.
- 712) 別로. 특별히.
- 713) 別로. 특별히.
- 714) 이르구나.
- 715) 貴人. 귀한 사람.
- 716) 解夢. 꿈 속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 717) 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연(輦),  
 덩, 초헌(輶軒), 남여(籃輿), 사인교(四人轎) 따위가 있다.
- 718) 차려놓은 음식의 가짓수가 많아 푸짐하구나.
- 719) 다른 자리로 옮겨 놓고.
- 720) 우두커니.
- 721) 舉動. 몸을 움직이는 짓이나 태도.
- 722)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뱃속에 답답하게 남아 있느냐.
- 723)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 724) 속엿기에.
- 725) 묻지도. 물어보지도.
- 726) 살 것인데.
- 727) 長成. 자라서 어른이 됨.
- 728) 새로 생긴 근심.
- 729) 너로 인하여. 네 덕분에.
- 730) 아침 저녁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
- 731) 星火같이. 몹시 급하고 심하게. ‘성화’는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으로, 몹시 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32)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 733) 無知한. 미련하고 사나운.
- 734)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 735)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  
 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 736) 빌 것 같으면. 빌려고 하면.
- 737)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풀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 738) 상림(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 739)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 740) 목젖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741) 덜커덕. 크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 742) 내려가면서 뒹굴.
- 743) 내려가면서 뒹굴.
- 744) 情狀.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 745) 可矜히. 불쌍하게.
- 746) 흰쌀. 껍질을 벗긴 쌀.
- 747) 石. 섬. 부피의 단위. 열 말. 180리터.
- 748) 麻布. 삼베.
- 749) 어찌할 수 없어.
- 750) 치마.
- 751) 여러 번 걷는 모양.

- 752) 엎드러지며.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753)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754) 놀던.
- 755) 생각하느냐?
- 756) 七月七夕夜에. 칠월칠석날 밤에.
- 757) 結交. 친구로 맺음.
- 758) 하자고 했더니.
- 759) 上針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760) 누구와.
- 761) 俱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심.
- 762) 洞里. 마을. 동네.
- 763) 모두.
- 764) 白日. 밝은 해.
- 765)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 766) 쩡그리는 듯.
- 767) 시들고자. 시들려고 하여.
- 768) 춘조(春鳥). 봄철의 새.
- 769)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 770)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 771)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촉나라로 돌아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772)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773)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 774) 若道春風不解意면 何因吹送落花來라? 만약 봄바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는 꽃을 날려 보내겠는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끝 구절임.
- 775) 송(宋)무제(武帝) 수양공주 매화장(梅花粧)은 있지마는. 송나라 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은 있지만은. ‘매화장’은 차마 밀에 누운 공주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져 마치 매화 꽃잎으로 화장한 것과 같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나타낸 말.
- 776)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 777) 江邊. 강가.
- 778) 船頭. 뱃머리. 배의 맨 앞부분.
- 779) 足板.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 780) 空船. 사람도 태우지 않고 짐도 싣지 않은 배.
- 781) 指向.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 782) 萬頃蒼波.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 783)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784)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785)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786) 滄海. 넓고 큰 바다.  
 787)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788)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789)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790) 三江.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791)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792)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793)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794) ‘그언마는’의 잘못. 그것이건마는.  
 795)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796)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797) 나로. 나를.  
 798)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799)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닮은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800)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801)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802)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803)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804)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805)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 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호의 〈황학루〉의 끝 구절.  
 806)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807) 遺蹟. 옛 자취.  
 808)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809)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라.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이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810) 李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 받았다. 신선이 하늘에

- 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811) 놀던.
- 812)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813)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814) 一去後에. 한 번 간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 815)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816)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817)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 818)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819) 依舊하여. 옛과 같이.
- 820)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 821)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822)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823)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824) 姑蘇城外. 고소성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825)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826) 종소리.
- 827)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828)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탄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魚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가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829)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830) 隔江의. 강 건너편의.
- 831) 商女. 술파는 여인.
- 832)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즐기던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833)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 834)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835)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탄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목으려

- 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 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836)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837) 湖上에. 호수 위에.
- 838)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된 명산.
- 839)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종류에 있음.
- 840)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 빛.
- 841)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842)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843)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 844)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종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845) 원승이.
- 846)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847)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 848) 香風. 향기로운 바람.
- 849) 竹林. 대나무 숲.
- 850)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851)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 852) 呻吟거려. 신음을 하면서.
- 853)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854) 蒼梧山崩湘水絕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855) 千秋. 아주 오랜 세월.
- 856)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857)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점잖으나?
- 858) 堯舜 後 幾千年에. 요순 임금 후 수천 년이 흐른 뒤에.
- 859) 누구이며.
- 860)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861)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 862) 水路. 물길. 바닷길.
- 863) 이는 누구인고하니.

- 864) 堯女舜妻 萬古烈女 二妃로다.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만고의 열녀인 두 왕비(곧 아황과 여영)로다.
- 865) 瀟湘江. 양자강 종류에 있는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 부근이 특히 경치가 좋다고 한다.
- 866) 胥山.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 사람으로 오나라에서 장군으로 있다가 모함으로 죽은 오자서의 사당이 있는 곳.
- 867) 狂風. 사나운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
- 868) 大作하며. 크게 일어나며.
- 869) 蕭颯하더니. 쓸쓸하더니.
- 870) 面如巨輪. 얼굴이 큰 수레바퀴와 같이 큼.
- 871) 眉間이 廣闊하고, 두 눈썹 사이가 넓고.
- 872) 오나라 왕 부차가 간신 백비의 말을 듣고 오자서를 자결케한 뒤, 가죽 부대에 시신을 담아 강물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됄.
- 873) 伯嚭.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874) 屬鏑劍.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875) 越兵의 滅吳함을 보려고.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려고.
- 876) 참소로 죽게 된 오자서가 죽을 때, 월나라에 의해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죽은 뒤에 두 눈을 빼어 동문(東門)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고사를 이룸.
- 877)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죽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 878)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 879) 澤畔. 연못가에 있는 언덕.
- 880)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무관(武關)에서 만나자는 말에 속아 무관에 갔다가 잡혀 죽은 일을 가리킴.
- 881) 未歸魂. 돌아오지 못한 혼령.
- 882) 博浪槌聲. 하남성의 박랑사(博浪沙)에서의 철퇴 소리. 한(漢)나라의 모사가 된 장량(張良)이 장사를 얻어,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진시황이 타고 가는 수레를 박랑사에서 철퇴로 내려친 일을 가리킴. 진시황의 살해 계획은 실패했음.
- 883) 반겨.
- 884) 洞庭 湖. 동정호에 비치는 달빛.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 북동쪽, 양자강 종류에 있는 민물 호수.
- 885) 진시황은 진나라 소왕(昭王)의 후예이기 때문에, 진시황을 죽여 소왕에게 당한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듯함.
- 886) 王者. 왕.
- 887) 憔悴. 고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안색이 파리하고 해쓱함.
- 888) 形容. 생긴 모양.

- 889) 枯槁. 아위어서 파리함.
- 890) 屈原. 중국 전후시대 초나라의 선비로 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 회왕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로 몰려나 먹라수에 빠져 죽었음. 《초사(楚辭)》와 〈어부사(漁夫辭)〉를 지었음.
- 891) 精魂. 죽은 사람의 영혼.
- 892) 四五朔. 4~5개월.
- 893) 金風颯而夕起하고, 玉宇廓而崢嶸이라. 가을 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일어나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 시대 김인후(金仁厚)가 지은 〈칠석부(七石賦)〉의 한 구절.
- 894) 落霞는 興孤鶩飛하고, 秋水共長天一色이라.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滕王閣)〉의 머릿글인 〈등왕각서〉의 한 구절.
- 895) 江岸에 橘濃 黃金이 千片. 강 언덕에 귤빛이 질어지니 마치 수많은 황금 조각 같음.
- 896) 蘆花에 風起하니 白雪이 萬點이라. 갈꽃에 바람이 부니, (갈꽃이 바람에 날려) 흰눈이 가득하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 897) 深蒲細柳. 냇버들과 가는 버들.
- 898) 滿江秋風에. 강에 가득한 가을 바람에.
- 899) 玉露清風. 맑은 이슬과 서늘한 바람.
- 900) 돌우어 켜고.
- 901) 漁歌. 어부들의 뱃노래.
- 902) 海畔青山. 바닷가 언덕의 청산.
- 903) 肝腸이라. ‘간장’은 마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
- 904)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吊湘君고. 장사에 해는 지고 가을은 깊어가는데, 어디 가서 상군을 조문할지 모르겠구나.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의 마지막 두 구절. ‘장사’는 동정호 곁에 있는 지명이며,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킴.
- 905) 宋玉.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辭)와 부(賦)에 능하여 〈구변(九辯)〉, 〈초혼(招魂)〉, 〈풍부(風賦)〉, 〈고당부(高唐賦)〉 등의 작품을 남겼다.
- 906) 悲秋賦. 《초사(楚辭)》의 〈구변(九辯)〉을 가리킴.
- 907) 이보다.
- 908) 童女. 여자 아이.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함.
- 909) 採藥 뱃가. 약을 캐러 가는 배인가.
- 910) 方士.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 911) 전한(前漢)의 7대 왕.
- 912) 求仙. 신선을 구함.
- 913)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914)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 915) 蒼茫. 넓고 멀어 아득함.



- 916)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917) 霹靂. 벼락.  
 918) 大洋. 큰 바다.  
 919) 저물어진.  
 920) '까치놀'인 듯. '까치놀'은 석양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쩍거리는 물결.  
 921) 배의 맨 앞 부분.  
 922)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923)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924) 遑遑急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925)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926) 한 섬이나 되는 쌀.  
 927) 온전한 소. 한 마리 통째의 소.  
 928) 동이.  
 929)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930)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931) 뗏돼지.  
 932) 배의 맨 앞 부분.  
 933)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934)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935)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936) 만들어.  
 937)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938) 然後에. 후에.  
 939)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940) 爲業. 직업으로 삼음.  
 941)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942)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우는 이 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943) 다스릴.  
 944) 五服으로 定한 貢收. 오복에 (따라) 정한 공수. 오복에 따라 정한 세금의 징수. '오복'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시대에는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으로 나누었는데, 한 복은 각각 500리 임.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稅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물품을 뜻함.  
 945)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946) 伍子胥.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수. 이름은 원(員).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 괴살되었기 때문에 오(吳)나라로 도망가서, 오나라를 도와 초를 쳐서 원수를 갚았음.
- 947) 奔吳할 제. 오나라로 도망갈 때.
- 948) 櫓歌로 건너주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건너주고.
- 949) 해하성(垓下城)에서 패한 장수. 곧 항우를 가리킴. 해하는 중국 안휘성 영벽현에 있는 옛싸움터로, 기원전 202년 한 고조 유방(劉邦)의 군사가 초나라 항우(項羽)의 군사를 무찌른 곳임.
- 950)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951) 于先待期. 우선 (다시 반격할)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며.
- 952) 孔明. 삼국시대 촉(蜀)의 모사인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현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953) 脫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뛰어난 재간.
- 954)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명장.
- 955) 火攻. 불로 하는 공격. 조조의 백만군과 오·촉 연합군이 적벽강에서 접전할 때, 공명이 겨울철에 동남풍을 빌어 화공을 통해 조조의 군사를 대파한 일을 가리킴.
- 956) 舟搖搖以輕易.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나아간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
- 957) 陶淵明. 중국 진(晉)나라의 시인으로 심양 출신. 이름은 잠(潛). 405년에 팽택(彭澤)의 슈이 되었으나 80여일 후에 〈귀거래사〉를 남겨두고 귀향했음. 문 앞에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일컬었음.
- 958) 〈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이 지은 시.
- 959) 해활고범지(海闊孤帆遲). 바다는 넓은데, 외로운 돛단배는 느릿느릿 떠간다.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 나오는 시구.
- 960) 장한강동거(張翰江東去). 장한이 강동으로 떠남.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의 첫 구절.
- 961) 壬戌之秋七月. 임술년 가을 7월.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첫 구절.
- 962)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軾), 자(字)는 자첨(子瞻). 동파는 그의 호. 아버지 순(洵), 동생 칠(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지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 963)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964) ‘어기영차’와 같은 의성어.
- 965) 叩枻乘流無定去. 노를 놓아두고 물결을 타고서 한없이 감.
- 966) 즐거움.
- 967) 桂掉蘭桡華亭彪는 吳姬越女採蓮舟요. 화정의 강물에 뜬 계수나무 노와 난목 샅대를 한 배는, 오나라와 월나라 여인들이 연을 깨는 배요. ‘화정’은 중국 강소성 송강현에 있는 지명.
- 968) 發船. 배가 떠남. 배를 타고서 떠남.

- 969) 商賈船. 장사하는 배.  
 970) 商賈. 장사.  
 971) 爲業. 직업으로 삼음.  
 972) 經世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남. 곧 여러 해가 지남.  
 973)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974) 옛부터 전해 내려온 중국신화의 내용에 따르면 황제는 중앙부의 상제였으며, 나머지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도 각각 그곳을 주관하는 상제가 있었다고 한다. 동방 상제는 태호, 즉 복희(伏羲)이고 그를 보좌하는 신은 목신(木神)인 구망(句芒)인데, 손에는 콧파스를 들고 있고 봄을 관장한다고 한다. 남방 상제는 염제(炎帝)이며, 보좌신은 화신(火神)인 축융(祝融)이다. 그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으며, 여름을 주관한다. 서방 상제는 소호이고, 보좌신은 금신(金神)인 욱수(蓐收)이다. 욱수는 가을을 관장한다. 북방 상제는 전옥(顓頊)이며 보좌신은 수신(水神)인 현명(玄冥), 즉 해신(海神)이자 풍신(風神)인 우강이며 손에는 저울추를 들고 있고 겨울을 관장한다고 한다.  
 975)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976)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977) 下瞰. 위에서 내려다봄.  
 978)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979) 和樂. 화평하고 즐거움.  
 980)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981) 百千萬金. 수많은 돈.  
 982) 堆. 이익.  
 983) 鳳旗. 봉이 그려진 깃발.  
 984) 蓮花. 연꽃.  
 985) 運甕.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한 기운.  
 986)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조왕신(寵王神, 부엌의 신)에게 가족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드리거나 약을 달이는 데 쓴다.  
 987) 大明天地. 환하게 밝은 세상.  
 988) 七十生男. 일흔 살에 아들을 낳음.  
 989) 億十萬金. 수많은 돈.  
 990) 그것일랑은. 그것은.  
 991) 萬頃蒼波. 한없이 넓은 바다.  
 992) 갈매기처럼.  
 993) 香火. 향불이나 그 연기.  
 994)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995)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996) 格軍. 조선시대 선원으로 사공의 일을 돕던 사람..  
 997) 火匠. 밥을 짓는 일을 맡은 선원.  
 998) 年年이. 해마다.

- 999) 後嗣. 대를 이을 자식.  
 1000) 執佐. 영좌를 보좌하는 사공.  
 1001) 雨後清江. 비온 후의 맑은 강.  
 1002) 興.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1003) 白鷗. 갈매기.  
 1004) 紅蓼月色. 가을이 되어 잎이 다 떨어져 붉은 대만 남은 여뀌에 비치는 달빛.  
 1005) 곳인고?  
 1006) 逸江細雨驚平生. 가랑비 내리는 한가한 강에서 보내는 백로의 한 평생.  
 1007) 泛彼滄波. 저 넓은 푸른 물결 위에 등등 떠서.  
 1008) 滔滔滔滔. 넘실넘실.  
 1009) 玉皇上帝. 도가(道家)에서 하늘을 이르는 말.  
 1010)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1011) 受命. 명을 받음.  
 1012) 沈小姐. 심씨 성을 가진 아가씨. ‘소지’는 나이 어린 아가씨를 이르는 말.  
 1013) 還收. 도로 거두어들임.  
 1014) 卯時 初. 묘시(5~7시)의 처음. 곧 다섯 시 무렵.  
 1015) 白玉轎. 흰 옥으로 만든 가마.  
 1016) 힘차게 뛰어나가니.  
 1017) 玉轎. 위를 꾸미지 않은, 임금이 타는 가마.  
 1018) 微賤. 보잘 것 없고 천한.  
 1019) 重罪. 무거운 죄. 큰 죄.  
 1020) 威儀. 위엄 있는 거동.  
 1021) 壯할시고.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1022) 仙官. 신선.  
 1023)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1024)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1025) 赤宋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1026)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1027)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1028) 李謫仙. ‘이씨 성을 가진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킴.  
 1029)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1030)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1031) 月宮姮娥. ‘항아’는 달에 산다고 전해 오는 선녀. ‘월궁’은 항아가 살고 있다는 궁전.  
 1032)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뿔나무밭으로 변하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1033)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1034) 八仙女들. 여덟 선녀들.

- 1035) 王子 卽.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1036) 鳳피리.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037)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학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038) 질장구.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 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돛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039) 成連子.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 1040) 張子房.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1041)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
- 1042) 奚琴. 꺾쟁이라고도 하는 현악기의 일종.
- 1043)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 1044) 擊鼙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045) 凌波詞. 당나라 현종(玄宗)이 꿈에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이 깬 후에 지었다는 노래.
- 1046)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047) 羽衣曲. 당나라 현종(玄宗)이 지은 노래.
- 1048) 採蓮曲. 양(梁)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049) 狼藉.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1050) 狼藉.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1051) 掛龍骨以爲樑하니 靈光이 照日이요, 緝魚鱗以作瓦하니 瑞氣 蟠空이라. 용의 뼈를 걸어 들보를 삼으니 신령한 빛이 햇살에 더욱 빛나고, 고기들의 비늘로 기와를 만들어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렸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052) 珠宮貝闕은 應天上之三光이요, 袞衣繡裳은 備人間之五福이라.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하고 곤의(고대 천자가 입던 옷)와 수裳(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053) 珠簾. 구슬로 만든 발.
- 1054) 案床. 책상.
- 1055) 酒饌. 술과 만찬.
- 1056)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1057)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1058)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나 된 좋은 술.

- 1059)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1060)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1061) '괴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높이 쌓아올리다'라는 뜻.  
 1062) 小宴. 작은 잔치  
 1063) 大宴하며. 큰 잔치를 벌이며.  
 1064) 捧供. 받들어 공양함.  
 1065)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1066) 相逢次. 서로 만나려고.  
 1067) 五色採緞.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1068)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1069)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붉은 계수나무의 꽃.  
 1070)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가에서 부리던 하인.  
 1071) 遑急. 몹시 어수선하고 급함.  
 1072) 拜禮. 절을 함.  
 1073) 貴히. 귀하게.  
 1074) 꽤 어지간한 정도로.  
 1075)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 '봉록'은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 '종'은 용량의 단위로 64말(斗).  
 1076) 職分. 맡은 바 일의 본분.  
 1077) 許多. 몹시 많음.  
 1078)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1079) 琤琤. 옥이 맞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1080) 五色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1081) 우두커니.  
 1082) 芳年. 꽃다운 젊은 여자의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  
 1083) 沈小姐. 심씨 성을 가진 아가씨. '소저'는 나이 어린 아가씨를 이르는 말.  
 1084) 人間. 사람 사는 세상.  
 1085) 還送. 되돌려 보냄.  
 1086) 受命. 명령을 받음.  
 1087) 봉오리.  
 1088) 陽臺 仙女. 양대의 선녀. 무산(巫山)의 선녀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산에 내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양대에 나타난다'고 한 말이 나온다. 양대선녀는 따라서 무산의 선녀이다.  
 1089) 朝夕之供.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바침.  
 1090) 饌需凡節. 반찬거리를 법도에 맞게 하는 질서나 절차.  
 1091) 寶貝. 보배.  
 1092) 造化인지라. 조화이기 때문에.  
 1093) 搖動. 흔들려 움직임.

- 1094) 堆. 이익.
- 1095) 忽然히.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 1096) 淨히. 깨끗하게.
- 1097) 오장원(五丈原). 중국 섬서성에 있는 옛 전쟁터. 제갈공명이 병사한 곳임.
- 1098)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침.
- 1099) 三年 武關의 楚懷王. 옛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에게 속아,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믿고 무관에 갔다가 잡혀서,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죽은 일을 말함.
- 1100) 歆饗. 귀신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 1101)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 1102) 世上의 못 본 바라. 세상에서는 못 본 것이다.
- 1103) 當치. 마땅하지.
- 1104) 陣平.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한 고조(高祖)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음.
- 1105) 范亞父. 이름은 증(增). 거소(居巢) 출신으로, 나이 칠십에 항우의 모사가 되어, 홍문에서 잔치를 벌이고 유방을 죽이려다 실패하였음.
- 1106) 楚陣. 초나라의 군사들을 배치한 곳.
- 1107) 楚軍中에다. 초나라 군대에.
- 1108) 玉出崑岡. 옥은 곤륜산에서 남. '곤륜산'은 중국의 산 이름.
- 1109) 있으오리까?
- 1110) 明沙十里. 하얀 모래가 10리나 깔려 있는 바닷가.
- 1111) 노를 저을 때 내는 소리. '영차'와 비슷함.
- 1112) 香臭. 향기로운 냄새.
- 1113) 五色彩雲. 여러 빛깔이 아롱진 고운 구름.
- 1114) 許多히. 매우 많이.
- 1115) 分財. 재물을 나눔.
- 1116) 財物.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 1117) 宋天子. 송나라 천자, 곧 임금.
- 1118) 崩.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
- 1119)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 1120)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121)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 1122) 八月芙蓉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 1123) 萬塘秋水의 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 1124)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 1125)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 1126)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량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 시. <자랑주지경희증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우석을 가리킴.
- 1127) 복숭아꽃.
- 1128)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기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구월용산음 황화소축신(九日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 1129) 三千弟子. 삼천 명이나 되는 제자.
- 1130)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 1131) 杏壇春風의. 행단의 봄바람에.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 1132) 梨花滿地不開門하니 長信宮中 배꽃이요.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던 장신궁 속의 배꽃이요. ‘이화만지불개문(梨花滿地不開門)’은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女)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 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 1133)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 1134)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한나라 사람인 유신과 완조가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갔을 때에 길 양쪽에 작약꽃(합박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는 뜻.
- 1135) 怨征夫之離別하니 玉窓五見의 櫻桃花.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
- 1136)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컫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137) 啼血. 피를 토함.
- 1138) 진달래꽃.
- 1139) 李花. 오얏꽃. 자두꽃.
- 1140) 蘆花. 갈대꽃.
- 1141) 鷄冠花. 맨드라미.
- 1142) 黃菊. 노란색 국화.
- 1143) 白菊. 흰색 국화.
- 1144) 四季花. 월계화(月季花). 월계꽃.
- 1145) 東園桃李片時春. 봄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이 잠시 동안의 봄을 누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 1146) 牧童遙指가 杏花村.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을 가리킴. 당나라 때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의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오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에서 따온 구절.
- 1147)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밤11시에서 1시 사이의 시간. 곧 한밤중)이 없다.



- 1148)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149) 梔子.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높이는 2~3m정도이며, 7월에 크고 흰 꽃이 피.
- 1150) 柑果. 장과(漿果)의 하나. 속 열매껍질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감자, 유자 따위가 있다.
- 1151)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 큰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악기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152) 으름.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153) 대추.
- 1154) 香果. 향기로운 과일.
- 1155)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156) 슬쩍.
- 1157) 지지귀어 울며.
- 1158) 꽃봉오리.
- 1159) 御殿. 임금의 있는 곳.
- 1160) 進上.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옷사람에게 바침.
- 1161) 船人. 뱃사람.
- 1162)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163) 致賀.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 1164) 太守.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1165) 除授. 벼슬에 추천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 1166) 花階上에다. 화단 위에다.
- 1167) 반갑게.
- 1168) 瑤池 碧桃花.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연못가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고 함.
- 1169) 東方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청(曼淸).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俗說)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170)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171) 一夜는. 하룻밤에는.
- 1172) 怪異히. 괴이하게.
- 1173) 사람인가.
- 1174) 不意에. 뜻하지 않게.
- 1175) 天眼. 임금을 높이어 그 눈을 가리키는 말.
- 1176) 惶恐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매우 무섭고 두려움.
- 1177) 떨어지자마자.

- 1178)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져 보이지 아니함.
- 1179) 반갑게 여기어.
- 1180) 緣由. 그렇게 된 까닭.
- 1181) 探問. 더듬어 찾아 물음.
- 1182) 別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 1183) 朝會.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 1184)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 1185) 滿朝諸臣. 조정의 여러 신하.
- 1186) 國母. 왕후.
- 1187) 天與不娶면 反受其殃이라. 하늘이 보낸 것을 아내로 삼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입게 된다.
- 1188) 擇日. 날을 잡음.
- 1189) 入宮. 궁에 들어감.
- 1190) 年年이. 해마다.
- 1191) 家家戶戶. 집집마다.
- 1192)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193) 비스듬히.
- 1194) 秋月은 滿庭하여. 가을 달빛은 정원에 가득하여.
- 1195) 珠簾.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 1196) 晴天. 맑은 하늘.
- 1197) 月下에. 달 아래.
- 1198) 蘇中郎 北海上의 便紙 傳던 기러기나. 소중량은 한무제(漢武帝) 때의 충신으로, 이름은 무(武), 자(字)는 자경(子卿).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으므로 소중량이라고 함. 소무는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는데, 기러기 발에다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 19년 만에 돌아왔음.
- 1199) 水墨. 빛이 엷은 먹물. 여기서는 글씨에 물이 번져 뭉개진 것을 이름.
- 1200) 誤錯. 잘못되어 뒤섞임.
- 1201) 滄茫. 너르고 멀어 아득함.
- 1202) 분명하고 뚜렷하게.
- 1203) 內宮.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란 의미로 쓴 듯함.
- 1204) 愁色. 근심스러운 기색.
- 1205) 滿面. 얼굴에 가득함.
- 1206) 富는. 부유하기는.
- 1207) 天下. 온 세상.
- 1208) 貴는. 귀하게 되기는. 귀함으로 말하면.
- 1209) 皇后읍는데. 황후이운데. 황후이신데.
- 1210) 天下莫非王土.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온 세상이 다 왕의 땅임.
- 1211) 率土之民이 莫非王民. 온 나라 안의 일반 백성이 왕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음.
- 1212) 天地日月. 이 세상과 해와 달.

- 1213) 積抱之恨. 가슴속에 쌓인 한.
- 1214) 臣妾. 왕비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 1215) 國母之德行. 국모인 황후의 덕이 있는 행동.
- 1216) 行關. 동등한 관청 사이에 공문을 보냄.
- 1217) 大小 人民間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백성들은.
- 1218) 封庫罷職.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많은 관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던 일.
- 1219) 傳令. 명령을 전함.
- 1220) 至於. ~에 이르기까지.
- 1221) 僅僅扶持. 겨우 건디어 나감.
- 1222)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223)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양양현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 1224) 碑文. 비석에 새긴 글.
- 1225) 至憂其親廢雙眼하여 殺身成孝行船去라. 煙波萬里常深碧허니 芳草年年還不歸라. 어버이께서 두 눈이 다 없는 것을 지극히 근심하여,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배를 타고 떠났네. 멀고먼 안개 낀 물 늘 깊고 푸른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지만, (심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 1226) 지팡이.
- 1227)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1228) 碑文. 비석에 새긴 글.
- 1229) 一日도. 어느 날도.
- 1230) 水中孤魂. 물 속의 외로운 혼령.
- 1231)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1232) 제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영악하게 덤비는 사람.
- 1233) 아래로 내려가면서 덩굴.
- 1234) 위로 올라가며 덩굴.
- 1235) 가슴.
- 1236) 南之西之. '남쪽과 서쪽'인 듯.
- 1237) 가리키는구나.
- 1238) 本村. 주가 되는 마을을 갈라져나간 마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1239) 號. 별호(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240) 錢穀間에. 돈이나 곡식이나 무엇이든.
- 1241) 自願出家. 자기가 원하여 시집을 감.
- 1242) 주전부리.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끼니 외에 음식을 자꾸 먹음. 또는 그런 입버릇.
- 1243) 家山. 집안의 재산.

- 1244) 음식을 먹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1245) 밥을 시켜 먹는 일.  
 1246) 洞人, 동네 사람.  
 1247) 樵軍, 나무꾼.  
 1248) 行人에게, 길가는 사람에게.  
 1249) 詰難,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1250) 가볍게 한 번 훑어보는 모양.  
 1251) 가볍게 한 번 눈동자를 옆으로 굴러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1252) ‘빼죽’보다 강한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253) ‘빼죽’보다 센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254) 害談, 해로운 말.  
 1255) 封窓,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이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  
 1256) 돈櫃, 돈을 넣어두는 께. ‘궤’는 나무로 상자처럼 만든 그릇.  
 1257) 外丁, 남자.  
 1258) 치, 못마땅하거나 아니꼽거나 확 날 때 내는 소리.  
 1259) 官家, 벼슬아치들이 나랏일을 보던 집. 관청.  
 1260) 皇城,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1261) 排設,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놓음. 여기서는 ‘차려놓음’ 정도의 의미.  
 1262) 不參, 참석하지 아니함.  
 1263) 重罪, 무거운 죄, 큰 죄.  
 1264) 路費, 노자(路資), 먼 길을 갈 때 드는 비용.  
 1265) 厚히, 너그럽게, 많이.  
 1266) ‘웁다’가 ‘웁가미를 씌워 뉘어채다.’이므로, 여기서는 ‘뉘어첼’ 또는 ‘빼앗을’이라는 의미.  
 1267) 女必從夫,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함.  
 1268) ‘열녀(烈女)’보다 더하므로 ‘백녀’라고 했는데, ‘백녀’는 ‘백여우’를 연상시켜, ‘간사하고 요망한 계집’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함.  
 1269) 行裝,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1270) 이제.  
 1271) 어떻게 갈까?  
 1272) 越江, 강을 건너 뛸.  
 1273) 靑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 말.  
 1274)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  
 1275)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소리를 해 주소.  
 1276) 경상도 민요의 가락.  
 1277) 발을 매면서 부르는 민요.  
 1278) 半半, 절반씩.  
 1279) 日暮, 날이 저물어짐.  
 1280) 서로 마음이 통하여.

- 1281) 三伏더위. 삼복의 몹시 심한 더위.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함께 이르는 말로, 여름철의 몹시 더운 기간’임.
- 1282) 새벽에 가는 길.
- 1283) 가야.
- 1284) 할 텐데.
- 1285) 밤길 간다고.
- 1286) 이제야.
- 1287) 內外間. 부부 사이.
- 1288) 當初.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 1289) 그리하지 말라고 금지할 하는 말.
- 1290) 실없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1291)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 1292)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 자살, 타살, 사고사 따위를 이른다.
- 1293)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이 부스러지면서 내는 소리.
- 1294) 툄씩. 갑자기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295) 野俗한.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은.
- 1296) 있다고 한다면. 있으면.
- 1297) 行하는지. 가는지.
- 1298)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 1299) 三伏盛炎. 삼복의 심한 더위. ‘삼복’은 한 해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이름.
- 1300) 세차게 뿌리며.
- 1301) 靑山. 푸른 산.
- 1302) 골짜기.
- 1303) 한 곳으로.
- 1304) 합수(合水)졌다가. 물이 합쳐졌다가.
- 1305)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구비쳐.
- 1306) 거품이 일어.
- 1307) 병풍처럼 생긴 바위.
- 1308) 壯히. 매우.
- 1309)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1310) 양치질.
- 1311) 三角山. 서울 남산의 옛 이름.
- 1312) 이보다.
- 1313) 東海流水. 동해의 흐르는 물.
- 1314) 크고 묵직한 물건이 깊은 물에 자꾸 떨어져 잠기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315) 종을시고.
- 1316)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여 버릇이 없는.
- 1317) 衣冠行裝. 옷과 갓,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 1318) 白首風神. 머리가 허연 노인의 풍채
- 1319)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 1320) 官子. 벼슬아치.
- 1321) 官은 民之父母. 관리는 백성의 부모임.
- 1322) 가만히 자꾸 기어가는 모양.
- 1323) 及唱. 옛날 지방 관청에 딸려있던 하인.
- 1324) 白活次. '白活'은 이두로 '발팔'로 읽음. '발팔'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남에게 부탁하거나 하소연함.' 따라서 '백활차'는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남에게 부탁하거나 하소연하려고.'
- 1325)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326) 別般處分. 보통과 달리 잘 처리해 줌.
- 1327)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 1328) 太守長. 태수 어른.
- 1329) 可矜히. 불쌍하게.
- 1330) 百拜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 1331) 가상의 다리 이름.
- 1332) 緣水亭. 푸른 물가에 있는 정자란 뜻으로, 지어 붙인 가상의 정자 이름.
- 1333) 안 시켜주드고. 안 시켜주더구만. 봉사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말.
- 1334) 가지 아파.
- 1335) 주지요.
- 1336) 실답지 못하게. '실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 1337) 一飽食도 재수라고. 한 번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도 재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
- 1338) 忘勞而歌. 수고로움을 잊어가며 노래를 함.
- 1339) 메기는 소리.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하는 노래.
- 1340) 주고받아 가며.
- 1341)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였으니. 옛적 천황씨는 목덕으로서 왕노릇을 하였으니. 천황씨는 중국 전설상의 최초의 왕. '목덕'은 총명예지와 인·의·예·지의 다섯 가지 덕을 오행으로 형상화한, 우주 만물에 그 힘이 미친다는 임금의 덕.
- 1342) 나무.
- 1343) 중하지 않겠는가?
- 1344) 有巢씨 構木爲巢.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집을 지었음. 유소씨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345) 지으셨나?
- 1346) 강태공이 만든 것이로다. 방아의 등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썼는데, 이는 경신이 넷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1347)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348) 비녀이던가? 비녀인가?

- 1349) 簪. 비녀.
- 1350) 滄海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351) 周文王의. 주나라 문왕의.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임. 그러나 ‘돈수’와 관련이 없음.
- 1352) 頓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
- 1353) 楚王宮人의. 초나라 궁녀의
- 1354) 허리일런가. 허리인가?
- 1355)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356) 聖上. 자기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1357)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358)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
- 1359) 古今. 옛과 지금.
- 1360) 萬疊靑山. 아주 깊은 산.
- 1361) 소나무.
- 1362) (일정한 곳에 장치 구조물 따위를) 설치하였는가?
- 1363) 形容. 모양. 생김새.
- 1364) 譬樣튼가. 견주어 이를 본따 만들었던가.
- 1365) 오르락내리락.
- 1366) 孟浪하다. 가볍게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툭툭하고 갑작하다.
- 1367) 곡식을 씻어내 뿌영게 된 물.
- 1368) 애호박국. 덜 여문 어린 호박으로 끓인 국.
- 1369) 배充腹. 배를 채움.
- 1370) 찢든찢든. 녹진하게 차져 끈적끈적하게 자꾸 달라붙는 모양.
- 1371) ‘자세히’라는 의미인 듯함.
- 1372) 怪異히. 이상아룻하게.
- 1373) 萬無. 결코 없음.
- 1374) 外堂. 바깥채.
- 1375) 夕飯. 저녁밥.
- 1376) 內堂. 안채.
- 1377) 讀經. 경문을 소리 내어 외거나 읽음.
- 1378) 疑端. 의심스러운 일의 실마리. 여기서는 ‘뭔가 안 좋은 일’ 정도의 의미인 듯함.
- 1379) 坐. 자리
- 1380) 棄世. 세상을 버림. 죽음.
- 1381) 卜術. 점치는 법.
- 1382) 平生을 我自知라. 평생을 내 스스로 알다.
- 1383) 吉緣. 운수가 좋은 인연.

- 1384) 일월(日月)은 눈을 상징하므로, 일월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이고, 잠길 침(沈)은 성으로는 심(沈)으로도 읽히므로 심 씨인 줄 짐작하였다는 뜻.
- 1385) 千不當萬不當. 전혀 사리에 맞지 아니함.
- 1386) 洞房華燭.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지는 의식.
- 1387) 胡蝶夢.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즐기며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음.
- 1388) 만들어.
- 1389) 身入火허니 和樂이요, 去皮作鼓허니 큰 소리 날 것이요, 落葉이 歸根허니 子女를 可逢이라. 자신이 불에 들어가니 화평하고 즐거우며(‘火落(불에 떨어짐)과 화락(和樂)이 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인.), 가족을 벗겨 북을 만드니 큰 소리가 날 것이요,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 1390) 闕內. 궁궐의 안.
- 1391) 證驗. 증거로 될 만한 경험.
- 1392) 使令.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1393) 各邑. 각 고을. 각각의 고을.
- 1394) 亡終. 마지막
- 1395) 외치는.
- 1396)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1397) 크고 우렁차게.
- 1398) 이때에.
- 1399) 父親相逢하겠더니. 아버지를 만나자고 하였더니.
- 1400) 當年. 그 해의 나이. 올해의 나이.
- 1401) 當年 七十 老患. 연세가 70이나 되어 늙고 병들어.
- 1402) 오시는가?
- 1403) 哀痛해 하시다가. 몹시 슬퍼하시다가.
- 1404)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신령스런 보람.
- 1405) 宛然히. 분명하고 뚜렷하게.
- 1406) 맹인 속에서. 맹인 중에서.
- 1407) 亡終. 마지막.
- 1408)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409) 居住. 머물러 삶. 여기서는 ‘사는 곳’.
- 1410) 護送. 호위하여 보냄.
- 1411)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1412) 點考. 장부에다 점을 찍어가며 확인함.
- 1413)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
- 1414) 天下. 온 세상.
- 1415) 滿座中. 사람들이 모든 좌석에 가득 앉은 가운데.
- 1416)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



- 1417) 形容. 모습.  
 1418) 隱隱하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 하나.  
 1419) 珠簾. 구슬을 꿰어 만든 줄을 여러 개 늘어뜨려 만든 발.  
 1420) 居住. 사는 곳.  
 1421) 妻子. 아내와 자식.  
 1422)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423) 故土. 고향의 땅. 고향.  
 1424) 產後頗. 출산 후에 일어난 병.  
 1425) 喪妻. 아내를 잃음.  
 1426) 襁褓. 포대기.  
 1427) 出天하여. 하늘이 내서. 아주 뛰어나서.  
 1428) 祭需. 제사에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  
 1429) 匕首劍. 비수.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1430) 나더러. 나에게.  
 1431) 于今. 지금까지.  
 1432) 버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1433) ‘깜짝깜짝’의 약한 말. 자꾸 깜짝거리는 모양.  
 1434) 道術.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1435) 어떤 일의 여파, 또는 영향.  
 1436) 滿座盲人. 좌석에 가득한 맹인.  
 1437) ‘갈모’는 ‘갓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갓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퍼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철부채처럼 훌쭉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1438) 찢어내는.  
 1439) 中路. 길 가는 중간.  
 1440) 실패지 못하게. ‘실패다’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참되다.  
 1441) 至於飛禽走獸까지.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1442) 光明天地. 밝은 세상.  
 1443) 七寶金冠. 칠보로 장식한 금관.  
 1444) 前後不見 初面이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  
 1445)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광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1446) 引導還生.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도를 깨치게 하여, 다시 태어나게 함.  
 1447)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1448) 還世上. 세상으로 돌아옴.  
 1449) 어둡침침. 어둡고 컴컴함.  
 1450)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1451)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 1452) 興盡悲來 苦盡甘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오고, 고통이 다하면 기쁜 일이 돌아온다.
- 1453) 나를.
- 1454) 照臨. 해나 달 따위가 위에서 내리비침.
- 1455)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태평한 세상.
- 1456) 不重生男重生女. 아들 낳기를 중하게 여기지 말고, 딸 낳기를 중히 여김.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구절.
- 1457) 太古적. 아주 오래된 옛날.
- 1458) 宋天子. 송나라의 천자. 송나라 황제.
- 1459) 萬萬歲. '만세'를 강조한 말.
- 1460)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461) 貴賓. 귀한 손님.
- 1462)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1463)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앓던 전각.
- 1464) 우두커니.
- 1465) 至於飛禽走獸까지도.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도.
- 1466) 罪狀.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 1467) 行次時. (웃어른이 차리고) 길을 나서서 갈 때.
- 1468) 五更시.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
- 1469)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1470)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1471)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1472) 人誰無過리오? 사람으로 누가 허물이 없으리오?
- 1473) 改則爲善이라. 마음을 고치면 선하게 된다.
- 1474) 알기 때문에.
- 1475) 是以. 이로써. 이 때문에.
- 1476) 쓰기.
- 1477)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요, 積惡之家에 必有餘殃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
- 1478) 天道. 하늘이 낸 도리나 법.
- 1479) 沈生員. 심 씨 성을 가진 선비. '생원'은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 1480)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481) 教旨. 임금의 명령.
- 1482) 貞烈夫人. 정렬(貞烈)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던 가자(加資).
- 1483) 封하시고.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시고.
- 1484) 別給賞賜. 따로 상을 내려줌.
- 1485) 職品. 벼슬의 품계.

- 1486) 올려.
- 1487)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488) 堂上.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일컫는 말.
- 1489) 千金賞. 상으로 내린 많은 재물.
- 1490) 稅役. 세금과 부역.
- 1491) 千千萬萬歲. 수 천 수 만 년. '만세'를 강조한 말.
- 1492) 百行. 모든 행실.
- 1493) 북소리의 의성어로, 판소리의 맨 끝에 부르는 관용구.